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 과제 연구

- ▶ 책임연구원 : 김영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조아미(명지대학교 교수)
이승하(위덕대학교 교수)
- ▶ 보조연구원 : 변해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보조원)

발 간 사 ■ ■ ■

최근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각종 현상을 보면 각종 문제행동이 청소년 전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점점더 낮아지는 저연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하거나 치료를 위한 정책을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적 투자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문제행동이 저연령화 되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행동의 원인을 밝혀서 청소년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유발하고, 확대시키는 금전지향 태도, 심리적 불안감,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업성취태도, 유해환경 접촉, 비도적 행동, 교사나 부모에 의한 폭력 등에 대하여 청소년의 발달 시기와 청소년 문제행동의 유형에 따라 개입할 수 있는 방법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청소년의 인권측면에서 참여를 촉진하는 법·제도적 개선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해결 역량을 함양하는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청소년이 생활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물리적 환경을 개선토록 하는 방안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 문제행동이 저연령화 되는 현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히 받아들이고,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적절한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개선 정책 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실천하는 것이 요청됩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청소년 문제행동의 저연령화 현상이 어떤 문제행동 영역에서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저연령화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 탐색을 통하여, 저연령화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 과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오늘날 청소년 문제행동은 사회전반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며, 더 큰 문제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상으로 시급한 정책적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한 대책은 중·고생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연령대인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교사의 지도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연령층은 문제행동의 피해 및 가해로부터 적절한 보호 및 치료를 제도권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대검찰청의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소년범죄 유형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산범죄의 경우 14세에서 16세까지의 청소년이 66%정도 증가하였으며, 강력범죄는 13세미만이 76%, 14세-16세가 500%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자의 범행동기를 보면 우발적 범죄, 호기심, 부주의가 가장 높으나, 2005년 이후에는 이익을 위한 욕심이 약 64배 증가하였고, 유혹 1.9배, 생활비 마련 2.3배, 유흥비 1.46배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과거의 범죄가 의도치 않게 발생한 경우라면 최근의 저연령층의 청소년들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범죄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저연령층(초등생, 중등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조사 결과 청소년 문제행동(가해, 피해, 가출, 무단결석, 유해장소출입, 자살, 게임중독 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심리적 불안감, 갈등적 부모관계, 갈등적 친구관계, 유해환경 접촉기회, 비도덕적 행동, 위계에 의한 폭력 경험이 밝혀졌다. 특히 위계에 의한 폭력(교사, 부모, 이웃)은

다른 모든 변수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청소년전기(초등)							청소년중기(중등)						
	가해 경험	피해 경험	가출 경험	무단 결석	유해 장소 출입	자살 시도	게임 중독	가해	피해	가출	무단 결석	유해 장소 출입	자살 시도	게임 중독
금전지향태도												+		-
심리적 불안감	+	+	+				+	+	+		+		+	
자아존중감		+												-
긍정적 부모관계			-				-			-	-			-
갈등적 부모관계			+	+			+			+				
긍정적 친구관계										+		-	+	
갈등적 친구관계	+	+						+	+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태도												-		-
유해 환경접촉기회					+		+					+	+	+
비도덕적 행동	+			+				+		+				+
위계에 의한 폭력 경험	+	+	+		+			+	+	+	+	+	+	+
계	+4	+4	+3	+2	+2	+1	+2	+4	+3	+4	+4	+2	+3	+3
			-1			-1	-1			-1	-2	-1	-3	-1

*는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임, +문제행동을 강화하는 요인, -는 문제행동을 완화하는 요인

선정된 문제행동요인은 청소년의 발달 시기 또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유형에 따라 정적(+) 혹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동일한 사건이나 영향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과제 개발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의 성장과정과 성장 시기에 따라 정책 수단과 방법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과 관련된 정책 추진은 우선순위를 교사와 부모의 폭력을 막는 방법과 폭력으로부터 저연령 청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정책수단, 그리고 가정과 교사 폭력피해로부터 청소년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에 두어야한다.

이와 더불어 주요원인으로 밝혀진 비도덕적 행동, 심리적 불안감, 갈등적인
부모관계 및 친구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개발 프로그램, 유해환경 개선 방안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주제어: 청소년문제행동, 저연령화, 청소년폭력, 교사폭력, 부모폭력, 긍정적 부모관계,
갈등적 부모관계, 긍정적 친구관계, 갈등적 친구관계, 청소년문제경험, 비도덕적행동, 자아
존중감, 심리적 스트레스, 경쟁 환경, 금전지향주의

연구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청소년 문제행동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며, 더 큰 문제는 문제를 일으키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상으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반면에 지금까지 대부분의 문제행동과 관련한 대책은 중·고 청소년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기청소년에 해당하는 초등생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교사지도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연령층의 피해 및 가해로부터의 적절한 보호를 제도권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는 청소년 문제행동의 저연령화 현상이 어떤 문제행동 영역에서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저연령화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 탐색을 통하여, 저연령화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 과제를 개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2.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검토를 위해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과 관련된 사회학적 측면과, 심리학적 측면에 대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음.

2) 2차 자료 분석

- 청소년의 저연령화 현상을 규명하고 그 동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10년간의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분석하고, 청소년유해환경실태조사와 경찰백서, 사회통계분석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청소년문제행동 유형별 저연령화 현상을 분석하였음.

3) 설문조사

- 전국의 초·중학생 6,359명을 대상으로 문제행동 경험에 대한 조사와 경쟁, 금전, 부모관계, 친구관계, 심리적 상태, 비도덕적 행동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문제행동 유형으로는 가해부분, 피해부분, 직위비행부분, 부적응행동부분으로 구분하여 13개 문제행동에 대한 경험을 조사하였음.

3. 주요결과

1) 청소년 문제행동의 저연령화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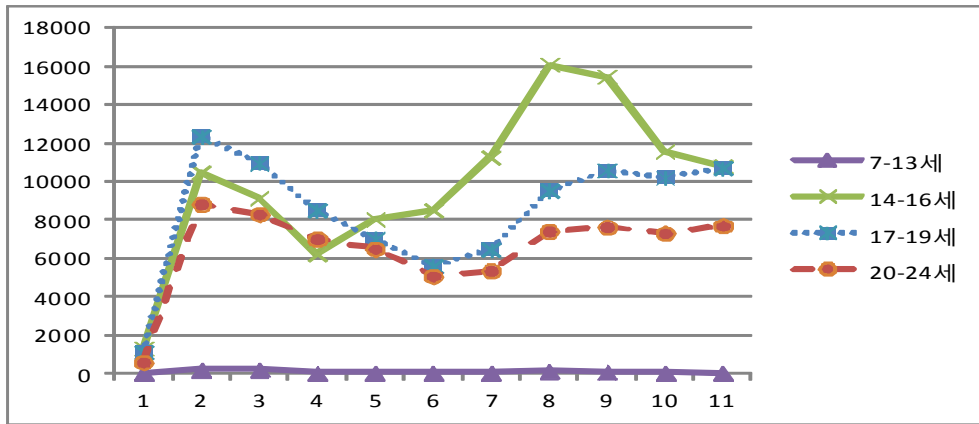
(1) 저연령화 실태

- 전국시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92.8% 증가함. 학년별로 초등생 363%, 중학생 187%, 고등학생은 184% 로 저연령층의 학교폭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구 분	2010	2011	2012
폭력가해	19,949명	26,925명	38,466명
학년별	2010	2012	
초등생	657명	2,390명	
중등생	14,179명	26,622명	
고등학생	5,113명	9,453명	

- 본원의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을 분석한 결과 재산범죄는 14세-16세가 66.6% 증가하였고, 과실범죄는 13세미만은 2001년 이후 줄어들고 있으나, 14세-16세는 272% 증가, 강력범죄는 13세미만은 76%증가, 14세-16세는 800%

증가하고 있음.



【년도별 학생범죄자 강력범죄 연령 변화 추이】

(2) 청소년의 범죄동기

- 소년범죄자의 범행동기를 보면 전체적인 경향은 2000년에서 2005년까지는 소년범죄자체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중요한 동기로는 우발적 범죄, 호기심, 부주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비와 유희비마련, 기타 이익을 위한 욕심으로 나타남.
- 2005년 이후 우발적 범죄나 호기심, 부주의는 약간 줄거나 정체를 보이고 있으나, 이익을 위한 욕심은 약 64배 증가, 유혹 1.9배, 생활비 마련 2.3배, 유희비 1.46배로 경제적 이익 범죄가 매우 높게 증가하고 있음. 이는 최근의 청소년 범죄는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2)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의 원인

(1) 문제행동 원인

- 문제행동 유형별 가장 영향력이 높은 원인은 아래와 같음

- 가해경험 : 초등생은 위계(교사, 부모, 이웃)에 의한 폭력 피해경험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가해 행동을 할 가능성이 2.069배 커지고, 확률적으로는 106.4%씩 증가함, 중등생은 2.819배, 확률적으로는 181.9%씩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피해경험 : 초등생은 위계(교사, 부모, 이웃)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한 단위 상승할수록 다른 문제의 피해 집단이 될 가능성이 2.245배 증가, 확률로는 124.5%씩 증가함. 중등생은 피해 집단이 될 가능성은 2.558배, 확률적으로는 155.8%씩 증가함.
- 가출 : 초등생 위계(교사, 부모, 이웃)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가출 가능성은 2.244배, 확률적으로는 124.4%씩 증가, 중등생은 2.250배, 확률적으로는 125%씩 확대 됨.
- 무단결석 : 초등생은 비도덕적 행동이 한 단위 증가하면 초등생의 무단결석은 1.059배, 확률적으로는 5.9%씩 증가함, 중등생은 위계(교사, 부모, 이웃)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무단결석 할 가능성이 2.320배, 확률적으로는 132%씩 확대 됨.
- 유해환경접촉 : 초등생 위계(교사, 부모, 이웃)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한 단위 상승할 때마다 유해 장소 출입이 가능성이 2.850배, 중등생은 5.260배, 확률적으로는 426%씩 증가 함.
- 자살시도 : 초등생 심리적 불안감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1.141배 커지고, 확률적으로는 16.9%씩 증가, 중등생은 위계(교사, 부모, 이웃)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중등생의 자살 시도 경험은 2.598배 커지고, 확률적으로는 158.9%씩 확대됨.
- 게임중독 : 초등생 유해환경 접촉기회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초등생의 게임중독 가능성은 1.160배, 확률적으로는 16%씩 증가, 중등생의 위계(교사, 부모, 이웃)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게임중독 가능성은 1.826배, 확률적으로 82.6%씩 증가 함.

(2) 저연령층과 중기청소년의 문제행동 요인 비교

- 전국조사 분석결과 청소년 문제행동 영향 요인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소년의 시기 혹은 문제행동 유형에 따라 (+)나 (-) 영향을 미치는 등 복합적으로 작용함. 이 결과는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동일한 사건이나 영향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며, 정책개발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의 성장과정과 성장 시기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적용방법이 달라져야함. 예를 들면 긍정적 친구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문제행동예방에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중등시기에는 같이 유해환경을 찾아가게 되는 결과를 만들기도 함

○ 청소년시기별 문제행동 요인 비교표

구분	청소년전기(초등)							청소년중기(중등)						
	가해 경험	피해 경험	가출 경험	무단 결석	유해 장소 출입	자살 시도	게임 중독	가해	피해	가출	무단 결석	유해 장소 출입	자살 시도	게임 중독
금전지향태도												+		-
심리적 불안감	+	+	+				+		+	+		+		+
자아존중감		+												-
긍정적 부모관계			-				-				-	-		-
갈등적 부모관계			+	+			+				+			
긍정적 친구관계											+		-	+
갈등적 친구관계	+	+							+	+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태도												-		-
유해 환경 접촉기회					+		+					+	+	+
비도덕적 행동	+			+					+		+			+
위계에 의한 폭력 경험	+	+	+		+				+	+	+	+	+	+
계	+4	+4	+3	+2	+2	+1	+2	+4	+3	+4	+4	+2	+3	+3
			-1			-1	-1			-1	-2	-1	-3	-1

*는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임, +문제행동을 강화하는 요인, -는 문제행동을 완화하는 요인

4. 정책 과제

1) 정책추진 방향

(1) 청소년의 사회적 유대 강화

○ 본 연구에서 저 연령층일수록 부모로부터 영향력이 매우 높음. 사회통제이론에 따르면

비행의 원인은 개인에게 애착, 신념, 헌신, 참여라는 사회적 유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어머니 애착이 중요함.

-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청소년이 부모를 포함한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

(2) 청소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정책 추진

- 연구결과 중 스트레스와 갈등은 문제행동의 중요요인이며, 일반긴장이론에서도 긴장은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임. 긴장을 유발시키는 요인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긴장을 촉진시키는 사항을 줄일 필요가 있음. 특히 부모와 교사로부터 청소년이 긴장을 적게 받도록 하는 정책이 요구됨

(3) 문제행동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은 저연령층부터 추진

- 대부분의 문제행동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사이에서 발생함.
- 자살시도 경험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가 큰 차이가 있으므로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필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사이에서 문제행동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초등학교 저학년, 문제행동 유형에 따라서는 그 이전에 예방 프로그램이 실시 필요

(4) 청소년이 스스로 자아존중감 및 도덕성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 수립

- 현재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은 언제든지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이나 비행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5) 멘토 및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시행

- 연구결과에서 친구나 선배, 성인이 올바르게 하는 일을 시키더라도 할 수 밖에 없다고

함.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멘토와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2) 법·제도적 추진 과제

(1) 소년복지지원법 개정

-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세부조항이 없음. 특히 제15조 “교육적 선도” 규정은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실효성을 위하여 지자체 별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요구됨.

(2) 초등교육법 개정

- 교사의 직접적인 체벌(물리적 체벌)의 금지원칙을 천명하는 방향으로 개정 필요함, 체벌불가피성은 ‘사회적 통념’이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불확정적 개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 교사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학생들에 대한 중대한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긴급성이 요구된 경우에 한해야 하며, 긴급성에 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학교인권·자치법」 제정 필요

- 학교현장의 구조적 모순과 폐쇄성을 점차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 학급회가 법적 기구가 되면 학급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고, 학교자치의 기초단위로서의 학급자치가 안정되면 학생들이 자치와 협동의 원리를 익히면서 민주적 시민이 되는 훈련과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됨.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생활규정에 따른 성인(교사)에 의해 훈육과 지도방법을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 민주적인 절차를 구현하게 될 것임

- 청소년도 학생이라는 신분 이전에 인간으로서 부여되는 기본권이 있으며, 지금까지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유보되어 있는 기본권을 되찾게 됨. 헌법과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과 여러 가지 권고들을 실천하는 것이며, 너무 당연한 것임

(4) 국가 차원의 청소년 도덕인성 함양 체계 구축

- 중앙 정부 내에 도덕인성 함양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담당부서’의 설치,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후속세대들의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유, 초, 중등학교 인성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평가할 담당부서를 적어도 국가 단위로 조직하는 것이 필요
-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을 잘 하는 교사가 각종 연구비지원, 포상, 학습연구년제 대상 선발에서 우대될 수 있도록 함. 또한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역량이 우수한 수석교사를 선발하여 수업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
- 도덕인성교육 실천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창의경영 학교지원사업 등 각종 재정 지원 대상 학교 선발 시 인성교육을 잘 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
- 직전교육의 차원에서 예비교사의 도덕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관련 교직과목 이수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 현직교사교육의 강화를 위해 현장 교원 대상의 학교폭력의 위기 대응 및 관리교육의 강화와 대응 매뉴얼 개발, 제작, 보급

3) 문제행동 예방 및 역량 함양 프로그램 구축

(1) 자아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첫째, 일반적 효능감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탐색해 보고 어려운 상황에서 잘 대처하는 방법을 고안, 둘째, 사회적 효능감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욕구충족은 인간관계 개선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이해하기라는 목표 아래 나와 상대방의 바람 탐색, 나와 상대방의 욕구를 5가지 기본욕구와 연결하고, 서로 만족시킬 방법을 찾고 발표하기 등의 활동을 수행

- 긍정적 심리조절 프로그램 운영 : 직접적으로 자기조절력,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 부모관계 회복 프로그램 : 영국의 Restorative Thinking Parenting Programme 사례를 참조하여 학생, 교사, 부모가 함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회복적 사법위원회에 등록된 과정임. 여기에 따르면 서로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제거, 의사소통방법, 자녀발달단계 등 관련기술을 습득
- 폭력 예방 프로그램 : 영국의 SEAL: Social and Emotional Aspects of Learning (사전예방적 접근: Proactive Strategies)에서는 사전 예방과 사후 예방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함.

4)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1) 학교 물리적 공간 개선

- 학교시설(특히 교실)을 방어적 시스템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학교의 물리적 환경 개선 시에 복도에서도 교실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강화유리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이는 과거 시행노력을 하였으나 교사의 사생활 침해 등의 반대로 설치가 보류되었으나, 교실이 교사의 사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또한 이 문제는 교무실을 활용하거나, 초등학교의 경우 교실내의 교탁을 활용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할 것임.
- 신규학교를 설립 시에는 건물을 一자 형태로 짓기보다는 마주보거나, 삼각 형태 등으로 구성하여 건물간에 상대쪽 공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실은 외부에서 감시가 가능한 개방적 공간으로, 화장실은 앞쪽으로 배치하여 우범 장소가 되는 것을 막도록 함.

(2) 지역사회 환경 공간 개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학원이나 교습소는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청소년이 도시 지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도시내에 청소년이 가지 않는 장소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청소년문제 및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소년문제나 범죄 등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유해환경의 추가적인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야함. 이를 위해 유해업소별로 유해성 기준을 마련하고, 가칭'청소년유해환경 감소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지역단위의 유해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범위와 내용	5
3. 연구방법	7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9
1. 청소년 발달과 문제행동	11
2.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및 이론적 논의	13
3.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변인들	22
III. 저연령화 실태 및 원인 분석	47
1.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추이 분석	49
2. 청소년 문제행동 변인 구성	65
IV. 설문 조사 결과	67
1. 설문조사 개요	69
2. 표본 설계	70
3. 조사결과	81
V. 결론 및 정책과제	149
1. 결론	151
2. 정책 추진 과제	157
참고문헌	179

부 록	197
1. 청소년 문제행동 조사 설문지	199
2.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기초통계표	209
3. 청소년 문제행동 카이검증표	324

표 목차

<표 III-1>	소년범죄 연령별 현황	49
<표 III-2>	범죄자 범행시 연령분석	50
<표 III-3>	특별법에 따른 범죄자 범행시 연령분석	51
<표 III-4>	학생 범죄자 범행시 연령분석	52
<표 III-5>	연도별 흡연 현황	53
<표 III-6>	연도별 음주 현황	54
<표 III-7>	학생범죄자 형법범계 연령분석	55
<표 III-8>	학생범죄자 재산범죄 연령분석	56
<표 III-9>	학생범죄자 강력범죄 연령분석	57
<표 III-10>	학생범죄자 위조범죄 연령분석	58
<표 III-11>	학생범죄자 풍속범죄 연령분석	59
<표 III-12>	학생범죄자 과실범죄 연령분석	60
<표 III-13>	학생범죄자 기타형법범죄 연령분석	61
<표 III-14>	소년 범죄자의 범행 동기	63
<표 III-15>	부모님과 의 갈등 원인	63
<표 III-16>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정도	64
<표 III-17>	청소년이 주로 고민하는 문제	65
<표 III-18>	청소년 문제행동 영역 구분 및 조사 내용	66
<표 IV-1>	설문조사 방법 개요	69
<표 IV-2>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수, 학교수	71
<표 IV-3>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수	72
<표 IV-4>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73
<표 IV-5>	학교급×학년별 모집단크기 및 목표 표본크기	75
<표 IV-6>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수	75

<표 IV-7>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수	76
<표 IV-8> 반올림에 의한 학교수의 조정	77
<표 IV-9> 응답자 배경 특성	82
<표 IV-10> 외모지향태도 문항의 빈도분석	83
<표 IV-11> 경쟁지향태도 문항의 빈도분석	84
<표 IV-12> 금전지향태도 문항의 빈도분석	84
<표 IV-13> 심리적 불안감 문항의 빈도분석	85
<표 IV-14> 자아존중감 문항의 빈도분석	86
<표 IV-15> 긍정적 부모관계 문항의 빈도분석	86
<표 IV-16> 갈등적 부모관계 문항의 빈도분석	87
<표 IV-17> 긍정적 친구관계 문항의 빈도분석	87
<표 IV-18> 갈등적 친구관계 문항의 빈도분석	88
<표 IV-19> 학업스트레스 문항의 빈도분석	88
<표 IV-20> 학업성취태도 문항의 빈도분석	89
<표 IV-21> 유해한 환경접촉 기회 문항의 빈도분석	89
<표 IV-22> 비도덕적 행동 문항의 빈도분석	90
<표 IV-23> 성별에 따른 중요한 문제행동 경험유무	91
<표 IV-24> 학교유형에 따른 중요한 문제행동 경험유무	92
<표 IV-25> 가족유형1에 따른 중요한 문제행동 경험유무	93
<표 IV-26> 학교유형에 따른 중요한 문제행동 경험 나이 비교	94
<표 IV-27> 신뢰도 분석	95
<표 IV-28> 초등생 가해경험집단 구분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100
<표 IV-29> 초등생 가해경험집단 구분 회귀 모형요약	100
<표 IV-30> 초등생 가해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101
<표 IV-31> 초등생 가해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esmer와 Lemeshow 검정 분할표	101

<표 IV-32> 초등생 가해경험 집단 구분 분류표	101
<표 IV-33> 초등생 가해경험에 대한 회귀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102
<표 IV-34> 중등생 가해경험집단 구분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103
<표 IV-35> 중등생 가해경험집단 구분 회귀 모형요약	103
<표 IV-36> 중등생 가해경험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	103
<표 IV-37> 중등생 가해경험 회귀모형에 대한 Hesmer와 Lemeshow 검정에 대한 분할표	104
<표 IV-38> 중등생 가해경험 집단 예측 분류표	104
<표 IV-39> 중등생 가해경험 대한 회귀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105
<표 IV-40> 초등생 피해경험집단 구분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105
<표 IV-41> 초등생 피해경험집단 구분 회귀 모형요약	106
<표 IV-42> 초등생 피해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	106
<표 IV-43> 초등생 피해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esmer와 Lemeshow 검정에 대한 분할표	106
<표 IV-44> 초등생 피해경험 집단 구분 분류표	107
<표 IV-45> 초등생 피해경험에 대한 회귀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108
<표 IV-46> 중등생 피해경험집단 구분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108
<표 IV-47> 중등생 피해경험집단 구분 회귀 모형요약	109
<표 IV-48> 중등생 피해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109
<표 IV-49> 중등생 피해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esmer와 Lemeshow 검정에 대한 분할표	109
<표 IV-50> 중등생 피해경험 집단 구분 분류표	110
<표 IV-51> 중등생 피해경험에 대한 회귀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111
<표 IV-52> 초등생 가출경험집단 구분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111
<표 IV-53> 초등생 가출경험집단 구분 회귀 모형요약	112
<표 IV-54> 초등생 가출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	112

<표 IV-55> 초등생 가출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esmer와 Lemeshow 검정에 대한 분할표	112
<표 IV-56> 초등생 가출경험 집단 구분 분류표	113
<표 IV-57> 초등생 가출경험에 대한 회귀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113
<표 IV-58> 중등생 가출경험집단 구분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114
<표 IV-59> 중등생 가출경험집단 구분 회귀 모형요약	115
<표 IV-60> 중등생 가출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115
<표 IV-61> 중등생 가출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esmer와 Lemeshow 검정에 대한 분할표	115
<표 IV-62> 중등생 가출경험 집단 구분 분류표	116
<표 IV-63> 중등생 가출경험에 대한 회귀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116
<표 IV-64> 초등생 무단결석경험집단 구분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	117
<표 IV-65> 초등생 무단결석경험집단 구분 회귀 모형요약	117
<표 IV-66> 초등생 무단결석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118
<표 IV-67> 초등생 무단결석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esmer와 Lemeshow 검정에 대한 분할표	118
<표 IV-68> 초등생 무단결석경험 집단 구분 분류표	119
<표 IV-69> 초등생 무단결석경험에 대한 회귀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119
<표 IV-70> 중등생 무단결석경험집단 구분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	120
<표 IV-71> 중등생 무단결석경험집단 구분 회귀 모형요약	120
<표 IV-72> 중등생 무단결석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120
<표 IV-73> 중등생 무단결석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esmer와 Lemeshow 검정에 대한 분할표	121
<표 IV-74> 중등생 무단결석경험 집단 구분 분류표	121

<표 IV-75> 중등생 무단결석경험에 대한 회귀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122
<표 IV-76> 초등생 유해장소 출입경험집단 구분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123
<표 IV-77> 초등생 유해장소 출입경험집단 구분 회귀 모형요약	123
<표 IV-78> 초등생 유해장소 출입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124
<표 IV-79> 초등생 유해장소 출입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esmer와 Lemeshow 검정에 대한 분할표	124
<표 IV-80> 초등생 유해장소 출입경험 집단 구분 분류표	124
<표 IV-81> 초등생 유해장소 출입경험에 대한 회귀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125
<표 IV-82> 중등생 유해장소 출입경험집단 구분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126
<표 IV-83> 중등생 유해장소 출입경험집단 구분 회귀 모형요약	126
<표 IV-84> 중등생 유해장소 출입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126
<표 IV-85> 중등생 유해장소 출입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esmer와 Lemeshow 검정에 대한 분할표	127
<표 IV-86> 중등생 유해장소 출입경험 집단 구분 분류표	127
<표 IV-87> 중등생 유해장소 출입경험에 대한 회귀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128
<표 IV-88> 초등생 자살시도경험집단 구분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129
<표 IV-89> 초등생 자살시도경험집단 구분 회귀 모형요약	129
<표 IV-90> 초등생 자살시도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129
<표 IV-91> 초등생 자살시도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esmer와 Lemeshow 검정에 대한 분할표	130
<표 IV-92> 초등생 자살시도경험 집단 구분 분류표	130

<표 IV-93>	초등생 자살시도경험에 대한 회귀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131
<표 IV-94>	중등생 자살시도경험집단 구분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131
<표 IV-95>	중등생 자살시도경험집단 구분 회귀 모형요약	131
<표 IV-96>	중등생 자살시도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132
<표 IV-97>	중등생 자살시도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esmer와 Lemeshow 검정에 대한 분할표	132
<표 IV-98>	중등생 자살시도경험 집단 구분 분류표	132
<표 IV-99>	중등생 자살시도경험에 대한 회귀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133
<표 IV-100>	초등생 게임중독경험집단 구분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134
<표 IV-101>	초등생 게임중독경험집단 구분 회귀 모형요약	134
<표 IV-102>	초등생 게임중독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135
<표 IV-103>	초등생 게임중독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esmer와 Lemeshow 검정에 대한 분할표	135
<표 IV-104>	초등생 게임중독경험 집단 구분 분류표	136
<표 IV-105>	초등생 게임중독경험에 대한 회귀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136
<표 IV-106>	중등생 게임중독경험집단 구분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137
<표 IV-107>	중등생 게임중독경험집단 구분 회귀 모형요약	137
<표 IV-108>	중등생 게임중독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137
<표 IV-109>	중등생 게임중독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esmer와 Lemeshow 검정에 대한 분할표	138
<표 IV-110>	중등생 게임중독경험 집단 구분 분류표	138
<표 IV-111>	중등생 게임중독경험에 대한 회귀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139
<표 IV-112>	청소년시기별 문제행동 결정 변수의 영향 방향 분석	140

그림 목차

[그림 II-1]	청소년 문제행동 이해의 틀	14
[그림 II-2]	범죄와 비행에 대한 제 이론	15
[그림 II-3]	비행관련 심리학 이론	16
[그림 II-4]	비행관련 사회학 이론	18
[그림 II-5]	자아강화이론에서 자아존중감과 비행의 관계	24
[그림 III-1]	연령별 소년범죄 변화추이	50
[그림 III-2]	년도별 범죄자 범행시 연령 변화 추이	51
[그림 III-3]	년도별 특별법 범죄자 범행시 연령 변화 추이	52
[그림 III-4]	년도별 학생 범죄자 연령 변화 추이	53
[그림 III-5]	년도별 흡연 변화 추이	54
[그림 III-6]	년도별 음주 변화 추이	55
[그림 III-7]	년도별 학생범죄자 형범범계 연령 변화 추이	56
[그림 III-8]	년도별 학생범죄자 재산범죄 연령 변화 추이	57
[그림 III-9]	년도별 학생범죄자 강력범죄 연령 변화 추이	58
[그림 III-10]	년도별 학생범죄자 위조범죄 연령 변화 추이	59
[그림 III-11]	년도별 학생범죄자 풍속범죄 연령 변화 추이	60
[그림 III-12]	년도별 학생범죄자 과실범죄 연령 변화 추이	61
[그림 III-13]	년도별 학생범죄자 기타형법범죄 연령 변화 추이	62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와 내용
3. 연구방법

제 1 장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많은 민간단체와 정부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청소년 문제는 과거와는 조금씩 행태를 달리하면서 보다 복잡한 형태로, 보다 다양한 유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청소년 문제는 폭력, 가출, 중도탈락, 집단따돌림, 성추행 및 성폭력, 인터넷과 게임 중독, 흡연, 음주 등 대중적인 문제이외에도 뺑 또는 가방 셔틀, 은어 또는 비어 사용 등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 문제들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과거 중, 고등학생에게서 만연되던 다양한 청소년문제의 발생연령이 하향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심각성이 깊어지고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전국시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서 2012년(매년 3월 1일~이듬해 2월 28일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92.8% 증가했다.

구 분	2010	2011	2012
폭력가해	19,949명	26,925명	38,466명

학년별	2010	2012
초등생	657명	2,390명
중등생	14,179명	26,622명
고등학생	5,113명	9,453명

* 전국시도교육청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

* 국회 안전석의원 발표자료(<http://news.nate.com/view/20130825n01262?mid=n0411>)

학년별로 2010년에서 2012년까지의 학교폭력 가해자 증가추이를 보면 초등생 363%, 중학생

* 김영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집필

187%, 고등학생은 184% 나타났다. 특히 초등생의 학교폭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볼 때 청소년문제행동의 저연령화 현상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2006년 8월 보건복지부는 전국 12개 시·8개 도 94개 초등학교 7천 7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불안·우울·공포·강박증 등 정서적 문제가 있는 학생이 20.1%,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행동 학생이 11.6%, 정서와 문제행동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학생은 25.8%였다. 즉, 우리나라 초등학교 4명 중 1명은 정서적으로나 행동측면에서 병적 징후를 가지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2006년 자료에서도 우리나라 12세~18세 청소년 중 33%가 스트레스를 많이 또는 대단히 많이 느끼고 있으며,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23.6%이다.

2011년 청소년유해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초 학교폭력 피해연령은 11.4세, 최초 가출연령은 13.6세, 최초 성관계 경험 연령은 14.6세, 흡입제 최초 경험연령 11.3세 등 각종 청소년문제의 최초 발생연령이 하향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해매체물에 대한 접촉경험도 최초 경험비율은 중학교 1학년생이 가장 많고, 온라인사행성게임과 청소년이용불가게임의 최초 경험비율은 초등학교 6학년생 이하가 가장 많은 등 유해매체물 접촉 연령도 점차 하향화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해 학자들은 청소년 문제의 발생이 청소년 개인의 내면적 요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학교, 사회 등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청소년 스스로가 이러한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된 요인들을 비행 청소년을 둘러싼 각 영역별로 크게 개인, 가정, 학교, 동료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 개인적 수준의 경우(떡어쓰기)행위자의 내재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 신체적 특성, 유전적 특성, 성격 특성 등 개인차 요인으로 구성이 된다.

둘째, 가정 및 학교 수준은 외재적 요인에 초점을 두는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주로 이루어져오고 있는데 부모의 배경, 부모와의 사회심리학적 관계 등을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학교 수준은 학교생활 부적응과 관련된 낮은 성취도, 낮은 학교 애착, 학습무능력, 학교에서의 잘못된 경험등과 깊은 관계를 지니며 이외에도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도 학생들의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영한, 2003).

마지막으로 동료 수준의 영향은 비행하위문화이론이나 문화전달이론 등을 통해 비교적 체계적

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비행교우의 영향력을 의의 있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비행은 특정 영역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고, 앞서 언급한 개인, 가정, 학교, 동료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행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착안하여 최근에는 청소년 문제 행동의 원인과 해결책은 단일요인이 아닌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사회 변동에 따라 그 유형과 양상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회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분석과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청소년 문제들과 관련하여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왔고, 청소년 문제 발생연령의 하향화 경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으나, 대부분 문제의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연구들은 중, 고등학교 학생 연령대에 초점을 두고 있거나, 또는 발생빈도나 최초 발생시기에만 초점을 두거나, 비행 및 범죄행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을 뿐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현상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추정과 저연령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 규명 및 저연령화 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 문제행동 유형별 저연령화 실태를 명확히 하고, 문제행동별 저연령화가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통계 자료를 통한 저연령화 실태 및 추이를 분석하고, 청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부모관계, 친구관계, 학업관계, 그리고 사회구조적 환경과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과정에 따른 불안, 도덕기준, 신체발달 요인을 중심으로 저연령 청소년의 문제행동과의 인과성을 규명하며, 이 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해결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범위와 내용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의 범위를 연구대상과 연구내용 측면에서 정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의 범위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로 보고 있으며, 이를 다시 초기청소년(초등생, 13세미만), 중기청소년(중·고생, 13-18세), 후기 청소년(19세-24세)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저연령 청소년은 초등학교 4·5·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그 이유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교육과정이 분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와 더불어 소년법에 촉법소년이 초등학교 4-6학년에 해당하는 만 10세-12세까지 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의 저연령화 실태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초등생과 중기청소년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고 있다.

둘째, 내용적 범위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문제행동에 대해 소년법에 따른 범죄행위,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금지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 행위, 학교생활규정에 따른 금지행위 중에서 자주 발생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문제행동을 선정하여 가해분야, 피해분야, 자기위험행위로 구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해분야는 폭력, 따돌림, 절도 등 3종, 피해분야는 폭력(부모-교사-이웃-친구), 따돌림, 협박, 성추행 및 성희롱 등 4종, 자기위험행위는 가출, 무단결석, 자살시도, 게임중독, 유해장소 출입 등 5종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문제행동의 저연령화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는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시기가 어려워지는 것과 문제행동이 저연령층에 많이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유추되지만,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문제행동의 유형별로 제도적 측면과 시간경과에 따라 문제행동이 없어지거나 새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문제행동 경험시기가 어려워지는 측면보다는 문제행동의 유형별로 저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청소년 문제의 저연령화 실태와 이에 대한 정책 과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수행하였다.

첫째, 청소년 문제행동 및 청소년비행, 저연령층 청소년문제에 관련된 연구동향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청소년 문제행동의 저연령화 원인을 탐색하였다.

둘째,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검찰청 범죄분석자료와 경찰백서, 청소년백서, 청소년유해환경실태조사,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결과를 시계열적 추이를 연령대별, 문제행동 비교 분석을 통하여 청소년 문제행동의 저연령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특히 저연령화 현상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청소년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저연령대 청소년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2차 자료 분석에서 연령보다는 문제행동의 유형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어떤 문제행동은 저연령화 현상이 뚜렷한 반면에, 어떤 문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저연령화의 원인 분석에서도 국가 통계자료에 대한 10년간의 추이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셋째, 전국을 대상으로 초등생과 중등생에 대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신체적·심리적·정서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구조적 관계를 문화접촉 및 수용 측면과 사회(학교, 지역사회)·유대 측면, 그리고 청소년문제의 확산 및 전달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개인적 측면에서 부모관계, 친구관계, 심리적 상태, 도덕성에 대해 조사 분석을 통하여 문제행동유형별 저연령화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넷째,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과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초기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실태 및 생활환경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간 수행되어 온 청소년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여 청소년기의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크게 이론탐색을 위한 문헌연구, 저연령화 추이분석을 위해 국가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한 2차 자료 분석, 전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이론탐색을 위한 문헌 연구에서는 청소년문제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청소년문제행동의 요인을 탐색하고 문제행동의 저연령화를 설명하는 이론적 토대를 도출하였다.

둘째,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를 조사를 위하여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분석을 통하여 청소년범죄 유형에 따른 저연령화 추이 분석과 범죄의 원인을 중심으로 저연령화 실태를 설명하였으며, 청소년 문제행동 중 음주와 흡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환경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리고 청소년정신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의 2012년 ‘청소년정신건강 실태 조사’ 분석, 그리고 청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찰백서 및 청소년백서를 분석 하였다.

셋째, 청소년 문제행동 유형별 저연령화 실태 및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청소년문제행동 영향변인 9개영역과 문제행동 유형별 경험에 대해 전국단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대상은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집락추출법으로 69,396명을 목표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을 표집하기 위해 1차 추출 단위를 학교로, 2차 추출 단위를 학급으로, 3차 추출 단위를 학생으로 하고 학교별 학생 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PPS)을 적용하였다.

넷째, 청소년 문제행동의 저연령화 추이 및 실태, 그리고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1. 청소년발달과 문제행동
2.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및
이론적 논의
3. 청소년문제행동 관련 변인들

제 2 장 *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1. 청소년 발달과 문제행동

우리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청소년은 아동과 어른의 사이에 낀 연령세대로서, 청소년이란 말을 사용하고 청소년기를 아동과 구분하여 별도로 설정하게 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청소년이나 청소년기는 아동과 어른의 '가운데에 낀' 그리고 그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는' '사이 및 전환기 세대'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발달심리학에서는 이를 전환기(transition period)라고 부르기도 한다(Dusek, 1987).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과도기로서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며 청소년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실제로 청소년기에는 신체구조, 외양, 목소리가 바뀌는 2차 성장을 거치게 되며 정신적으로는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며 정체성을 추구하기 위해 사색을 하거나 주위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도 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설계하기도 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잘 적응하지만 한편 일부 청소년들은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부적응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춘기가 시작되는 12, 13세경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17세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Allen, Moore, & Kupermine, 1997).

과도기로서 청소년기의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부적응의 문제는 청소년들의 행동으로 표출된다. 이와 같이 부적응의 문제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행동은 '비행', '일탈행동', '범죄' 등의 용어들로 표현되고 있다.

문제행동이라는 용어는 그 개념이 포괄적이며, 비행, 위험행동 등과 같은 용어와 혼용되고

* 김영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아미(명지대학교), 이승하(위덕대학교) 집필

있지만, 정확히 모두 같은 개념은 아니다. 청소년 비행은 문제행동보다 좁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법으로 금지하는 행동(예: 절도, 방화, 약물흡입)을 청소년이 행할 경우에 속하며, 문제행동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 뿐 아니라, 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반사회적이거나 공격적인 행위(예: 괴롭힘, 동물학대, 껌싸움 등)를 포함한다. 또한, 문제행동은 위험행동과 많은 관련이 있다. 위험행동(risk behavior)은 “부정적인 결과를 알아채지 못한 채 그 (부정적)결과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만을 가지고, 행해지는 행동” 이라고 정의하였다(Igra & Irwin, 1996).

위험행동은 때로 문제행동, 일탈, 비행등과 중복되기도 하지만, 범죄행동은 포함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행위를 하는 시기와 관련된다. 흡연, 음주, 음란물 접촉, 가출 등은 범죄도 아니며, 성인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위험행동이 아니지만, 그러한 행동을 한 행위자가 청소년이기에 일탈행동 혹은 위험행동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문제행동은 비행을 포함하며, 위험행동과는 오버랩 되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재분, 현주, 박효정(2003)이 “청소년이 행하는 잘못된 행동을 의미한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비행 또는 문제행동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연구방향에 따라 문제행동의 정의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다. 인간에 대한 생물학적 접근, 심리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생물학적 접근은 문제행동의 원인을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의 생리적 구조에서 찾으려고 하는 입장이다. 생물학적 입장에서는 문제행동을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인 사람과는 다른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며,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은 신체적 특성이나 생김새 등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심리학적 접근은 개인적 동기나 성격적, 정서적 특성에서 문제행동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입장이다. 심리학적 입장에서는 문제행동이 정상인과는 다른 성격이나 정서적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은 성격검사나 정서적 측면에 대한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사회학적 접근은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보려는 접근방법이다. 사회학적 입장에서는 가정환경, 가족 또는 가족 외의 구성원과의 관계, 사회·경제·문화적 환경 등 때문에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나타난다고 전제하며,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사회구조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 소년법에 따른 범죄행위,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금지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 행위, 학교생활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인 문제행동으로는 청소년들에게 발생빈도가 높고, 주변 영향력이 높은 문제행위를 선정하여 가해행동, 피해행동, 자기위험행동으로 구분한다.

2.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및 이론적 논의

1)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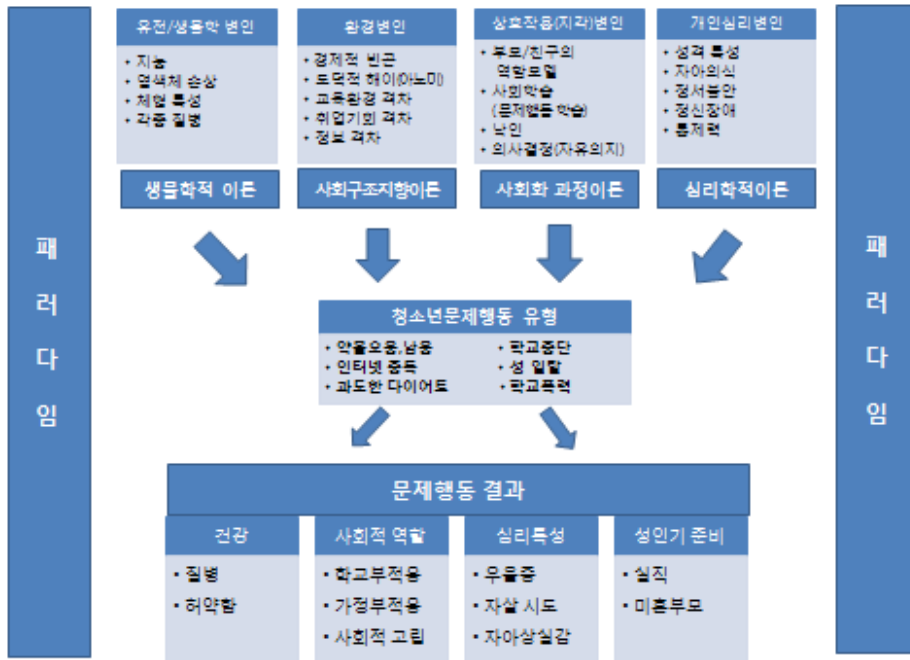
최근의 청소년 문제행동(비행)은 과거보다 다양하다. 여기에는 학업중단, 성관련 문제, 학교폭력, 가출, 인터넷 및 스마트 기기관련 문제, 약물중독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행동(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개인, 가정, 학교, 사회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적 측면에서는 청소년 문제행동(비행)의 원인으로 낮은 자아통제력이나 성격특성이 있을 수 있다. 이것보다 더 포괄적으로는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학적 접근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청소년 문제행동(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뿐만 아니라 결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이나 비행을 저지르게 된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는 것이다. 청소년 문제행동(비행)에 따른 결과도 개인, 가정, 학교, 사회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적 측면에서는 청소년 문제행동(비행)의 결과로 신체적 건강이 저하될 수 있고 심리적 건강의 저하(예, 우울증, 낮은 자아존중감 등)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물론, 청소년 문제행동(비행)을 둘러싼 원인과 결과는 명쾌하게 구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제행동(비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과 결과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은 김진화, 송병국, 고운미, 이채식, 최창욱, 임형백, 이창식, 김경준, 김진호, 권일남, 양승춘(2002)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김진화 외(2002)는 청소년 문제행동 유형을 제시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유전/생물학적 변인, 환경변인,

상호작용(지각) 변인, 개인심리 변인으로 보았다. 또한 청소년 문제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건강, 사회적 역할, 심리특성, 성인기 준비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을 각 변인으로 보면서 이를 이론과 접목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 변인은 사회구조지향이론, 개인심리 변인은 심리학적 이론 등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했다.

김진화 외(2002)가 제시한 청소년 문제행동 이해의 틀을 Bronbrenner의 이론을 부가하여 수정 보완하면 다음의 [그림 II-1]과 같은 모형으로 표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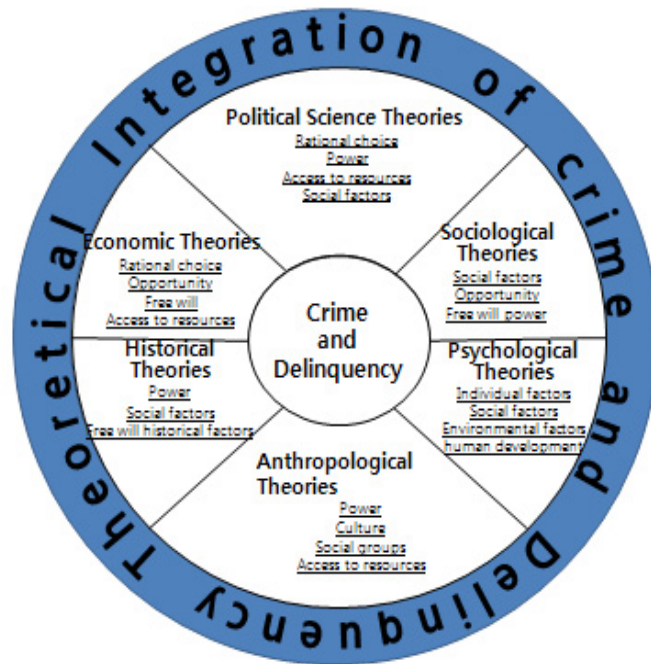


【그림 II-1】 청소년 문제행동 이해의 틀
출처: 김진화 외(2002), p.41.

2) 이론적 논의

청소년 문제행동(비행)에 대해서는 여러 패러다임이 존재한다. 기존의 입장은 사회학이나 심리학 패러다임이 대부분이지만 청소년 문제행동(비행)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 외에도 다양한

접근이 있다.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에서는 2011년 범죄와 비행에 관한 제 이론을 소개했다. 여기에는 범죄와 비행에 대한 심리학 이론, 인류학 이론, 정치학 이론, 역사학 이론, 사회학 이론, 경제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Cavanaugh(2011)는 다음의 [그림 II-2]와 같이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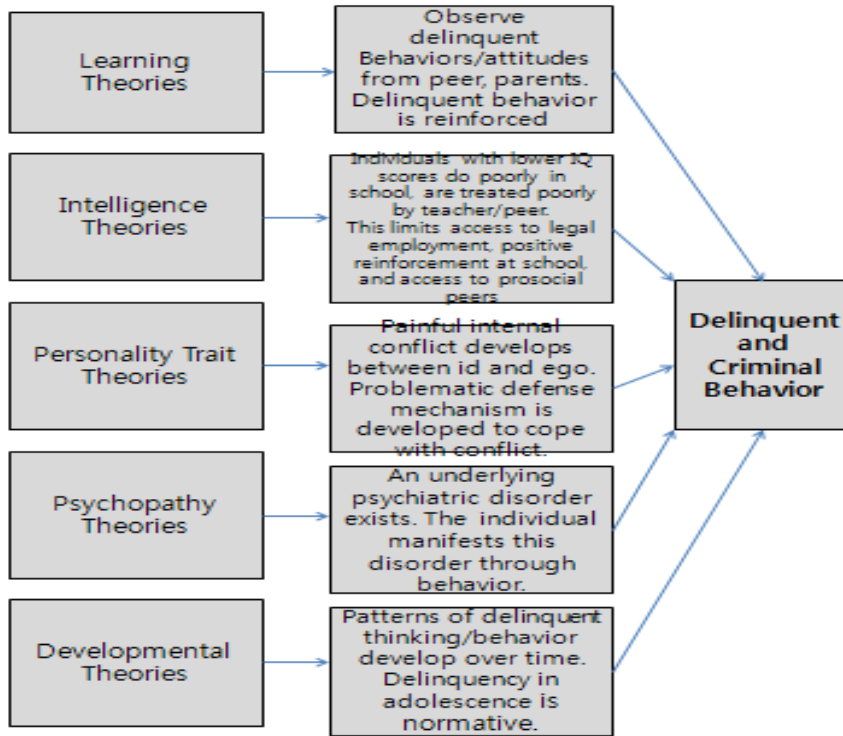
【그림 II-2】 범죄와 비행에 대한 제 이론
출처. Cavanaugh(2011), p. 313.

이와 같이 범죄와 비행에 관한 다양한 패러다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소한 알아야 하는 것은 심리학 이론과 사회학 이론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이 두 이론에 관해서만 논의하고자 한다. 심리학과 사회학은 비행에 대해 각각 미시적 및 거시적 시각에서 접근한다. 이것은 심리학 이론의 경우, 비행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반면, 사회학 이론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설명한다는 것이다.

(2) 심리학 이론

Moore(2011)는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에서 범죄와 비행에

관한 심리학 이론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제시했다. Moore(2011)는 심리학 이론 중에서 학습이론, 지능이론, 개인특성이론, 정신 병리적 이론, 인지 및 사회발달 이론을 범죄와 비행을 설명하는 심리학 이론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II-3】 비행관련 심리학 이론

출처: Moore(2011), p. 236.

그러나 청소년의 문제행동(비행)을 설명하는 심리학 이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청소년 비행(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이론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학습이론

청소년 문제행동(비행)과 관련된 학습이론에는 Thorndike의 효과의 법칙, Pavlov의 고전적 조건형성, Skinner의 조작적 조건형성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 혹은 사회인지이론은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Bandura의 이론에서는 개인, 환경,

행동의 상호작용이 핵심이다.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 데에는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가 모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행동에는 일탈적인 행동이나 비행도 모두 포함된다. 즉 어떤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 데에는 청소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가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대리강화의 개념도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Bandura의 이론은 이론 자체가 청소년의 비행을 잘 설명해주지만, 이 이론을 기초로 다른 이론이 발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예를 들어, So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도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에서 영향을 받았다(Moore, 2011).

또한 Skinner의 조작적 조건형성도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이론이 된다. 청소년이 비행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강화가 된다면 그 청소년은 다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비행이 강화되는 상황은 비행친구들의 지지나 인정을 받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② 개인특성이론

개인의 특성이 비행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성격과 비행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 전, Glueck과 Glueck(1950, 1952, Moore 2011 재인용)은 성격과 비행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덜 협동적이고, 더 의심이 많고, 더 파괴적이고, 더 방어적이고,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적대적 충동성을 지닌다고 했다. 이것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여전히 현재의 연구에서도 비행청소년은 위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공격성이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다수 있다(곽상은, 김춘경, 2013; 김지혜, 2013;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 2011). 뿐만 아니라 우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강혜원, 김영희, 2011; 김재엽, 남보영, 2012). 청소년의 스트레스도 비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희, 곽수란, 장은옥, 2010; 심은실, 김예혜, 2011).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개인의 정서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개인특성이론의 관점에서는 비행을 정서문제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 자신의 정서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그 결과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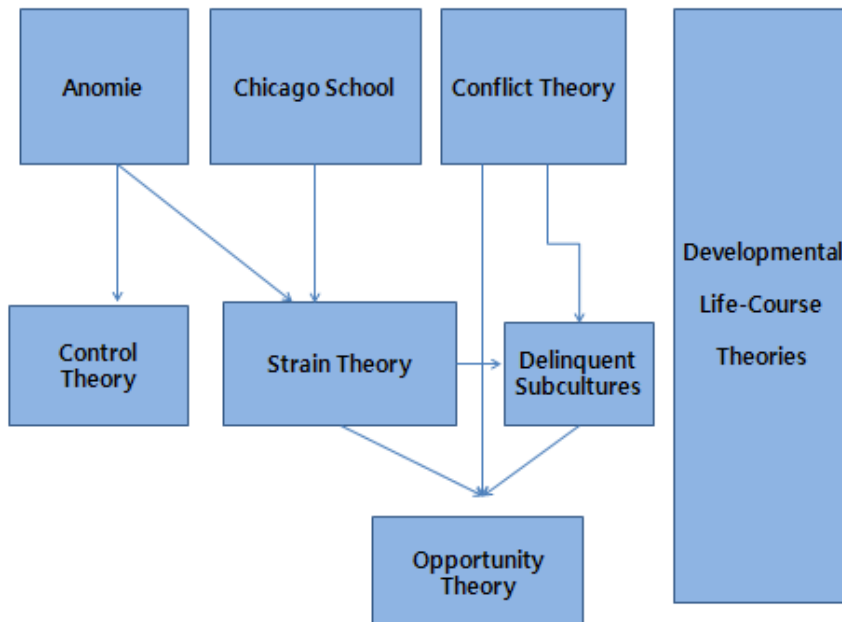
한편 최근에는 사이버 비행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정혜원, 2010; 이득연, 박자양, 이동훈, 2006; 김경호, 차은진, 2012).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전통적인 비행이론 이외에 새로운 이론이나 모델이 사이버 비행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개인특성이론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전통적인 비행(즉, 오프라인에서의 비행)과 관련 있는 변인이 사이버 비행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비행과 사이버 비행에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이나 모델이 필요한 실정이다.

(3) 사회학 이론

Zembroski(2011)는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에서 범죄와 비행에 관한 사회학 이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노미이론, 차별접촉이론, 긴장이론, 하위문화이론, 기회이론, 사회통제이론, 갈등이론, 발달적 생애과정이론이 포함된다.

여기서는 비행관련 사회학 이론 중에서 사회통제이론과 일반긴장이론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제행동(비행)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 두 이론이 현재로서는 청소년 문제행동(비행)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회학 이론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두 이론은 일반긴장이론의 경우 위험요인, 그리고 사회통제이론의 경우 보호요인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Hart & Mueller, 2013). 이것은 청소년 문제행동(비행)에 대해 비교가능하면서도 다른 시각을 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림 II-4】 비행관련 사회학 이론

출처. Zembroski(2011), p.252.

①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 혹은 사회유대이론은 범죄학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이다. 60-70년도에는 Sutherland나 Cressey 등의 이론이 우세했으나 1980년도 중반부터는 Hirschi가 범죄학 분야의 학술지나 교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Wright, 1995, 2000). Hirschi는 1969년 *Causes of Delinquency*를 출판했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통제이론은 1964년 캘리포니아의 도시지역에 사는 백인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Hindelang, 2013). Hirschi는 대부분의 청소년, 특히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와의 유대가 약하면 문제행동이나 비행은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이것은 그와는 반대로 사회와의 유대가 강하면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이나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Hirschi(2002)에 따르면 청소년의 문제행동(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유대에는 애착, 헌신, 참여, 신념이 포함되어 있다. 애착은 부모나 개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즉, 친구, 교사 등)과의 정서적인 유대감 혹은 친밀함이다. 부모와의 애착을 예로 들면,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질, 부모의 감독 정도, 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의 양, 부모가 자녀의 친구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등을 들 수 있다. 부모와의 애착은 부모의 가치가 자녀에게 전달되어 자녀가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억제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Wright, Cullen, & Miller, 2001). 또한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된 아동이나 청소년은 그들과 가까운 사람의 사랑이나 존경심을 잃지 않으려고 문제행동이나 위험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Chapple, McQuillan, & Terceira, 2005).

참여는 청소년이 관습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물론 그냥 관습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비행예방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스포츠, 종교활동, 봉사활동과 같은 관습적인 활동이 좋다. 헌신은 현존하는 가치와 규범이 합법적이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정도이다(Booth, Farrell, & Varano, 2008). 헌신하는 청소년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청소년은 일탈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신념은 다른 사회적 유대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회적 규범과 법에 대한 수용 내지는 지지를 의미한다.

사회통제이론은 남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된 것이기 때문에 남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이 이론을 여자청소년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사회통제이론을 남녀 청소년에게 각각 적용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Chapple, McQuillan, & Terceira, 2005; Booth, Farrell, & Varano, 2008).

Hart와 Mueller(2012)는 성별이 학교와 학교비행, 신념과 학교비행, 헌신과 스포츠 활동 및 학교비행의 관계에 있어서 조절변인의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것은 학교비행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다른 모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성별에 따라 학교비행에 있어서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최근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을 확장 내지는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Hirschi는 학교 헌신뿐만 아니라 어머니 애착과 모니터링이 더 중요한 사회적 유대요인으로서 비행을 예방한다고 했다(Hirschi, 2004). Hindelang(2013)은 1971년 뉴욕 주의 시골지역 남녀 청소년들 대상으로 사회통제이론을 연구함으로써 Hirschi의 이론을 보완하고자 했다.

②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

Merton(1968, Froggio 2007 재인용)은 긴장과 비행을 연결시켜 설명한 첫 번째 학자라고 알려져 있다. Merton은 Cohen, Cloward와 Ohlin 등과 함께 전통적인 긴장이론들(traditional strain theories)을 제기했다. 이들의 전통적인 긴장이론들에서는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면, 개인이 비행을 저지르도록 하는 압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긴장이론들은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개인의 비행을 이끄는 압력(혹은 좌절)을 구조적으로만 설명했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Froggio, 2007; Bernard, 1987). 전통적인 긴장이론은 만일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이 긴장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성인들에게 더 중요하지 왜 청소년기에 비행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Agnew, 2012). 더욱이 전통적인 긴장이론은 이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70년대 이후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를 보완한 이론이 Agnew의 일반긴장이론이다. 일반긴장이론은 전통적인 긴장이론과 달리 이 이론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긴장이론 보다 문제행동의 설명 영역을 확장했다. 즉 일반긴장이론은 비행 혹은 범죄행동 이외에 섭식장애와 같은 문제행동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게 했다(Froggio, 2007).

Agnew는 1985년 “A revised stain theory of delinquency”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Agnew는 비행을 유발하는 긴장들에 대해서 설명했다. 전통적인 긴장이론과 달리 Agnew는 긴장의 유형에 사회구조적인 긴장뿐만 아니라 사회통제와 환경적 혐오를 포함시켰다. 또한 환경적 혐오는 분노를 매개로 해서 비행에 이끈다는 가정도 제시했다(Agnew, 1985). 이러한

가정을 연구한 결과, 부모의 처벌, 학교불만족, 모애착, 일탈적 신념 등이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Agnew, 1985). 특히 부모의 처벌과 학교불만족은 분노를 매개로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긴장이 유발하는 부정적인 감정에는 분노를 포함하여 우울, 공포가 있다(Agnew, 2006).

Agnew(1992)에 의하면, 긴장은 자신이 대우받기 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긴장은 이후 개인이 싫어하는 이벤트나 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Agnew, 2006). 여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는 것, 타인에게 싫거나 부정적인 방식으로 대우받는 것,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Agnew, 2006). 예를 들어, 얼마 전 아르바이트를 해서 산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것이 될 수 있다. 그 스마트폰에는 나에게 관한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 잃어버린 스마트폰엔 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산 것이고, 또한 내가 많은 정보를 담아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긴장을 유발시킨다.

긴장에는 객관적인 긴장과 주관적인 긴장이 있다. 객관적인 긴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벤트나 조건이고, 주관적인 긴장은 그 사람들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Agnew, 2001). 객관적인 긴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개인 특성, 개인 및 사회적 자원(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신념, 사회적지지), 생활환경과 같은 요인의 기능이다(Froggio, 2007). 또한 긴장에는 지금 경험하는 것 뿐 아니라 대리적인 긴장과 예측된 긴장도 포함된다. 대리적인 긴장은 가족이나 친구처럼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경험하는 긴장을 의미한다(Agnew, 2006).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가 물리적 공격을 받으면 대리적인 긴장이 개인을 화나게 하고 비행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예측된 긴장은 현재의 긴장이 미래에도 계속되거나 새로운 긴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개인의 기대이다(Agnew, 2006). 예측된 긴장은 자신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예측된 긴장도 대리적인 긴장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비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긴장의 어떤 측면이 비행을 유발할 수 있는가에 관해 Agnew(2001)는 긴장이 불공평하게 보여질 때, 긴장이 클 때, 낮은 사회통제와 관련이 되거나 그것에 의해 야기될 때, 긴장이 압력을 만들거나 비행에 가담하는 것의 유인책이 될 때라고 했다. 청소년 비행과 특별히 관계가 깊은 긴장으로는 부모의 거부, 지나치게 가혹한 훈육, 아동학대와 방관, 부정적인 학교경험(예, 낮은 성적, 교사와의 부정적인 관계), 친구 학대, 범죄피해, 차별, 노숙, 저소득 지역 거주 등이 있다(Agnew, 2001; 2012).

일반긴장이론에서는 이와 같은 긴장이 다음과 같이 비행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Agnew, 2006). 첫째, 비행은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긴장으로부터 도피하거나 긴장을 감소시키도록 한다. 둘째, 비행은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게 해준다.

또한 일반긴장이론은 아동이나 성인보다 청소년이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이유는 청소년이 비행으로 이끄는 긴장을 더 많이 경험하고, 이와 같은 긴장을 비행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Agnew, 2006). 청소년이 비행으로 이끄는 긴장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Agnew, 2006). 첫째, 청소년은 부정적인 감정특성과 낮은 통제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청소년은 사회통제가 낮다. 셋째, 청소년은 비행친구와 어울리는 경우가 많다. 넷째, 청소년은 아동이나 성인보다 더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다. 다섯째, 청소년은 성인이 가진 특권을 원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특권을 얻기가 어렵다. 청소년이 긴장을 비행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청소년은 문제해결능력과 사회기술이 부족하고, 권력과 돈과 같은 중요한 자원이 부족하고, 관습적인 사회적지지가 낮기 때문이다(Agnew, 2006).

3.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변인들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객관적 자아에 관한 평가이다(Rosenberg & Rosenberg, 1978). 여기에는 자기수용, 자아존중, 자기가치감이 포함된다(Rosenberg & Rosenberg, 1978).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자아존중감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모아왔다. 그것은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 우울, 불안, 비행 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Rosenberg, Schooler, & Schoenbach, 1989).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은 청소년 분야에서 중요한 변인들이 대부분인데, 특히 비행은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많이 연구되었다.

자아존중감 형성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이 있다. 그것은 반영된 평가, 사회적 비교(, 자기 귀인, 심리적 중요성이다(Rosenberg, 1979). Cooley(1912, Jang & Thornberry, 1998 재인용)의 거울 자아와 Mead(1934, Jang & Thornberry, 1998 재인용)의 역할취하기의 개념은 반영된 평가와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 자아존중감이 자신에게 중요한 다른 사람의 지각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사회적 비교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자기 귀인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심리적 중요성은 자신에 관한 어떤 요인은 다른 것보다 자기가치감에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아존중감 형성에 관한 네 가지 원칙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이 어떻게 해서 비행에 빠지고 부정적인 자기태도를 회피하고 긍정적인 자기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친구와 연합하는지를 설명해준다. 비행경험이 반영된 평가, 사회적 비교, 자기귀인을 향상시킨다면 그것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러한 경우 비행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Rosenberg & Rosenberg, 1978).

자아존중감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고,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유형화된다(장연심, 조아미, 2007; 정익중, 2006; 허균, 2011; Lee & Lee, 2011).

첫째, 자아존중감과 비행이 부적 관계에 있다는 연구이다. 대부분의 자아존중감과 비행의 관계 연구는 이 두 변인이 부적 관계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진혜민, 박병선, 배성우, 2011; 강혜원, 김영희, 2011; 김희화, 김경연, 2000; Faulkner & Adlaf, 2007). 즉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비행이 정적 관계에 있다는 연구이다. 이 유형의 연구는 많지는 않지만 장연심, 조아미(2007), Baumeister, Smart, Boden(1996) 등의 연구가 있다. 이것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비행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연구이다(이경남, 2000; 유영남, 1987; 장연심, 조아미, 2007; Wells & Rankin, 1983; Lee, Bell, & Watson, 2007).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이제까지 자아존중감이 비행과 관련이 있다는 이론이나 선행연구 결과와 달리 이 두 변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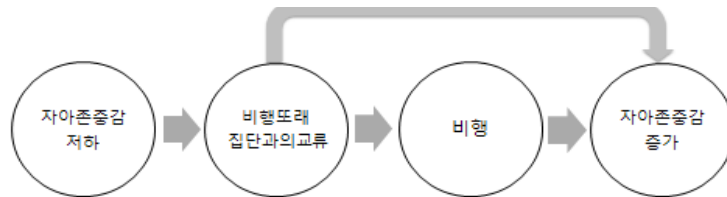
첫째와 둘째 연구결과는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이론과 Kaplan의 자아강화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자아존중감은 비행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비행은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게 되면 그 비행으로 인하여 자아존중감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하는 사회경험을 함으로써 불만족스러워 한다. 이러한 감정을 약화시키기 위해 많은 청소년들은 일탈적인 준거집단에 가입하게 된다. 이러한 비행집단은 긍정적인 반영된 평가, 사회적 비교, 자기 귀인을 청소년에게 제공한다(Rosenberg & Rosenberg, 1978).

한편, 정익중(2007)은 자아존중감과 비행의 관계를 상호적인 것으로 보고 낙인이론과 자아강화이론을 통합한 이론을 통하여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다. 낙인이론에서는 일차적 비행인

경비행으로 인해 낙인이 찍히면 자아존중감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낮아진 자아존중감은 이차적 비행인 중비행을 저지르게 한다는 것이다.

자아강화이론에서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이 비행친구와의 교류를 통해 비행을 저지르게 되고 그가 저지른 비행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정익중(2007)은 자신이 제시한 통합모델의 검증을 시도했다. 그 결과, 1차년도의 자아존중감은 2차년도의 중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차년도의 경비행은 2차년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아존중감과 비행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시사점을 주는 것이다. 즉, 비행의 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게 한다.



【그림 II-5】 자아강화이론에서 자아존중감과 비행의 관계
출처: 정익중(2007). p. 140.

이와 유사한 결과는 장연심, 조아미(2007)이나 박현수, 김도우, 이재영(2010)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박현수, 김도우, 이재영(2010)는 자아존중감이 경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비행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Kaplan은 비행을 통해 자아향상을 도모하려는 청소년들의 행동을 세 가지 기본적인 메카니즘으로 설명한 바 있다(Kaplan, 1975). 그것은 회피, 공격, 대체이다. 회피는 준거집단과 비밀탈 구성원과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기비하 경험과 태도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공격은 이러한 준거집단의 구조를 공격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다. 대체는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다른 준거를 가진 새로운 집단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종종 이 새 집단은 사회의 규범적인 체계에 따르면 일탈적이다.

자신의 손상된 자아존중감을 재확립하기 위해, 청소년은 자신을 무시한 사회나 집단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비행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존중하고 승인하는 일탈적인 하위문화에 빠지는 것이다(Rosenberg & Rosenberg, 1978).

여기에서 다른 하나의 이슈는 비행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자아존중감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아존중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를 수행해 왔다. 단지 제한적으로만 비행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도 했다. Kaplan(1975)이나 Rosenberg, Schooler, 그리고 Schoenbach(1989)의 연구는 비행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자아존중감이 비행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Rosenberg, Schooler, 그리고 Schoenbach(1989)는 연구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중하로 구분한 뒤, 각 집단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비행에, 혹은 비행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했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사회경제적 지위 집단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행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단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화, 김경연(2000)은 비행과 자아존중감간의 인과적 관계에 관해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한 바 있다. 그 결과, 비행은 자아존중감 전체와 그 하위영역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존중감은 가정적 자아를 제외하고는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행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아존중감은 중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정익중(2007)의 연구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부모애착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가정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설명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그 중에서도 부모와의 애착은 여러 이론가들이 비행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 부족한 부모애착은 비행의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은 애착이론과 사회통제이론에서 논의되었다.

애착은 Bowlby가 처음 사용한 개념인데, 이것은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의미한다. 유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대부분 부모, 그 중에서도 어머니이다. 그 외에 양육자가 애착을 형성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부모와 분리된 유아는 강한 긴장을 느끼기 때문에 부모, 특히 어머니와 분리되는 유아는 울고 어머니에게 매달린다. 이것은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유아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만일 부모애착이 유아기때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공격성이나 비행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Bowlby, 1973 Hoeve, Stams, van der Put, Dubas,

van der Laan, & Gerris, 2012 재인용).

애착은 또한 애착유형과 비행의 연관시켜 연구되기도 한다. 애착유형에는 안정형, 무시형, 몰입형, 두려움형의 네 가지가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애착유형 중에서 몰입형이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옥정, 오윤희, 정현옥(2001)의 연구에서도 비행집단의 청소년은 정상집단이나 위험집단 청소년보다 안정형은 적고 몰입형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제이론에서는 비행을 억제하는 요소 중 하나로서 애착을 개념화했다. Hirschi에 의하면, 비행은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가 부족할 때 일어난다. 그 이유는 부모에게 강하게 애착이 형성되어 있는 청소년은 부모의 규범적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 애착의 질은 간접적인 부모통제로서의 기능을 한다. 즉 아동의 관습적인 행동은 강한 부모-자녀간의 애착의 부산물로서 성취되는 것이다(Hirschi, 2002). 이러한 부모와의 유대가 약해지면 비행이 증가하게 된다.

Hirschi에 의하면 부모와의 애착은 다음과 같은 세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정혜원, 정동우, 2012). 그것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절대적 시간과 부모의 감독 정도, 부모-자녀 간 대화의 친밀성,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정과 존경심 정도이다.

Bowlby의 애착이론과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 모두 청소년의 비행에 있어서 애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두 이론의 차이점은 애착이론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이 건강한 발달과 비행을 포함한 정신병리적인 발달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사회통제이론에서는 사회통제로 비행을 설명하는 비정상적인 발달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Hoeve, Stams, van der Put, Dubas, van der Laan, & Gerris, 2012). 또한 애착이론에서는 애착에 있어서 정서적 유대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조건인 반면 사회통제이론에서는 필요하면서도 충분한 조건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다(Hoeve et al., 2012).

한편, 이 두 이론 이외에도 부모애착과 청소년 비행에 관한 설명을 해주는 이론이 있다. 그것은 일반긴장이론이다. 일반긴장이론에서는 부모에 대한 낮은 수준의 애착이 긴장이다. 이러한 긴장은 다시 부정적인 정서를 통해 비행을 유발한다. 그러나 긴장이 항상 비행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지지, 사회통제, 대처기술(Agnew, 1992),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비행친구와의 접촉(Hoffmann & Miller, 1998) 등과 같은 조건변인이 작용을 한다. 이것은 애착과 비행 사이의 매개변인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후속연구를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다.

Hoeve 등(2012)은 부모애착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63편의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부모와의 애착이 결핍된 청소년은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재경(2012)과 이주리(2011)는 종단자료를 통해 청소년 비행에 부모애착이 미치는 연구를 수행했다. 이재경(2012)는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5년간(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종단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1차년도 부모애착은 1차년도 비행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부모애착 변화율은 비행 변화율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학교 2학년 때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비행은 낮게 저지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부모애착이 빠르게 증가할수록 비행의 증가 속도는 그와는 반대로 느려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의 부모애착이 그 후의 비행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주리(2011)는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종단적 자료를 분석하여 청소년비행과 부모애착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부모애착은 1년 후의 청소년 비행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것을 친구애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을 각각 상하 집단으로 나눈 후 1년 후의 청소년비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친구애착의 정적인 영향은 부모애착이 하집단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와의 애착이 강한 청소년들은 친구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아도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이 두 변인의 관계에 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송지영, 박성연(2010)은 한국청소년패널자료 1차년도와 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아동의 문제행동이 초기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했다. 그 결과, 부모애착은 문제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정기원, 권광희(2006)는 부모애착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일반긴장이론을 근거로 연구했다. 연구결과, 일반긴장이론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즉,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비행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김효수, 김성천, 유서구(2010)는 부모애착이 현재의 비행뿐만 아니라 추후의 비행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기에서는 낙인이 부모애착과 비행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했다.

한편, 김재엽, 남보영(2012)은 여성가족부의 2010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의 자료를 사용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속하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애착이 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우울을 매개로 해서 비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애착은 다른 선행연구와는 달리 청소년의 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박현선, 이상균(2008)은 부모애착이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부모애착은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여자청소년은 부모애착이 조절효과가 있었다. 이것은 여자 청소년은 부모와의 애착 정도에 따라 비행친구와의 교류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지만, 남자청소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정혜원, 정동우(2012)는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사이버비행에도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즉 부모애착의 정도가 낮은 청소년일수록 사이버비행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3) 친구관계

사회통제이론에서는 청소년이 비행수준에 근거해서 친구를 선택한다고 하는 반면, 차별접촉이론에서는 청소년의 친구는 서로의 비행 수준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Knecht et al., 2009). 이 두 이론 중 어느 것이 친구와 비행의 관계를 더 잘 설명해주는가를 네덜란드의 544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연구한 결과, 청소년은 자신과 비교해 보았을 때 비행 수준이 유사한 사람을 친구로 선택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차별접촉이론보다는 사회통제이론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이다.

친구집단은 그 특성에 따라 청소년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가 없는 청소년은 친구가 비행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할 수 있지만 문제친구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발현되고 강화되는 것에 관련된다.

이는 동류집단 압력은 친구 압력으로 이해한다. 친구 압력(peer pressure)은 대개 십대들이 겪는데 친구집단들에게 인정받고 동화되기 위한 압박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수업을 빠지고 놀러가기로 했을 때 혼자서 수업을 듣겠다고 할 때, 친구 친구들이 무언에 주는 압박감, 스트레스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친구 그룹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이면 무작정 따라하는 것도 포함된다. 비록 그것이 자신에게 맞지 않고 살 능력이 없어도 친구그룹에서 떨어져 나가기 싫어서 맘에도 없는 선택을 하게 되며, 이를 친구 압력(peer pressure)이라 한다.

이러한 친구 압력에 대해 이은주(2009)는 청소년 문제행동에서 문제를 가진 친구가 친구 압력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여러 이론에서 제기되었지만 문제친구가 문제행동에 관계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Kaplan(1987)은 비행친구의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 조작적 조건형성, 사회학습이론을 활용했다. 그

이후 오랫동안 비행친구가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한 이의가 거의 없었고 연구의 방향도 Kaplan의 주장대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Haynie와 Osgood(2005)가 “Reconsidering peers and delinquency: How do peers matter?”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과연 친구가 비행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자원으로서는 역할을 하는가에 의문을 던졌다. 그들은 친구비행에 관한 과거의 연구들이 과장된 경향이 있고,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인들을 간과했다는 주장을 했다. 그 이후 친구와 비행의 관계에 관해서 일방적으로 비행친구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에서 “선택(selection)”과 “영향(influence)”으로 이분화 되었다(Rees & Pogarsky, 2011; Knecht, Snijders, Baerveldt, Steglich, & Raub, 2009).

비행친구와는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친구관계가 비행을 유발하기도 한다. Angrew의 일반긴장이론에서는 친구로부터의 부당한 대우가 긴장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긴장은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 비행이 발생한다.

송지영, 박성연(2010)은 비행친구가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주지만 문제행동도 비행친구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이것은 비행친구와 비행의 관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노성호(2006)는 1차년도 비행친구가 2차년도 청소년의 범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러나 3차년도의 범죄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1차년도의 범죄행동은 상관이 있다고 했다.

비행과 친구관계를 종단적 자료를 통해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있다. 이재경(2012)의 연구에서는 5년간의 종단적 자료를 통해 친구애착이 당시에는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후의 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정기원(2007).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중2 패널 1차년도 부터 3차년 도까지의 종단적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1차년도의 비행친구는 1차년도의 비행뿐만 아니라 2차년도, 3차년도의 비행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동시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서로 좀 더 유사해진다(이은주, 2009). 즉, 착한 청소년이 문제친구를 만나 문제청소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문제를 갖고 있던 청소년이 비슷한 문제청소년을 만나 서로의 행동을 지지하고 문제행동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사회와의 약한 유대감은 문제친구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문제행동의 빈번한 경험은 사회적 유대감을 더 취약하게 하며 일반청소년들과의 규범적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을 지지해주는 동료들을 찾는 과정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청소년과 친구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청소년 문제에 관한 종단적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문제 행동은 문제 친구와의 결속에 의해 나타난다고 한다. 문제 친구와의 유대는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뿐 아니라 문제 행동과 강한 관련성을 갖는다.

문제 친구와 문제 행동 간의 정적 관계에 대한 해석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첫 번째 시각은 파괴적 행동을 하는 문제 청소년이 비슷한 유형의 친구 집단을 선택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두 번째 시각은 문제 친구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문제 행동을 자극하게 된다는 견해이다.

Fergusson과 Horwood(1999)는 14세에서 21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문제 친구는 문제행동과 범죄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며 두번째 시각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에 Thornberry(1993)는 앞의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통합하는 상호작용 이론을 제안하고 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문제 친구는 문제행동을 강화하고, 다시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에 관여하는 친구를 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친구집단 또는 주변집단의 영향력은 현재 학교 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따돌림이나 집단폭행 등의 사례에서 볼 때 이는 집단역학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한 근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아직까지 문제친구가 문제행동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4) 개인 내 심리적 요인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 문제행동은 크게 내현적 문제(internalizing problems)와 외현적 문제(externalizing problems)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현적 문제는 위축, 회피, 강박관념과 같은 자기 지향적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정서조절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슬픔에 잠기고, 우울한 감정에 젖어있고, 지나치게 수줍어하거나 공포를 느끼는 특징을 지닌다. 대표적으로 우울, 불안, 신체적 호소(somatic complaints), 철회행동(withdrawal behavior)등이 이에 속한다. 외현적 문제는 억압된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행동조절능력에 문제를 지니는 것이다. 타인이나 외부를 지향하는 특징을 지니는데, 공격적 행위, 비행, 적대적 행동, 약물남용 등이다(Achenbach, 1991).

(1) 내면화된 문제

① 우울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한 기분을 겪는다. 특히 자신이 원하는 일에서 좌절을 겪게 되었을 때 이런 정서를 종종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상태가 모두 우울증이라고 볼 수 없다. 우울감과 우울증은 다른 것으로, 우울증은 우울한 상태가 최소 2주 이상 지속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정서적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다. 우울증의 증상은 슬픈 감정이 지속되고, 일상에서 흥미와 즐거움을 잃게 되며, 식욕을 잃어 체중이 줄어들거나 잠을 못자는 등 불면증에 시달리고, 행동이 매우 느리게 되거나 반대로 불안해하기도 한다. 보통 외로움, 울음, 나쁜 것에 대한 두려움,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가치 없다고 느끼며 예민하고 두렵고 죄책감 및 자기의식적인 행동을 하며 슬프고 걱정이 많다. 매사에 의욕이 없고 사는 것이 무가치하다는 느낌과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죄책감이 들기도 한다. 집중력도 낮아져서 성적이 떨어지며, 많은 경우 앞으로의 올 실패나 좌절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 (신현숙, 이경성, 이혜경, 신경수, 2004; 임영식, 2006 재인용).

우울은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한 대표적 문제적 정서(김헌수, 김현실, 1997; 임영식, 2006)로서, 광금주과 문은영(1993)의 연구에서는 다른 변인들(충동통제력, 연력, 성적성숙도, 자아중심성)을 통제하고도 청소년 비행을 예측하는 가장 설명력 높은 변인으로 보고되었으며, Craighead(1991)의 연구에서는 우울증이 있는 청소년의 20-30%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한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우울감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행동은 주변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잠시나마 자존감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김청송, 2004 재인용).

우울증은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다루거나 자신의 감정을 보다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만드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낮은 정서조절능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Cole, Michel, & Teti, 1994). 우울한 아동과 청소년은 또래들이 부정적 감정이 일었을 때 사용하는 전략, 즉 문제해결력이거나, 인지적 재구조화와 같은 전략들이 부족하여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Dodge & Garber, 1991). 또한, 우울증과 비행을 보이는 청소년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학업성취도, 약물남용, 대인관계문제 등을 보일 위험이 높아진다(e.g., Fergusson, Horwood, & Ridder, 2005;

Schaeffer et al., 2006). 우울증과 비행은 동시에 보이는 경우 우울증이나 비행만을 보이는 청소년보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훨씬 나쁜 예후를 보인다(Capaldi & Stoolmiller, 1999).

Silk, Steinberg, 와 Morris (2003)는 12세와 15세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과 우울증상,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우울증상과 문제행동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다른 부정적 정서(슬픔, 불안) 보다 약 두 배 높은 수치였다. 또한 화, 슬픔, 불안을 적게 보고할수록 우울증상과 문제행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 정서를 다스리는 방법과 문제행동이 관련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청소년들은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전략을 사용하는데,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사용한 전략은 매우 비효과적인 것이었다. 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해결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직접 통제(primary control)하는 방식이 아닌, 자신의 감정과 처한 상황을 부인(denial)하거나, 지나간 것을 자꾸 반추하는(rumination)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전략을 사용할수록 우울징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 와 Lerner (2011)는 청소년 우울증은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과 부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학교커리큘럼 뿐 아니라, 여러 행사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은 이러한 일로 바쁘기 때문에 비행이나 문제행동을 저지를 확률이 낮은 반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긍정적 정서가 낮고, 이에 따라 부정적 감정에 빠질 기회가 많으며, 때로 약물남용과 같은 순간적 쾌감을 줌으로 부정적 감정을 잊게 만드는 행위에 몰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학교에 대한 정서적인 유대감, 소속감은 학교참여와 긍정적 상관관이 있으며, 이는 우울증과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 대한 물리적인 참여와,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는 비행청소년의 보호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의 발병 시기는 아동기보다 청소년기에 그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며(곽금주, 문은영, 1993) 이 시기에는 성인의 발병률에 가까워진다. 우울증상의 발생률은 청소년기 전까지는 남녀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11세-15세 사이에는 여아가 더 높은 발병율을 보이며(Cole et al., 2002; Hankin et al., 1998), 이는 성인기 초기까지 지속된다(Holsen, Kraft, & Vitterso, 2000). 우울증은 특히 여자 청소년에게 있어 비행을 더 강하게 예측하는 요인이었다(Kofler et al., 2011). Obeidallah 와 Earls (1999)는 여자고등학생의 반사회적 행동과 우울증상을 연구하였는데, 우울증을 보인 학생일수록 반사회적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어쩌면 생물학적인 요인으로도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호르몬의 수준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Obeidallah, Brennan, Brookes-Gunn, & Earls, 2004에서 인용). 실제로 청소년기에는 우울증 발병의 주원인이 되는 낮은 세로토닌의 활성도를 보인다(Hillbrand, Waite, Miller, Spitz, & Lingswiler, 2000).

그런데 이러한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행동, 약물남용 등의 문제행동과 우울 중에 무엇이 먼저 나타나는지는 불확실하다. 먼저 문제행동이 우울에 선행할 수도 있다. 문제행동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스트레스 상황은 여학생들을 우울증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울증으로 인해 함께 나타나는 관련정서, 쉽게 분노하는 정서적 불안감과 스스로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감등은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끔 유도할 수도 있다(Obeidallah et al., 2004).

② 불안

불안도 우울과 마찬가지로 발달과정에 흔히 나타나는 정서로써,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관련되어 연구되어 왔다. 순간적인 두려움이나 공포를 넘어선 지나친 불안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게 되는데, 공포와 걱정, 각성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불길한 예감을 갖게 되면, 주관적 고통을 호소하게 된다.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 과제수행에 지장을 줄 때에는 불안장애로 진단받게 되는데, 불안징후나 불안장애를 보이는 청소년들은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문제행동에 가담하게 된다.

청소년기 불안은 사회적 기술발달을 방해하고 부적응을 초래하는 요인이며 다른 문제행동과도 많은 관련을 보인다. 불안장애를 지닌 청소년은 친구가 적고 내재화된 행동을 보였으며, (Rapee & Melville, 1997), 또한 불안감이 높으면 쉽게 짜증을 내고 좌절하거나 심리적 불편감을 잘 참지 못하여 돌발적인 행동과 적대적 태도를 나타내어 친구관계에 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신현숙 외 2004, 재인용). 신현숙외(2004)의 연구에서는 우울/불안 수준이 높은 비행청소년이 또래와의 관계문제, 교사와의 관계문제, 학업/주의문제, 인터넷 중독, 섭식문제, 충동/과다 행동의 영역에서 우울/불안수준이 낮은 청소년보다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여 불안과 다른 외현화된 문제와의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Marmostein와 동료들은 (2010) 불안의 종류에 따라 청소년의 약물남용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을 연구하였다. 불안은 사회화된 불안(social anxiety)과 일반화된 불안(generalized anxiety)과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회적 불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소심증으로 인해 과한 남용은 피하게 된다. 즉, 약물사용을 과하게 하면 일어나게 될 결과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당혹스러움이 두렵기 때문에, 과한남용은 피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일반화된 불안을 가진 사람은 생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상에 과도한 긴장감과 걱정을 갖기 때문에, 이로부터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리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과도한 남용 또한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감과 걱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약물사용이 야기할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를 삼갈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불안이 약물남용에 보호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강태신, 임영식, 이수정(2008)은 불안의 수준에 따라 비행행동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불안은 청소년의 알코올의존성과도 관련이 있다. 청소년기의 일반화된 불안은 알코올 문제를 증가시키는 반면 사회화된 불안은 알코올 문제를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Marmostein et al., 2010; Sartor, Lynskey, Heath, Jacob, & True, 2006). 알코올을 절제하는 사람이나 과음을 하는 사람 모두 중간수준의 음주를 하는 사람보다 높은 불안을 보였다 (Rodgers et al. 2000). 그러나 다른 연구는 불안 및 철회행동을 보이는 남자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낮은 음주와 알코올 의존성을 보였으며(Pardini, White, & Stouthamer-Loeber, 2007). 일반화된 불안을 가진 9-13세의 아동은 이후의 더 많은 알코올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Kaplow et al. 2001). 종합하자면 단순히 불안이 높다고 비행에 더 관여하기 보다는 불안의 수준과 유형에 따라 알코올의존성, 약물남용과는 복잡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2) 외현적 문제

① 아동기 공격성

공격성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외현적 요인이다. 청소년기의 공격성은 음주, 흡연, 우울, 자살생각, 폭력 등의 행동과 관련 있으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Tremblay et al., 2004). 아동기의 문제행동은 오랫동안 청소년 범죄나 성인범죄의 예측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Reiss와 Roth(1993)는 ‘공격적인 어린이가 폭력적인 청소년 및 어른이 되는 것은 매우 확실하다’ (p. 358) 고 하면서 청소년기의 비행을 예측하는 강한 예측요인으로 아동기 공격성을 들었다.

발달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아들은 의사소통방식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하여 종종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Tremblay, 2000). 유아기의 신체적 공격성은 성장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며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진다. 성장할수록 공격성은 감소하는 반면, 언어적공격성을 더 빈번히 사용하게 되며, 타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깨뜨리는 이른바

왕따와 같은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을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 중의 일부는 성장해서도 신체적 공격성을 비롯한 다양한 공격성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데 이럴 경우 문제행동이나 비행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공격적이었던 유아, 아동이 비행청소년이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연구들이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비행에 가담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흔히 어렸을 때에도 높은 공격성을 보였음을 나타내고 있어 청소년기의 비행을 예측할 수 있는 외현적인 요인으로 아동기의 공격성을 들고 있다 (예: Broidy et al., 2003; Caspi, Henry, McGee, Moffitt, & Silva, 1995).

심각한 청소년 폭력 범죄일수록 어렸을 때의 공격성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Farrington, 1978; Roff & Wirt, 1984). 만성적으로 심각하게 공격적인 어린이는 청소년기가 되면 폭력적인 비행(패싸움, 때리기, 총기소유) 뿐 아니라, 폭력적이지 않은 비행(절도, 무단침입, 기물파손)에 관여할 비율이 그렇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 높다 (Broidy et al., 2003). Nagin과 Tremblay(1999)는 공격성과 적대적이고 과잉행동적인 성향, 파괴적인 행동(disruptive behavior)에 만성적으로 관여하는 소년은 청소년기 비행에 관여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게다가 만성화된 적대감과 과잉행동을 통제하고도, 만성화된 신체적 공격성은 청소년기의 비행을 유의하게 예측하여, 다른 어떠한 행동보다도 공격성이 청소년 비행의 위험요인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현적 문제를 나타내는 비행이나 문제행동은 이 어느 한 순간에 발견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속성임을 보여준다. 심지어 유아기부터 이를 예측하기도 하는데, Caspi와 동료들(1995)은 유아, 아동기 기질과 청소년기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이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3세, 5세의 기질은 6년에서 12년 후의 문제행동과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절능력이 부족한 유아·아동들은 충동적인 표현을 조절하기 어려워하고, 문제해결력이 부족한 반면 부정적인 정서에는 매우 민감한 특징을 보였다. 정서표현이 매우 불안정하며, 쉽게 성마르고, 충동적이어서 행동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며, 의도적으로 거친 행동을 하기도 한다. 또한, 어려운 과제가 주어지면 위축되고, 주변의 지원이나 허락 없이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등의 수동성과 산만함도 보인다. 이는 이후의 내현화, 외현화문제와 관련이 있었는데, 과잉행동, 주의력결핍, 반사회적 행동, 품행장애와 같은 외현화 문제, 그리고 불안, 두려움과 같은 내현화 문제와도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외현화 문제가 내면화 문제와 더 밀접한 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접근성(approach)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자극이 주어졌을 때 강한 친근감과 자신감, 자기 의존성을 보이는 성향인데, 새로운 자극과 환경에 열정적으로 탐색하려는

의지를 가진 경우 접근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접근성이 좋은 유아, 아동일수록 청소년기에 내현적, 외현적 문제를 보이지 않았으며, 특히 이는 불안, 위축, 두려움과 같은 내현화 문제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는데, 특히 남아에서 더 높은 관계가 있었다. 반면, 나태한(sluggishness) 유아·아동은 무미건조한 정서, 수동성, 극도의 순응성을 보인다. 새롭고 흥미로운 상황에서도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철회하는 행동을 보이며, 스스로 동기화되지 않는다. 유아동기의 나태함을 보일수록, 청소년기에 불안, 주의력결핍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아에게서 더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반적인 비행 발달궤적으로 보면 청소년기는 비행이 증가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며,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더 빈번히 보인다. 성별로 보면 공격성은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더 높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게 문제행동을 야기한 요인으로 나타났다(남영옥, 김정남, 2010). Broidy et al(2003)은 3개국 청소년들의 종단연구를 통해, 아동기의 공격성과 청소년기의 비행 간의 연관을 조사하였는데, 남아의 경우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문제행동은 지속성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신체적 공격성에서 나타났다. 만성적인 신체적 공격성은 심지어 물리적이지 않은, 폭력적이지 않은 공격성의 형태로 비행에 가담하게 하였으며 특히 여아보다 남아에서 두드러졌다.

공격성은 발달적인 위협뿐 아니라 다른 비행과도 동시다발적인 관련이 있다. 신현숙 외(2004) 연구에서는 공격성이 높은 소년범들은 또래관계문제, 교사와의 관계문제, 진로문제, 학교부적응, 인터넷 중독, 섭식문제, 충동/과다행동, 비행, 폭력비행, 성폭력비행 및 약물비행등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 전반적인 문제행동과 연관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격성은 품행문제와 연관이 있으며 (Lahe & Waldman, 2007) 품행문제를 보이는 청소년의 51%가 높은 수준의 약물남용을 보여 여러 외현적 비행문제가 겹쳐 있음을 보여준다(Tiet et al., 2001).

(3) 내현화문제와 외현화 문제의 연관성

청소년의 내현화와 외현화 문제는 서로 독립적이기 보다는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강태신, 임영식, 이수정, 2008; 신현숙 외 2004). 예를 들어 우울증은 다른 장애와 동시에 발병하기도 하는데, 특히 불안장애와는 21-70%정도의 합병율(comorbidity)을 보이며(Kovacs, 1990; Rohde et al., 1991) 비행행동과는 23-30%의 합병율을 나타낸다(Craighead, 1991; Kovacs, 1990; Kovacs, Paulaskas, Gatsonis, & Richards, 1988). 우울과 품행장애와의 합병율 역시 높는데 대략 10%-35%

청소년들이 두 증상을 함께 보였다 (Angold, Costello, & Erkanli, 1999; Lahey, Miller, Gordon, & Riley, 1999; Kovacs et al., 1988).

우울,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와 공격적인 행동, 자살, 약물남용, 충동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와 같은 외면화 문제는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iller-Johnson, Lochman, Coie, Terry, & Hyman, 1998; McConaughy & Skiba, 1993). 몇몇 연구들은 단순히 내면화문제가 높을수록 외면화 문제를 일으킨다기보다는, 내면화문제의 수준에 따라 외면화와의 관련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강태신, 임영식, 2009; 강태신, 임영식, 이수정, 2008; Lambert, Ialongo, Boyd, & Cooley, 2005).

Walker, Lahey, 와 Russo(1991)의 연구에서는品行장애와 불안장애를 함께 진단받은 소년은品行장애만 진단받은 소년들보다 또래에 의해 덜 공격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정학을 받는 비율이나, 경찰과의 접촉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불안, 수줍음, 행동억제는 모두 비행감소와 연관이 있었다(Tremblay, Pihl, Vitaro, & Dobkin, 1994).

신현숙(2004)은 소년원에 있는 비행청소년 258명을 대상으로 우울, 불안, 공격성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우울/불안수준이 높은 남자 비행청소년은 우울/불안수준이 낮은 남자 비행청소년에 비하여 더욱 충동적이며 과잉행동을 보였으며, 진로문제, 학교부적응, 비행을 보였다. 그러나 여자 비행청소년은 우울/불안수준에 따른 외면화문제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우울/불안수준이 높은 남자 비행청소년들은 공격성수준에 따라 또래관계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우울/불안수준이 높은 여자 비행청소년들은 공격성이 높을 경우 공격성이 낮은 여자 비행청소년보다 또래문제를 더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우울/불안과 공격성의 합병이 또래관계에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강태신 외(2008)의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은 약물사용을 제외한 외면화문제 즉, 반사회성, 음주, 자살생각, 공격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는데, 우울은 외현적 문제와 선형적 관계를 보인 반면 불안은 곡선적 관계에 있었다. 즉 우울이 높을수록 반사회성, 음주, 자살생각, 공격적인 행동이 높아진 반면, 불안은 이보다 복잡한 관계를 보였다. 외면화 문제는 불안의 T점수는 69점까지 증가하다가, 70-79점까지는 감소하고, 다시 80점 이상부터는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어 어느 정도의 높은 불안 수준은 낮은 불안수준보다 오히려 비행행동을 감소시키는 역할, 즉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불안이 낮으면 두려움이 낮아서 위험행동을 하다가 불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긴장감과 소심함을 야기해 위험행동을 줄이게 되고, 극도의 불안수준은 오히려 작은 스트레스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문제행동을 다시 야기하게

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강태신 외, 2008).

5) 도덕적 요인

청소년 비행은 도덕성의 측면에 대한 비행학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왔다.

Kohlberg(1984), Blasi (1999), Nucci (2002)와 같은 인지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도덕적 행동은 공정함, 보편성, 관점조망 등의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 판단이 수반될 때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Kohlberg(1984) 는 가상 딜레마를 사용하여 참가자들을 인터뷰하고 대답의 유형에 따라 도덕적 판단을 전인습적, 인습적, 후인습적의 3수준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는 2단계를 부여하였다. 전인습적 수준에서는 외부에 의해 주어진 보상이나 처벌이나 규칙을 정하는 사람들의 권위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주로 11세 미만의 아동이 이 단계에 속한다고 보았다. 1, 2단계가 이 수준에 속하는데, 1단계는 벌과 복종에 의한 도덕성으로 행동에 대한 물리적, 신체적 결과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 적자생존의 원리, 힘의 원리가 가장 잘 드러난 단계이며 권력을 가진 자로부터 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 가치의 기준이 된다. 2단계는 도구적 상대주의로써 자기 자신이나 상대의 이익과 필요에 의한 행위가 기준이 된다. 상호성에 기준을 두긴 하지만 이것은 상대의 입장을 고려한 상대성이 아닌 오로지 물리적인 관점에서의 상호성 즉 '내가 내 등을 긁어주니, 나도 니 등을 긁어주겠다' 와 같은 철저한 비즈니스와 같은 상호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박보라, 2011).

인습적 수준에서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기대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한다. 전인습적 수준과는 달리 자신의 행동이 자신에게 미칠 결과와 상관없이 집단의 기대를 얼마큼 충족시켰느냐를 판단의 기준으로 여긴다. 또한 법과 규칙이 공동체의 질서를 지켜주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가치를 내면화한다. 12세~ 25세 미만의 청소년, 성인이 이 발달 단계를 많이 보인다. 3,4 단계가 이 수준에 속하는데 3단계는 '착한 어린이'를 지향하여 타인을 기쁘게 해주고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선(goodness) 이라 생각한다. 이 단계는 사회적인 관점 조망능력의 발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기 초기에 많이 보인다. 4단계는 3단계의 인간관계에서의 상호성을 좀 더 제도화된 체계로 그 맥락을 확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주변사람의 기준에 맞추는 것에서, 사회의 질서와 권위를 우선시하게 되는 것으로 그 규범의 범위가 넓어지며 법을 중요시 여긴다. 사람은 법의 체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여 법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라 판단하며, 이 단계는 청소년 후기에 발달하기 시작한다. 후인습적 수준에서는 사회적 규칙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기준, 외부의 명령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행동을 지향한다. 5,6단계가 이에 속하는데 5단계는 사회계약으로의 도덕성으로 사회적 법률과 규율은 상호협약에 의해 조정할 수 있는 계약의 것으로 본다. 법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할 시에는 이를 바꿀 수 있는 상대적인 것으로 본다(박보라, 2011). 마지막으로 6단계는 보편적 도덕원리를 지향하는 도덕성으로 인간존중, 공평함, 정의, 박애 등의 가치와 같이 인류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원리를 따르고자 한다. 콜버그는 아주 소수의 성인만이 이러한 단계에 이른다고 보았다.

많은 연구들은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은 저지르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미성숙한 도덕발달 단계를 보여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Blasi, 1980; Smetana, 1990; Nelson, Smith & Dodd, 1990). Kohlberg의 1수준의 해당하는 자기중심적인 시각이 청소년과 성인의 반사회적 행동의 위험요소가 되며 (Gibbs, 2003). 특히 낮은 도덕발달단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법을 어기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질 벌이나 부정적 결과를 피하게 해주거나(1단계) 도구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옳은 것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다(2단계). 반대로 성숙한 도덕단계는 비행행동을 막아주는 방어적인 역할(buffering)을 할 수 있다.

Jurkovic과 Prentice(1977)는 정신질환을 지닌 비행청소년들의 도덕, 인지적 발달을 일반청소년과 비교하였는데, 정신질환을 지닌 비행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미성숙한 도덕발달과 피아제의 초기 형식적 조작기의 사고를 나타냈으며,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관점조망능력이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Stams와 동료(2004)들은 메타분석을 통하여 비행청소년의 도덕적인 미성숙함, 그리고 도덕적 판단과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비행청소년의 도덕적 판단력은 일반청소년에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상이 15세 이상일 때, 남자 비행청소년일 때, 낮은 지능을 가진 경우, 소년원입소기간등과 관련하여 더욱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이 중에서도 도덕적 판단력이 비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구금기간에 따른 것이었는데, 구금된 청소년들은 대부분 정신 병리적인 증상(반사회적 성격장애)을 가진 비행청소년이었다. 구금된 경우와 정신병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도덕 판단력에 이러한 도덕적 판단력이 현저하게 낮았고, 이러한 낮은 판단력은 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Stams와 과 동료들의 연구에서는 비행의 유형, 문화적 배경(예: 권위주의적인 부모, 이민자 가족)은 도덕적 판단과 비행 간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도덕적 판단은 청소년 비행과 아주 강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 성별, 나이, 지능을 통제하고도 여전히 강력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모든 청소년이 도덕발달이 지연된 것은 아니다. Kohlberg와 Freundlich(1973)는 약물사용과 관련한 청소년 범죄자들은 다른 일반 비행청소년과 비교하여 높은 단계의 도덕 판단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Stams et al. 2004에서 인용). 비행의 유형이나 심각성, 비행을 하게 된 동기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비행청소년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그들의 도덕적 판단능력을 취급하는 것은 다소 위험한 것임을 보여준다(Arbuthnot, Gordon, & Jurkovic, 1987).

Petronio(1980)는 상습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2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청소년보다 더 높은 도덕 판단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은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그들의 지적능력을 사용하는데 Gibbs(1991)에 따르면, 합리화, 인지적 왜곡, 생각의 오류(예: 희생자 탓하기, 도덕적 위반행동을 최소화하고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 등)등의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도덕발달의 지연이 없이도 상습적인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반면, Barriga, Landau, Stinson, Liau와 Gibbs(2000)은 도덕적으로 지연된 발달을 보이는 비행청소년들은 오히려 인지적 왜곡을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비행청소년의 경우 낮은 도덕발달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보호시설에 구금된 경험이 비행청소년의 도덕 판단력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낮은 도덕 판단력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단순히 범죄를 야기한 여러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구금된 청소년들이 처한 소년원은 부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도덕적 환경을 양성하게 만들 수 있고, 이전에 비행집단에 가담하면서 영향 받은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은 도덕발달에 있어 자기결정권이나 관점조망능력들을 발달시킬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도덕발달이 늦어진 것일 수도 있다(Dishion, McCord, & Poulin, 1999).

사회인지이론가인 Bandura는 인간의 도덕적 이탈을 설명하는 6가지 기제를 제안하면서 어떠한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였다(Bandura, 1986, 2002).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탈행위로부터 스스로 제약을 가하면서 사회의 규범적 행동을 내면화한다. 그릇된 행동은 물리적인 위협(예: 배제, 체포, 처벌, 반감)뿐 아니라, 자신의 내적인 규칙(예: 수치, 후회, 자아개념에 대한 위협 등)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스스로 삼가게 된다. 반두라는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는 행동과 스스로 정한 내적인 규칙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은 이를 도덕적 이탈행위를 합리화하는 심리적 기제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 기제는 7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도덕적 정당화 (moral

justifications)이다. 이것은 자신이 저지른 해로운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도덕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 이를 수용 가능한 양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주로 폭력적인 수단을 정당화하는데 쓰이는데, 자신의 공격적 행위를 명예나 명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이루어진다. 종교간 갈등, 다툼이나 세계평화, 인류박애를 위한다고 하면서 일어나는 전쟁이 이에 속한다. 두 번째는 완곡어구의 사용(euphemistic labelling)이다.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보다 완곡한 어구를 사용함으로써 행위의 잘못됨이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경우이다. '대규모의 인종 학살'이라는 용어보다는 '우리 민족의 건전한 환경조성'이라는 용어가 긍정적으로 비춰진다. '세 번째는 유리한 비교(advantageous comparison)이다. 자신의 행위보다 훨씬 파렴치한 행위를 비교함으로써 정당함을 부여하는 것이다. '친구를 때렸지만 죽인 것은 아니니까'와 같은 것이 이에 속한다. 네 번째는 책임전가(displacement of responsibility)로써 이타행위를 사회적 압력이나, 권위 있는 타자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이 자신 행위의 실질적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여긴다. 이와 비슷하게 책임분산(diffusion of responsibility)이 있는데,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하나의 커다란 업무를 각자 분업을 해서 할 경우, 표면상으로는 모두들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집단따돌림이나 학교폭력에 의해 자살한 학생이 발생한 경우 어느 누구도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에 속한다. 여섯 번째는 결과의 무시와 왜곡(disregarding or distortion of consequences)으로,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해로운 결과를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최소화하며 믿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자신에 의해 피해를 입은 상대의 고통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죄책감을 회피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비인간화(dehumanization)로 자신이 피해를 입힌 상대에 대해 더 이상 느낌이나 감정을 지닌 인간으로 보지 않고 인간 이하의 사물로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잔인한 행위도 서슴치 않고 하게끔 한다. 마지막은 피해자 탓(attribution of blame)인데, 자신은 매우 결백한데 상대가 그런 행동을 하게끔 강요했다고 믿음으로써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다.

비행청소년의 반사회적인 행동은 이러한 도덕적 이탈과 관련이 있다(e.g., Bandura et al., 1996; Gini, 2006; Paciello et al., 2008). Shulman, Cauffman, Piquero와 Fagan(2011)은 중한 범죄경력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36개월에 걸쳐, 도덕적 이탈정도와 반사회적 행동을 연구하였는데, 도덕적 이탈정도가 낮아질수록 공식적인 비행기록이 감소함을 보여주었다. 도덕적 이탈과 비행은 시간에 따라 같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것은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은 비행을 그만둘 수 있는 요인임과 동시에, 반복된 비행이나 이탈행위는 이러한

도덕적 이탈 과정이 일상화가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행은 자신이 저지른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나 사회 도덕적 발달의 지연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알려져 왔지만 도덕적 정서의 영역에서는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도덕적 정서에서는 비행을 위반행동을 저지른 후에 느끼는 특정 정서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며, 도덕적 위반행동에 대한 정서적 반응(도덕적 정서)은 곧 도덕적 동기에 대한 지표가 된다고 하였다(Krettenauer & Eichler, 2006).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비도덕적인 행동에 가담한 경우, 이에 대해 자신이 겪을 정서가 덜 부정적이라고 기대하는 청소년은 비행행동에 더 관여한다. 자신의 관심사와 도덕적 가치가 충돌할 경우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를 해야 한다는 가치는 자신의 관심사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행동에 더 연루되게 되는 것이다. Krettenauer와 Eichler(2006)는 도덕적 정서와 비행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도덕적 정서는 청소년의 비행을 예측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성별, 나이, 사회적 규범 등을 통제하고도 유의했다.

6) 발달적 관점과 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위험요인

아동기에 나타난 비행문제는 만성적인 행동문제이며 시간이 지나도 특징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신경민 등(2010)의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의 비행을 예측하고자 하였는데, 3808명의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행동평가를 실시한 후, 6-8년 후 2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비행 성향은 성별, 부모학력, 가족구조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보다 아동의 개인적인 요인(문제행동)이 더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어, 아동기의 비행성향이 6-8년 이후의 비행성향을 예측함을 보고하였다. 결과적으로 청소년 비행문제는 아동기에서부터 효율적으로 문제행동 대상군을 선별하여 개입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내 심리성향을 청소년 비행의 예측요인으로 보는 것은 유의가 필요하다. 우울, 불안, 공격성과 같은 심리적 요인은 비행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비행에 의해 발생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요인은 단순히 개인의 성향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다섯 가지의 영역이 관여하는 것으로 본다. 사회적 환경, 인식된 환경, 성격, 다른 행동, 생물학적/유전적 영역인데, 이러한 영역은 각각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요소에 의해 중재되기도 하고, 때로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위험행동을 야기하기도 한다(Jessor, 1991). 청소년 개인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 위험행동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는 차이가 크며, 그 발생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위험행동을

중재하는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일이다. 즉, 문제행동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났다면 멘토를 제공하거나, 자존감을 높여주는 등의 단일요인 중재로는 효과를 보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Jessor, 1991).

발달심리병리학에서 본 보호요소는 문제행동을 조절, 완화, 차단하는 효과를 지닌 요인들로써, Jessor, Van Den Bos, Vanderryn, Costa와 Turbin(1995) 은 보호요인을 '문제행동에 개입할 가능성을 줄여주는 요인'들이라고 개념화하였다.

첫째는 직접적인 통제(direct personal or social control)로 문제행동에 반하는 규칙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동인지, 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저질렀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할지 예상해보는 행동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는 여타의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보호요인에 되는데 문제행동과 함께 발생할 수 없거나, 문제행동을 대체할 만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거나, 교회에 나가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셋째는 인습적인 행동에 개입하는 것이다. 학교에 충실한 친구들 혹은 대학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갖는 것 등이 위험행동에 개입하는 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Voydanoff & Donnelly, 1999). 비행청소년은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데에 미숙하기에 이러한 기술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반대로, 위험요인은 문제행동에 개입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Jessor et al., 1995). 좌절감, 실패에 대한 대처방법의 하나로 직접 야기(direct instigation)되기도 하고, 개인 내 취약성(예: 낮은 자존감)이 증가되었거나, 문제행동에 개입할 수 있는 주변 기회가 많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기도 한다(예: 반사회적인 또래그룹)(Jessor et al., 1995).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서로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보호요인이 생기면, 이것은 위험요인과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이 감소되게 된다.

청소년의 내현화, 외현화 문제는 다른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더 심각해진다. 이와 관련되어 가장 많이 연구된 변인으로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 환경이다.

첫째는 가정환경으로써 가족의 친밀감, 부모의 감독 또는 통제,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와의 불화로 인한 적대적 관계는 자녀의 우울증, 낮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었으며 (Garber, Robinson, & Valentiner, 1997). 부모-자녀의 건강한 관계와 자녀의 불안, 우울증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Bean, Barber, & Crane, 2006), 권위 있는 부모를 둔 청소년들은 약물사용이나 다른 비행의 보호요소가 되는 학업성취도, 자존감, 자기의존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Steinberg, 2001 참조).

또한 많은 연구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 경우 부족한 물질적 욕구를 다른 형태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물질적 가치에 대한 의식형성이 요구된다(전귀연, 1998).

둘째는 학교환경으로써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사회생활을 위한 규범을 내면화하는 곳으로 청소년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장소임과 동시에 지적, 정서적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준호, 2003). 교사에 대한 애착과 학업 수행과정에서 이해는 중요한 변수로 취급된다(Hirschi, 1969 이춘화, 2006 재인용).

셋째는 사회 환경으로써 주로 사회구조 이론에서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개인의 행동의 이탈을 환경 및 사회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비행이 사회를 포함한 여러 변인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는 문제행동 행위자들의 행동을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박탈에 대한 반응으로 특징짓는다. 즉, 사회적 성공(돈과 출세 등)으로 사회의 성공적인 목표에 대한 성취 기회의 결핍을 중시 한다(Farrington, 1999; Lipsey & Derzon, 1999).

사회구조이론 중 긴장이론에서는 개인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경제적 성공이나 목표달성을 하지 못할 때 생기는 긴장감이나 조절감이 비행을 유발시킨다고 본다. 사람들이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분히 사회 계층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았다. 상류계층과 다르게 하류계층의 사람들에게 사회적 성공은 훨씬 힘들어진다. 김준호 외(1989)는 사회경제적 변인과 공부압력 이 청소년 폭력과 절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개인과 환경 간의 행동이 상호작용의 핵심으로 청소년 문제행동 측면에서도 어떤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 데에는 청소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가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Bandura는 행동 또는 성격의 결정 요인으로 사회적 요소가 중요하며, 학습이 타인에 대한 모방과 관찰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간행동은 타인에 대한 관찰을 통해 자신의 준거기준으로 삼아 행동함으로써 학습된다. 따라서 미디어 등 사회적 환경에 의한 개인 적 인지가 청소년의 비행을 유발할 수 있다. 민지현(2008)의 연구에 따르면 성형, 다이어트 등 청소년의 외모와 관련된 가치관 형성과 신체 변형 욕구에 TV, 1인 미디어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청소년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행동은 어느 한 시점에서 갑자기

발생한다기보다는 한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인 경험이 쌓이면서 일어나는 결과물이며, 개인 내 심리적 변인이 환경과 이러한 경험에 관여함으로 문제행동을 악화 또는 악화시키기도 하는 것이다(Dodge & Pettit, 2003).

제 3 장

저연령화 실태 및 원인 분석

1.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추이 분석
2. 청소년 문제행동 변인 구성

[제 3 장 * 저연령화 실태 및 원인 분석]

1.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추이 분석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2차 자료 분석에서 먼저, 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표 Ⅲ-1>에서와 같이 일차적으로 소년층은 나이가 많을수록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 Ⅲ-1]을 보면 14세 미만은 2001년도 이후 2008년까지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그 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2008년 이후 통계집계방식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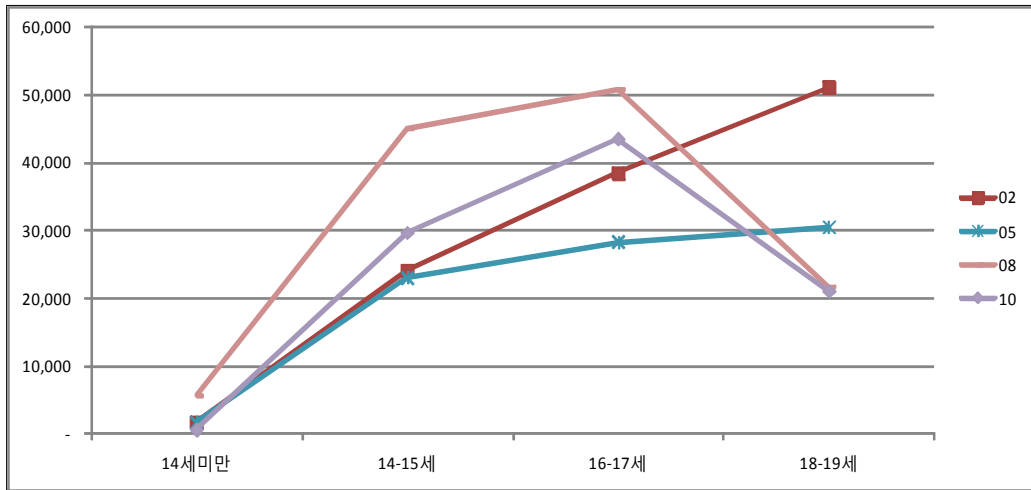
표 Ⅲ-1 소년범죄 연령별 현황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4세미만	1,378	1,667	1,376	1,503	1,679	1,718	2,602	5,547	2,615	621
14-15세	26,565	24,042	22,305	19,141	23,045	27,662	37,256	45,034	41,670	29,676
16-17세	43,653	38,426	32,524	27,247	28,292	31,408	41,373	50,766	51,345	43,504
18-19세	59,463	51,075	40,492	38,970	30,461	29,840	34,330	21,697	22,491	21,061
계	131,059	115,210	96,697	86,861	83,477	90,628	115,561	123,044	118,121	94,862

주) 2011 경찰백서, 경찰청

* '08년 이전 통계에서 14세미만은 12세-14세 미만이며, 08년 통계부터 14세 미만 항목은 10세-14세, 18세-19세 항목은 18세만 산출됨

* 김영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집필



【그림 III-1】 연령별 소년범죄 변화 추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범죄자의 범행시 연령은 2000년 이후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14세미만의 경우는 매우 큰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15세 이상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현재 15세인 중1학년의 청소년 문제행동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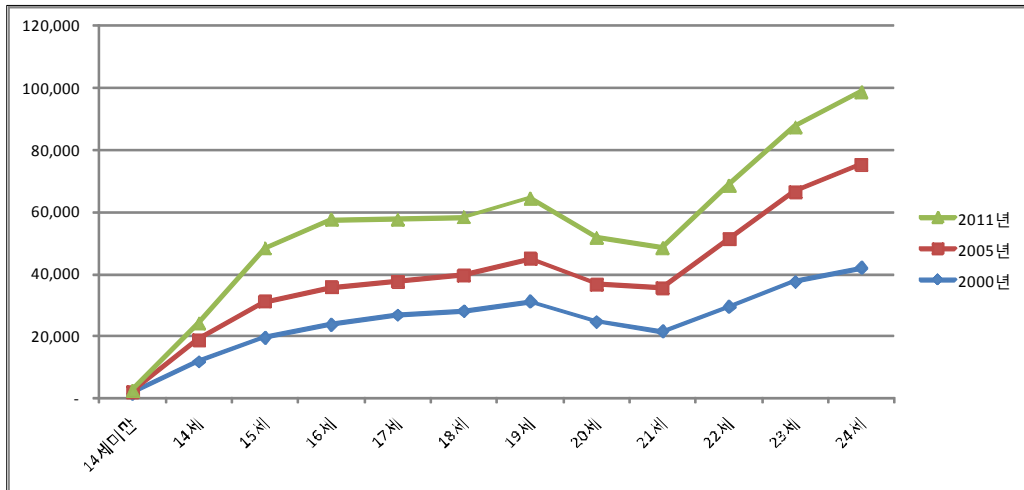
[그림 III-2]에서의 변화추이에서도 2000년도 이후 청소년의 범죄현상은 15세에서 18세의 범위가 초기 대학생 연령인 20세, 21세, 22세 보다 범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청소년 문제행동인 범죄가 청소년시기에 높기 때문에 저연령화 현상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14세 미만은 아직까지 증가현상을 보이지 않는다.

표 III-2 범죄자 범행시 연령 분석

구 분	14세 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000년	1,567	11,818	19,582	23,739	26,928	28,080	31,201	24,692	21,598	29,471	37,536	42,016
2005년	523	7,121	11,640	12,030	10,755	11,561	13,848	12,012	13,917	21,753	28,946	33,219
2011년	360	5,189	17,084	21,815	19,936	18,684	19,373	15,128	12,980	17,292	20,893	23,455

주) 범죄분석(2001, 2006, 2012), 대검찰청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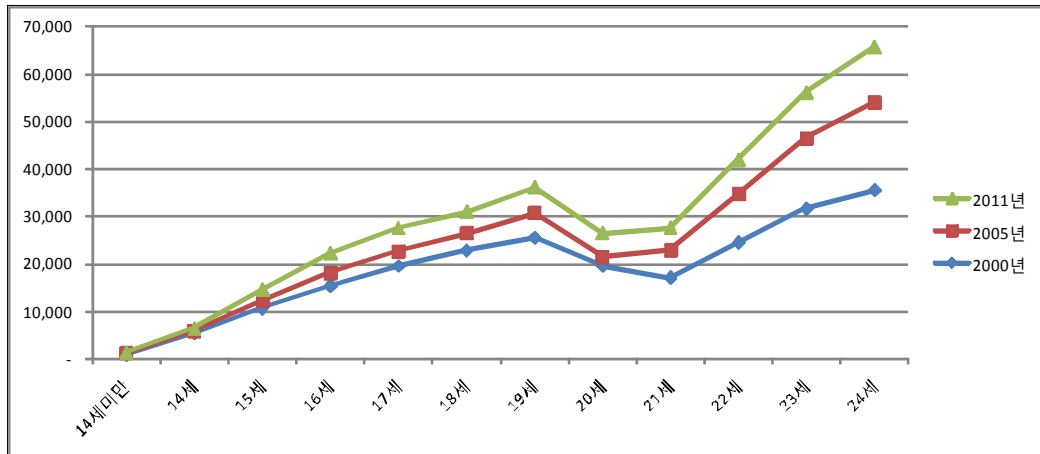
【그림 III-2】 년도별 범죄자 범행시 연령 변화 추이

특별법(정보보호특별법, 청소년보호등외)에 따른 범죄자 연령분석에서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17세, 18세, 19세 청소년의 범죄가 대학생 연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특별법에 따른 범죄자 범행시 연령 분석

구 분	14세 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000년	899	5,494	10,804	15,432	19,646	22,903	25,596	19,697	17,157	24,573	31,705	35,576
2005년	325	489	1,502	2,671	3,016	3,607	5,216	1,866	5,789	10,176	14,760	18,390
2011년	262	536	2,320	4,194	4,930	4,586	5,365	4,975	4,712	7,250	9,701	11,712

주) 범죄분석(2001, 2006, 2012), 대검찰청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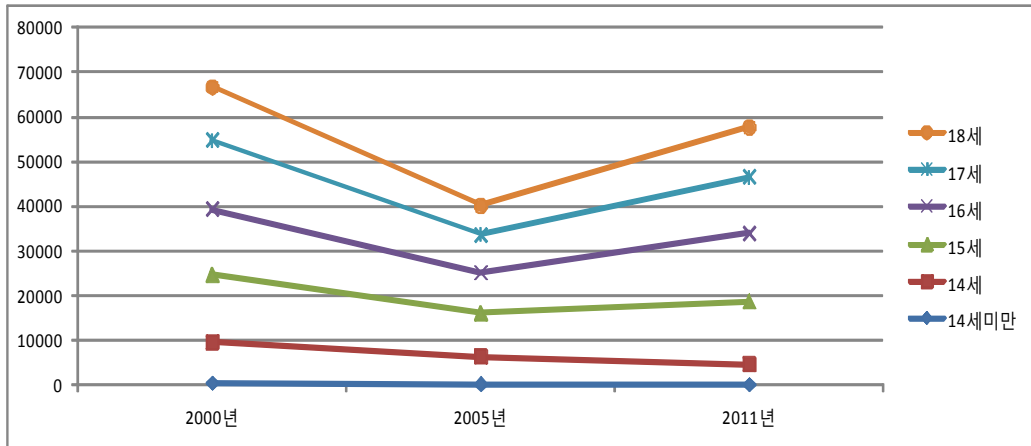
【그림 III-3】 년도별 특별법 범죄자 범행시 연령 변화 추이

<표 III-4>와 [그림 III-4]의 학생 범죄자 범행시 연령분석에서는 전체적인 경향은 연령이 높을수록 범죄를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4세까지는 2000년도 이후 현재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15세 이후 청소년은 2005년도를 기점으로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1학년이 청소년 문제행동을 촉발하는 기점이 되고 있으며, 이 연령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III-4 학생 범죄자 범행시 연령 분석

구 분	14세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2000년	512	9,126	15,051	14,718	15,393	11,932
2005년	203	6,244	9,674	9,083	8,496	6,446
2011년	123	4,504	14,077	15,326	12,597	11,045

주) 범죄분석(2001, 2006, 2012), 대검찰청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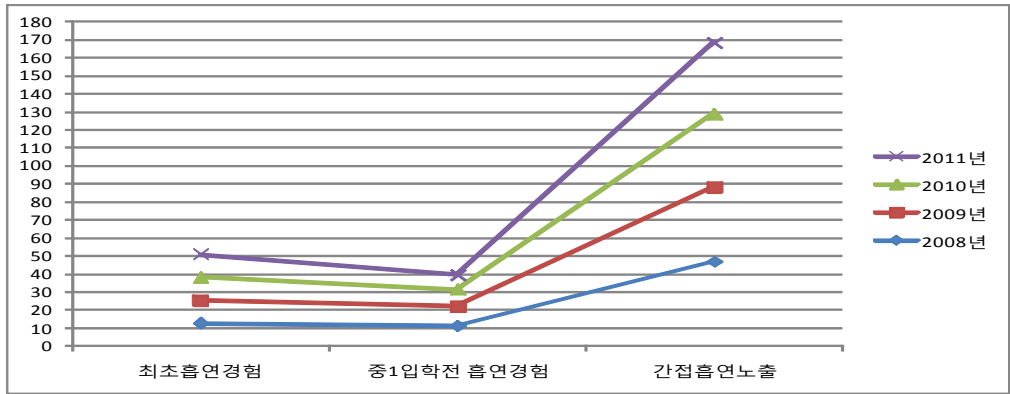
[그림 III-4] 연도별 학생 범죄자 연령 변화 추이

청소년 문제행동 중 흡연 현황에서는 흡연 경험 비율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저연령화 현상이 뚜렷하며, 특히 간접흡연경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표III-5와 그림III-5 참조).

표 III-5 연도별 흡연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최초흡연경험	12.7	12.7	12.7	12.8
중1입학전 흡연경험	11.2	10.7	9.5	8
간접흡연노출	46.8	41.2	40.8	39.6

주) 2012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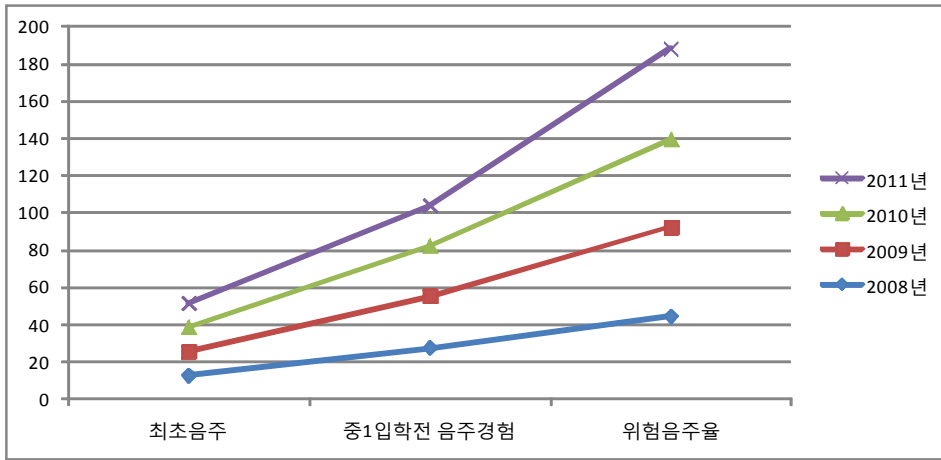
【그림 III-5】 연도별 흡연 변화 추이

연도별 음주현황에서도 <표 III-6>과 [그림 III-6]에서와 같이 최초음주시기와 음주경험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음주의 저연령화 현상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위험 음주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 집중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표 III-6 연도별 음주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최초음주	12.8	12.8	12.8	12.9
중1입학전 음주경험	27.6	27.8	26.8	21.4
위험음주율	44.6	47.4	47.2	48.8

주) 2012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그림 III-6】 년도별 음주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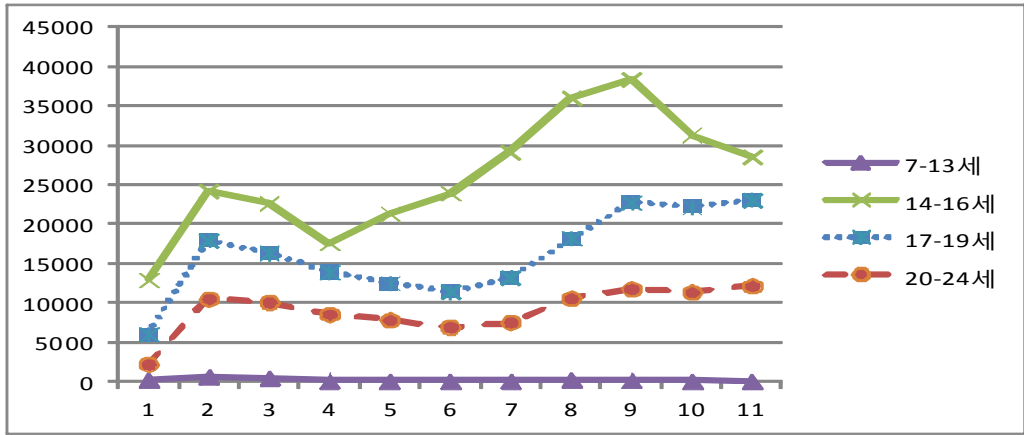
청소년 문제행동의 저연령화 현상에서 범죄유형별 현황은 <표 III-7>과 [그림 III-7]과 같다. 14세에서 16세 청소년의 형법범계를 보면 2001년은 12,926명에서 2011년은 28,536명으로 220%증가하였다.

표 III-7 학생범죄자 형법범계 연령분석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21,570 (100)	53,460 (100)	49,569 (100)	40,346 (100)	41,895 (100)	42,494 (100)	50,077 (100)	65,102 (100)	73,126 (100)	6,016 (100)	63,878 (100)
7-13세	299 (1.4)	666 (1.2)	460 (0.9)	197 (0.5)	153 (0.4)	155 (0.4)	167 (0.3)	280 (0.4)	216 (0.3)	126 (0.2)	85 (0.1)
14-16세	12,926 (59.9)	24,267 (45.4)	22,662 (45.7)	17,618 (43.7)	21,337 (50.9)	23,908 (56.3)	29,069 (58.1)	35,998 (55.3)	38,349 (52.4)	31,329 (48.2)	28,536 (44.7)
17-19세	6,064 (28.1)	17,964 (33.6)	16,334 (33.0)	13,919 (34.5)	12,539 (29.9)	11,447 (26.9)	13,255 (26.5)	18,208 (28.0)	22,744 (31.1)	22,167 (34.1)	23,060 (36.1)
20-24세	2,281 (10.6)	10,563 (19.8)	10,113 (20.4)	8,612 (21.3)	7,866 (18.8)	6,984 (16.4)	7,586 (15.1)	10,616 (16.3)	11,817 (16.2)	11,394 (17.5)	12,197 (19.1)

* 출처: 범죄분석(2002~2012), 대검찰청 자료 재구성

* 주: 1) () 안의 수치는 비율(%)을 나타냄
2) 미상은 제외



[그림 III-7] 연도별 학생범죄자 형범범계 연령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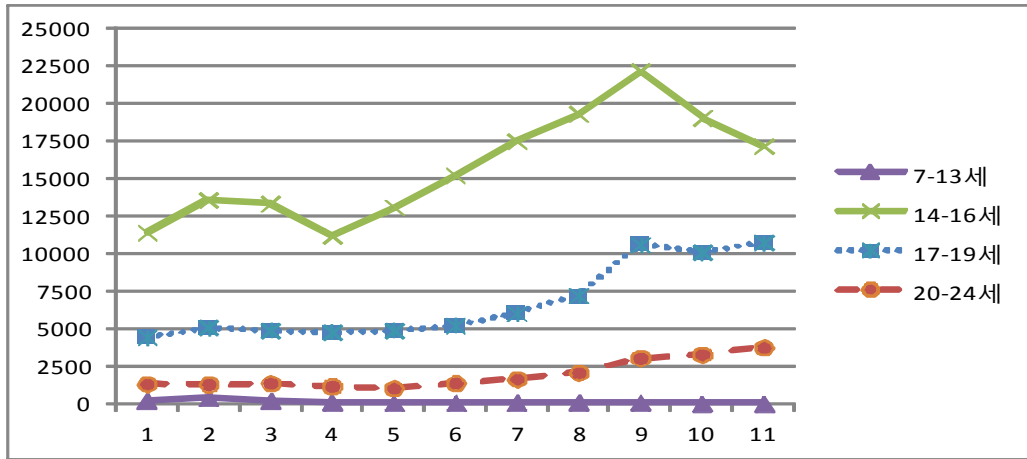
<표 III-8>과 [그림 III-8]과 같이 학생범죄자의 재산범죄의 추이를 보면 14세-16세 청소년이 2001년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8 학생범죄자 재산범죄 연령분석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17,286 (100)	20,435 (100)	19,884 (100)	17,332 (100)	19,154 (100)	21,975 (100)	25,338 (100)	28,735 (100)	35,908 (100)	32,527 (100)	31,671 (100)
7-13세	233 (1.3)	417 (2.0)	220 (1.1)	121 (0.7)	87 (0.5)	92 (0.4)	98 (0.4)	107 (0.4)	100 (0.3)	61 (0.2)	37 (0.1)
14-16세	11,412 (66.0)	13,602 (66.6)	13,333 (67.0)	11,215 (64.7)	13,097 (68.4)	15,223 (69.3)	17,511 (69.1)	19,303 (67.2)	22,138 (61.7)	19,054 (58.6)	17,136 (54.1)
17-19세	4,428 (25.6)	5,093 (24.9)	4,923 (24.8)	4,794 (27.7)	4,900 (25.6)	5,249 (23.9)	6,046 (23.9)	7,220 (25.1)	10,601 (29.5)	10,104 (31.1)	10,726 (33.9)
20-24세	1,344 (7.8)	1,323 (6.5)	1,408 (7.1)	1,202 (6.9)	1,070 (5.5)	1,411 (6.4)	1,683 (6.6)	2,105 (7.3)	3,069 (8.5)	3,308 (10.1)	3,772 (11.9)

* 출처: 범죄분석(2002~2012), 대검찰청 자료 재구성

* 주: 1) () 안의 수치는 비율(%)을 나타냄
2) 미상은 제외



【그림 Ⅲ-8】 년도별 학생범죄자 재산범죄 연령 변화 추이

<표 Ⅲ-9>와 [그림 Ⅲ-9]와 같이 학생범죄자의 강력범죄의 연령변화 추이를 보면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13세미만은 약 76%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14-16세 청소년의 경우는 약800%이상 증가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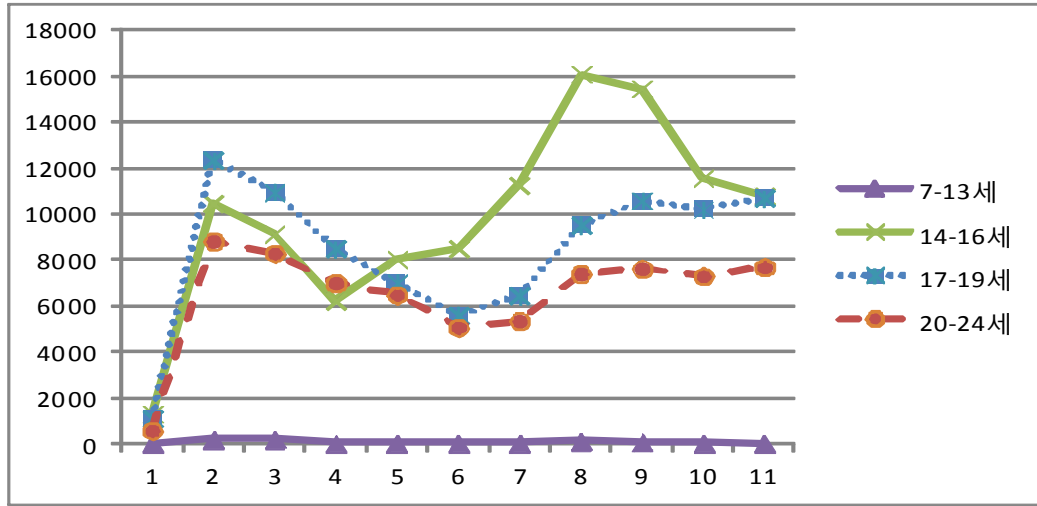
표 Ⅲ-9 학생범죄자 강력범죄 연령분석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3,096 (100)	31,850 (100)	28,606 (100)	21,824 (100)	21,652 (100)	19,255 (100)	23,156 (100)	33,162 (100)	33,754 (100)	29,138 (100)	29,212 (100)
7-13세	29 (0.9)	217 (0.7)	223 (0.8)	57 (0.3)	53 (0.3)	58 (0.3)	58 (0.3)	153 (0.5)	91 (0.3)	52 (0.2)	38 (0.1)
14-16세	1,335 (43.1)	10,485 (32.9)	9,134 (31.9)	6,258 (28.7)	8,055 (37.2)	8,486 (44.1)	11,268 (48.7)	16,077 (48.5)	15,450 (45.8)	11,577 (39.7)	10,803 (37.0)
17-19세	1,121 (36.2)	12,328 (38.7)	10,954 (38.3)	8,491 (38.9)	7,041 (32.5)	5,626 (29.2)	6,465 (27.9)	9,524 (28.7)	10,576 (31.3)	10,198 (35.0)	10,677 (36.6)
20-24세	611 (19.8)	8,820 (27.7)	8,295 (29.0)	7,018 (32.1)	6,503 (30.0)	5,085 (26.4)	5,365 (23.1)	7,408 (22.3)	7,637 (22.6)	7,311 (25.1)	7,694 (26.3)

* 출처: 범죄분석(2002~2012), 대검찰청 자료 재구성

* 주: 1) () 안의 수치는 비율(%)을 나타냄

2) 미상은 제외



【그림 Ⅲ-9】 연도별 학생범죄자 강력범죄 연령 변화 추이

<표 Ⅲ-10>과 [그림 Ⅲ-10]과 같이 범죄유형에서 학생범죄자의 위조범죄는 13세 미만은 차이가 없으나 14세-16세의 경우 2001년 이후 600%정도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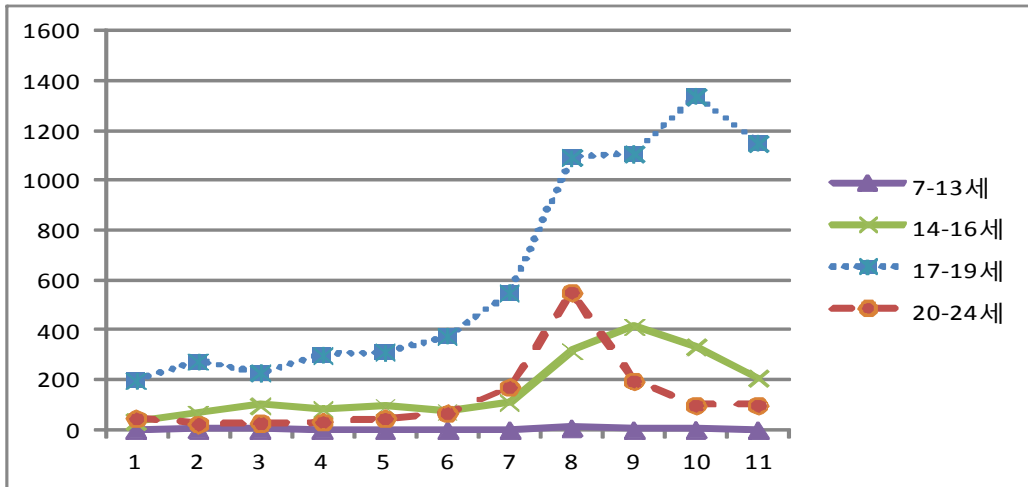
표 Ⅲ-10 학생범죄자 위조범죄 연령분석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283 (100)	370 (100)	361 (100)	420 (100)	455 (100)	520 (100)	835 (100)	1,968 (100)	1,719 (100)	1,772 (100)	1,460 (100)
7-13세	1 (0.4)	4 (1.1)	2 (0.6)	1 (0.2)	0 (0.0)	0 (0.0)	0 (0.0)	10 (0.5)	2 (0.1)	3 (0.2)	0 (0.0)
14-16세	35 (12.4)	66 (17.8)	100 (27.7)	83 (19.8)	95 (20.9)	74 (14.2)	111 (13.3)	316 (16.1)	414 (24.1)	332 (18.7)	210 (14.4)
17-19세	199 (70.3)	275 (74.3)	230 (63.7)	302 (71.9)	312 (68.6)	77 (14.8)	551 (66.0)	1,090 (55.4)	1,106 (64.3)	1,337 (75.5)	1,149 (78.7)
20-24세	48 (16.9)	25 (6.8)	29 (8.0)	34 (8.1)	48 (10.5)	69 (13.3)	173 (20.7)	552 (28.0)	197 (11.5)	100 (5.6)	101 (6.9)

* 출처: 범죄분석(2002~2012), 대검찰청 자료 재구성

* 주: 1) () 안의 수치는 비율(%)을 나타냄

2) 미상은 제외



【그림 Ⅲ-10】 년도별 학생범죄자 위조범죄 연령 변화 추이

<표 Ⅲ-11>과 [그림 Ⅲ-11]과 같이 학생범죄자의 풍속범죄는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2001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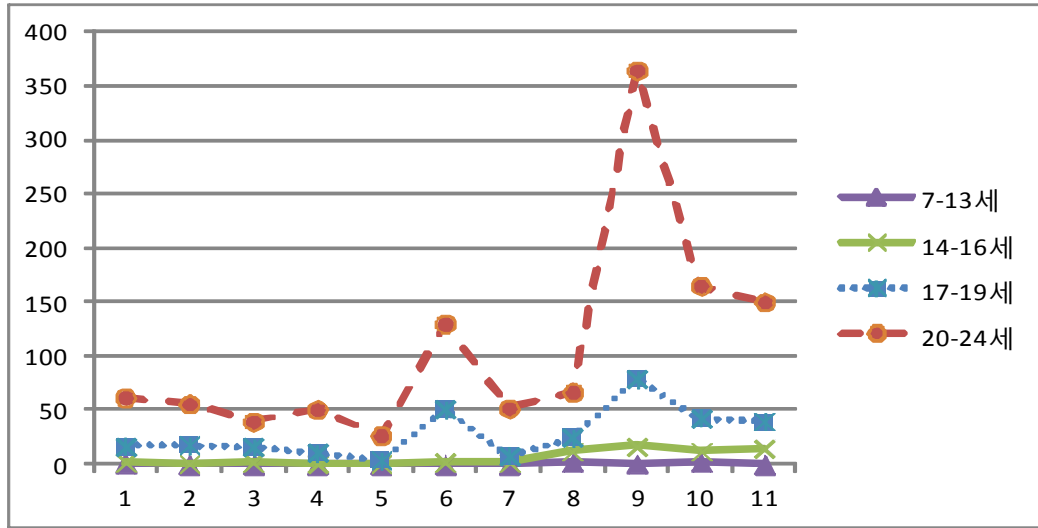
표 Ⅲ-11 학생범죄자 풍속범죄 연령분석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82 (100)	75 (100)	58 (100)	63 (100)	32 (100)	183 (100)	62 (100)	106 (100)	461 (100)	222 (100)	205 (100)
7-13세	1 (1.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9)	1 (0.2)	2 (0.9)	0 (0.0)
14-16세	2 (2.4)	1 (1.3)	2 (3.4)	1 (1.6)	1 (3.1)	2 (1.1)	2 (3.2)	12 (11.3)	17 (3.7)	12 (5.4)	15 (7.3)
17-19세	17 (20.7)	18 (24.0)	16 (27.6)	11 (17.5)	4 (12.5)	51 (27.9)	8 (12.9)	25 (23.6)	79 (17.1)	43 (19.4)	40 (19.5)
20-24세	62 (75.7)	56 (74.7)	40 (69.0)	51 (80.9)	27 (84.4)	130 (71.0)	52 (83.9)	67 (63.2)	364 (79.0)	165 (74.3)	150 (73.2)

* 출처: 범죄분석(2002~2012), 대검찰청 자료 재구성

* 주: 1) () 안의 수치는 비율(%)을 나타냄

2) 미상은 제외



【그림 III-11】 연도별 학생범죄자 풍속범죄 연령 변화 추이

<표 III-12>와 [그림 III-12]와 같이 학생범죄자의 과실범죄 연령을 보면 13세미만은 2001년 이후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14세-16세 청소년의 경우는 272%정도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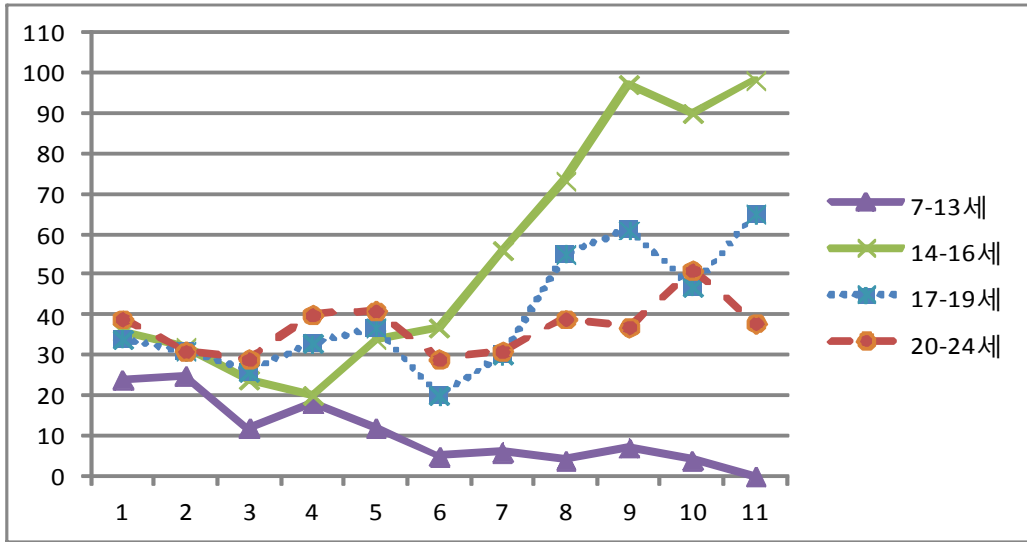
표 III-12 학생범죄자 과실범죄 연령분석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133 (100)	119 (100)	91 (100)	111 (100)	117 (100)	91 (100)	123 (100)	171 (100)	202 (100)	192 (100)	201 (100)
7-13세	24 (18.0)	25 (21.0)	12 (13.2)	18 (16.2)	12 (10.3)	5 (5.5)	6 (4.9)	4 (2.3)	7 (3.5)	4 (2.1)	0 (0.0)
14-16세	36 (27.1)	32 (26.8)	24 (26.3)	20 (18.0)	34 (29.1)	37 (40.7)	56 (45.5)	73 (42.7)	97 (48.0)	90 (46.9)	98 (48.8)
17-19세	34 (25.6)	31 (26.1)	26 (28.6)	33 (29.8)	37 (31.6)	20 (22.0)	30 (24.4)	55 (32.2)	61 (30.2)	47 (24.5)	65 (32.3)
20-24세	39 (29.3)	31 (26.1)	29 (31.9)	40 (36.0)	41 (35.0)	29 (31.8)	31 (25.2)	39 (22.8)	37 (18.3)	51 (26.5)	38 (18.9)

* 출처: 범죄분석(2002~2012), 대검찰청 자료 재구성

* 주: 1) () 안의 수치는 비율(%)을 나타냄

2) 미상은 제외



【그림 III-12】 년도별 학생범죄자 과실범죄 연령 변화 추이

<표 III-13>과 [그림 III-13]과 같이 학생범죄자의 기타형법범죄의 경우를 보면 13세미만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14세-16세는 258%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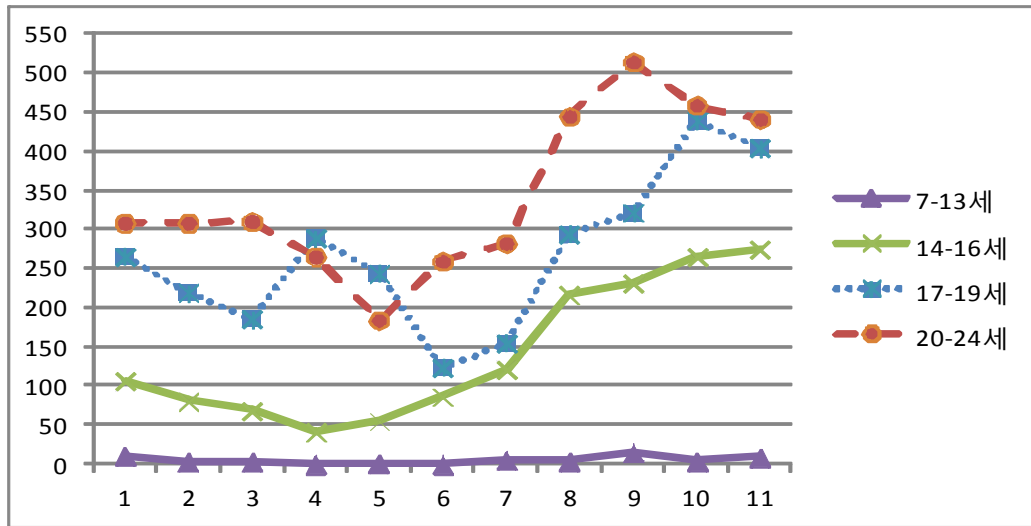
표 III-13 학생범죄자 기타형법범죄 연령분석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690 (100)	611 (100)	567 (100)	594 (100)	484 (100)	469 (100)	563 (100)	958 (100)	1,080 (100)	1,164 (100)	1,126 (100)
7-13세	11 (1.6)	3 (0.5)	3 (0.5)	0 (0.0)	1 (0.2)	0 (0.0)	5 (0.9)	4 (0.4)	15 (1.4)	4 (0.3)	9 (0.8)
14-16세	106 (15.4)	81 (13.3)	69 (12.2)	41 (6.9)	55 (11.4)	86 (18.3)	121 (21.5)	216 (22.6)	231 (21.4)	264 (22.7)	274 (24.3)
17-19세	265 (38.4)	219 (35.8)	185 (32.6)	288 (48.5)	244 (50.4)	124 (26.5)	155 (27.5)	294 (30.7)	321 (29.7)	438 (37.6)	403 (35.8)
20-24세	308 (44.6)	308 (50.4)	310 (54.7)	265 (44.6)	184 (38.0)	259 (55.2)	282 (50.1)	444 (46.3)	513 (47.5)	458 (39.4)	440 (39.1)

* 출처: 범죄분석(2002~2012), 대검찰청 자료 재구성

* 주: 1) () 안의 수치는 비율(%)을 나타냄

2) 미상은 제외



【그림 III-13】 년도별 학생범죄자 기타형법범죄 연령 변화 추이

지금까지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연도별, 연령별, 범죄유형별 분석에서 저연령화 현상을 분석하였다면, <표 III-14>에서는 저연령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소년범죄자의 범행동기를 보면 전체적인 경향은 2000년에서 2005년까지는 소년범죄자체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중요한 동기로는 우발적 범죄, 호기심, 부주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비와 유형비 마련, 기타 이익을 위한 욕심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사항은 2005년 이후 우발적 범죄나 호기심, 부주의는 약간 줄거나 소규모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이익을 위한 욕심이 약 64배나 증가하였고, 유혹이 1.9배, 생활비 마련 2.3배, 유흥비 1.46배로 매우 높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과거의 청소년 범죄가 의도치 않게 발생한 것이라면, 최근의 청소년 범죄는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행동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청소년의 경제 분야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도덕적 책임 강화를 위한 과제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Ⅲ-14 **소년 범죄자의 범행 동기**

구분	생활비	유흥비	도박비	허영사치심	치부	기타(이욕)	사행심	보복	가정불화	호기심	유혹	우발적	현실불만	부주의	기타
2000	2,850	10,933	16	937	732	14,923	1,012	3,023	236	11,770	2,157	71,155	1,857	45,587	72,849
2005	1,638	2,935	10	200	122	107	792	537	65	9,487	996	20,209	351	11,085	28,754
2011	3,886	4,294	10	266	119	6,821	1,056	19	78	11,742	1,962	23,362	626	9,547	26,401

주) 범죄분석(2001, 2006, 2012), 대검찰청 자료 재구성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에 따르면 가정 특히 부모와의 관계는 중요한 요인으로 취급된다. 특히 부모와의 갈등은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표 Ⅲ-15>의 부모님과의 갈등 원인을 보면 학업·성적과 진학 및 진로, 그리고 컴퓨터 사용이 가장 중요한 것을 나타냈다. 나이가 어린 청소년은 학업성적과 컴퓨터 사용, 그리고 진학 및 진로에 대해 부모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나이가 많은 고학년일수록 진학 및 진로, 학업성적, 컴퓨터 사용 순으로 부모와 갈등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청소년 문제행동의 저연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관계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표 Ⅲ-15 **부모님과의 갈등 원인**

구분	사례수	특별히 없다	학업 성적	진학 및 진로	친구관계	컴퓨터 사용	이성 문제	여가생활 관련	TV 시청	기타
전체	15,762	17.5	48.6	30.1	6.5	24.0	2.7	7.9	11.1	9.3
중1	2,222	16.9	55.6	16.4	7.8	28.9	1.9	5.6	16.1	7.9
중2	2,261	14.9	55.8	23.5	7.5	26.7	2.9	6.4	13.7	9.5
중3	2,269	16.3	46.6	34.0	6.0	28.4	2.2	6.7	12.8	8.5
고1	3,033	16.0	51.4	30.4	7.5	21.4	3.5	10.6	8.0	10.9
고2	3,027	18.3	47.7	34.0	5.5	20.7	2.2	9.7	7.8	9.5
고3	2,950	22.8	33.7	42.4	4.4	17.5	3.7	8.6	8.1	9.5

주)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2011), 여성가족부

<표 III-16>의 스트레스는 청소년 문제행동의 중요 원인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령대에 상관없이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5점 척도에서 평균 3.4이상임).

따라서 청소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학교 등에서 상시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또는 풀 수 있는 정책과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 III-16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정도

구분	사례수	많다	보통	없다	평균
전체	15,870	46.4	36.1	17.6	3.4
중1	2,246	44.5	34.7	20.8	3.3
중2	2,285	46.4	33.4	20.1	3.4
중3	2,286	45.7	37.5	16.8	3.4
고1	3,055	49.0	34.3	16.7	3.5
고2	3,044	49.1	36.9	14.1	3.5
고3	2,954	43.1	39.8	17.1	3.4

주) 통계청 http://kosis.kr/themes/themes_03List.jsp?parentId=A03&listnm=%uD559%uC0DD

청소년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인 청소년의 고민 문제에서는 <표 III-17>에서와 같이 어린 청소년은 외모와 학업 및 적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후기 청소년들은 진로 및 직업, 학업 및 적성, 외모, 가계경제의 어려움 등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린 청소년과 후기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과제는 별도로 수립 되어야하며, 특히 최근의 외모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관련된 정책과제가 필요하다.

표 III-17 청소년이 주로 고민하는 문제

구 분	외 모	신체적·정신적 건강	가정 환경	가계 경제 어려움	유교 문화	학업 및 적성	진로 및 직업	친구 관계	이성 문제	학교 폭력	흡연주	인터넷 중독	기 타	고 민 없 음
계	13.6	4.2	2.5	6.4	4.6	35.9	22.1	2.0	1.6	0.3	0.2	0.5	0.5	5.6
남자	11.1	4.6	3.0	6.4	5.4	36.6	21.0	1.7	1.8	0.5	0.4	0.9	0.6	6.1
여자	16.0	3.8	2.1	6.4	3.8	35.2	23.3	2.2	1.4	0.2	-	0.1	0.4	5.2
만족	13.3	3.4	1.7	3.5	3.6	41.5	21.3	2.1	1.5	0.5	0.1	0.5	0.4	6.6
보통	14.0	4.5	2.6	6.2	5.3	33.9	22.7	2.1	1.7	0.2	0.2	0.7	0.5	5.6
불만족	13.0	6.0	5.0	15.7	5.6	24.7	23.0	1.3	1.6	0.1	0.2	0.1	0.8	3.0
13~18세	15.1	3.9	2.6	2.8	5.1	53.1	7.7	2.6	0.9	0.5	0.1	0.5	0.2	4.9
19~24세	11.8	4.6	2.4	10.5	4.1	16.2	38.7	1.2	2.3	0.1	0.3	0.4	0.8	6.5

주) 통계청 사회통계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01&tblId=DT_1SS12FA141R&conn_path=12&path=청소년 - 청소년 고민 -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재구성.

2. 청소년 문제행동 변인 구성

지금까지의 이론적 배경과 저연령화 2차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문제행동 변인을 외모, 경쟁, 돈, 심리적 불안감, 자이존중감, 부모관계(공정적, 갈등적), 친구관계(공정적, 갈등적),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태도, 유해환경 접촉 기회, 비도덕적 행동, 위계에 의한 폭력 경험을 주요 독립 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청소년 문제행동 유형별 경험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원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표 III-18>과 같이 연구 변인을 구성하였다.

표 Ⅲ-18 청소년 문제행동 영역 구분 및 조사 내용

구분	세부영역	조사 내용	
종속변수	문제상황 (19개)	· 문제상황 경험 / 비행 경험 / 비행 경험시기 · 외모의 비교 / 괴로움	
독립변수	외 모(10개)	· 외모 선호 / 성취감 / 성공요소 · 외모와 행복관계, 행복 조건 · 미디어의 외모 선택 영향 · 개인미디어(스마트폰, 인터넷) 영향	
	경쟁지향태도(5) 금전지향태도(5)	· 친구와의 경쟁 / 돈의 중요성 · 평가의 공정성 / 부의 수단 · 시험외 경쟁방법 / 부의 차별 · 친구 시기 / 부의 획득 · 경쟁 스트레스 / 돈과 노력	
	심리적 불안감 (10개)	· 흥미 / 걱정 · 불안 / 슬픔 · 외로움 / 자살충동 · 주변의 상황 / 분노 · 폭력적 행동 / 위험한 행동	
	자아존중감(10개)	· 성품 / 해결 · 능력 / 쓸모없는 사람 · 가치 / 나쁜 사람	
	부모 관계 (긍정적 관계 5개) (갈등적 관계 5개)	· 시간 할애 / 사랑과 애정 / 이해도 · 대화 / 의견충돌 / 스트레스 · 부모폭력 / 욕설 / 갈등	
	친구관계 (긍정적 관계 5개) (갈등적 관계 5개)	· 같은 행동 / 행복 / 솔직함 · 이해도 / 의지 / 의견충돌 · 스트레스 / 왕따걱정 / 욕설 / 갈등	
	학업스트레스(3개) 학업수행태도(3개) 유해환경접촉기회(4개)	· 성적 스트레스 / 학업스트레스 / 수업 · 진학 / 직장 / 성과와 친구 · 주변환경/술집출입/성인도서/인터넷이용/지역어른관계	
	비도덕적 행동(10)	· 친구행동 / 선배행동 / 어른행동 · 미디어 행동영향 / 부정직한 방법 / 못된 행동 · 못된선배/친구왕따/친구평가/유혹비용마련	
	인구사회학적 변인	학생변인(3)	· 성별 · 학교 성적 · 희망 교육 수준
		가족변인(1)	· 가족구성 · 부모학력 · 부모님 직업 유무 · 가정의 경제수준 · 거주지

제 4 장

설문 조사 결과

1. 설문 조사 개요
2. 표본설계
3. 조사 결과

제 4 장 *

설문 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목적

본 설문조사는 청소년 문제행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 문제행동의 저연령화 인과 관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청소년 문제행동의 저연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 하고자 한다.

2) 설문조사 방법

본 설문조사의 조사대상, 표본크기, 표집방식 및 조사 기간은 <표 IV-1>과 같다.

표 IV-1 설문조사 방법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전국의 초등학교 4, 5, 6학년과 중학교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제주도 포함)
표본 크기	6,359명(초등생 3,164명, 중등생 3,195명)
표집 방식	층화다단계집락표집 - 지역, 학교유형(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수 및 학생 수를 고려한 변형비례배분방식
조사 기간	2013년 6월 10일 ~ 2013년 8월 20일

* 김영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집필

2. 표본 설계

1) 모집단과 모집단 분석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1~3학년, 중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모집단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제주도 제외).

(2) 모집단 분석

먼저 15개 광역 시도별, 학교급별, 학년별 학생 수를 <표 IV-2>에 정리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학생 수는 5,259,599명이며 각 학교급별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61,532명(46.3%), 중학교 1,812,500명(53.7%)이다.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 수, 성별 학생 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표 IV-3>과 <표 IV-4>에 정리되어 있다.

표 IV-2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 × 학년별 학생수, 학교수

구분	학생수						학교수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78,586	87,966	101,513	99,956	103,679	109,763	594	594	594	379	377	375
경기	120,979	135,909	153,616	150,199	152,997	157,196	1,182	1,177	1,186	593	592	589
인천	25,614	29,320	32,993	33,007	33,866	36,010	232	232	237	134	132	133
강원	14,159	15,883	17,935	17,965	18,696	19,126	324	337	361	163	163	163
충북	14,934	17,074	18,983	18,872	19,663	20,451	262	265	271	130	130	129
충남	19,742	22,680	25,241	24,652	25,360	25,865	413	417	422	195	195	194
대전	15,426	17,398	19,667	19,511	20,455	21,139	145	145	145	88	88	87
경북	22,355	25,839	29,676	29,648	29,624	31,740	421	435	466	291	290	289
경남	31,452	36,412	40,940	40,851	42,153	43,474	465	483	487	273	273	272
부산	26,765	31,322	35,666	36,106	37,862	40,204	298	297	297	168	168	169
대구	22,911	26,796	30,625	31,351	31,888	34,485	216	216	216	123	122	121
울산	10,887	12,988	14,896	15,053	15,763	16,657	118	119	119	61	61	61
전북	17,840	20,474	23,029	22,898	24,121	24,643	375	379	380	208	208	206
전남	16,832	19,479	22,268	22,261	22,916	23,825	407	426	430	251	252	253
광주	16,135	18,769	21,559	21,220	22,173	23,161	149	149	150	86	86	85
합계	454,616	518,309	588,607	583,550	601,211	627,739	5,601	5,671	5,761	3,143	3,137	3,126

표 IV-3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남학생수			여학생수			남학생수			여학생수		
	4학년	5학년	6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40,649	45,460	52,792	37,936	42,496	48,721	52,172	54,323	57,284	47,784	49,356	52,479
경기	62,793	70,424	79,812	58,186	65,485	73,804	77,748	79,211	80,866	72,451	73,786	76,330
인천	13,215	15,191	17,105	12,399	14,129	15,888	17,217	17,594	18,495	15,790	16,262	17,515
강원	7,445	8,340	9,480	6,714	7,553	8,455	9,314	9,743	9,814	8,651	8,953	9,312
충북	7,803	8,854	9,946	7,131	8,220	9,037	9,813	10,291	10,441	9,059	9,372	10,010
충남	10,378	11,640	13,158	9,364	11,040	12,083	12,877	13,154	13,367	11,775	12,206	12,498
대전	8,049	9,121	10,158	7,377	8,277	9,509	10,211	10,636	11,013	9,300	9,819	10,126
경북	11,854	13,576	15,744	10,501	12,263	13,932	15,691	15,629	16,620	13,957	13,995	15,120
경남	16,550	19,190	21,686	14,902	17,222	19,254	21,400	22,122	22,777	19,451	20,031	20,697
부산	13,945	16,377	18,803	12,820	14,945	16,863	19,092	20,116	21,037	17,014	17,746	19,167
대구	12,317	14,083	16,250	10,594	12,713	14,375	16,556	17,173	18,260	14,795	14,720	16,225
울산	5,731	6,903	7,856	5,156	6,085	7,040	7,943	8,495	8,749	7,110	7,268	7,908
전북	9,433	10,449	11,887	8,407	10,025	11,142	11,818	12,505	12,822	11,080	11,616	11,821
전남	8,738	10,186	11,618	8,094	9,293	10,650	11,629	11,821	12,308	10,632	11,095	11,517
광주	8,391	9,699	11,287	7,744	9,070	10,272	11,002	11,522	11,942	10,218	10,651	11,219
합계	237,291	269,493	307,582	217,325	248,816	281,025	304,483	314,335	325,795	279,067	286,876	301,944

표 IV-4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 × 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25.7	25.8	26.0	31.9	32.1	33.0
경기	24.8	25.4	25.8	34.5	34.3	34.1
인천	23.6	24.2	24.1	32.8	33.2	33.9
강원	15.7	15.7	15.9	23.4	24.4	24.1
충북	17.2	17.8	17.6	25.6	26.5	27.1
충남	16.9	17.5	18.0	27.0	27.7	28.2
대전	23.3	23.8	24.5	32.1	32.6	33.1
경북	17.7	18.0	18.1	22.2	22.4	23.2
경남	19.1	19.3	19.8	26.8	27.1	27.9
부산	22.9	23.5	24.1	31.1	31.9	32.6
대구	24.2	24.4	24.8	32.9	33.2	35.5
울산	23.0	23.7	24.4	31.2	31.5	32.4
전북	16.0	16.6	17.0	23.4	23.2	23.9
전남	15.8	15.9	16.6	23.9	24.1	24.0
광주	24.2	24.6	24.6	34.1	34.4	35.6
전체	20.9	21.3	21.6	28.9	29.2	29.7

2) 표본설계

(1) 표본크기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 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s)^2}{Nd^2 + (zs)^2}$$

여기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 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 은 신뢰계수이다(신뢰수준 95% 하에서 $z = 1.96$ 이다).

조사내용이 비율인 경우에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 z^2 p q}{N d^2 + z^2 p q}$$

여기서 p 는 비율의 값이며 $q = 1 - p$ 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 표본추출 단위가 학교이고 추출된 학교에서 표본학급을 선정하여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하는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할 것이므로, 목표오차를 실제로 d 이하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산출한 값보다 표본크기를 더 크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사에 따른 소요비용과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8,500으로 결정되었다. 이 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pm 1.1\%P$ 이다. 층화집락추출의 상황 하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보다 조금 더 크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2) 층화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12년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현황을 기초로 지역구분과 학교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한다. 즉, 층화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구분 : 광역 시도 (15개)
- 학교구분 : 초등학교, 중학교 (2개)
- 학년 (3개)

표 IV-5 학교급 × 학년별 모집단크기 및 목표 표본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4	454,616	1,561,532 (46.3%)
		5	518,309	
		6	588,607	
중학교	중학교	1	583,550	1,812,500 (53.7%)
		2	601,211	
		3	627,739	
합계				5,259,599 (100.0%)

표 IV-6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서울	433	506
경기	664	744
인천	142	166
강원	78	90
충북	82	95
충남	109	123
대전	85	99
경북	126	147
경남	176	204
부산	152	185
대구	130	158
울산	63	77
전북	99	116
전남	95	112
광주	91	108
합계	2,525	2,929

* 총계: 5,454명

표 IV-7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서울	20.6	17.5
경기	31.6	25.7
인천	6.8	5.7
강원	3.7	3.1
충북	3.9	3.3
충남	5.2	4.2
대전	4.0	3.4
경북	6.0	5.1
경남	8.4	7.0
부산	7.2	6.4
대구	6.2	5.4
울산	3.0	2.6
전북	4.7	4.0
전남	4.5	3.8
광주	4.3	3.7
합계	120.2	101.0

* 총계: 221개교

표 IV-8 반올림에 의한 학교 수의 조정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서울	21(7)	18(6)
경기	33(11)	27(9)
인천	6(2)	6(2)
강원	3(1)	3(1)
충북	3(1)	3(1)
충남	6(2)	3(1)
대전	3(1)	3(1)
경북	6(2)	6(2)
경남	9(3)	6(2)
부산	6(2)	6(2)
대구	6(2)	6(2)
울산	3(1)	3(1)
전북	6(2)	3(1)
전남	6(2)	3(1)
광주	3(1)	3(1)
합계	120(40)	99(33)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 수임. 총계: 219개교

(3) 표본배분

학생 수에 단순 비례하도록 지역구분×학교급=30개 각 층에 표본크기를 할당하면 <표 IV-6>과 같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한 학년, 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되 선정된 학급에 속한 학생들을 모두 조사할 것이므로, 각 층에 할당된 표본크기를 각 층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로 나누면 <표 IV-7>과 같이 조사될 학교 수가 할당된다. 결론적으로 총 221개 정도의 학교가 조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7>의 수치를 반올림하여 정수화하면 최종적으로 <표 IV-8>과 같이 각 층별 조사될 학교 수를 얻게 된다.

(4) 표본추출

각 학교구분과 지역구분별로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표 IV-8>에 주어진 표본배분 결과를 이용하여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한다. 즉,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30개 층 내에서 조사대상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되, 초등학교의 경우 각 학년별 학급수가 2개 이상, 중학교의 경우 각 학년별 학급수가 3개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조정한다. 또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각 학년별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한다.

추출된 학교 층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한다. 또한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며,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될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하였다.

(5) 성별 사후층화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및 학급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사 시에는 성별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 즉, 성별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지만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시 성별을 고려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성별 분포가 모집단 분포와 다르게 조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후층화 가중치를 통해 표본에서의 성별 분포의 편향을 조정하고자 한다.

(6) 가중치와 모수추정

① 가중치

본 조사의 표본추출은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법이라 할 수 있으며 학교구분과 지역구분을 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각 층에서 일차추출단위인 학교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고 추출된 표본학교에서는 학급을 랜덤하게 선정한 후에 학생을 조사하므로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학생을 랜덤하게 선정하여 조사하는 이단집락추출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표본 추출률을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여기서 N_h 는 h 층에 속한 전체 학교의 수이고, n_h 는 h 층의 표본 학교 수이며, B_{hi} 는 h 층에서 i 번째 학교의 학생수를 나타내고, n_{hi} 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한 학생 수를 나타낸다.

표본 추출률에 대한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이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W_{hij}^a = \frac{\sum_{i=1}^{N_h} B_{hi}}{n_h n_{hi}}$$

또한 각 세부 층의 성별($k=1,2$)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한다. 즉, 사후층화 가중치는

$$W_{h(k)j}^b = \frac{N_{h(k)}}{\sum_{l=1}^{n_{h(k)}} W_{h(k)j}^a}$$

여기서 $N_{h(1)}$ 과 $N_{h(2)}$ 는 각 세부 층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집단 크기이고, $\sum W_{h(k)j}^a$ 는 각 세부 층의 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이다.

최종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와 사후층화 가중치를 곱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W_{h(k)ij}^f = W_{hij}^a \times W_{h(k)j}^b$$

② 모수추정

가.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h = 1, 2, \dots, H$). 학교구분×지역구분에 따른 번호.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학교)의 번호 ($i = 1, 2, \dots, n_h$).
- j : 각 집락 내의 학생의 번호 ($j = 1, 2, \dots, m_{hi}$).

m_{hi} :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으로부터 추출된 학생수.

- w_{hij} : 표본 가중치
 - h 번째 층, i 번째 집락, j 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n = \sum_{h=1}^H \sum_{i=1}^{n_h} m_{hi}$: 전체 표본크기.

나.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됨.

- $\bar{Y} = \left(\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 \dots$: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 \dots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표본 가중치의 합계

다.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 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함.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h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 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k = 1, \dots, l$)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 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 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함

라. 분산의 추정

- $\hat{V}(\bar{Y}) = \sum_{h=1}^H \hat{V}_h(\bar{Y})$: 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 의 총 집락의 수
- f_h : h 번째 층의 표본추출율, n_h/N_h .
- $n_h > 1$ 일 때,

$$\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hi}$$

$$\bar{e}_{h..} = \left(\sum_{i=1}^{n_h} e_{hi} \right) / n_h$$

- $n_h = 1$ 일 때,

$$\hat{V}_h(\bar{Y}) = \begin{cases} \text{missing, if } n_{h'} = 1 \text{ for } h' = 1, 2, \dots, H \\ 0, & \text{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 h' \leq H \end{cases}$$

마.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text{StdErr}(\bar{Y}) = \sqrt{\hat{V}(\bar{Y})}$: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text{StdErr}(\bar{Y})$: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치,
95% 신뢰수준의 경우($\alpha=0.05$) $z_{\alpha/2}=1.96$ 임.

3. 조사결과

1) 배경변인 기초분석

본 연구의 전체 응답자 6,359명의 배경 특성을 보면, <표 IV-9>와 같이 남자 51.3%, 여자

48.7, 저연령층 청소년(초등) 49.8%, 중기청소년(중등) 50.2%로 적정하게 분포되었다.

가족유형은 친부모가정 88.7%, 한부모가정 6.9%이며, 경제수준은 중 74.7%, 상 21.8%, 하 3.3%로 구분되었다.

표 IV-9 응답자 배경 특성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전 체		6,359	100.0
성별	남자	3,263	51.3
	여자	3,096	48.7
학교유형	초등학교	3,164	49.8
	중학교	3,195	50.2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16.7
	초등학교 5학년	1,044	16.4
	초등학교 6학년	1,061	16.7
	중학교 1학년	1,061	16.7
	중학교 2학년	1,086	17.1
	중학교 3학년	1,048	16.5
지역규모	대도시	2,532	39.8
	중소도시	3,015	47.4
	읍/면	812	12.8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90.2
	한부모가정	441	6.9
	조손가정	70	1.1
	기타	97	1.5
	무응답	18	0.3
가정의 경제적수준	상	1,384	21.8
	중	4,749	74.7
	하	211	3.3
	무응답	15	0.2

2) 조사내용 기초빈도 분석결과

(1) 독립변수별 기초빈도 분석

표 IV-10 외모지향태도 문항의 빈도분석 (%)

구분	학교 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나는 뛰어난 외모(얼굴, 몸매)를 가진 사람들이 부럽다	초등학교	27.3	16.3	30.6	17.6	8.1
	중학교	7.4	10.4	30.4	36.6	15.3
• 나는 외모가 뛰어난 친구를 사귀고 싶고 좋아한다	초등학교	25.9	23.5	34.8	11.9	3.8
	중학교	8.7	23.5	48.3	16.1	3.5
• 나의 외모가 지금보다 나아지면 좀 더 행복할 것이다	초등학교	21.8	18.6	31.3	20.3	7.6
	중학교	5.8	9.6	34.9	38.5	11.0
•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취 중의 하나는 외모를 남들보다 잘 꾸미는 것이다	초등학교	38.9	30.2	22.8	5.9	1.9
	중학교	14.5	32.0	37.4	13.4	2.5
• 외모는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초등학교	36.3	29.2	23.7	8.1	2.5
	중학교	14.9	30.5	35.9	15.7	2.9
• TV나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나의 외모를 고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초등학교	46.6	27.0	16.6	6.4	2.9
	중학교	20.2	28.8	28.7	17.2	4.9
• 외모는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데 중요한 조건이다	초등학교	38.4	28.1	23.3	7.5	2.5
	중학교	14.6	27.4	37.8	16.5	3.6
• TV나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나의 외모를 가꾸려고 노력하게 된다	초등학교	43.0	25.9	20.6	6.7	3.4
	중학교	16.5	26.3	32.7	19.8	4.4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에 있는 나의 사진을 보면 성형이나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초등학교	51.9	22.3	16.0	6.7	2.8
	중학교	24.3	26.4	25.0	18.0	6.1
• 나의 외모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	초등학교	64.3	22.8	9.4	2.0	1.3
	중학교	40.0	33.8	20.3	4.4	1.5

응답자의 외모지향태도 문항은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저연령층인 초등생보다 중학생들이 외모에 더 집착하고, 미디어에 영향을 높게 받고 있다. 특히 뛰어난 외모를 부러워한다거나, 외모가 뛰어난 친구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외모가 나아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저연령층에서도 높은 공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를 바꿀 수 없는 것이 스트레스는 많이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표 IV-10 참조).

표 IV-11 경쟁지향태도 문항의 빈도분석 (%)

구분	학교 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나는 내가 발전하는데 친구들과의 경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초등학교	16.6	14.5	31.7	23.6	13.6
	중학교	3.9	10.5	34.9	39.0	11.5
• 나는 좋은 학교 진학이나 좋은 직장을 갖는 방법으로 시험과 같은 경쟁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13.7	15.5	36.8	21.0	12.7
	중학교	10.1	22.9	37.1	22.2	7.5
• 나는 좋은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 필요하다면 시험 등 경쟁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초등학교	10.4	12.6	40.8	24.1	11.6
	중학교	3.5	9.7	41.6	34.4	10.2
• 나는 중요한 시험 때 공부 잘하는 친구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 시험을 망쳤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48.8	24.6	15.0	7.0	4.1
	중학교	25.9	29.7	24.5	13.5	6.2
• 나는 경쟁을 한다는 것이 스트레스이지만 피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	초등학교	8.6	9.9	35.0	27.4	18.8
	중학교	3.8	12.2	46.8	28.5	8.4

경쟁지향태도는 5개 문항으로 경쟁의 정당성, 긍정성, 스트레스나 왜곡된 경쟁의식과 수단이 다. 초·중등생 모두 경쟁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나친 경쟁을 피해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갖고자하는 의식도 초 34.7%, 중 44.6%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언제든지 정당성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질문 중 친구가 시험을 망침으로써 자신이 반사적 이익을 얻기를 바라는 응답이 중등생의 18.7%에 이른다(표 IV-11 참조).

표 IV-12 금전지향태도 문항의 빈도분석 (%)

구분	학교 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나는 우리 사회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27.0	22.8	27.9	14.1	7.7
	중학교	9.7	18.7	30.2	26.7	14.5
• 나는 좋은 학교 진학,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은 편하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19.7	20.2	31.4	18.2	10.1
	중학교	6.5	13.3	30.2	35.1	14.6
• 나는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69.1	20.5	7.3	1.9	1.0
	중학교	44.9	34.2	15.4	3.9	1.3
• 나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거나 부족해서 좋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구한 적이 자주 있다	초등학교	74.9	16.4	6.3	1.7	0.5
	중학교	56.6	25.7	13.1	3.4	1.1
• 나는 돈이 많다면 좋은 학교 진학, 좋은 직장을 구하는데 굳이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초등학교	51.6	28.1	14.2	3.6	2.4
	중학교	24.4	31.3	26.0	12.8	5.4

청소년의 금전지향 태도 응답문항은 5개로 돈에 대한 가치의식에 관한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초등생보다 중등생이 보다 금전지향가치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삶에 돈의 중요성과 수단성에 대해서는 초·중등생 모두 인정하는 편이나, 돈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데에는 중등생이 높게 나타났다(표 IV-12 참조). 이는 삶에서 돈 이상의 가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 IV-13 심리적 불안감 문항의 빈도분석 (%)

구분	학교 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나는 요즘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초등학교	46.9	29.7	16.4	5.2	1.8
	중학교	23.5	36.8	26.4	10.8	2.4
•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성적, 친구관계, 집안 등)에 대해 걱정이 많은 편이다	초등학교	37.7	23.3	21.6	11.7	5.6
	중학교	12.7	19.6	27.2	30.0	10.4
• 나는 최근에 자주 이유 없이 불안할 때가 있다	초등학교	50.9	22.6	14.0	9.4	2.8
	중학교	22.8	30.2	23.7	18.1	4.9
•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자주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초등학교	54.8	19.5	13.3	8.4	3.8
	중학교	26.8	26.9	21.2	18.8	6.2
• 나는 별 이유 없이 자주 외로움 느낀다	초등학교	55.1	21.1	12.8	7.4	3.4
	중학교	28.0	29.6	22.3	15.2	4.7
• 나는 가끔씩 특별한 이유 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초등학교	66.6	15.7	9.3	5.6	2.6
	중학교	45.8	25.7	15.2	9.8	3.3
• 나는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사람(친구, 선생님, 부모님)들에게가 죽을 때가 있다	초등학교	53.3	21.0	14.2	7.8	3.4
	중학교	32.0	28.3	20.3	15.1	4.3
• 나는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사람이나 나에게 자주 화가 난다	초등학교	57.1	21.3	12.7	5.8	2.9
	중학교	32.1	30.5	19.3	14.1	3.9
• 나는 화나면 물건을 집어던진다	초등학교	64.1	18.1	10.6	4.8	2.2
	중학교	45.9	26.2	16.4	8.3	3.1
• 나는 이슬이슬하고 스릴 넘치는 위험한 행동을 좋아한다	초등학교	47.1	20.5	18.2	7.9	5.9
	중학교	34.0	26.1	23.9	11.0	4.9

심리적 불안감은 총 10개 항목으로 흥미, 걱정, 불안, 우울, 외로움, 분노, 위협, 자신감등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 초등생보다 중등생이 좀 더 심리적 불안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현재의 일에 대해 걱정이 많은 편이고, 특별한 이유 없이 불안감, 외로움, 우울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IV-13 참조).

표 IV-14 자아존중감 문항의 빈도분석 (%)

구분	학교 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7.1	9.1	43.1	23.5	17.1
	중학교	2.5	10.7	45.4	29.3	12.1
•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5.7	9.0	38.4	26.2	20.5
	중학교	2.9	13.5	42.3	29.3	11.9
•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4.8	7.1	33.5	27.1	27.3
	중학교	2.0	7.7	35.9	35.8	18.3
• 나는 나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4.3	7.0	33.5	32.4	22.5
	중학교	1.7	8.8	39.1	36.0	14.3
•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51.7	22.1	16.3	7.3	2.3
	중학교	27.4	31.1	25.9	12.9	2.6
•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49.5	23.5	18.7	6.3	1.9
	중학교	25.4	29.2	28.9	14.2	2.2

자아존중감은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전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편이지만 저연령층인 초등생들이 좀 더 자아존중감이 높은 편이다(표 IV-14 참조).

표 IV-15 긍정적 부모관계 문항의 빈도분석 (%)

구분	학교 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한다	초등학교	3.9	5.8	24.8	27.9	37.5
	중학교	3.4	10.3	35.9	33.2	17.1
• 부모님은 나에게 사랑과 애정을 자주 보이신다	초등학교	3.0	5.4	20.9	27.8	42.6
	중학교	2.3	6.5	30.4	37.4	23.3
•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초등학교	3.6	6.8	25.2	27.7	36.5
	중학교	3.8	11.7	34.5	31.8	18.2
• 나는 부모님에게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 한다	초등학교	12.6	17.4	29.3	19.1	21.2
	중학교	7.5	23.0	32.5	22.8	14.1
• 나는 나의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 한다	초등학교	6.7	11.7	26.5	23.1	31.2
	중학교	6.3	17.2	28.6	30.0	17.7

긍정적 부모관계는 5개 문항으로 초·중등생 모두 부모관계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부모님과 대화에서 초등생은 비밀이 많은 편이다(표 IV-15 참조).

표 IV-16 **갈등적 부모관계 문항의 빈도분석 (%)**

구분	학교 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나는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초등학교	34.6	23.5	23.5	12.1	5.9
	중학교	11.6	22.5	31.5	25.5	8.7
• 나는 부모님과 대화가 안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초등학교	43.2	23.5	19.3	8.8	8.8
	중학교	18.2	27.3	29.0	18.3	18.3
• 나는 부모님에게 맞은 적이 많다	초등학교	30.9	23.0	24.0	13.9	8.0
	중학교	27.3	25.9	24.6	15.9	6.2
• 나는 부모님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많다	초등학교	60.5	18.7	11.9	5.1	3.4
	중학교	42.5	26.1	16.9	9.7	4.6
• 나는 가족들과 자주 다툰다	초등학교	53.1	21.3	16.5	5.8	2.9
	중학교	31.7	28.7	24.8	10.8	3.8

갈등적 부모관계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적인 경향은 초등생보다 중등생이 부모와 높은 갈등관계를 보이고 있다. 다만 부모폭력 경험은 초·중등생 모두 큰 차이 없이 높은 편이다(표 IV-16 참조).

표 IV-17 **긍정적 친구관계 문항의 빈도분석 (%)**

구분	학교 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나는 친한 친구들의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하려고 노력한다	초등학교	6.8	7.5	30.2	31.0	24.3
	중학교	2.8	8.9	37.2	40.6	10.5
•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다	초등학교	1.7	2.2	16.1	31.3	48.4
	중학교	0.8	2.3	19.6	47.8	29.4
• 나는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대화한다	초등학교	7.5	11.2	31.5	24.9	24.5
	중학교	2.7	10.7	32.0	36.3	18.2
• 나의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초등학교	4.3	7.0	33.0	30.1	25.1
	중학교	1.8	6.6	36.7	40.0	14.8
•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보다 친구들에게 더 의지한다	초등학교	20.4	24.8	31.4	12.6	10.1
	중학교	7.6	19.0	36.4	26.3	10.5

긍정적 친구관계는 5개 문항으로 초등생보다 중등생이 친구관계에 긍정적이고 의존적인 것으로 보인다(표 IV-17 참조).

표 IV-18 갈등적 친구관계 문항의 빈도분석 (%)

구분	학교 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나는 친구들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초등학교	44.3	29.5	18.0	5.3	2.6
	중학교	22.1	41.1	25.8	8.2	2.5
• 나는 친구들의 요구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초등학교	52.2	28.1	14.2	3.2	2.1
	중학교	31.0	42.4	19.7	5.2	1.6
• 나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할까봐 항상 조심하는 편이다	초등학교	42.5	21.0	19.1	11.0	6.2
	중학교	25.7	29.6	28.1	11.5	4.9
• 나는 친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초등학교	46.4	22.2	16.4	9.1	5.7
	중학교	28.0	33.1	21.6	13.1	4.0
• 나는 친구들과 가끔씩 다투는 편이다	초등학교	28.0	24.9	30.8	13.1	3.1
	중학교	18.5	29.0	35.0	15.0	2.3

갈등적 친구관계에 대한 응답은 초등생과 중등생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욕설경험에 서는 중등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8 참조).

표 IV-19 학업스트레스 문항의 빈도분석 (%)

구분	학교 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초등학교	38.1	23.5	21.0	11.9	5.4
	중학교	10.9	18.7	28.0	29.0	13.2
• 매일 공부만 하는 것이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초등학교	30.3	22.1	24.8	14.1	8.5
	중학교	10.2	18.9	28.7	28.1	13.9
• 나는 수업내용이 즐거운 편이다	초등학교	8.9	13.6	36.0	22.9	18.3
	중학교	13.1	26.6	40.1	14.8	5.3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문항은 3개 항목으로 학업에 스트레스는 중등생이 대체로 높은 편이다. 수업내용에 있어서는 초등생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업내용에서 중등생의 39.7%가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수방법이나 교과내용의 다양한 측면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표 IV-19 참조).

표 IV-20 학업성취태도 문항의 빈도분석 (%)

구분	학교 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성공하려면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초등학교	13.9	14.2	33.9	20.6	17.0
	중학교	5.9	11.7	30.0	33.0	19.2
•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좋은 학교로 진학해야 한다	초등학교	14.8	16.6	30.3	21.9	16.2
	중학교	6.0	11.4	28.5	34.3	19.7
• 좋은 성적은 친구관계를 좀더 원활하게 해준다	초등학교	19.8	20.9	34.5	15.1	9.2
	중학교	15.3	28.9	34.0	15.5	6.1

학업성취 태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경향은 초등생과 중등생 모두 높은 성취태도를 보이지만, 중등생이 초등생보다 좀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표 IV-20 참조).

성공과 좋은 학교 진학,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진학에 대해서는 모두 성취지향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좋은 성과 친구관계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적과 친구관계는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표 IV-21 유해한 환경접촉 기회 문항의 빈도분석 (%)

구분	학교 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주변에 야한사진이나 광고지 등을 보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초등학교	87.1	8.3	2.9	0.8	0.6
	중학교	56.4	27.1	11.9	2.8	1.6
• 주변에 술집이 있으면 몰래 들어가 보고 싶다	초등학교	89.5	7.0	2.4	0.6	0.4
	중학교	64.9	23.3	7.9	2.4	1.2
• 주변에서 성인만화나 도서는 언제든지 쉽게 볼 수 있다	초등학교	81.7	11.1	4.8	1.2	1.0
	중학교	57.0	23.0	13.2	4.6	2.1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용 사진이나 게임 등을 자주 이용한다	초등학교	82.5	9.9	5.1	1.3	1.0
	중학교	63.8	22.9	9.3	2.7	1.3
• 지역 어른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별로 관심이 없다	초등학교	42.3	22.0	24.4	7.0	4.1
	중학교	25.3	25.8	34.8	10.4	3.6

유해환경 접촉 기회에 대한 응답에서는 초·중등생 모두 높지 않는 편이다. 그 중 지역 어른들이 관심부분에서 초등생은 11.1%, 중등생은 14%가 어른들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관심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표 IV-21 참조).

표 IV-22 비도덕적 행동 문항의 빈도분석 (%)

구분	학교 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나는 친한 친구들이 가끔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할지라도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	42.1	30.2	20.1	5.6	1.9
	중학교	23.2	41.9	25.4	8.2	1.3
• 나는 학교선배들이 시키면 올바르지 않더라도 할 수 밖에 없다	초등학교	58.9	23.2	11.9	4.3	1.6
	중학교	32.6	35.6	22.7	8.0	1.0
• 나는 어른들이 시키면 올바르지 않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	51.2	24.7	15.3	6.0	2.7
	중학교	31.8	36.9	21.8	7.8	1.6
• 나는 가끔씩 TV나 영화에서 하는 나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 적이 있다	초등학교	73.4	18.2	6.6	1.4	0.3
	중학교	45.7	36.2	13.7	3.7	0.6
• 나는 좋은 성적이나 상을 타기 위해서 컨닝이나 친구 과제를 베끼기와 같은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선택한 적이 있다	초등학교	71.2	18.4	7.1	2.6	0.6
	중학교	45.0	30.1	15.4	8.5	0.8
• 내 친한 친구들 중에 잘못되거나 못된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다	초등학교	38.2	21.4	20.5	13.1	6.5
	중학교	25.6	26.3	24.9	17.5	5.6
• 내 선배들 중에 잘못되거나 못된 행동을 하는 선배가 있다	초등학교	49.3	17.9	15.9	9.5	7.2
	중학교	35.4	25.1	21.5	13.0	4.8
• 나는 친한 친구가 싫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먼저 왕따 시키는 편이다	초등학교	69.2	21.5	7.2	1.3	0.6
	중학교	49.4	36.1	11.8	2.0	0.7
• 나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무슨 일이든 앞장서서 나서는 것이 싫다	초등학교	34.2	20.0	22.9	12.5	10.3
	중학교	24.6	26.0	25.2	15.6	8.5
• 나는 친구들과 즐겁게 놀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올바른 방법이 아닐지라도 마련한다	초등학교	55.1	24.4	16.3	2.6	1.5
	중학교	44.6	34.0	16.8	3.5	1.0

비도덕적 행동 문항은 10개로 도덕적 가치, 정의감, 공정성, 법치주의, 주변인의 도덕성 등이다.

이 질문에서 초등생과 중등생은 대부분 자신의 도덕적 행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지만, 자신이 아닌 친구, 선배 등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주변인이 20%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표 IV-22 참조).

이 문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도덕적 행동에 대한 판단과 타인에 대한 도덕적 행동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응답자 특성별 문제행동 경험에 대한 기초 분석 결과

표 IV-23 성별에 따른 중요한 문제행동 경험유무(%)

구 분	성별	없다	있다	계
가출경험	남자	92.6	7.4	100.0
	여자	95.5	4.5	100.0
폭력 가해	남자	89.9	10.1	100.0
	여자	96.6	3.4	100.0
따돌림 피해	남자	93.9	6.1	100.0
	여자	86.1	13.9	100.0
절도 가해	남자	91.8	8.2	100.0
	여자	93.9	6.1	100.0
경찰조치경험	남자	97.3	2.7	100.0
	여자	98.6	1.4	100.0
협박 피해	남자	97.7	2.3	100.0
	여자	97.5	2.5	100.0
폭력 피해	남자	95.8	4.2	100.0
	여자	98.5	1.5	100.0
성추행 피해	남자	98.8	1.2	100.0
	여자	96.3	3.7	100.0
무단결석 경험	남자	94.9	5.1	100.0
	여자	95.3	4.7	100.0
학교정학 경험	남자	99.3	0.7	100.0
	여자	99.7	0.3	100.0
유해장소 출입	남자	99.4	0.6	100.0
	여자	99.7	0.3	100.0
자살 경험	남자	96.8	3.2	100.0
	여자	91.3	8.7	100.0
폭력게임중독	남자	94.8	5.2	100.0
	여자	99.5	0.5	100.0

성별 문제행동 경험에서 남자는 가출, 폭력가해, 절도가해, 폭력게임중독에서 여자에 비해 높은 경험이 있는 반면에, 여자는 따돌림 피해, 성추행피해, 자살경험에서 남자보다 높은 경을 보이고 있다(표 IV-23 참조).

표 IV-24 학교유형에 따른 중요한 문제행동 경험 유무(%)

구 분	학교유형	없다	있다	계
가출경험	초등학교	96.0	4.0	100.0
	중학교	92.1	7.9	100.0
폭력 가해	초등학교	94.5	5.5	100.0
	중학교	91.8	8.2	100.0
따돌림 피해	초등학교	92.3	7.7	100.0
	중학교	87.9	12.1	100.0
절도 가해	초등학교	95.5	4.5	100.0
	중학교	90.1	9.9	100.0
경찰조치경험	초등학교	99.3	0.7	100.0
	중학교	96.6	3.4	100.0
협박 피해	초등학교	97.9	2.1	100.0
	중학교	97.3	2.7	100.0
폭력 피해	초등학교	97.1	2.9	100.0
	중학교	97.1	2.9	100.0
성추행 피해	초등학교	98.6	1.4	100.0
	중학교	96.6	3.4	100.0
무단결석 경험	초등학교	97.3	2.7	100.0
	중학교	92.9	7.1	100.0
학교정학 경험	초등학교	99.7	0.3	100.0
	중학교	99.2	0.8	100.0
유해장소 출입	초등학교	99.7	0.3	100.0
	중학교	99.3	0.7	100.0
자살 경험	초등학교	95.9	4.1	100.0
	중학교	92.5	7.5	100.0
폭력게임중독	초등학교	97.6	2.4	100.0
	중학교	96.6	3.4	100.0

학교 유형별로 문제행동 경험은 중학교가 초등학교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은 문제행동경험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출경험, 폭력가해경험, 따돌림 피해, 절도 가해, 자살 경험이 다른 문제행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초등학교의 경우는 자살경험, 가출경험, 폭력가해 등에서 다른 문제행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IV-24 참조).

표 IV-25

가족유형에 따른 중요한 문제행동 경험유무(%)

구분	가족유형	없다	있다	계
가출경험	양부모가정	94.5	5.5	100.0
	한부모가정	88.9	11.1	100.0
	조손가정	92.9	7.1	100.0
	무응답	88.9	11.1	100.0
폭력 가해	양부모가정	93.3	6.7	100.0
	한부모가정	90.2	9.8	100.0
	조손가정	92.9	7.1	100.0
	무응답	100.0	0.0	100.0
따돌림 피해	양부모가정	90.6	9.4	100.0
	한부모가정	86.2	13.8	100.0
	조손가정	80.0	20.0	100.0
	무응답	88.9	11.1	100.0
절도 가해	양부모가정	93.0	7.0	100.0
	한부모가정	89.1	10.9	100.0
	조손가정	91.4	8.6	100.0
	무응답	94.4	5.6	100.0
경찰조치경험	양부모가정	98.1	1.9	100.0
	한부모가정	95.7	4.3	100.0
	조손가정	100.0	0.0	100.0
	무응답	94.4	5.6	100.0
협박 피해	양부모가정	97.7	2.3	100.0
	한부모가정	96.8	3.2	100.0
	조손가정	95.7	4.3	100.0
	무응답	100.0	0.0	100.0
폭력 피해	양부모가정	97.3	2.7	100.0
	한부모가정	95.7	4.3	100.0
	조손가정	91.4	8.6	100.0
	무응답	100.0	0.0	100.0
성추행 피해	양부모가정	97.6	2.4	100.0
	한부모가정	97.3	2.7	100.0
	조손가정	97.1	2.9	100.0
	무응답	100.0	0.0	100.0
무단결석 경험	양부모가정	95.6	4.4	100.0
	한부모가정	89.1	10.9	100.0
	조손가정	92.9	7.1	100.0
	무응답	94.4	5.6	100.0
학교정학 경험	양부모가정	99.5	0.5	100.0
	한부모가정	99.3	0.7	100.0
	조손가정	100.0	0.0	100.0
	무응답	100.0	0.0	100.0
유해장소 출입	양부모가정	99.5	0.5	100.0
	한부모가정	98.9	1.1	100.0
	조손가정	100.0	0.0	100.0
	무응답	100.0	0.0	100.0
자살 경험	양부모가정	94.4	5.6	100.0
	한부모가정	91.6	8.4	100.0
	조손가정	94.3	5.7	100.0
	무응답	100.0	0.0	100.0
폭력게임중독	양부모가정	97.2	2.8	100.0
	한부모가정	95.9	4.1	100.0
	조손가정	94.3	5.7	100.0
	무응답	94.4	5.6	100.0

가정유형별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백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부모 가정에서 문제행동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편이고 다음으로 조손가정으로 나타났다(표 IV-25 참조).

특히 한부모 가정은 가출경험, 폭력가해, 따돌림 피해, 절도 가해, 폭력 피해, 무단결석, 자살 경험 문제행동이 다른 문제행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조손가정은 가출경험, 폭력가해, 따돌림 피해, 절도 가해, 폭력피해가 다른 문제행동 경험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V-26 학교유형에 따른 중요한 문제행동 경험 시기 비교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합계			F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심한 부부싸움 경험	9.43	2.206	355	10.82	2.930	522	10.26	2.746	877	57.640	.000
심한 가정폭력 경험	10.11	1.616	148	12.36	2.327	232	11.29	2.670	248	28.254	.000
심한 교사폭력 경험	10.75	1.616	148	12.36	2.327	232	11.73	2.220	380	53.997	.000
심한 이웃폭력 경험	10.01	1.909	147	11.93	2.519	175	11.05	2.451	322	57.133	.000
가출경험	10.42	2.217	118	12.86	2.186	237	12.05	2.477	355	97.346	.000
폭력가해 경험	10.63	1.620	160	12.86	1.749	239	11.97	2.019	399	165.250	.000
따돌림 피해	10.48	1.435	231	12.25	1.809	350	11.55	1.880	581	155.641	.000
절도 가해	9.50	2.073	133	11.64	2.559	291	10.97	2.611	424	71.457	.000
경찰조치 경험	10.70	1.838	20	13.97	1.340	104	13.44	1.867	124	87.904	.000
협박 피해	10.89	1.240	61	12.64	1.900	78	11.87	1.857	139	39.057	.000
폭력 피해	10.44	1.597	81	12.77	1.739	77	11.58	2.029	158	76.526	.000
성추행 피해	10.56	2.314	41	11.92	2.685	98	11.52	2.647	139	7.988	.005
무단결석 경험	10.28	1.622	76	13.46	1.772	201	12.58	2.239	277	186.036	.000
학교 정학 경험	11.50	0.577	4	14.00	1.257	20	13.58	1.501	24	14.785	.001
유해장소 출입	9.67	3.215	3	14.69	1.014	16	13.89	2.355	19	29.987	.000
자살 경험	11.63	1.158	115	13.58	1.476	211	12.89	1.659	326	150.562	.000
폭력게임 중독	11.43	1.470	69	13.71	1.649	99	12.77	1.932	168	84.290	.000

중요한 문제행동을 경험한 시기 비교에서는 저연령층인 초등학생의 문제행동경험 시기가 중학생보다 평균 2-3세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문제행동 경험 중 특히 심한 부부싸움 경험, 절도 가해 경험, 유해장소 출입 경험은 평균 9세로 매우 낮은 편인 반면에, 중학생의 경우는 심한 부부싸움 경험이 10세로 가장 빠르고, 다음으로는 심한 이웃폭력 경험, 절도 가해, 성추행피해가 11세로 나타났다(표 IV-26 참조).

3) 신뢰도 분석 결과

청소년 문제행동 신뢰도 분석은 외모지향태도, 경쟁지향태도, 금전지향태도, 심리적 불안감, 자아존중감, 긍정적 부모관계, 갈등적 부모관계, 긍정적 친구관계, 갈등적 친구관계,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태도, 유해환경접촉 기회, 비도덕적 행동 부분의 하위변수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표 IV-27과 같다.

표 IV-27 신뢰도 분석

구 분	Cronbach 's α	Cronbach 's Alpha Based on Standardized items	항목 수
외모지향태도	.918	.918	10
돈과 경쟁			
경쟁지향태도	.613	.617	5
금전 지향 태도	.700	.705	5
심리적 불안감	.889	.889	10
자아존중감	.808	.811	6
부모관계			
긍정적 부모관계	.848	.852	5
갈등적 부모관계	.833	.834	5
친구관계			
긍정적 친구관계	.760	.770	5
갈등적 친구관계	.818	.822	5
학업수행			
학업스트레스	.694	.690	3
학업성취태도	.766	.764	3
유해환경 접촉 기회	.786	.807	5
비도덕적 행동	.825	.837	10

(1) 외모지향태도

외모지향태도는 얼굴과 몸매에 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나는 뛰어난 외모(얼굴, 몸매)를 가진 사람들이 부럽다.”, “외모는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에 있는 나의 사진을 보면 성형이나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918이다.

(2) 돈과 경쟁

① 경쟁지향태도

경쟁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나는 내가 발전하는데 친구들과의 경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나는 중요한 시험 때 공부 잘하는 친구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 시험을 망쳤으면 좋겠다.” 등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613이다.

② 금전 지향 가치 태도

돈에 대한 가치를 지향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나는 우리 사회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돈이 많다면 좋은 학교 진학, 좋은 직장을 구하는데 굳이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등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700이다.

③ 심리적 불안감

심리적 불안감은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적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나는 요즘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자주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 나는 화나면 물건을 집어던진다.”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889이다.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대한 생각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808이다.

(5) 부모관계

① 긍정적 부모관계

긍정적 부모관계는 아동 및 청소년과 부모님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한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등의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848이다.

② 갈등적 부모관계

갈등적 부모관계는 아동 및 청소년과 부모님과의 갈등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나는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부모님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많다.”, “나는 가족들과 자주 다툰다.” 등의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833이다.

(6) 친구관계

① 긍정적 친구관계

긍정적 친구관계는 아동 및 청소년과 친구 친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친한 친구들의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대화한다.” 등의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760이다.

② 갈등적 친구관계

갈등적 친구관계는 아동 및 청소년과 친구 친구와의 갈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나는 친구들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나는 친구들과 가끔씩 다투는 편이다.” 등의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818이다.

(7) 학업수행

①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아동 및 청소년의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수업내용이 즐거운 편이다.” 등의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694이다.

② 학업성취태도

학업성취태도는 학업수행과 관련된 성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성공하려면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좋은 성적은 친구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해준다.” 등의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766이다.

③ 유해환경 접촉 기회

아동 및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 기회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변에 야한 사진이나

광고지 등을 보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주변에 성인만화나 도서는 언제든지 쉽게 볼 수 있다.” 등의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786이다.

(8) 비도덕적 행동

비도덕적인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825이다.

총 10문항으로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그 내용은 “나는 학교선배들이 시키면 올바르게 않더라도 할 수 밖에 없다.”, “나는 친한 친구들이 가끔 올바르게 않은 행동을 할지라도 함께 할 수밖에 없다.” “내 친한 친구들 중에 잘못되거나 못된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다.”, “내 선배들 중에 잘못되거나 못된 행동을 하는 선배가 있다.” 등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4)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을 통한 청소년 문제집단 예측 모형 산출

초등생과 중등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청소년 문제 집단으로 구분 예측하기 위한 모형이 유용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을 실행하였으며, 독립변수를 투입하는 방법은 전진단계 입력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양적인 변수를 가지고, 종속변수가 이변량을 가지는 비선형 회귀분석을 의미하며, 일반 회귀분석처럼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나, 그 추정방법에 있어 회귀분석은 잔차 제곱의 합을 최소화 하지만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사건발생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5) 가해경험에 대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 초등생 가해경험 집단 설명 요인에 대한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 결과

먼저 초등생을 대상으로 가해 경험 여부에 대한 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표 IV-28>에서와 같이 로짓 함수모형의 적절성을 검정하였다. 이는 가해경험 초등생 집단 설명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의 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모형의 전체테스트 결과 4단계까지 독립변수의 계수가 유의수준 .000으로 나타나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즉, 초등생 가해경험 집단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변수들의 영향을 밝히는 모형으로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V-29>의 모형요약에서도 마찬가지로 -2 Log 우도는 모형의 적합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0에 가까울수록 좋다고 볼 수 있다. 모형의 -2 Log 우도는 1814.311으로 상수항만으로 구성된 모형의 -2 Log 우도에 비해 <표 IV-28>에서 제시된 카이제곱 345.962 정도 차이가 난다. 따라서 상수항만으로 구성된 모형보다 독립 변수들이 포함된 4단계 모형의 적합도가 훨씬 높고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V-28 초등생 가해경험 집단 구분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구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4 단계 단계	7.365	1	.007
블록	345.962	4	.000
모형	345.962	4	.000

표 IV-29 초등생 가해 경험 집단 구분 회귀 모형요약

단계	-2 Log 우도	Cox와 Snell의 R-제곱	Nagelkerke R-제곱
4	1814.311	.113	.215

Hosmer와 Lemeshow 모형 적합도 검정은 <표 IV-30>과 <표 IV-31>에서와 같이 회귀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를 카이제곱 값과 가해경험에 대한 관측 및 기대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종속변수인 가해경험의 실제치와 회귀모형에 의한 예측치 간의 일치정도를 제시하는데 그 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높다.

검정결과 유의확률값이 .621로써 $\alpha=0.05$ 보다 크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초등생의 가해경험과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으로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IV-30 초등생 가해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단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5	6.238	8	.621

표 IV-31 초등생 가해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esmer와 Lemeshow 검정 분할표

구분	가해 경험 = 없다		가해 경험 = 있다		합계	
	감시됨	예상됨	감시됨	예상됨		
5 단계	1	283	278.528	3	7,472	286
	2	279	277.542	8	9,458	287
	3	272	274.894	15	12,106	287
	4	270	272.495	18	15,505	288
	5	272	267.392	15	19,608	287
	6	260	261.451	27	25,549	287
	7	256	254.176	31	32,824	287
	8	245	243.788	43	44,212	288
	9	217	222.879	70	64,121	287
	10	160	160.855	128	127,145	288

<표 IV-32>에서는 초등생 가해경험에 대한 관측값 예측값을 분류표의 분류 행렬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결과는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예측할 확률은 98.5%인 반면에 가해 경험이 있는 집단으로 예측할 확률은 11.7%로 나타났다. 즉, 초등생의 11.7%는 가해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모형의 분류 정확성은 87.7%로 나타났다.

표 IV-32 초등생 가해경험 집단 구분 분류표

감시됨			예측		분류정확 %
			가해 경험		
			없다	있다	
5 단계	가해 경험	없다	2476	38	98.5
		있다	316	42	11.7
전체 퍼센트					87.7

<표 IV-33>에서는 초등생의 가해경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를 유의수준 .05수준에서 단계별 진입한 결과 심리적 불안감, 갈등적 친구관계, 비도덕적 행동, 위계에 의한 폭력 피해 4개 독립변수가 초등생의 가해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3 초등생 가해경험에 대한 회귀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구분	B	S.E.	Wals	자유도	유의확률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상한	하한	
4 단 계	심리적불안감	.041	.009	19.364	1	.000	1.042	1.023	1.061
	갈등적친구관계	.135	.017	62.612	1	.000	1.145	1.107	1.183
	비도덕적행동	.030	.011	7.429	1	.006	1.030	1.008	1.052
	위계폭력피해	.727	.121	36.411	1	.000	2.069	1.634	2.621
	상수항	-7.268	.416	304.859	1	.000	.001		

4개 독립변수가 초등생의 가해 경험에 대한 Exp(B)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생은 위계에 의한 폭력 피해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가해를 경험 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2.069배 커지며, 확률적으로는 106.4%씩 증가한다.

둘째, 초등생의 비도덕적 행동이 1단위 증가하면 가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1.030배 커지며, 확률적으로는 3% 씩 증가한다.

셋째, 초등생은 갈등적인 친구관계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가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1.145배씩 커지며, 확률적으로 14.5%씩 늘어난다.

넷째, 초등생의 심리적 불안감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가해 경험을 할 확률이 1.042배 커지고, 확률적으로는 4.2%씩 증가한다.

(2) 중등생 가해 경험 집단 설명 요인에 대한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 결과

중등생을 대상으로 한 가해 경험 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표 IV-34>와 같이 모형계수에 대한 전체테스트를 한 결과 모형은 중등생 가해 경험 집단에 포함된 변수들의 영향이 .000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어 중등생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산출하는데 적합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V-34 중등생 가해 경험집단 구분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구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4단계 단계	3.835	1	.049
블록	300.409	4	.000
모형	300.409	4	.000

또한 <표 IV-35> 로지스틱 모형 요약에서도 -2 Log 우도의 값이 2621.898 보다도 <표 IV-34>의 카이제곱 값 300.409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들이 포함된 4단계 모형의 적합도 결과가 중등생의 가해 경험 집단을 구분하는 모형으로 좀 더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V-35 중등생 가해 경험 집단 구분 회귀 모형요약

단계	-2 Log 우도	Cox와 Snell의 R-제곱	Nagelkerke R-제곱
4	2621.898	.094	.152

Hosmer와 Lemeshow 검정 결과는 <표 IV-36>과 <표 IV-37>에서와 같이 회귀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를 카이제곱 값과 가해경험에 대한 관측 및 기대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종속변수인 중등생의 가해경험 실제치와 회귀모형에 의한 예측치 간의 일치정도를 제시하는데 그 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높다.

검정결과 유의확률값이 .042로써 중등생의 가해경험과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으로 적합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IV-36 중등생 가해 경험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단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4	16.045	8	.042

표 IV-37 중등생 가해경험 회귀모형에 대한 Hesmer와 Lemeshow 검정에 대한 분할표

구분	가해 경험 = 없다		가해 경험 = 있다		합계	
	감시됨	예상됨	감시됨	예상됨		
4 단계	1	286	284.108	18	19,892	304
	2	271	277.762	33	26,238	304
	3	266	272.126	38	31,874	304
	4	276	267.369	28	36,631	304
	5	273	263.006	32	41,994	305
	6	263	256.351	41	47,649	304
	7	235	249.050	69	54,950	304
	8	241	238.766	63	65,234	304
	9	208	217.225	96	86,775	304
	10	155	148.236	148	154,764	303

중등생 가해 경험 집단에 대한 구분 예측분류표는 <표 IV-38>과 같다.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구분될 확률이 98.2%인 반면에 가해경험 집단으로 구분할 가능성이 14.1%로 나타났으며, 모형에 따른 분류의 정확성은 82.6%이다.

표 IV-38 중등생 가해경험 집단 예측 분류표

감시됨		예측			
		가해 경험		분류정확 %	
		없다	있다		
4 단계	가해 경험	없다	2,430	44	98.2
		있다	486	80	14.1
전체 퍼센트					82.6

중등생 가해 경험 집단 구분 회귀 방정식에 포함된 4개 독립변수는 초등생과 마찬가지로 심리적 불안감, 갈등적 친구관계, 비도덕적 행동, 위계에 의한 폭력 피해로 나타났으며, 모두 중등생 가해 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립변수 간 영향정도를 보면 위계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중등생의 가해 경험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비에서도 위계 폭력 피해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중등생 가해 경험은 2.819배 증가하며, 확률적으로는 181.9%씩 확대된다. 이 결과는 다른 영향요인에도 불구하고, 교사, 가정, 이웃에 의한 폭력 피해가 중등생의 가해 경험을 매우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 IV-39 참조).

표 IV-39 **중등생 가해 경험 집단 회귀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구 분	B	S.E.	Wals	자유도	유의 확률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4 단계	심리적불안감	.015	.007	4.220	1	.040	1.015	1.001	1.030
	갈등적친구관계	.097	.015	42.897	1	.000	1.102	1.070	1.135
	비도덕적행동	.017	.009	3.872	1	.049	1.017	1.000	1.035
	위계폭력피해	1.036	.090	133.136	1	.000	2.819	2.364	3.361
	상수항	-6.789	.345	388.089	1	.000	.001		

6) 피해경험에 대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 초등생 피해경험 집단 설명 요인에 대한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 결과

초등생 피해 경험 집단 구분을 위한 로지스틱 분석 모형 결과는 독립변수의 영향이 4단계 까지 유의수준 .000으로 나타나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독립변수들이 초등생의 피해 경험에 영향을 알 수 있는 적합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표 IV-40 참조).

표 IV-40 **초등생 피해경험집단 구분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구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4 단계	5.567	1	.018
블록	356.218	4	.000
모형	356.218	4	.000

모형적합도에서 우도는 1408.624로 카이 값이 356.218정도 차이가 난다. 따라서 상수항으로 구성된 모형보다 독립 변수가 포함된 4단계 모형의 적합도가 보다 유용하다고 말 할 수 있다(표 IV-41 참조).

표 IV-41 초등생 피해경험집단 구분 회귀 모형 요약

단계	-2 Log 우도	Cox와 Snell의 R-제곱	Nagelkerke R-제곱
5	1408.624	.117	.227

Hosmer와 Lemeshow 모형 적합성 검정 결과는 <표 IV-42>에서와 같이 유의도가 .590이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초등생 피해청소년에 대한 독립변수의 관계 모형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V-42 초등생 피해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단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5	6.511	8	.590

표 IV-43 초등생 피해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에 대한 분할표

구분	피해 경험 = 없다		피해 경험 = 있다		합계	
	감시됨	예상됨	감시됨	예상됨		
4 단계	1	284	281.628	4	6.372	288
	2	279	278.628	8	8.372	287
	3	274	276.331	13	10.669	287
	4	279	273.245	8	13.755	287
	5	272	269.214	15	17.786	287
	6	262	263.628	24	22.372	286
	7	259	257.822	28	29.178	287
	8	249	247.021	38	39.979	287
	9	219	228.098	69	59.902	288
	10	161	162.387	127	125.613	288

초등생 피해 경험 집단에 대한 분류행렬과 분류결과는 <표 IV-44>에서와 같이 피해 경험 집단으로 예측될 확률이 11.4%, 그렇지 않을 확률이 98.3%로 나타났다. 전체 모형에서의 분류의 정확도는 88.4%이다.

표 IV-44 초등생 피해경험 집단 구분 분류표

감시됨			예측		
			피해 경험		분류정확 %
			없다	있다	
5 단계	피해 경험	없다	2500	38	98.3
		있다	296	38	11.4
전체 퍼센트					88.4

초등생에 대한 피해 경험에 로지스틱 모형에 최종 포함된 독립변수는 심리적 불안감, 자아존중감, 갈등적 친구관계, 위계에 의한 폭력 피해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수들은 초등생의 피해 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비에 대한 결과는 <표 IV-45>에서와 같다.

먼저, 초등생은 위계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한 단위 상승할수록 다른 피해 경험이 2.24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률적으로는 124.5%씩 증가한다.

둘째, 초등생의 갈등적 친구관계가 한 단위 높아갈수록 다른 피해 경험이 1.15배 증가한다. 확률적으로는 15%정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초등생의 자아존중감이 한 단위 상승할수록 피해경험 집단은 1.039배, 3.1%씩 증가한다. 이 결과는 원론적으로 자아존중감은 문제행동이나 문제 집단을 최소화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저연령층인 초등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에 인식이 부정확하고 이와 다르게 자신감이 높을 경우에는 피해 집단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초등생의 심리적 불안감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피해 집단이 될 가능성이 1.051배 증가한다. 즉, 5.1%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5 초등생 피해경험에 대한 회귀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구분	B	S.E.	Wals	자유도	유의확률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4 단계	심리적불안감	.050	.010	26.295	1	.000	1.051	1.031	1.071
	자아존중감	.039	.016	5.513	1	.019	1.039	1.006	1.073
	갈등적친구관계	.174	.018	97.968	1	.000	1.190	1.150	1.232
	위계폭력피해	.809	.121	44.576	1	.000	2.245	1.771	2.847
	상수항	-8.528	.633	181.388	1	.000	.000		

(2) 중등생 피해경험 집단 설명 요인에 대한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 결과

중등생 피해 경험 집단 구분 모형 전체 카이제곱 테스트 결과는 <표 IV-46>에서와 같이 모형적합도는 유의확률 .000으로 나타나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포함된 이모형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46 중등생 피해경험집단 구분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구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3 단계	19.678	1	.000
블록	333.813	3	.000
모형	333.813	3	.000

<표 IV-47>의 중등생 피해 경험 집단 구분 회귀 모형 요약에서도 -2 Log 우도가 2387.250으로 카이제곱 값이 독립변수가 포함되지 않는 모형보다 333.813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V-47 중등생 피해경험집단 구분 회귀 모형 요약

단계	-2 Log 우도	Cox와 Snell의 R-제곱	Nagelkerke R-제곱
4	2387.282	.104	.176

중등생 피해 경험 회귀 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에서도 <표 IV-48>과 <표 IV-49>에서와 같이 유의확률이 .677로 나타나 .05보다 크기 때문에 모형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중등생의 피해 경험집단에 독립변수가 영향을 밝히는 모형으로 유용하다.

표 IV-48 중등생 피해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단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4	5.736	8	.677

표 IV-49 중등생 피해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에 대한 분할표

구분		피해 경험 = 없다		피해 경험 = 있다		합계
		감시됨	예상됨	감시됨	예상됨	
3 단계	1	295	293.913	12	13.087	307
	2	281	284.201	22	18.799	303
	3	282	274.901	17	24.099	299
	4	272	273.989	31	29.011	303
	5	275	273.136	33	34.864	308
	6	259	261.164	43	40.836	302
	7	252	252.106	49	48.894	301
	8	252	243.559	52	60.441	304
	9	217	222.782	87	81.218	304
	10	154	159.248	155	149.752	309

중등생 피해집단 구분 분류 예측은 <표 IV-50>과 같이 중등생이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구분된 확률은 98.2%이고, 있는 집단으로는 13.2%로 나타났으며, 전체 분류의 정확도는 84.2%로

제시되었다.

표 IV-50 중등생 피해경험 집단 구분 분류표

감시됨			예측		
			피해 경험		분류정확 %
			없다	있다	
4 단계	피해 경험	없다	2493	46	98.2
		있다	435	66	13.2
전체 퍼센트			84.2		

중등생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 단계적 진입한 결과 4단계에서 심리적 불안감, 갈등적 친구관계, 위계에 의한 폭력 피해 변수가 유의미하게 결정되었다.

독립변수는 모두 중등생의 피해경험에 대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위계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은 다른 변수에 비해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IV-51>에서의 중등생 피해 경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Exp(B)(승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중등생의 심리적 불안감은 피해 경험 집단을 1.034배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3.4% 정도 피해 집단을 증가시킨다.

또한 갈등적 친구관계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1.137배 커지며, 확률적으로는 13.7%씩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중학생의 위계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은 다른 피해 경험에 강화하고 있으며, 위계에 의한 폭력 피해가 한 단위 증가 할 때마다, 중등생이 피해 집단이 될 가능성은 2.558배 커지고, 확률적으로는 155.8% 씩 증가한다. 이 결과는 중학생의 경우 부모, 교사, 이웃의 폭력적 지도방법이 청소년 문제해결에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V-51 중등생 피해경험에 대한 회귀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구분	B	S.E.	Wals	자유도	유의확률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도	
							상한	하한
심리적불안감	.033	.007	19.738	1	.000	1.034	1.019	1.049
4 갈등적 친구관계	.129	.015	70.405	1	.000	1.137	1.104	1.172
단계 위계폭력피해	.939	.091	105.708	1	.000	2.558	2.139	3.059
상수항	-7.125	.354	405.915	1	.000	.001		

7) 가출경험에 대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 초등생 가출 경험 집단 설명 요인에 대한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 결과

초등생 가출 경험 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모형 적합성에 대한 χ^2 테스트 결과는 <표 IV-52>에서와 같이 4단계 모형에서 유의확률 .000,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생의 가출경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이 포함된 모형의 적합도가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IV-52 초등생 가출경험집단 구분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구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단계	4.540	1	.033
4 단계 블록	114.801	4	.000
모형	114.801	4	.000

모형에 대한 <표 IV-53>의 -2 Log 우도를 보면 875.905이며, 독립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의 차이가 114.801 정도로 나타나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4단계 모형이 좀더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V-53 초등생 가출경험집단 구분 회귀 모형 요약

단계	-2 Log 우도	Cox와 Snell의 R-제곱	Nagelkerke R-제곱
4	875.905	.039	.134

초등생 가출 경험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결과는 <표 IV-54>와 <표 IV-55>와 같다.

초등생 가출 경험의 실제치와 회귀모형에 의한 예측치 간의 차이가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높다고 본다. 검정 결과 유의확률 $\alpha=0.05$ 수준보다 큰 .566으로 나타나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즉, 초등생 가출 경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제시하는 모형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V-54 초등생 가출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단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4	6.732	8	.566

표 IV-55 초등생 가출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에 대한 분할표

구분	가출경험 = 없다		가출경험 = 있다		합계	
	감시됨	예상됨	감시됨	예상됨		
4 단계	1	284	283.879	3	3.121	287
	2	282	284.096	6	3.904	288
	3	285	282.314	2	4.686	287
	4	286	283.374	3	5.626	289
	5	282	280.339	5	6.661	287
	6	281	279.929	7	8.071	288
	7	279	277.073	8	9.927	287
	8	272	274.206	15	12.794	287
	9	264	268.864	23	18.136	287
	10	238	238.926	47	46.074	285

초등생 가출 경험 집단에 대한 관측값 예측값 분류표의 분류 행렬은 <표 IV-56>과 같다. 전체 분류 정확도는 95.9%이며, 가출 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분류할 확률이 99.9%이 반면에

가출 경험 집단으로 구분될 가능성은 0.8%로 나타났다.

표 IV-56 초등생 가출경험 집단 구분 분류표

감시됨			예측		
			가출 경험		분류정확 %
			없다	있다	
4 단계	가출 경험	없다	2749	4	99.9
		있다	118	1	.8
전체 퍼센트			95.9		

초등생 가출 경험에 대한 독립변수를 단계별 진입한 결과 심리적 불안감, 긍정적 부모관계, 갈등적 부모관계, 위계에 의한 폭력 피해가 초등생 가출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생 가출 경험에 대해 심리적 불안감, 갈등적 부모관계가, 위계에 의한 폭력 피해 변수가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긍정적 부모관계는 부적인 영향으로 초등생의 가출 경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57 참조).

표 IV-57 초등생 가출경험에 대한 회귀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구 분	B	S.E.	Wals	자유도	유의 확률	Exp (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4 단계	심리적불안감	.042	.013	10.230	1	.001	1.043	1.016	1.070
	긍정적부모관계	-.050	.023	4.579	1	.032	.951	.909	.996
	갈등적부모관계	.063	.025	6.245	1	.012	1.065	1.014	1.119
	위계폭력피해	.808	.160	25.537	1	.000	2.244	1.640	3.070
	상수항	-6.537	.704	86.273	1	.000	.001		

이상과 같이 초등생의 가출 경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EXP(B)를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생의 심리적 불안감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초등생의 가출경험은 1.043배 커지며, 4.3%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생의 긍정적인 부모관계는 가출 경험에 부적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긍정적인 부모관

계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가출 경험을 0.951배씩 줄이고, 확률적으로는 4.9%씩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등생의 갈등적 부모관계는 가출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갈등적인 부모관계가 한 단위 증가 할 때마다 가출 경험은 1.065배 커지고, 확률적으로는 6.5%씩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초등생의 위계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은 초등생 가출 경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이며, 폭력 피해 경험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가출 경험은 2.244배 커지고, 확률적으로는 124.4%씩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2) 중등생 가출 경험 집단 설명 요인에 대한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 결과

중학생 가출 경험 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모형 적합성에 대한 χ^2 테스트 결과는 <표 IV-58>에서와 같이 자유도 5, 유의확률 .000으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중등생의 가출경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제시한 모형의 적합도가 더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V-58 중등생 가출경험집단 구분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구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단계	5.076	1	.024
5 단계			
블록	171.762	5	.000
모형	171.762	5	.000

로지스틱 회귀모형 적합도 검정에서도 모형 우도비는 상수항 우도비에 대해 χ^2 값 9.324의 차이가 있다. 이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0이라고 전제하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표 IV-59 참조).

표 IV-59 **중등생 가출경험집단 구분 회귀 모형요약**

단계	-2 Log 우도	Cox와 Snell의 R-제곱	Nagelkerke R-제곱
5	1522.179	.055	.129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결과는 <표 IV-60>과 <표 IV-6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의확률이 0.05보다 큰 0.316이고, χ^2 값도 9.324로 나타났기 때문에 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는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표 IV-60 **중등생 가출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단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5	9.324	8	.316

표 IV-61 **중등생 가출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에 대한 분할표**

구분		가출 경험 = 없다		가출 경험 = 있다		합계
		감시됨	예상됨	감시됨	예상됨	
5 단계	1	301	297.378	3	6.622	304
	2	292	294.643	12	9.357	304
	3	294	292.356	10	11.644	304
	4	288	290.192	16	13.808	304
	5	286	286.952	17	16.048	303
	6	280	285.288	24	18.712	304
	7	289	281.979	15	22.021	304
	8	279	277.226	25	26.774	304
	9	260	266.916	44	37.084	304
	10	228	224.070	77	80.930	305

<표 IV-62>의 중등생 가출 경험 집단 구분은 5단계 모형에서 볼 때 가출 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99.9%이고, 가출 경험이 있는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4.1%로 나타났다. 전체 분류의 정확도는 92.2%이다.

표 IV-62 중등생 가출경험 집단 구분 분류표

감시됨			예측		
			가출 경험		분류정확 %
			없다	있다	
5 단계	가출 경험	없다	2793	4	99.9
		있다	233	10	4.1
전체 퍼센트					92.2

중등생 가출 경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결과는 <표 IV-63>과 같다.

중등생의 가출 경험에 대해 긍정적 부모관계, 갈등적 부모관계, 긍정적 친구관계, 비도덕적 행동, 위계에 의한 폭력 피해 등이 영향을 미치는 5개 변수로 나타났다.

이중 긍정적 부모관계는 중등생의 가출 경험을 낮추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에 나머지 4개 변수는 가출 경험을 더 높이는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표 IV-63 중등생 가출경험에 대한 회귀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구분	B	S.E	Wals	자유도	유의 확률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5단계	긍정적부모관계	-.071	.018	15.441	1	.000	.932	.899	.965
	갈등적부모관계	.040	.018	5.075	1	.024	1.041	1.005	1.078
	긍정적친구관계	.054	.021	6.657	1	.010	1.056	1.013	1.100
	비도덕적행동	.040	.011	12.499	1	.000	1.041	1.018	1.065
	위계폭력피해	.811	.108	56.610	1	.000	2.250	1.821	2.779
	상수항	-6.390	.652	96.099	1	.000	.002		

독립변수의 중등생 가출 경험에 대한 Exp(B)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생의 긍정적 부모관계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가출 경험을 0.932배 낮추며, -6.8%씩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등생의 갈등적 부모관계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가출 경험 집단은 1.005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등생의 긍정적 친구관계에서는 한 단위 증가 할수록 가출 경험 집단은 1.056배 커지고

있으며, 확률적으로는 5.6%씩 증가한다. 이 결과는 좋은 친구 나쁜 친구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에 대한 동조나 지지 등 원만한 친구관계가 가출을 지지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중등생이 위계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한 단위 증가 할수록 가출 경험 집단은 2.250배 커지고, 125%씩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계 폭력 피해 변수는 다른 변수에 비해 매우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교사, 가정, 이웃의 위계적 폭력 행사는 청소년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8) 무단결석에 대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 초등생 무단결석 집단 설명 요인에 대한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 결과

초등생의 무단결석 집단 구분을 위하여 회귀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실시한 결과 <표 IV-64> <표 IV-65>과 같다

전체모형에 대한 χ^2 검정결과 유의확률 0.000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수가 무단결석에 대해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모형의 -2 Log 우도에서도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형이 그렇지 않는 모형보다 카이 값이 38.613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초등생의 무단결석 집단구분에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형이 보다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V-64 초등생 무단결석경험집단 구분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구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단계	9.353	1	.002
2 단계	38.613	2	.000
블록	38.613	2	.000
모형	38.613	2	.000

표 IV-65 초등생 무단결석경험집단 구분 회귀 모형 요약

단계	-2 Log 우도	Cox와 Snell의 R-제곱	Nagelkerke R-제곱
2	634.364	.013	.064

초등생 무단결석 경험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결과는 <표 IV-66>와 <표 IV-67>에서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유의수준 0.05보다 큰 .587이고, χ^2 값은 6.540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초등생 무단결석에 대해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제시하고 있는 2단계 모형의 적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IV-66 초등생 무단결석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단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2	6.540	8	.587

표 IV-67 초등생 무단결석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에 대한 분할표

구분	무단결석 경험 = 없다		무단결석 경험 = 있다		합계	
	감시됨	예상됨	감시됨	예상됨		
2 단계	1	289	288.641	2	2,359	291
	2	278	280.177	5	2,823	283
	3	272	271.758	3	3,242	275
	4	277	278.052	5	3,948	282
	5	278	275.389	2	4,611	280
	6	288	285.225	3	5,775	291
	7	281	280.984	7	7,016	288
	8	280	278.421	7	8,579	287
	9	273	276.757	15	11,243	288
	10	284	284.597	23	22,403	307

본 회귀 모형에 대한 집단 분류예측은 <표 IV-68>과 같다. 무단결석 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분류 100%이며, 예측분류의 전체 정확율은 97.5%이다.

이 결과는 초등생의 경우 무단결석이 현장체험 학습형태로 부모의 연락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무단결석으로 보지 않게 될 수도 있다.

표 IV-68 초등생 무단결석경험 집단 구분 분류표

감시됨			예측		
			무단결석 경험		분류정확 %
			없다	있다	
2 단계	무단결석 경험	없다	2800	0	100.0
		있다	72	0	0.0
전체 퍼센트					97.5

초등생 무단결석 경험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갈등적 부모관계와 비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났으며, 두 변수 모두 무단결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표 IV-69 참조).

표 IV-69 초등생 무단결석경험에 대한 회귀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구분	B	S.E	Wals	자유도	유의 확률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갈등적부모관계	.094	.026	12.677	1	.000	1.098	1.043	1.157
2단계 비도덕적행동	.057	.019	9.571	1	.002	1.059	1.021	1.098
상수항	-5.913	.414	203.596	1	.000	.003		

초등생 무단결석 경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별 Exp(B) 결과는 초등생에게 갈등적 부모관계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무단결석 집단은 1.098배 커지고, 4.3%씩 증가한다.

초등생의 비도덕적 행동이 한 단위 증가하면 초등생의 무단결석은 1.059배 커지거나, 5.9%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중등생 무단결석 집단 설명 요인에 대한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 결과

중등생의 무단결석 집단 구분을 위하여 회귀모형 테스트 결과 <표 IV-70>과 <표 IV-71>과 같다. 중등생 무단결석에 대해 카이검정에서 유의확률 .000으로 나타났으며, -2 Log 우도는 1389.810으로 카이제곱 값이 148.173 만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제시된 모형이 적합하며,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학생 무단결석 집단을 구분하는 모형으로 좀 더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V-70 중등생 무단결석 경험집단 구분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구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6 단계	4.436	1	.035
블록	148.173	6	.000
모형	148.173	6	.000

표 IV-71 중등생 무단결석 경험집단 구분 회귀 모형 요약

단계	-2 Log 우도	Cox와 Snell의 R-제곱	Nagelkerke R-제곱
6	1389.810	.048	.120

중등생 무단결석 경험 회귀모형에 대한 적합성 검정인 Hosmer와 Lemeshow 검정 결과는 <표 IV-72>와 <표 IV-73>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무단결석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없으면 모형에 의한 관측치와 기대치가 일치하게 되는데, 검정결과 유의확률 .913으로 $\alpha=0.05$ 보다 크게 나타나 독립변수간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중등생 무단결석 영향을 밝히는 회귀 모형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V-72 중등생 무단결석 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단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6	3.316	8	.913

표 IV-73 중등생 무단결석 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esmer와 Lemeshow 검정에 대한 분할표

구분	무단결석 경험 = 없다		무단결석 경험 = 있다		합계	
	감시됨	예상됨	감시됨	예상됨		
6 단계	1	299	298.565	5	5.435	304
	2	297	295.881	7	8.119	304
	3	292	293.928	12	10.072	304
	4	294	292.032	10	11.968	304
	5	294	290.008	10	13.992	304
	6	289	287.648	15	16.352	304
	7	284	284.443	20	19.557	304
	8	281	279.683	23	24.317	304
	9	266	271.019	38	32.981	304
	10	232	234.793	72	69.207	304

로지스틱 모형을 통한 중등생 무단결석 경험 집단을 분류한 결과 <표 IV-74>과 같이 무단결석 경험 집단에 속할 확률은 2.4%인 반면에 그렇지 않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99.8%로이며, 전체 분류 정확도는 93%로 제시되었다.

표 IV-74 중등생 무단결석 경험 집단 구분 분류표

감시됨			예측		
			무단결석 경험		분류정확 %
			없다	있다	
6 단계	무단결석 경험	없다	2822	6	99.8
		있다	207	5	2.4
	전체 퍼센트				

중등생 무단결석 경험 집단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6개 변수로 나타났다.

이 중 긍정적 부모관계, 학업성취태도지향 변수는 중학생의 무단결석을 막아주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에 금전지향 태도, 심리적 불안감, 유해환경접촉, 위계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등은 중학생의 무단결석을 강화하는 변수로 나타났다(표 IV-75 참조).

표 IV-75 중등생 무단결석 경험에 대한 회귀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구분	B	SE	Wals	자유도	유의 확률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금전지향태도	.054	.024	5.167	1	.023	1.055	1.007	1.106
심리적불안감	.021	.010	4.453	1	.035	1.022	1.002	1.042
긍정적부모관계	-.056	.017	10.363	1	.001	.945	.913	.978
6단계 학업성취태도	-.102	.028	13.053	1	.000	.903	.855	.955
유해환경접촉	.057	.021	7.586	1	.006	1.058	1.017	1.102
위계폭력피해	.842	.110	58.397	1	.000	2.320	1.870	2.880
상수항	-5.282	.603	76.620	1	.000	.005		

독립변수의 영향정도를 보면 위계에 의한 폭력 피해가 다른 독립변수에 비하여 영향력이 가장 크다. 구체적으로 Exp(B)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생의 위계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무단결석 집단은 2.320배 증가시키고 있으며, 확률적으로는 132%씩 확대 된다

둘째, 중등생의 유해환경 접촉 기회가 한 단위 증가 할 때마다 무단결석 집단을 1.058배 커지고, 5.8%씩 확대된다.

셋째, 중등생의 학업 성취 지향태도가 한 단위 높아질 때마다 무단결석 집단은 0.903배 축소되고, 확률적으로는 9.7%씩 줄어든다.

넷째, 중등생의 긍정적인 부모관계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무단결석 집단은 0.945배 축소되고, 5.5%씩 줄어든다.

다섯째, 중등생의 심리적 불안감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무단결석 집단은 1.022배 커지고, 확률적으로는 2.2%씩 증가한다.

여섯째, 중등생의 금전지향태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무단결석 집단은 1.055배 커지고, 확률적으로는 5.5%씩 증가한다.

9) 유해환경 접촉 경험에 대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 초등생 유해환경 접촉 경험 집단 설명 요인에 대한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 결과

초등생의 유해환경 접촉 경험 집단을 구분을 위하여 회귀모형에 대한 χ^2 적합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IV-76>과 <표 IV-7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 적합성은 유의수준 .006에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며, 모형의 -2 Log 우도결과에서도 카이 값이 10.360으로 상수항 모형과는 차이를 보인다.

표 IV-76 초등생 유해장소 출입경험 집단 구분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구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2 단계	3.568	1	.059
블록	10.360	2	.006
모형	10.360	2	.006

표 IV-77 초등생 유해장소 출입경험 집단 구분 회귀 모형 요약

단계	-2 Log 우도	Cox와 Snell의 R-제곱	Nagelkerke R-제곱
2	75.680	.004	.122

초등생 유해환경 접촉 경험 로지스틱 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결과는 <표 IV-78>과 <표 IV-79> 검정 분할표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검정에서는 초등생의 유해장소 출입 경험 경험의 실제치와 회귀모형에 의한 예측치 간의 일치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없다고 말 할 수 있게 된다.

이 모형은 유의확률 .259로 상수모형의 0.05보다 크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모형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V-78 초등생 유해장소 출입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단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2	6.519	5	.259

표 IV-79 초등생 유해장소 출입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에 대한 분할표

구분	유해장소 출입 경험 = 없다		유해장소 출입 경험 = 있다		합계	
	감시됨	예상됨	감시됨	예상됨		
2 단계	1	933	932.345	0	.655	933
	2	437	436.611	0	.389	437
	3	507	508.426	2	.574	509
	4	219	218.687	0	.313	219
	5	252	251.529	0	.471	252
	6	271	270.291	0	.709	271
	7	247	248.110	4	2.890	251

초등생 유해장소 출입 경험 집단에 대한 예측은 유해환경 접촉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100%이고, 분류의 정확도도 99.8%이다. 즉, 초등생의 경우 술집이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보다는 온라인 접촉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표 IV-80 참조).

표 IV-80 초등생 유해장소 출입경험 집단 구분 분류표

2 단계	유해환경 접촉 경험	감시됨	예측		분류정확 %
			유해장소 출입 경험		
			없다	있다	
		없다	2866	0	100.0
		있다	6	0	0.0
		전체 퍼센트			99.8

초등생 유해장소 출입 경험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모형에 포함된 변수는 위계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변수와 유해환경 접촉 기회 변수 2개이다.

두 개의 독립변수 모두 초등생의 유해장소 출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위계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한 단위 상승할 때마다 초등생이 유해 장소 출입이 2.850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해환경 접촉 기회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초등생의 유해장소 출입 경험은 1.268배 증가하며, 확률적으로는 26.8%씩 증가한다(표 IV-81 참조).

이 결과에서 보이듯이 초등생의 유해장소 출입은 온라인에서의 유해환경접촉, 지역 유해환경 등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유해환경에 대한 제한 정책이 개별시설 단위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실효성이 있는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V-81 초등생 유해장소 출입경험에 대한 회귀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구분	B	S.E	Wals	자유도	유의 확률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유해환경접촉기회	.237	.091	6.785	1	.009	1.268	1.061	1.516
2단계 위계폭력피해	1.047	.477	4.822	1	.028	2.850	1.119	7.260
상수항	-11.591	1.809	41.039	1	.000	.000		

(2) 중등생 유해환경 접촉 경험 집단 설명 요인에 대한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 결과

중등생의 유해 장소 출입 경험 집단에 대한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표 IV-82>와 <표 IV-83>에서와 같다. 모형에 대한 χ^2 검정 결과 유의확률 .000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나 종속변수인 중등생의 유해 장소 출입 경험에 대해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 적합도 결과 -2 Log 우도는 상수항모형의 -2 Log 우도 비하여 χ^2 값이 71.194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V-82 중등생 유해장소 출입경험집단 구분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구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3 단계	4.768	1	.029
블록	71.194	3	.000
모형	71.194	3	.000

표 IV-83 중등생 유해장소 출입경험집단 구분 회귀 모형 요약

단계	-2 Log 우도	Cox와 Snell의 R-제곱	Nagelkerke R-제곱
3	159.544	.023	.317

그리고 중등생 유해장소 출입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표 IV-84>와 검정 분할표<표 IV-85>에서 χ^2 값은 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본 연구에서는 12.279이고, 유의확률은 .139로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시된 모형이 수용할 만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표 IV-84 중등생 유해장소 출입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단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3	12.279	8	.139

표 IV-85 중등생 유해장소 출입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esmer와 Lemeshow 검정에 대한 분할표

구분	유해장소 출입 경험 = 없다		유해장소 출입 경험 = 있다		합계	
	감시됨	예상됨	감시됨	예상됨		
3 단계	1	299	298.933	0	.067	299
	2	295	295.892	1	.108	296
	3	300	299.844	0	.156	300
	4	317	316.778	0	.222	317
	5	306	305.698	0	.302	306
	6	298	297.588	0	.412	298
	7	302	301.398	0	.602	302
	8	301	300.060	0	.940	301
	9	304	306.068	4	1.932	308
	10	299	298.741	14	14.259	313

중등생 유해장소 출입 경험 집단에 대한 예측 분류에서는 출입 경험이 없는 집단에 대한 예측이 100%이고, 출입 경험이 있는 집단으로 구분될 확률이 5.3%이다. 분류의 정확도는 99.4%로 나타났다<표 IV-86 참조>.

표 IV-86 중등생 유해장소 출입경험 집단 구분 분류표

감시됨			예측		
			유해장소 출입 경험		분류정확 %
			없다	있다	
3 단계	유해환경 접촉 경험	없다	3020	1	100.0
		있다	18	1	5.3
	전체 퍼센트				

<표 IV-87>의 중등생 유해장소 출입 경험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3개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친구관계, 유해환경 접촉 기회, 위계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다.

이 가운데 긍정적 친구관계는 중등생의 유해장소 출입을 감소시키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해환경 접촉 기회와 위계에 의한 폭력 피해는 유해장소 출입을 증가시키는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승비에서도 특히 위계에 의한 폭력 피해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중등생의 유해장소 출입 경험은 5.260배 커지고 있으며, 확률적으로는 426%씩 증가한다.

이는 교사, 부모, 이웃 어른들에 의한 청소년지도 폭력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유해환경 접촉 기회가 한 단위 커질 때마다 중등생의 유해장소 출입 경험은 1.322배 커지고 있으며, 확률적으로는 32.2%씩 증가한다. 따라서 청소년유해 환경 특히 온라인 환경 접촉에 대한 규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긍정적 친구관계는 중등생의 유해 장소 출입을 줄이고 있으며, 긍정적 친구관계가 한 단위 커질 때마다 유해 장소 출입 경험은 0.859배 줄어들고 있고, 확률적으로는 14.1%씩 감소한다.

표 IV-87 중등생 유해장소 출입경험에 대한 회귀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구분	B	S.E	Wals	자유도	유의 확률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3단계	긍정적친구관계	-.152	.070	4.716	1	.030	.859	.749	.985
	유해환경접촉기회	.279	.054	27.062	1	.000	1.322	1.190	1.469
	위계폭력피해	1.660	.259	41.008	1	.000	5.260	3.165	8.743
	상수항	-11.590	1.625	50.891	1	.000	.000		

10) 자살 시도 경험에 대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 초등생 자살 시도 집단 설명 요인에 대한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 결과

초등생의 자살 시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분석한 결과 <표 IV-88>과 같이 2단계 모형에서 유의확률 .000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생 자살 시도 경험에 독립변수들의 영향력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표 IV-88 초등생 자살시도 경험 집단 구분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구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2 단계	6.384	1	.012
블록	235.142	2	.000
모형	235.142	2	.000

모형 분석 결과 -2 Log 우도는 768.094로 상수항 모형에 비해 χ^2 값이 235.142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들이 포함된 2단계 회귀모형이 보다 유용한 모형이 된다<표 IV-89 참조>.

표 IV-89 초등생 자살시도 경험 집단 구분 회귀 모형 요약

단계	-2 Log 우도	Cox와 Snell의 R-제곱	Nagelkerke R-제곱
2	768.094	.079	.267

또한 로지스틱 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표 IV-90>과 분할표<표 IV-91>에서도 연구모형은 유의확률 .178로 $\alpha=0.05$ 보다 크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IV-90 초등생 자살시도 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단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2	11.433	8	.178

표 IV-91 초등생 자살시도 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esmer와 Lemeshow 검정에 대한 분할표

구분	자살시도 경험 = 없다		자살시도 경험 = 있다		합계	
	감시됨	예상됨	감시됨	예상됨		
2 단계	1	293	291.923	0	1.077	293
	2	285	283.590	0	1.410	285
	3	289	287.138	0	1.862	289
	4	284	281.585	0	2.415	284
	5	285	287.631	6	3.369	291
	6	282	282.091	5	4.909	287
	7	276	279.576	11	7.424	287
	8	275	274.219	11	11.781	286
	9	263	266.565	26	22.435	289
	10	219	216.681	62	64.319	281

초등생 자살시도 경험 집단을 구분하는 <표 IV-92> 분류표를 보면 자살 시도한 경험이 없는 집단이 99.7%인 반면에 경험이 있는 집단이 7.4%로 나타났으며, 분류의 전체 정확도는 95.8%이다.

표 IV-92 초등생 자살시도 경험 집단 구분 분류표

구분	감시됨	예측			분류정확 %
		자살시도 경험		분류정확 %	
		없다	있다		
2 단계	자살 시도 경험	없다	2742	9	99.7
		있다	112	9	7.4
	전체 퍼센트				95.8

이상과 같은 초등생 자살 시도 경험 로지스틱 모형에 대한 결과는 <표 IV-93>과 같이 2개 독립변수가 초등생 자살 시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불안감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 부모관계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승비인 Exp(B)의 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부모관계는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초등생의 자살 시도 경험은 0.944배 줄어들고 확률적으로 5.6%씩 줄어든다. 반면에 심리적 불안감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1.141배 커지고, 확률적으로는 16.9%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3 초등생 자살 시도 경험에 대한 회귀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구분	B	SE	Wals	자유도	유의 확률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심리적불안감	.156	.012	160,316	1	.000	1.169	1.141	1.197
2단계 긍정적부모관계	-.058	.023	6,396	1	.011	.944	.902	.987
상수항	-5.812	.570	104,117	1	.000	.003		

(2) 중등생 자살 시도 집단 설명 요인에 대한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 결과

중등생의 자살 시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분석한 결과 <표 IV-94>와 같다.

2단계 모형에서 유의확률 .000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표 IV-95>에서 -2 Log 우도는 상수항모형과 χ^2 값이 376.643의 차이가 있으며, 모형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V-94 중등생 자살 시도 경험 집단 구분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구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단계	4.823	1	.028
6 단계 블록	376.643	6	.000
모형	376.643	6	.000

표 IV-95 중등생 자살 시도 경험 집단 구분 회귀 모형 요약

단계	-2 Log 우도	Cox와 Snell의 R-제곱	Nagelkerke R-제곱
6	1258.006	.117	.280

중등생 자살 시도 경험 로지스틱 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결과에서도 <표 IV-96>, <IV-97>과 같이 유의수준이 0.370으로 0.05보다 크고, χ^2 값도 크기 때문에 중등생의 자살 시도 경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을 나타내는 모형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V-96 중등생 자살시도 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단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6	8.683	8	.370

표 IV-97 중등생 자살시도 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esmer와 Lemeshow 검정에 대한 분할표

구분	자살 시도 경험 = 없다		자살 시도 경험 = 있다		합계	
	감시됨	예상됨	감시됨	예상됨		
6 단계	1	303	302.346	1	1,654	304
	2	302	301.104	2	2,896	304
	3	299	299.495	5	4,505	304
	4	294	297.626	10	6,374	304
	5	298	295.400	6	8,600	304
	6	290	291.900	14	12,100	304
	7	291	286.727	13	17,273	304
	8	274	278.643	30	25,357	304
	9	270	261.052	34	42,948	304
	10	188	194.706	116	109,294	304

<표 IV-98>에서는 중등생 자살시도 경험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결과 중등생 자살 시도 경험 그룹에 대한 분류예측을 제시하고 있다.

중등생 중에서 자살시도 경험이 없는 집단이 99.4%이고,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집단이 15.6%로 분류 되었다. 분류표의 전체 정확성은 93%로 나타났다.

표 IV-98 중등생 자살시도 경험 집단 구분 분류표

6 단계	자살 시도 경험	감시됨	예측		분류정확 %
			자살 시도 경험		
			없다	있다	
	없다		2791	18	99.4
	있다		195	36	15.6
	전체 퍼센트				93.0

중등생 자살시도 경험에 대한 로지스틱 모형 분석 결과는 <표 IV-99>와 같다.

자살시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6개이며, 금전지향태도, 심리적 불안감, 자아존중감, 긍정적 부모관계, 긍정적 친구관계, 위계에 의한 폭력이다.

이중 금전적 지향태도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긍정적 부모관계는 중등생의 자살 시도를 줄여주는 부적 영향이 있으며, 심리적 불안감과 긍정적 친구관계 그리고 위계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은 중등생의 자살 시도를 커지게 하는 정적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9 중등생 자살시도 경험에 대한 회귀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구분	B	S.E	Wals	자유도	유의 확률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금전지향태도	-.068	.022	9.093	1	.003	.935	.894	.977
심리적불안감	.134	.012	130.527	1	.000	1.144	1.118	1.171
자아존중감	-.047	.021	4.761	1	.029	.955	.915	.995
6단계 긍정적부모관계	-.037	.018	4.021	1	.045	.964	.930	.999
긍정적친구관계	.056	.022	6.295	1	.012	1.057	1.012	1.105
위계폭력피해	.955	.112	72.615	1	.000	2.598	2.086	3.236
상수항	-8.001	.819	95.534	1	.000	.000		

구체적으로 중등생 자살시도 경험에 대한 Exp(B)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생에 대한 위계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중등생의 자살 시도 경험은 2.598배 커지고, 확률적으로는 158.9%씩 확대된다. 부모, 교사, 이웃어른 등 위계에 의한 폭력이 다른 독립변수보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등생의 긍정적 친구관계가 한 단위 커질 때마다 중등생의 자살 시도 경험은 1.012배 커지고 있다.

셋째, 중등생의 심리적 불안감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중등생의 자살 시도 경험은 1.118배 커지고, 확률적으로는 11.8%씩 확대된다.

넷째, 중등생의 금전지향태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중등생의 자살 시도 경험은 0.935배 작아지고, 확률적으로는 6.5%씩 줄어든다.

다섯째, 중등생의 자아존중감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자살 시도 경험은 0.955 배 작아지고, 확률적으로 4.5%씩 줄어든다.

여섯째, 중등생의 긍정적 부모관계가 한 단위 상승할 때마다 자살시도 경험은 0.964배 작아지고,

확률적으로 3.6씩 줄어든다.

11) 게임 중독 경험에 대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 초등생 게임 중독 집단 설명 요인에 대한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 결과

초등생의 게임 중독 집단 구분을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대해 <표 IV-100> 에서와 같이 모형적합성을 테스트한 결과 초등생 게임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있다는 결과가 유의수준 .000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없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며, 이 모형은 게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미치는 모형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V-101>에서 카이검정 결과에서도 -2 Log 우도 결과 596.080으로 상수항의 결과보다 χ^2 값이 84.205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시된 모형이 게임중독 경험집단을 구분하는 모형으로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V-100 초등생 게임중독 경험 집단 구분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구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3 단계			
단계	7.285	1	.007
블록	84.205	3	.000
모형	84.205	3	.000

표 IV-101 초등생 게임 중독 경험 집단 구분 회귀 모형요약

단계	-2 Log 우도	Cox와 Snell의 R-제곱	Nagelkerke R-제곱
3	596.080	.029	.137

제시된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결과<표 IV-102> 및 분할표<표 IV-103> 결과 종속변수인 초등생 게임중독 경험 실제치와 회귀모형에 따른 예측치와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귀무가설에서는 모형의 값이 작을수록 적합도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독립 변수가 포함된 모형의 유의수준이 0.05보다 커야한다.

<표 IV-102>의 결과를 보면 유의확률은 0.143으로 0.05보다 크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밝히는 모형으로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V-102 초등생 게임중독 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단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3	12.190	8	.143

표 IV-103 초등생 게임중독 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에 대한 분할표

구분		게임 중독 경험 = 없다		게임 중독 경험 = 있다		합계
		감시됨	예상됨	감시됨	예상됨	
3 단계	1	286	284.797	0	1,203	286
	2	285	284.258	1	1,742	286
	3	285	284.727	2	2,273	287
	4	290	290.034	3	2,966	293
	5	287	283.372	0	3,628	287
	6	279	279.438	5	4,562	284
	7	275	281.007	12	5,993	287
	8	279	280.739	10	8,261	289
	9	277	274.889	10	12,111	287
	10	256	255.738	30	30,262	286

초등생 게임중독 경험 집단에 대한 예측 분류표 결과는 <표 IV-104>와 같다.

초등생이 게임중독 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99.9%이며, 전체 분류표의 정확성은 97.4%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초등생은 아직까지 게임중독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표 IV-104 초등생 게임중독 경험 집단 구분 분류표

감시됨			예측		
			게임 중독 경험		분류정확 %
			없다	있다	
3 단계	게임 중독 경험	없다	2797	2	99.9
		있다	73	0	0.0
	전체 퍼센트				97.4

초등생 게임중독 경험에 대한 로지스틱 모형 분석 결과는 <표 IV-105>와 같다.

게임중독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3개로써 자아존중감, 갈등적 부모관계, 유해환경 접촉기회이다. 이중 자아존중감은 초등생의 게임중독에 대해 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게임 중독을 줄여주는 반면에 갈등적 부모관계와 유해환경 접촉기회는 초등생의 게임중독을 확대시킨다.

종속변수인 게임중독에 대한 독립변수의 승비(Exp(B))는 아래와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초등생의 게임중독은 0.926배 작아지고, 확률적으로는 7.4%씩 줄어든다.

둘째, 갈등적 부모관계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초등생의 게임중독은 1.019배 커지고, 확률적으로는 13.9%씩 증가한다.

셋째, 유해환경 접촉기회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초등생의 게임중독은 1.160배 커지고, 확률적으로는 16%씩 증가한다.

표 IV-105 초등생 게임중독 경험에 대한 회귀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구분	B	S.E	Wals	자유도	유의 확률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3단계	자아존중감	-.076	.029	7.176	1	.007	.926	.876	.980
	갈등적부모관계	.130	.025	26.538	1	.000	1.139	1.084	1.197
	유해환경접촉기회	.148	.036	16.932	1	.000	1.160	1.081	1.245
	상수항	-4.797	.818	34.371	1	.000	.008		

(2) 중등생 게임 중독 집단 설명 요인에 대한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 결과

중등생의 게임 중독 집단 구분을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대해 <표 IV-106> 에서와 같이 모형적합성을 테스트한 결과 유의수준 0.000으로 중등생 게임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산출하는 모형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χ^2 검정에서도 <표 IV-107>과 같이 -2 Log 우도가 상수항의 우도 값과 비교에서 카이 값이 51.100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모형적합성이 있다고 본다.

표 IV-106 중등생 게임중독 경험 집단 구분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구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4 단계	4.932	1	.026
블록	51.100	4	.000
모형	51.100	4	.000

표 IV-107 중등생 게임중독 경험 집단 구분 회귀 모형요약

단계	-2 Log 우도	Cox와 Snell의 R-제곱	Nagelkerke R-제곱
4	855.347	.017	.065

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및 분할표에서도 <표 IV-108>과 <표 IV-109>와 같이 회귀모형의 전체 적합도가 0.152로 나타나 0.05보다 작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어 중등생 게임 중독 경험을 밝히는 모형으로 보다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V-108 중등생 게임중독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와 Lemeshow 검정

단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4	11.985	8	.152

표 IV-109 **중등생 게임중독 경험에 회귀모형에 대한 Hesmer와 Lemeshow 검정에 대한 분할표**

구분		게임 중독 경험 = 없다		게임 중독 경험 = 있다		합계
		감시됨	예상됨	감시됨	예상됨	
4 단계	1	300	298.517	2	3.483	302
	2	301	299.392	3	4.608	304
	3	305	301.423	2	5.577	307
	4	298	297.602	6	6.398	304
	5	301	299.556	6	7.444	307
	6	295	295.380	9	8.620	304
	7	285	292.936	18	10.064	303
	8	288	291.899	16	12.101	304
	9	295	293.535	15	16.465	310
	10	268	265.760	27	29.240	295

<표 IV-110>에서는 중등생의 게임중독 경험집단 구분 분류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게임 중독 경험이 없다는 집단이 100%로 나타났으며, 전체 분류표의 정확성은 96.6%이다.

이는 중등생의 대부분이 자신은 게임중독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V-110 **중등생 게임중독 경험 집단 구분 분류표**

감시됨			예측		
			게임 중독 경험		분류정확 %
			없다	있다	
4 단계	게임 중독 경험	없다	2936	0	100.0
		있다	104	0	0.0
	전체 퍼센트				

중등생 게임중독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결과는 <표 IV-111>과 같다.

게임중독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업성취 태도, 유해환경 접촉기회, 비도덕적 행동, 위계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4개변수로 나타났다.

학업성취태도는 게임중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유해환경 접촉 기회와 비도덕적 행동, 위계에 의한 폭력 피해는 게임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체적인 승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성취 태도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게임중독은 0.921배 줄어들고 있으며, 확률적으로

7.9%씩 작아진다.

둘째, 유해환경 접촉기회가 한 단위 증가하면 중등생의 게임중독 경험은 1.083배 커지며, 확률적으로 8.3%씩 늘어난다.

셋째, 중등생의 비도덕적 행동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게임중독 경험은 1.046배 커지고, 4.6%씩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중등생의 위계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게임중독 경험은 1.826배 커지고, 확률적으로 82.6%씩 늘어난다.

이 결과에서 특히 중등생의 경우 위계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다른 독립변수에 비해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문제해결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표 IV-111 중등생 게임중독 경험에 대한 회귀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구분	B	S.E	Wals	자유도	유의 확률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4단계								
학업성취태도	-.083	.037	4.998	1	.025	.921	.856	.990
유해환경접촉기회	.079	.028	7.879	1	.005	1.083	1.024	1.144
비도덕적행동	.045	.018	6.463	1	.011	1.046	1.010	1.083
위계폭력피해	.602	.150	16.210	1	.000	1.826	1.362	2.448
상수항	-6.314	.654	93.103	1	.000	.002		

12) 청소년 문제행동 결정 모형 분석 결과

지금까지 이루어진 초·중등생의 문제 행동 유형에 따른 결정 요인과 영향력, 그리고 독립 변수 간에 상대적으로 어떤 요인이 청소년시기별 문제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 하였다.

이 결과 청소년시기별 문제행동 결정하는 영향관계를 종합적으로 보면 <표 IV-112>와 같다.

<표 IV-112>에서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 변수는 독립변수 14개 가운데 11개 변수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시기 혹은 문제행동 유형에 따라 (+)나 (-) 영향을 미치는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동일한 사건이나 영향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며, 정책개발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의 성장과정과 성장 시기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적용방법이 달라져야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긍정적 친구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문제행동예방에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중등시기에는 같이 유해장소를 찾아가게 되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학교에서 획일적으로 처방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청소년발달 시기에 따라 보다 정교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모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제외된 변수(외모지향태도, 경쟁지향태도, 학업스트레스)의 경우에 있어서도 영향력이 없다는 결론 보다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로 도출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IV-112 청소년시기별 문제행동 결정 변수의 영향 방향 분석

구분	청소년전기(초등)							청소년중기(중등)						
	가해 경험	피해 경험	가출 경험	무단 결석 경험	유해 장소 출입 경험	자살 시도 경험	게임 중독 경험	가해 경험	피해 경험	가출 경험	무단 결석 경험	유해 장소 출입 경험	자살 시도 경험	게임 중독 경험
외모지향태도														
경쟁지향태도														
금전지향태도											+		-	
심리적 불안감	+	+	+			+		+	+		+		+	
자아존중감		+					-						-	
긍정적 부모관계			-			-				-	-		-	
갈등적 부모관계			+	+			+			+				
긍정적 친구관계										+		-	+	
갈등적 친구관계	+	+						+	+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태도												-		-
유해 환경접촉기회					+		+				+	+		+
비도덕적 행동	+			+				+		+				+
위계에 의한 폭력 경험	+	+	+		+			+	+	+	+	+	+	+
계 (14개변수중 11개 확정)	+4	+4	+3 -1	+2	+2	+1 -1	+2 -1	+4	+3	+4 -1	+4 -2	+2 -1	+3 -3	+3 -1

*는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임, +문제행동을 강화하는 요인, -는 문제행동을 완화하는 요인

청소년 시기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의 금전적 지향태도는 초기청소년(저연령층)의 문제행동에는 의미 있는 영향 변수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중기청소년에 대해서는 무단결석을 강화하는 반면에 자살시도 경험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저연령층인 초기청소년의 경우는 아직까지 돈에 대한 필요성이 유의미할 정도로 심각하게 작용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중등생의 경우 돈에 대한 가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고, 돈을 획득하는 방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획득하기 위하여 무단결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돈에 대한 가치를 잘 알게 됨으로써 중기청소년들의 자살 시도를 줄인다는 결과이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청소년문제를 일으키는 핵심 요소로 여겨지는 물질만능주의가 일부 청소년 문제행동 유형에 따라 일정부분 완화하는 작용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물질만능주의의 문제만을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가치나 돈의 획득방법, 그리고 돈의 사용에 대해 정당성과 긍정성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에게 타당한 인식을 심어주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② 청소년기의 심리적 불안감은 청소년시기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전기에는 가해경험, 피해경험, 가출경험 그리고 자살 시도 경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청소년 중기에는 가해경험, 피해경험, 무단결석경험, 자살시도 경험을 확대시키는 중요 변수이다.

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CYS-net확대, 청소년 상담확대, Wee-class나 Wee-center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정도는 아니며, 여전히 청소년문제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을 보다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 설명 또는 익명적으로도 답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이 심리적 불안감에 대한 상담이나 발견 및 치료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이제는 청소년 발달시기별 심리적 불안감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과 청소년들이 심리적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내면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정책도 추가로 요구된다.

③ 청소년기의 긍정적 부모관계나 갈등적 부모관계는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거나 강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긍정적인 부모관계는 청소년 전기인 초등생의 가출경험이나 자살시도 경험을 완화하고, 중등생의 가출경험, 무단결석 경험, 자살시도 경험을 예방하거나 줄여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갈등적인 부모관계는 초등생의 가출과 무단결석, 게임중독 높이고, 중등생의 가출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이 결과는 청소년문제행동이 근본적으로 가정문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중기보다 청소년전기에 해당하는 초등생들이 부모와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체계에서 초등학교시기에는 학부모의 관여가 매우 높으며, 제도적으로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의원회 등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매우 많으며, 학부모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고려해야할 문제 중 하나는 많은 학부모의 참여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부모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요즘같이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이 뚜렷함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월1회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하는 근로자의 날'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이 국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최소한 청소년전기(13세미만)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라도 시행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④ 청소년기의 긍정적 친구관계와 갈등적 친구관계는 청소년 문제행동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긍정적 친구관계는 청소년전기에 해당하는 초등생의 경우 청소년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청소년 중기에 해당하는 중등생의 경우는 가출과 자살시도 경험을 확대시키는 반면에 유해장소 출입 경험은 낮추데 영향을 미친다.

갈등적 친구관계는 청소년 발달시기에 관계없이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집단간의 역학관계의 영향력이 청소년전기의 초등생의 경우는 올바른

친구 관계에 따른 영향보다는 나쁜 친구관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청소년전기에 해당하는 초등생의 경우 위의 부모관계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친구관계에서 좋은 친구의 역할이 거의 없다고 여겨지는 반면에 갈등적인 친구관계에서는 갈등에 따른 피해를 본인이 친구로부터 직접 받거나 주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청소년중기에 해당하는 중등생의 경우는 초등생과는 다르게 친구의 역할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갈등적 친구관계는 초등생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신이 직접 영향을 주거나 받는 문제행동 요인이지만 긍정적 친구관계의 경우에 있어서도 문제행동을 친한 친구와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행동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가출과 자살 시도에 긍정적 친구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시사 하는바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에 제시된 심리적 불안감이 개인의 상황을 중심으로 한다면 긍정적 친구관계는 집단의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특히 청소년연령이 높아가면서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친한친구를 동시에 진단하는 청소년집단 진단 시스템이 시급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

요즘 청소년자살이 높게 나타나고 동조자살이 사이버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청소년집단 진단을 통한 문제청소년을 발견하고 예방하는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⑤ 학업수행과 관련하여 학업스트레스는 청소년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으나 학업성취 태도는 청소년전기인 초등생의 경우는 그 영향력이 의미 있게 제시되지 않았으며, 청소년중기인 중등생의 경우는 초등생과는 다르게 학업에 대한 이해와 부담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이에 대한 이해와 노력은 무단결석과 게임중독을 완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도 앞의 금전지향태도와 마찬가지로 성취지향태도 강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요소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학업 성취에 대한 수용태도가 긍정적 일 때는 문제행동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일정부분 있기 때문에 학업에 대해 청소년들이 타당성 있게 받아들일도록 다양한 형태의 교수 및 평가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지금까지 학업성취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가 청소년문제행동과 관련되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와는 반대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등 더 많은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학업성취 자체가 문제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학업성취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보조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현재 청소년전기의 초등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아카데미 및 지역아동 센터를 통한 학업성취 지원체계가 저연령층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분명하기 때문에 청소년중기의 중등생에게도 대학생 학업멘토의 확대시행, 정년퇴임한 교원의 학업보조교사 활용, 학습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학교 확대 시행 등이 요구된다.

또한 성취지향태도가 단순히 학업성적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성취지향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⑥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전기의 초등생에 대해서는 피해경험을 확대하고, 게임중독경험은 줄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청소년중기의 중등생에 대해서는 자살시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전기와 청소년 중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청소년 전기에는 피해경험을 확대하는 반면에 청소년 중기에는 자살시도를 줄이는 현상은 청소년 전기인 초등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직까지 미성숙하다고 볼 수 있는 초등생의 경우 자신감과 자존심에 대한 개념과 자아존중감과의 혼란스런 이해문제라고 여겨진다. 초등생의 피해 경험은 가해행위와 연계되어 있으며, 초등생의 가해 이유 중 하나가 잘 난척하는 행동에 있다. 이는 곧 잘난 척하는 초등생의 피해 경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등생의 경우 어느 정도 자아존중감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자살과 같은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교육의 현장에서 확일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청소년 발달 시기에 맞춰 교육내용을 정밀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⑦ 유해환경 접촉기회는 주변에 유해환경에 대한 접근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유해업소나 야한 사진, 성인만화 및 도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해매체 접근 등이다.

유해환경 접촉 기회 변수는 청소년발달 시기에 관계없이 초등생과 중등생 모두에게 청소년문제 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해 장소 출입과 게임중독 경험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등생의 경우는 무단결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해환경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유해환경을 줄이는

데는 아직까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유해물에 대한 접근은 섯다운제, 성인인증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효과에 그치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유해매체물 접근 문제는 매우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해환경 문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해환경 개선 방안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유해매체 개선 방안 마련으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지역의 유해환경 개선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출입금지나 통행금지 등의 정책을 수행하였으나, 이러한 정책에 상관없이 유해환경은 더 많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지역의 유해환경에 대한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해환경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해환경 관련 정책을 다른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지금까지 지역의 유해환경 정책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출입이나 고용 등 제한이나 위락지역에 대한 통행 제한과 토지용도에 따른 입지제한 등 단순한 정책목표의 추진 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역을 중심으로 유해환경 자체를 제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는 유해환경제한의 정책적 목적을 청소년 문제행동 완화나 삶의 질 개선, 또는 청소년이나 가족친화환경조성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유해환경을 제한하는 시스템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셉티드 시스템과 연계하여 안전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범죄나 유해한 활동을 생산하는 공간에 대해 일정수준 이하를 유지토록 하는 포괄적 지역 유해환경 제한 정책을 의미한다.

이는 오늘날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같은 맥락의 방법으로 지역 내 유해환경 종량제를 지역 내 범죄와 유해성 기준에 따라 일정수준 이하가 되도록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정책은 현재 핵심정책이 유통시스템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문제는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유해물의 내용이나 성격 그리고 다양한 유통형태에 대해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 가능한 스마트폰 이용과 접근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⑧ 비도덕적 행동은 청소년전기에 해당하는 초등생의 가해경험과 무단결석 경험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청소년 중기인 중등생의 가해경험과 가출경험 그리고 게임중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서 비도덕적 행동이란 포괄적으로 정의롭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도덕적 행동 기준이 낮은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생은 도덕적 행동기준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명확히 내면화 되지 않거나,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도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도덕적 기준이 사회적 성공이나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가치기준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최근 교과부의 창의적 인성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역량개발의 내용과 관련하여 도덕적 행동을 내면화 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요청된다.

또한 중등생의 비도덕적 행동의 경우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규범에 대해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비도덕적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을 밝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함과 동시에 주변(미디어나 이웃 등)의 비도덕적 환경이나 행동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비판적 사고를 통한 이해와 더불어 비급함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향상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이 요청된다.

⑨ 위계에 의한 폭력 경험은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청소년 문제행동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며, 다른 영향 요인 대비하여 거의 모든 문제행동에 폭넓게,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변수는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도 끊임없이 청소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 위계에 의한 폭력 경험이란 부모, 교사, 이웃에 의해 심각하게 폭력을 당한 경험을 말한다.

이와 같이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을 청소년 내부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중심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위계에 의한 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부모 폭력 문제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기관전문기관의 설치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나 역량이 매우 낮은 편이고, 가정문제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으나 여전히 가정 내부 문제로 여기고 국가적 관여 수준도 높지 않는 편이다. 따라서 가정문제 특히 가정 폭력 문제 있어서는 사회기반을 파괴하는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둘째는 교사 폭력문제에 있어서는 청소년인권헌장 이후 최근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생처벌에 대한 다양한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장의 교사들은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손쉽게 말 잘 듣는 학생으로 만드는 과거의 학생지도 방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교사권리나 교사인권 등을 주장함으로써 과거로의 회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이 동등한 인권의 소유자로서 서로 대면토록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생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상호이해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학생에 대한 평가권한이 교사에게 있다면 교사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과 지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사에 대한 평가권을 학생이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에 대한 판단을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폭력에 대해서는 교사폭력의 피해자인 학생들이 판단의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구체적인 하나의 방안으로는 옐로 및 레드카드제를 통해 피해청소년이 교사폭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교사폭력에 사안에 대해 학교장에 무기명으로 신고토록하고, 학교장은 주단위로 카드를 받은 교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연말에는 학교장이 교사평가의 중요 기준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교사가 지속적으로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학교장이 제약할 수 있는 근거를 획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는 이웃이나 주변사람들에 대한 폭력 문제이다. 이는 현재 형법 등에 의해 처벌되고 있으나 청소년과 이웃어른들이 함께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로써 공동체 형성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 5 장

결론 및 정책과제

1. 결론
2. 정책 추진 과제

[제 5 장 * 결론 및 정책 과제]

1. 결론

1) 연구요약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는 청소년 문제행동의 저연령화 현상이 어떤 문제행동 영역에서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과 둘째는 이러한 저연령화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 탐색을 통하여, 저연령화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 과제를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는 먼저,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범죄분석자료, 경찰청 자료, 청소년유해환경 자료, 통계청 사회분석 자료 등 2차 자료 분석을 통하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저연령화 실태를 분석하고, 다음으로는 저연령화 원인 규명을 위해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저연령층 청소년의 부모관계, 친구관계, 학업관계, 그리고 사회구조적 환경과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과정에 따른 불안, 도덕기준, 신체발달에 따른 문제행동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첫째,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를 조사를 위하여 2차 자료인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분석하여 청소년범죄 유형별 저연령화 추이 및 범죄원인의 변화를 분석하고, 음주와 흡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환경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리고 청소년정신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의 2012년 ‘청소년정신건강 실태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2차 자료 분석결과 청소년 음주, 흡연, 형법범, 재산범, 강력범죄, 위조범죄, 과실범죄, 기타형법 범죄가 저연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14세에서 16세까지의 청소년들의 범죄가 매우

* 김영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아미(명지대학교), 이승하(위덕대학교) 집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 동기의 변화추이를 보면 2005년 이후 우발적 범죄나 호기심, 부주의는 약간 줄거나 소규모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이익을 위한 욕심이 약 64배나 증가하였고, 유혹이 1.9배, 생활비 마련 2.3배, 유흥비 1.46배로 매우 높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과거의 청소년 범죄가 의도치 않게 발생한 것이라면, 최근의 청소년 범죄는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저연령 청소년일수록 학업성적과 컴퓨터 사용, 그리고 진학 및 진로에 대해 부모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나이가 많은 고학년일수록 진학 및 진로, 학업성적, 컴퓨터 사용 순으로 부모와 갈등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고민은 저연령 청소년은 외모와 학업 및 적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후기 청소년들은 진로 및 직업, 학업 및 적성, 외모, 가계경제의 어려움 등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변인을 독립변수 9개 영역과 종속변수인 문제유형 7개 변수에 대해 전국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 집락추출법을 통하여 69,396명을 표본 추출하였다. 표본을 표집하기 위해 1차 추출 단위를 학교로, 2차 추출 단위를 학급으로, 3차 추출 단위를 학생으로 하고 학교별 학생 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PPS)을 적용하였다.

조사변수의 신뢰도는 0.613에서 0.918로 전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의 금전적 지향태도는 초기청소년(저연령층)의 문제행동에는 의미 있는 영향 변수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중기청소년에 대해서는 무단결석을 강화하는 반면에 자살 시도 경험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청소년기의 심리적 불안감은 청소년시기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전기에는 가해경험, 피해경험, 가출경험 그리고 자살 시도 경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청소년 중기에는 가해경험, 피해경험, 무단결석경험, 자살 시도 경험을 확대시키는 중요 변수이다.

③ 청소년기의 긍정적 부모관계나 갈등적 부모관계는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거나 강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긍정적인 부모관계는 청소년 전기인 초등생의 가출경험이나 자살시도 경험을 방지하고, 중등생의 가출경험, 무단결석 경험, 자살시도 경험을 예방하거나 줄여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갈등적인 부모관계는 초등생의 가출과 무단결석, 게임중독 높이고, 중등생의 가출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④ 청소년기의 긍정적 친구관계와 갈등적 친구관계는 청소년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확대하는 중요한 변수로써 긍정적 친구관계는 청소년전기에 해당하는 초등생의 경우 청소년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청소년 중기에 해당하는 중등생의 경우는 가출과 자살시도 경험을 확대시키는 반면에 유해장소 출입 경험은 낮추는 영향을 미친다.

갈등적 친구관계는 청소년 발달시기에 관계없이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⑤ 학업수행과 관련하여 학업스트레스는 청소년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으나 학업성취 태도는 청소년전기인 초등생의 경우는 그 영향력이 의미 있게 제시되지 않았으며, 청소년중기인 중등생의 경우는 초등생과는 다르게 학업에 대한 이해와 부담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이에 대한 이해와 노력은 무단결석과 게임중독을 완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⑥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전기의 초등생에 대해서는 피해경험을 확대하고, 게임중독경험은 줄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청소년중기의 중등생에 대해서는 자살시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⑦ 유해환경 접촉기회는 주변에 유해환경에 대한 접근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유해업소나 야한 사진, 성인만화 및 도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해매체 접근 등이다.

유해환경 접촉 기회 변수는 청소년발달 시기에 관계없이 초등생과 중등생 모두에게 청소년문제 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해 장소 출입과 게임중독 경험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등생의 경우는 무단결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⑧ 비도덕적 행동은 청소년전기에 해당하는 초등생의 가해경험과 무단결석 경험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청소년 중기인 중등생의 가해경험과 가출경험 그리고 게임중독에 영향을 주고 있다.

⑨ 위계에 의한 폭력 경험은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다른 요인에 비해서 거의 모든 문제행동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가장 심각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변수는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상관없이 장기적,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2) 정책의 추진 방향

문제행동의 저연령화에 대한 정책은 보편적 접근, 조기발견,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등 세 측면을 필요로 한다. 먼저 심리적 문제를 지녔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보편적 예방접근이 요구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잠재적 위험군을 비롯한 위험집단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전문가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단계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1) 국내 아동·청소년 문제행동의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와,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과 국가적인 관심 제고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상태는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가정 환경적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에 비해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몇몇 연구자들만이 문제행동 청소년들의 불안, 우울, 공격성 등을 개별로 연구하였을 뿐, 문제행동이나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정신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국내에 매우 드물다.

문제행동의 심리적 요인에 관해서는, 문제행동 예방프로그램 개발에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과정임에도, 이토록 소홀히 다루어져 온 것은 문제행동과 관련한 정서적, 심리적인 요인을,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청소년만 치료하면 된다는, 치료적 입장에서 본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보편적 예방 프로그램의 부족을 야기하게 된다.

현재, 한국은 외국에 비해 프로그램 자체가 부족하다. 국외의 프로그램들은 전반적인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뿐 아니라 우울, 공격성 등 한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전문화하여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존재하는 반면, 국내에는 외국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번안, 수정하여 적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체개발했다 하더라도, 치료대상 위주로 개입을 실시하였고, 장기간에 걸친 후속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거나, 대단위 샘플에 적용한 사례가 없어, 문제행동을

나타내기 전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이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2) 미래의 잠재적 비행 위험집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후 치료적 접근보다 사전 예방적 접근 인식

청소년의 불안, 우울, 폭력, 분노, 자살과 같은 정신적 문제와 관련한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조기에 진단하고, 잠재적 위험군이나 위험군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행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예방프로그램의 접근이 유용할 것이다. 어린 시기의 심리적인 불안정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추후 비행으로 연결될 수 있고, 비행청소년 또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일이 문제행동 예방에 핵심임에도, 현재는 보호시설이나, 소년원과 같은 시설에서 정신증적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에게만 전문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 예방적 접근의 한 가지로, 현재 국가정신건강5개년계획을 통해 아동 청소년 전체대상자의 50%에게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이 역시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아직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3) 학교급별로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연계된 교육과정 시스템 필요

문제행동의 저연령화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중기나 후기의 심리적 문제와 청소년기의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은 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문제의 유형과, 심각성 수준을 구분해야 한다.

문제행동은 갑자기 발생하기 보다는 개인 내 발달적인 요인,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 누적적으로 작용하여 취약한 시기에 표출되는 것뿐이다. 이는 어느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프로그램의 개입으로 문제행동지도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인성교육, 생활교육과 같은 넓은 범위에서 교육활동을 제공하되, 연령별, 발달단계별로 연계된 예방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4)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리체계 필요

시간이 경과하면 지속성이 낮아지며, 이전의 부정적인 행동패턴으로 돌아가기 쉽다. 많은 프로그램이 효과성 검증에 있어 이렇다 할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행동 예방을 위해 강조되고 있는 측면이다. 특히 관리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비행청소년을 둘러싼 주변사람들의 긍정적인 격려가 매우 중요한데 개입 직후 비행청소년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하더라도, 사회적 지지가 없으면, 긍정적인 행동은 점차 줄어들어 이전으로 돌아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주기 위한 부모교육이나 교사 상담이 가정이나 학교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5)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교육적, 사회적 관심 제고

전문적인 지원체제도 중요하지만, 이에 실행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다.

심리적, 정신적인 문제는 예방과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이미 문제가 심각해진 경우에는 치료과정이 더욱 길고 힘들며 사회적 자원도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교사가 학생의 심리적인 문제가 의심되어 전문적인 상담을 권유하게 되면, 사회적인 거부감이나 반감으로 인해 조기의심이 드는 학생이 검사를 받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정신건강이나 심리적 상황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학생의 심리적인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대처방법에 어려움을 겪는다. 국내의 연구물만 보더라도, 외현화 행동에 관련한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우울, 불안, 자살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거의 전문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아직 국내에 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는 내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을 반영하기도 한다.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긍정적인 심리·정서발달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2. 정책 추진 과제

1) 제도개선 사항

학교 문제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위기 개입을 위해서는 학교 기능강화를 통해 적기에 개입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요청된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등 청소년 문제행동 대응과 관련된 근거법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통합법률 또는 유기적인 법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아동·청소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조직체계를 갖추도록 예산정책 및 평가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지역단위에서 청소년보호 및 복지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첫째,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세부조항이 없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선도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선도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교육 등 선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6조)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특히 제15조 “교육적 선도” 규정은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복지지원법의 실효성을 위하여 지자체별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요구된다.

둘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 학생인권 원칙에 부응하여 최소한 직접적 체벌(물리적 체벌)의 금지원칙을 천명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체벌불가피성은 ‘사회적 통념’이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불확정적 개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체벌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는, 교사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학생들에 대한 중대한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긴급성이 요구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

셋째, 『학생인권·자치법』 제정 필요성: 『학생인권·자치법』 제정이 지니는 의미는 학교 현장의 구조적 모순과 폐쇄성을 점차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첫째,

학급회가 법적 기구가 되면 학급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고, 학교자치의 기초단위로서의 학급자치가 안정되면 학생들이 자치와 협동의 원리를 익히면서 민주적 시민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학교운영이 공개되고 투명해질 수 있는 길은 학급에서부터 학년(학급 간)-학교로 이어지는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를 정착시키는 데에 있다. 체벌문제나, 학교폭력, 금전비리, 파행적 입시교육 등 교육문화나 정책, 체제에 이르기까지 이 구조 안에서 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다. 둘째,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유보되어 있는 기본권을 되찾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갖고, 집회 결사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도 갖게 된다. 이것은 헌법과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과 여러 가지 권고들을 실천하는 것이며, 너무 당연한 것임에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의 구조를 비판하고 법률이 지니는 의미를 새롭게 민주주의를 교육하는 계기가 된다.

2) 저연령층의 도덕성 함양 교육정책

(1) 현재 각급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의 인성 및 도덕성 발달을 위한 핵심적 교과인 '도덕' 교과에 대한 위상 제고 및 내실화

“교과형 인성교육”⁶⁾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등학교 인성교육을 위한 공식적이고 중핵적인 교과는 바른생활과와 도덕과이다. 도덕과를 통한 인성교육은 한마디로 말해 도덕과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유덕한 존재가 되는 기초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덕과의 수업이 재미있고 의미 있게 전개될 때 도덕과를 통한 인성교육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도덕 과목은 학생들의 인성 및 도덕성 발달을 위해 어느 교과보다도 중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주당 1시간씩에 불과하고, 이것도 집중이수제를 도입에 따라 여러 학교행사의 우선순위에 밀려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덕인성교육의 시수를 2시간으로 운영하되, 도덕인성교육의 전문가에 의해 교육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덕인성교육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사양성기관 및 직전 그리고

6) 교과형 인성교육이란 학교의 공식적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을 위한 독립된 교과를 두고 도덕 수업이라는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덕적 삶을 살도록 의도적, 계획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 재직 중의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도덕인성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교원연수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승진과 보수에 도덕인성교육의 실적이 최소 필요조건으로 반영해야 한다.

(2) 각급 학교교육에서 인성 및 도덕성 발달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의지, 역량, 시스템을 구축

각급 학교에서 인성·도덕성발달을 위한 인성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조직체, 즉, 가칭 ‘인성·도덕성함양 인성교육위원회’ 등과 같은 실질적인 책임기구를 두고 조직적으로 인성교육을 이끌어가야 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중·장기적 인성교육의 계획 수립과 이에 적합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과 방법 수립, 지속적인 실천과 평가활동을 유기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이를테면,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학생 행동의 발달과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온정적 배려의 공동체 조성, 학부모와 지역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도덕적 가치를 실제로 체험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다.

이 위원회에는 교사만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 학생, 교사, 학교장, 교육장, 지역 주민 등 인성교육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인성교육의 방향과 목표 수립, 효과적인 실천에 대해 지혜를 모은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인성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정과 협조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인성교육에 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함으로써 인성교육의 목표, 과정, 방법 등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산출하도록 피드백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인성교육을 실질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부족한 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교사 연수 및 교사 임용 시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발달을 위한 연수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이러한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3) 효과적인 인성 및 도덕성 발달을 위한 인성교육의 원리에 입각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school-home-community partnership)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

청소년들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학습하기 때문에 학교의 인성도덕성발달을 위한 인성교육이 보다 효과를 보려면,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인성교육의 중요한 파트너로써 잘 활용해야 한다.

첫째, 학교의 인성교육에 상반되지 않는 자녀교육 및 가정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학교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즉, 학생의 발달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녀교육의 방법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이 가정에서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교과목별 학습 방법, 과제물 지도 및 확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준다.

둘째,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의 목표나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학부모나 지역사회에 알려주고,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특히 가정교육과의 연계성을 위해 가정에서의 학생의 태도나 생활에 대해 부모의 평가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에서의 학생에 관한 정보를 가정에 알려 줌으로써 가정과 학교에서의 학생 지도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셋째,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학교의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것인데, 학생들을 위해 학부모가 도우미 역할을 하거나 지역의 모범적 인물이 자원인사(resource person)로서 인성교육에 참여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일인데, 학생들의 인성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받는 일이다. 학생들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시켜 체험학습을 강화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각급 학교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프로그램 표준들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 ① 포괄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아동 양육과 가치 형성을 위한 부모와 보호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② 포괄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지도자들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대중에게 교육할 때, 또 길러져야 하는 가치에 대해 공동체가 일치할 이루어도록 도와줄 때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③ 포괄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집단의 사명, 목표, 기대에 반영되어 있는 일관된 정당화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④ 포괄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기구들의 갖가지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⑤ 포괄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관련자들이 이런 표준과 다른 구조의 구성요소들에 참여하도록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
- ⑥ 포괄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인성교육 관련자들이 그들의 모든 목표와 기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적, 인원적, 프로그램적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⑦ 포괄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학교가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 실천 그리고 평가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 ⑧ 포괄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인성교육 관련자들이 학교 내의 프로그램 개발이나 평가 노력에 참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⑨ 포괄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직원 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운영의 필요성,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된 가치를 교육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현재의 프로그램을 잘 적용해야 한다.
- ⑩ 포괄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인성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평가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 ⑪ 포괄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각 학교가 교육구청과 공동체의 비전, 목표 및 기대에 일치되도록 학교 자체 프로그램의 목적, 본질적 전략, 활동, 교육과정, 자료, 평가계획 등을 발전시키도록 자극해야 한다.
- ⑫ 포괄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공동체의 합의된 가치를 촉진하도록 하는 학교 및 공동체의 환경을 확립해야 한다.
- ⑬ 포괄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학생, 학생의 가족, 학교 직원을 위한 학교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 ⑭ 포괄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공동체 간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 ⑮ 포괄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시민으로서의 문해 능력을 갖도록 기여해야 한다.

(4) 중앙 정부 내에 도덕인성 함양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담당부서'의 설치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후세대들의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유, 초, 중등학교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평가할 담당부서를 적어도 국 단위로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사가 진정한 교사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을 잘 하는 교사가 각종 연구비지원, 포상, 학습연구년제 대상 선발에서 우대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역량이 우수한 수석교사를 선발하여 수업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하도록 한다.

도덕인성교육 실천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창의경영 학교 지원사업 등 각종 재정 지원 대상 학교 선발 시 인성교육을 잘 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현행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학교문화 선도학교에서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로 선정)

교원 임용시험 제도 개선에서 학교폭력 등 다양한 교실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를 선발한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2년 2월 15일).

직선교육의 차원에서 예비교사의 도덕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관련 교직과목 이수의 강화하는 방안이다. 현직교사교육의 강화를 위해 현장 교원 대상의 학교폭력의 위기 대응 및 관리교육의 강화와 대응 매뉴얼 개발, 제작, 보급해야 한다.

3)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예방 프로그램은 적용대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보편적 예방, 선택적 예방, 지시적 예방프로그램이다.

첫째는 보편적 예방 프로그램은 전체구성원들에게 실시하는 것으로, 문제를 보이지 않는 청소년과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을 모두 포함한 대규모의 예방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는 선택적 예방 프로그램으로써, 특정 위험 요인이 평균 이상을 보인 청소년들에게 실시하는 것이며,

셋째는 지시적 예방 프로그램은 임상적인 징후나 증상을 나타내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보편적 예방 프로그램은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이라는 낙인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선택적 예방 프로그램이나 지시적 예방 프로그램은 개입을 가장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전문 인력 활용과 검사대상의 선별과정에 있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1) 자아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자아효능감은 자기의 능력에 대한 확신 또는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 따라서 자아효능감을 개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성취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 성취를 통해서 사고 패턴, 행위, 정서 각성이 생기게 된다 (Bandura, 1982).

외국의 경우 섭식 프로그램(Peyrot, Saudek, 1993), 컴퓨터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Gist, Schwoerer, Rosen, 1989) 등에서 개발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도덕성과 관련해서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상담 및 돌봄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자아효능감이 포함되어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라승주, 2010, 최인창, 2006, 강복선, 2005; 송지영, 2004; 오복자, 이은옥, 태영숙, 엄동춘, 1997; 유수정, 송미순, 이윤정, 2001). 특히 라승주(2010)는 일반적 효능감과 사회적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제안했다. 첫째, 일반적 효능감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탐색해 보고 어려운 상황에서 잘 대처하는 방법, 둘째, 사회적 효능감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욕구충족은 인간관계 개선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이해하기라는 목표 아래 나와 상대방의 바람 탐색, 나와 상대방의 욕구를 5가지 기본욕구와 연결하고, 서로 만족시킬 방법을 찾고 발표하기 등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감성희(2003)는 자기효능자원인 성공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이 행위를 증가시키고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Bandura의 이론을 근거로 CD 영상을 만들어 자가 간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기효능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도덕성함양 관련 스킬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타인을 존중하기(Respecting others): 타인을 존중하기는 핵심적인 사회 가치로서, 삶을

본래의, 고유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강압적이지 않고 폭력 없이 대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정중하고 예의바른 사람이 되어라.

폭력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

존중을 보여주어라.

- 양심(판단력)을 기르기(Cultivating conscience): 양심은 자기 규제, 절제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양심은 어떤 사람이 해로운 상태에 있거나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때, 어떤 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음을 깨달을 때 감정이입, 공감에 기반을 두어 작동하는 불편한 감정이다. 존경받는 사람들은 충동을 통제하고 힘과 권력을 관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자제하라.

영향과 권력을 관리하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Acting responsibly): 이것은 양심으로 불릴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도덕적 의무, 책임을 지지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양심은 의무에 참여하는 것, 재능, 부를 관리하는 것, 세계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책임을 다하라.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하라.

세계 시민이 되어라.

- 공동체 구성원이 되기(Being a community member): 이것은 도덕적 동기화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방법이고, 협력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공동체 내에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원을 공유하고 도움이 주는 것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협력하라.

사려 깊게 행동하라.

자원을 공유하라.

-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Finding meaning in life): 이것은 학생들에게 (1) 학생들 스스로가 중심이 되는 법, (2) 좋은 일을 발견하고 그에 헌신하는 법, (3) 미적인 경험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길러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

헌신을 육성하라.

경이로운 일들을 만들어라.

- 전통과 제도를 가치롭게 여기기(Valuing traditions and institutions): 이것은 법, 관습, 사회 조직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통과 제도의 기능을 인식하는 것이 요구된다.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은 활동적인 시민이 되는데 요구되는 기술을 알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전통을 알고 가치롭게 여겨라.

사회 구조를 이해하라.

민주주의를 연습하라.

- 도덕적 정체성과 통합성을 발달시키기(Developing ethical identity and integrity):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적 행위자로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다. 이것은 긍정적인 도덕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도덕적 역할 모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긍정적인 일체감과 같이 자기 자신을 존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인은 도덕적 자아 개념이나 이상을 행동과 결부시키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적 행동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달의 목표는 공동체에서 충분히 기능하는 도덕적인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잠재능력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좋은 가치를 선택하라.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라.

자신의 잠재능력에 도달하라.

(2) 사회학습이론 기반 프로그램

사회학습이론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친사회적 행동, 유혹에의 저항 등의 용어와 관련해서 몇몇 연구들을 찾을 수 있었다.

친사회적 기술 및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처치, 훈련, 교육프로그램은 국내외에서 수십 편의 논문에서 개발되어 그 효과를 밝히고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인지적·사회적 문제 해결기술과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Solomon, Watson, Solomon, Schaps, 1989). 협동하기, 규칙 지키기, 대인관계 이해 증진, 친사회적 가치의 강조, 돕기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위해서는 학생의 의사결정과정, 자발성이나 협동적인 상호작용의 기회와 지지적인 교사·학생 간 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Solomon, Watson, Delucchi, 1988).

아동의 교실 및 가정에서의 청소년 발달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미국에서 실시된 종단적인 개입 프로그램은 아동발달 프로젝트에서 협동학습, 규칙, 돕기 행동, 친사회적 가치 강조, 사회적 이해의 증진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프로그램에 포함하였다(Battistich, Watson, Solomon, Schaps, Solomon, 1991).

국내에서는 시설아, 유아 등을 대상으로 친사회적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연구가 진행되었다(이선화, 1999; 송영란, 2005 등). 이 연구에서 친사회적 행동에는 돕기 행동, 나누기 행동, 위인하기 행동, 협동하기 행동 등의 좋은 대인관계 유지를 위한 행동들이 포함되었으며,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진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 모델링, 코칭, 역할놀이, 피드백, 토의 등을 포함하여 친사회적 기술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키도록 훈련하도록 하였다. 송영란(2005)은 Eisenberg의 친사회적발달 이론에 기초하여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발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성경동화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 증에서 도와주기, 나눠주기, 친사회적 도덕적 추론에서 긍정적 행동변화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수십 편에 이르는 관련 논문이 있는데, 대부분 Battistich 등의 논문에 기반하고 있어서 구성요소 및 활동은 대동소이했다.

유혹에의 저항(resistance to temptation)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자기통제훈련 프로그램의 한 요소로서 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연구되었다(Kanfer & Zich, 1974). 국내에서는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행동이나 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개발·실시된 적이 없고, 주로 이를 관찰 대상이 되는 행동으로 연구된 논문이 수 편(이수재, 이영환, 2010; 강기숙, 2001 등)에 이른다. 만족지연 능력과 관련해서도 이 능력을 직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보다는 이 특성을 관찰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양아름, 방희정, 2011; 정영숙, 1984 등).

요컨대,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프로그램은 개발, 유혹에의 저항 혹은 만족지연 능력은 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관찰대상으로서의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구성 요소로 포함하기 위한 추가 탐색과 논의가 좀 더 필요해 보인다.

(3) 긍정심리학 기반 프로그램

긍정적인 정서를 다루는 긍정심리학은 최근에 정리된 개념으로서, 긍정적인 정서들의 의미와 개념의 탐색, 그리고 검사 도구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프로그램의 경우,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긍정심리를 활용한 각종 상담프로그램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자기조절력,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시도되고 있고(김정호, 2010; 정영은 외, 2008; 정영주, 민순, 하운주, 김은아, 나현주, 2010 등), 이는 앞서 정리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바와 같다. 그러나 도덕적 품성화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는 용기, 결단력, 인내력, 도덕적 자아개념 등과 관련해서는 도덕적 용기에 대한 사례 연구 결과(Brown, 2006) 등의 보고를 통해 이와 같은 심리적 특성에 대한 탐색·고찰하는 연구는 있지만, 이러한 심리특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해 보인다.

(4) 부모관계 회복 프로그램

영국의 Restorative Thinking Parenting Programme (Parenting without Conflict)⁷⁾ 사례에서 2012년 초기, 영국 Skelmersdale, Lancashire주에서 GP(general practitioner)에 의해,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학교에서 의뢰된 가족을 대상으로 최초의 개요가 시작되었다.

이 작업의 핵심은 학생, 부모, 교사를 위한 결과물에 있으며,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와 중요한

7) http://www.restorativejustice.org.uk/resource/restorative_thinking_parenting_programme/

<http://www.restorativethinking.co.uk/schools/parenting-programme/> 영국의 부모훈련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임.

삶의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와 Anti-Bullying Alliance와 협력하며, 회복적 사법위원회(Restorative Justice Council)에 등록된 과정이다.

<프로그램 과정>

- 목표: 영국의 부모훈련프로그램인 ‘회복적 사고 양육프로그램(Restorative Thinking Parenting Programme)’은 부모로 하여금 그들 자녀의 행동과 내재된 이유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교육내용: 본 프로그램은 자녀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지표로 나타나는 자녀의 행동을 부모가 생각하도록 격려한다. 반영적인 행동과, 부모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양육유형의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격려한다. 또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의 갈등을 제거함으로써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기술의 습득을 도모한다.
- 교육방법: 본 프로그램은 부모, 보호자, 조부모 집단을 대상으로 2시간 30분 세션을 4번 이상 진행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비공적인 이들 집단 간의 지지적인 네트워크형성을 권장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아동센터, 학교, 교도소를 통해 제공되며, 교도소에서는 참가자가 그들 자녀와 다시 재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관련 교재가 제공되며, 본 교육은 다음의 주제를 포함한다.

- 의사소통 방법, 안정의 유지
- 회복적인 접근에 참여
- 어려운 행동에 대처하기
- 부모가 한 팀으로서 함께 하기
- 자녀 발달의 다른 단계들을 이해
- 갈등을 다루기
- 행동과 갈등 뒤에 놓인 심리

(5) 친구관계 회복 정책 프로그램

미국의 Link-Up Program⁸⁾은 미국 Minnesota 주의 Saint Paul 지역에서 시행된 또래지원 프로그램이다. 또래관계에서의 우정을 통해 자살의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 목표: 이 프로그램은 또래를 중심으로 한 지원집단을 형성하고, 자살의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며, 자살의 위험에 처한 청소년의 자존감을 향상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대상 및 훈련기간: 중, 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총 5회기의 훈련기간을 갖는다.
- 교육내용: 또래 간의 경청과 돌봄, 우정을 제공함으로써 서로를 지원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자기개념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또래간의 지지적인 관계를 통해 자존감을 향상하는 것을 교육한다. 더불어 대처기술을 개발하며, 또래 가족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또한 또래, 가족, 교사, 타인의 지원을 필요로 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

(6)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영국의 괴롭힘 예방책은 사전 예방적 전략, 사후개입전략, 그리고 사전, 사후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전략으로 구분된다. Bullying에 초점을 두어 괴롭힘 예방책이라고 명명되어진 경우도 있으나, 이보다는 학생의 정서적, 심리적 안녕을 도움으로써, 학교적응력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와, 결과적으로 bullying을 예방하게 되는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영국은 모든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한 가지 이상의 괴롭힘 예방 및 개입방법을 시행할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선택에 있어서는 학교환경, 학교철학에 따른 다양성을 고려한 학교의 자율권을 존중한다. 그러므로, 영국 내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단정 지어 말하기는

8) 여기에 제시된 내용은 한국청소년상담원(2008), 청소년자살 예방프로그램 및 개입방안 개발에 소개된 프로그램 내용을 정리한 것임.

어려우나, 여기서는 잉글랜드의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오고 있으며, 발달적 측면에서 문제행동의 사전예방책으로 개발된 SEAL과 사전·사후전략으로 모두 쓰이는 Peer support를 제시한다.

① SEAL: Social and Emotional Aspects of Learning (사전예방적 접근: Proactive Strategies)

영국은 학교장이 괴롭힘과 관련한 교내 정책 및 지침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전체학교 접근(Whole school approach)은 전교생, 부모, 교직원, 전체학교가 체계적인 방법으로 예방에 참여하는 형태로, 사전 예방전략은 대체적으로 전체학교 접근에 기반을 두어 개발되어 왔다. 영국의 대부분의 학교(92%)는 이 접근을 사용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Samara & Smith, 2008), 일반적인 문제행동 예방교육으로 활용되는 SEAL은 괴롭힘에도 활용되고 있다. SEAL의 가장 큰 특징은 발달연령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만 5세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육과정의 한 형태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각 학년의 발달에 적합한 행동문제와 이에 따른 교육내용이 이루어진다.

SEAL은 잉글랜드의 대다수의 학교가 사용하고 있으며 초등학교급에 해당하는 Primary school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괴롭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학교는 대부분 이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몇몇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정서를 다루고, 이와 관련한 교직원 교육을 위한 매우 좋은 도구이며, 교사교육에 시간이 소모되지 만, 일단 학교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학생들의 정서 및 행동발달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SEAL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유아기에 적용되는 the Social and Emotional Aspects of Development (SEAD),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라 할 수 있는 Primary school에서 이용되는 Primary SEAL, 중,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Secondary school에서 활용하는 Secondary SEAL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회·정서·행동적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발달적 맥락을 따르기에 나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구체적 활동수준도 변화를 거친다. 예를 들면 '상실'(loss)이라는 하나의 경험을 갖게 될 때 이와 관련된 감정과 이 감정을 다루는 방법은 유아기와 아동기, 청소년기에 따라 다를 것이다. SEAL은 이러한 발달적 과정에 맞추어 학교를 지원해주기 위함이다.

SEAL에서는 유아기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사회정서발달을 위해 다루어야 할 기본적 요소를 제시하고 이를 발달단계에 따라 세분화 혹은 통합하여 SEAL 교육내용의 기본 주제로 구성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우리나라 유치원 단계라 할 수 있는 영국의 EYFS(Early Years Foundation Stage; 40-60개월의 유아해당)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개인, 사회, 정서적 발달의 주제와 학령기(아동·청소년기) SEAL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비교되어 있다. SEAL에서 다루는 사회·정서적 측면은 크게 다섯 가지로, self-awareness(자기인식), manage feeling(감정다루기), motivation(동기), empathy(공감), social skills(사회적 기술)이며, 이러한 측면을 개인적 차원(예: 자기인식, 감정다루기)과 대인관계 차원(예: 사회적 기술)으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다. 유아기 SEAL은 EYES에서 요구되는 사회·정서적 요소를 발달시키며 SEAL과의 연계성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EYFS 에서는 사회적 발달 측면을 위해서 SEAL를 통해 자신감, 자존감, 행동과 자기조절에 초점을 둔다면, 이러한 측면은 SEAL의 주제 중 ‘사회적 기술’과 연계되는 것이다.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유아기)에서 다루는 주제	SEAL(아동, 청소년기)에서 다루는 주제
개인적 측면	-자신의 특징, 태도 (Dispositions and attitudes) -자기 돌봄 (Self-care)	-자기 인식과 동기(Self-awareness and motivation)
사회적 측면	-자신감, 자존감 (Self-confidence and self-esteem) -행동과 자기조절(Behaviour and self-control)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정서적 측면	-관계 맺기(Making relationships) -공동체에 대한 인식(Sense of community)	-감정다루기와 공감(Managing feelings and empathy)

* 출처: Dcsf, 2008, p.10 발췌 후 재구성)

Primary SEAL은 아동의 사회·정서적 기술을 촉진시킴으로서 전인적 발달을 돕는다. 사회·정서적 기술에 대한 직접적 교수로 나선형 교육과정을 통해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한국의 유치원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Foundation Stage에서부터 Primary school 6학년까지 이루어지며, 각 학년마다 핵심 주제를 각 학년수준에 적합하게 적용하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학교의 매일 일상에서 모든 과목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하고, 특별활동시간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Primary SEAL 과 Secondary SEAL 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의 공통 테마에 기반을 두어 구성되어 있다 (self-awareness; managing feelings; motivation; empathy; social skills). 대체적으로 전체학교 접근을 활용하며, Secondary SEAL은 전체학교접근과 더불어, Primary SEAL에서 배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학습하고, 확장하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SEAL은 세 수준에서 개입이 가능하다. 전체학교접근, 소그룹활동, 일대일개입이다.

전체학교접근에는 사회적, 정서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친사회적 행동과 태도를 함양하며, 학습과 안녕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그룹 수준에서는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일대일 수준에서는 가장 심화되고 밀착된 형태의 도움을 제공한다.

○ Primary SEAL

Primary school에서 활용하는 SEAL프로그램은 7테마로 이루어져 있다.

- Theme 1: New beginnings
- Theme 2: Getting on and falling out
- Theme 3: Say no to bullying
- Theme 4: Going for goals
- Theme 5: Good to be me
- Theme 6: Relationships
- Theme 7: Changes

이중에서 괴롭힘 관련 예방책인 ‘Say no to bullying’에서는 괴롭힘이 무엇인지, 어떻게 느끼는지,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지, 학교가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어린이들이 사회적, 정서적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 등 괴롭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대응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소그룹활동은 문제행동을 하거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고, 배제의 위험이 있거나, 규칙 등을 익히는 데 어려움을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소그룹 활동의 단계는 4단계로써, 정서읽기-정서조절-갈등조정-또래문제해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입 후 7주후에 이루어진 후속연구에서 그 효과성이 유의미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Humphrey et al., 2008). Primary SEAL은 부모참여와 교사교육을 학생교육만큼이나 강조하고 있다. 부모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의 SEAL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부모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Family SEAL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를 실시하여, 학교와의 연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사는 사회·정서·행동적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고, 학급에 적용하는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교사는 학생의 사회·정서적 측면을 교육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 유능감을 느끼고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격려 받는다. 교사는 왜 이러한 기술이 필요한지, 어떻게 현 수업과정과 조화를 이루며 사용할 수 있는지, 교실안팎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기 위해 소그룹 형태로 학습한다. 정리하자면, 성공적인 Primary SEAL을 위해서는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 오랜 기간 동안의 소그룹 활동, 표준화되고 조직화된 교사교육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Secondary SEAL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일은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사회·정서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대한 다리역할을 해줌으로써, 상급학교의 적응력을 키우고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Secondary SEAL이다. Secondary SEAL에서는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학교가 바뀔으로써 학생이 겪게 될 두려움, 불안을 다룬다. Primary SEAL 과의 연계를 위해, Primary school 의 마지막 학년인 6학년 여름 학기에서는 Secondary school 학생이 되면 필요한 자기인식, 라포 형성기술, 도전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자신감 관련 기술 등을 가르침으로써, 새로운 학교환경에 대한 적응을 돕는다. Secondary SEAL 프로그램은(우리나라 중, 고등학교 해당) 2005년에 그 예비연구가 시작되었으며 4가지 주제로 -학습을 위한 공간마련(학습 환경조성), 우리 함께(사회적 기술과 공감), 지속적인 학습(동기부여), 나에 대해 배우기(감정을 이해하고 다루기)- 구성되어 있다. 예비연구의 효과성으로는 교사의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기술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Smith, O'Donnell, Easton,& Rudd,2007). 그러나 이후 체계적인 구성과 프로그램 시행 지속성여부가 Secondary SEAL의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SEAL교육의 영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의 관심과 안내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Humphrey, Lendrum & Wigelsworth, 2010).

○ 또래지원 (Peer Support)

사건예방과 사후개입전략 두 형태로 모두 쓰일 수 있는 또래지원은 현재 한국의 '또래상담'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래지원은 캐나다와 호주에서 1980년대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최근 더욱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2007년에는 영국 잉글랜드 지역 학교의 67%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oulston, Smith, & Jessel, 2009). 또래지원에는 6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Befriending(친구되기), Circle of friends(친구의 원), Peer mentoring(또래 멘토링), Peer mediation(또래조정), Peer listening(또래에 귀 기울이기), Bystander training(방관자 훈련)이 그것이다. Befriending(친구되기)은 또래지원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또래들에게 도움과 우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의 활동은 보통 운동장, 놀이터에 기반을 두는데 또래지원자임을 나타내는 모자를 쓰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 고립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교사들에 의해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기술, 비밀유지, 단호함, 리더십과 같은 기술을 훈련받는다. Circle of friends(친구의 원)는 Circle of support, 혹은 Supportive friends라고도 불리우며 고립되거나, 괴롭힘을 당한 친구들 혹은 괴롭힘에 취약한 또래들을 식별해내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공감능력, 관계 증진 기술 등을 훈련받는다. Peer mentoring(또래 멘토링)에서는 두 명의 학생간의 지원적인 관계를 수립한다. 동급생끼리, 혹은 학년이 높은 학생이 저학년과 멘토링을 맺을 수도 있다. 이는 교사의 감독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멘토링을 양측이 서로 동의한 방식으로 운영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Cowie & Wallace, 2000). Peer mediation(또래 조정)은 성인이 아닌 또래에 의한 문제해결과정을 일컫는 것으로서, 또래조정자는 문제를 정의하고, 가려내며, 무엇이 핵심적인 이슈인지 분별해 낸다. 여러 또래들과 브레인스토밍과 토의과정을 통해, 해결방법과 해결방법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또래조정자는 이를 위해 갈등해결기술과, 대인간 논쟁을 다룰 수 있도록 훈련받는다. Peer listening(또래에 귀 기울이기)는 또래가 문제에 처해 있을 시 이에 공감하고,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 Peer listener(또래청자)로 활동하는 학생은 배지나 리본을 달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운동장이나 놀이터 등에서 상주하며, 문제가 생긴 또래들은 이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다. Bystander(defender) training(방관자/방어자 훈련)은 괴롭힘을 목격하였을 때의 개입전략을 훈련시키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위로를 제공하며 괴롭힘을 멈출 수 있도록 훈련받는다.

이러한 또래지원 프로그램은 괴롭힘이 동급생, 특히 학급 내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에서 효과적인 개입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교사의 눈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직접적 개입이 가능하며, 학생들에게는 교사보다 정서적으로 더 가깝게 느껴지는 또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도움의 손길이 항상 가까이에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 사전예방과 사후개입의 두 측면에서 모두 효과적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또래지원의 효과성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잉글랜드의 학교들이 학교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또래지원자들의 또래지원 경험 또한 개인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괴롭힘의 빈도가 크게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또래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래지원자들의 훈련방법과 또래지원자들의 선별, 또래지원자의 성별차(여학생이 더 많음), 교직원의 지속적인 감독 등에 대한 고려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Cowie & Smith, 2010).

(7) 독일의 폭력예방프로그램(Mobbing: Prevention of violence in school in Schleswing-Holstein⁹⁾인 Olweus 프로그램(1994)

독일의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 평가하는 폭력예방 프로그램이다. 즉, 학교수준, 학급수준, 개인적 수준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수준: 쉬는 시간을 더 잘 감독하기, 학교 운동장을 더 흥미롭게 만들기, 전화로 접촉하기, 학교 분위기 쇄신을 위해 집단을 훈련시키는 교사, 부모와 교사와의 협동, 부모 자원그룹 등
- 학급 수준: 따돌림 피해에 대항하는 명확한 학급 규칙, 정화, 칭찬, 제재들, 규칙적인 학급 모임들, 학급에서 그 토픽에 대한 행동 지침 마련, 부모와 교사와의 협동 등
- 개인적 수준: 가해자와 그 희생자와의 진지한 대화, 관여된 학생들 부모와의 대화, 가해 부모와 피해 부모로 구성된 토론 집단, 필요하다면 전학을 가거나 반을 바꿈 등

본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 Olweus(1989)의 가해-피해 설문지를 47개 학교 14,788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첫 조사 후, 학교장, 교사, 학교 심리학자 등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9) 여기에 제시된 내용은 한국폭력대책국민협의회(2003), 학교폭력대책국민운동추진을 위한 단체 전문가 Workshop 자료집에 소개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 외국사례와 국내실시 예' 내용을 정리한 것임.

관련문제에 대한 자각 및 동기화를 촉진시키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 뒤, 각 학교별 예방과 대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학교회의를 열게 하여 외부 전문가(심리학자)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도록 하였다. 1년 후 2차 조사결과, 11, 12학년은 제외한 저학년에서 본 프로그램은 피해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mith, Morita, Junger-Tas, Olweus, & Slee, 1999).

4) 지역사회 유해환경 감소 방안

도시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이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공간구성과 범죄발생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는 범죄방어공간이론을 활용하면 도시의 주거환경, 상업 환경 등과 같은 도시 내의 사회적인 요인들을 고려하고, 도시 및 건물 디자인을 청소년에게 안전한 도시 안전의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면 청소년 유해환경 발생률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을 것이다(김영한, 2012).

이에 따른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유해환경 감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도시 내 특정 지역의 주거환경과 상업 환경 등을 고려한 다음 그 지역의 각종 유해업소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성 기준을 마련한다. 이 기준을 토대로 그 지역의 유해성 수준이 기준이하가 될 때까지 그 지역에 새로운 유해업소의 추가 인가 및 허가를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 기존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와 연계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는 청소년들의 출입이 빈번한 학교와 학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할 공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학교와 학원 등이 주로 주거환경이나 상업 환경에 위치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유해업소의 추가적인 인가 및 허가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와 적극적인 연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지역내 각종 유해업소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의 관련자, 업소 대표, 지역주민, 청소년 전문가, 건축설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청소년 유해환경 감소 추진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또는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 특정 지역의 유해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가칭 '지역 유해성 수준 측정 감시단'과 같은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참고 문 헌]

- 강태식, 임영식 (2009). 청소년의 반복적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미래청소년 학회지**, 6(2), 113-129.
- 강태신, 임영식, 이수정(2008). 비행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수준에 따른 외현화 문제, **미래청소년학회지**, 5(1), 163-182.
- 강혜원, 김영희(2011). 생의 의미수준에 따른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교정담론**, 5(2), 27-50.
- 경찰청(2011), 2011 경찰백서
- 곽금주, 문은영(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과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6(2), 29-43.
- 곽상은, 김춘경(2013). 애착, 비공식낙인, 공격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경로분석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0(1), 77-95.
- 김경호, 차은진(2012).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윤리의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32(2), 364-401.
- 김영한, 이명진(2005), 청소년문제행동 종합대책 연구Ⅲ,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한, 이춘화, 서정아, 김은경, 조한범, 이재분, 손유미(2003). 청소년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한, 한상철, 김광기(2012). 청소년 유해환경별 현황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은경, 이동원(2003). 일탈 및 범죄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재엽, 남보영(2012). 신체학대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과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4(3), 169-191.

- 김지혜(2013).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이 인터넷 활용유형을 매개로 사이버비행과 현실비행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4, 31-59.
- 김진화 외(2002). **청소년문제행동론**, 서울:학지사.
- 김진화, 송병국, 고운미, 이채식, 최창욱, 임형백, 이창식, 김경준, 김진호(2002). **청소년 문제행동**, 교육과학사.
- 김청송 (2004). 청소년의 우울, 스트레스 대처, 강인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3), 587-598.
- 김현수, 김현실(1997). 한국 비행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개인내적 특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8(1), 57-69.
- 김효수, 김성천, 유서구(2010). 비공식낙인과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인과모형-매개효과의 검증에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185-206.
- 김희화, 김경연(2000). 청소년의 비행과 자아존중감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al Research*, 38(5), 15-24.
- 남영옥, 김정남 (2010).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연구. **청소년 복지연구**, 12(2), 123-141.
- 노성호(2006). 비행친구와 비행행동의 인과성에 대한 검증. **형사정책연구**, 17(4), 297-332.
- 대검찰청(2001), 범죄분석 통권 제134호
- 대검찰청(2002), 범죄분석 통권 제135호
- 대검찰청(2003), 범죄분석 통권 제136호
- 대검찰청(2004), 범죄분석 통권 제137호
- 대검찰청(2005), 범죄분석 통권 제138호
- 대검찰청(2006), 범죄분석 통권 제139호
- 대검찰청(2007), 범죄분석 통권 제140호
- 대검찰청(2008), 범죄분석 통권 제141호
- 대검찰청(2009), 범죄분석 통권 제142호
- 대검찰청(2010), 범죄분석 통권 제143호
- 대검찰청(2011), 범죄분석 통권 제144호
-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통권 제145호

- 박민선(2008), 생애초기의 부정적 사건경험이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다
층성장모형을 적용한 학교부적응행동의 조기발생 및 시기, 이후 변화에 관한 중단
연구-, 제5회 한국청소년패널학술대회논문집, pp.555-578.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
- 박보라(2011). 콜버그(L. Kohlberg)의 인지적 도덕발달 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현선, 이상균(2008). 청소년기 비행친구의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사회복
지연구**, 37, 399-427.
- 박현수, 김도우, 이재영(2010).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6(1), 59-92.
- 송지영, 박성연(2010). 초등학교 아동의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이 남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문제행동과 비행친구 유무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1(3), 51-66.
- 신경민, 신윤미, 김선영, 조선미 (2010). 청소년기 비행행동의 초기위험 요인:6-8년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2), 597-606.
- 신현숙, 이경성, 이해경, 신경수(2004). 비행청소년의 생활적응문제에서 우울/불안
및 공격성의 합병효과와 성차.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6(3), 491-510.
- 심은실, 김예혜(2011).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외현적-내면적 문제행동의 관계: 자동
적 사고의 매개효과. **초등교육연구**, 24(4), 97-119.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 옥정, 오윤희, 정현옥(2001). 청소년기 애착유형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재소중인
비행집단, 위험집단, 정상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259-270.
- 유영남(1987). 심리적 준거집단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청소년비행과의 관계. 부산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남(2002).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
학회지**, 40(8), 191-206.
- 이득연, 박자양, 이동훈(2006). 청소년의 역기능적 심리특성과 사이버 관련 비행의
관계모형 검증: 인터넷 중독을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7(1), 103-115.
- 이성식(2011). 청소년비행에 있어서 가정, 학교, 친구요인과 그 심리적 매개요인들의
작용: 주요 세 비행이론들의 검증. **형사정책**, 23(2), 121-142.

- 이승희, 곽수란, 장은옥(2010). 부부갈등과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정서,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을 매개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6(4), 23-42.
- 이은주(2007). 초기 청소년기 비행친구 교제의 중단적 양상 : 비행친구의 선택과 영향,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학술대회논문집, pp.301-3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재경(2012). 청소년기 부모애착, 친구애착, 교사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력. **청소년복지연구**, 14(2), 51-73.
- 이재분, 현주, 박해분(2003). 학교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 이종원, 임성택, 최원기, 최종현, 심진예(2001).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연구- 기초실태조사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주리(2011). 부모 및 친구애착과 비행 간 관계: 중단연구. **놀이치료연구**, 15(2), 21-30.
- 이희정(2007). 남녀초등학생의 부모유대, 일탈친구와 일탈행동에 관한 중단 연구,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학술대회논문집, pp.387-40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영식 (1997). 청소년기 우울의 특징과 문제행동. **청소년 행동연구**, 2, 56-72.
- 임영식(2006). 제3장 청소년기 우울 한상철, 김혜원, 설인자, 임영식, 조아미(공저)
- 임영식, 한상철 (2000). **청소년심리의 이해**. 서울: 학문사
- 장연심, 조아미(2007).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4(1), 123-136.
- 전귀연(1998). 가족구조환경, 물질주의 및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3), 87-103.
- 정기원(2007). 비행친구: 청소년비행의 원인인가, 아니면 결과인가? **청소년학연구**, 14(1), 213-236.
- 정기원, 권량희(2006). 부모 및 교사 애착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일반긴장이론의 실증 분석. **청소년학연구**, 13(5-2), 81-102.
- 정익중(2006). 자아존중감과 청소년비행 간의 상호적 영향. **사회복지연구**, 31, 133-159.
- 정익중, 이은주(2009). 비행친구집단과 청소년 비행간의 역동적 관계. 제64 한국청소년패널학술대회논문집, pp.3-2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혜원(2010). 청소년단계에서 사이버 비행의 변화에 대한 연구: 일반긴장이론, 자기통제이론, 비행기회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82, 263-288.
- 정혜원, 정동우(2012).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 교사애착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9), 1-23.
- 조아미(2011). 비행친구와 청소년 가출의 관계에서 약물사용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3(2), 79-95.
-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2011). 비공식낙인,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경로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121-148.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청소년 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 허균(2011). 복지패널을 활용한 청소년 성장 과정에서 자아존중감과 비행행동 변화 연구. **직업교육연구**, 30(3), 287-301.
- 통계청(203). http://kosis.kr/themes/themes_03List.jsp?parentId=A03&listnm=%uD559%uC0DD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Agnew, R.(1985). A revised strain theory of delinquency. *Social Forces*, 64(1), 151-167.
- Agnew, R.(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47-87.
- Agnew, R.(2001).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Specifying the types of strain most likely to lead to crime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8, 319-361.
- Agnew, R.(2006). *Pressured into crime: An overview of general strain theory*, Los Angeles, CA: Roxbury Publishing Company.
- Agnew, R.(2012). Reflection on “ A revised strain theory of delinquency” . *Social Forces*, 91(1), 33-38.
- Angold, A., Costello, E. J., & Erkanli, A. (1999). Comorbidit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0(1), 57-87.
- Arbuthnot, J., & Gordon, D. A. (1988). Crime and cognition. Community applications

- of sociomoral reasoning development.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5(3), 379-393.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ndura, A. (2002). Selective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Moral Education*, 31(2), 101-119.
- Bandura, A., Barbaranelli, C., & Caprara, G. V., & Pastorelli, C. (1996).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2), 364-74.
- Barriga, A. O., Landau, J. R., Stinson, B. L., Liao, A. K., & Gibbs, J. C. (2000). Cognitive distortion and problem behaviors in adolescent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7(1), 36-56.
- Barriga, A. Q., Morrison, E. M., Liao, A. K., & Gibbs, J. C. (2001). Moral Cognition: Explaining the gender difference in antisocial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7(4), 532-562.
- Baumeister, R.F., Smart, L., & Boden, J.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1), 5-33.
- Bean, R. A., Barber, B. K., & Crane, R. D. (2006). Parent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among african american youth The relationships to academic grades, delinquency, and depression. *Journal of Family Issues*, 27(10), 1335-1355.
- Bernard, T. (1987). Testing structural strain theor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4, 262-280.
- Blasi, A. (1980). Bridging moral cognition and moral ac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8(1), 1-45.
- Blasi, A. (1999). Emotions and Moral Motivation.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ur*.
- Booth, J.A., Farrell, A., & Varano, S.P. (2008). Social control, serious delinquency,

- and risky behavior: A gendered analysis. *Crime & Delinquency*, 54(3), 423-456.
- Broidy, L. M., Nagin, D. S., Tremblay, R. E., Bates, J. E., Brame, B., Dodge, K. A., Fergusson, D., John L. Horwood, J. L., Loeber, R., Laird, R., Lynam, D. R., Moffitt, T. E., & Pettit, G. S. (2003).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hildhood disruptive behaviors and adolescent delinquency: A six-site, cross-natio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9(2), 222-245
- Capaldi, D. M. (1991). Co-occurrence of conduct problems and depressive symptoms in early adolescent boys. I: Familial factors and general adjustment at Grade 6.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3), 277-300.
- Capaldi, D. M. (1992). Co-occurrence of conduct problems and depressive symptoms in early adolescent boys. II: A 2-year follow-up at Grade 8.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1) 125-144.
- Capaldi, D. M., & Stoolmiller, M. (1999). Co-occurrence of conduct problems and depressive symptoms in early adolescent boys: III. Prediction to young-adult adjus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1), 59-84.
- Caspi, A., Henry, B., McGee, R. O., Moffitt, T. E., & Silva, P. A. (1995). Temperamental origins of child and adolescent behavior problems: From age three to age fifteen. *Child Development*, 66(1), 55-68.
- Cavanaugh, M.M.(2011). Toward a theoretical integration of crime and delinquency.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21, 312-322.
- Chapple, C.L., McQuillan, J.A., & Berdahi, T.A.(2005). Gender, social bonds, and delinquency: a comparison of boys and girls models. *Social Science Research*, 34(2), 357-383.
- Colby, A., & Kohlberg, L. (1987). The measurement of moral judgment. Theoretical foundations and research validation . vol.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e, P. M., Michel, M. K., & Teti, L. O. (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A clinical perspectiv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Serial No. 240), 73 - 100.

- Cowie, H. & Smith, P. K. (2010). Peer support as a means of improving school safety and reducing bullying and violence. In B. Doll, W. Pfohl & J. Yoon (Eds.), *Handbook of youth prevention science* (pp.177-193). New York: Routledge.
- Cowie, H. & Wallace, P. (2000). *Peer support in action - from bystanding to standing by*. London: Sage.
- Craighead, W. E. (1991). Cognitive factor and classification issues in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20(2), 311-326.
- DCSF (2008). Social and emotional aspects of development. Guidance for practitioners working in 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Available online at: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20130401151715/https://www.education.gov.uk/publications/eOrderingDownload/DCSF-00707-2008.pdf>
- Deffenbacher, J. L., Lynch, R. S., Oetting, E. R., & Kemper, C. (1996). Anger reduction in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2), 149-157.
- Dishion, T. J., McCord, J., & Poulin, F. (1999). When interventions harm. Peer groups and problem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54(9), 755-664.
- Dodge, K. A., & Garber, J. (1991). Emotion and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J. Garber & K. A. Dodge(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pp.159-181).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dge, K. A., & Pettit, G. S. (2003). A biopsychosocial model of the development of chronic conduct problems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9(2), 349-371.
- Farrington, D. P. (1978). The family background of aggressive youths. In L. A., Hersov, M. Berger, & D. Shaffer (Eds.), *Aggressive and antisocial behaviour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73-94). Oxford: Pergamon.
- Faulkner, G.E.J. & Adlaf, E.M.(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vigorous physical activity and juvenile delinquency: A mediating role for self-esteem? *Journal*

- of Behavioral Medicine*, 30(2), 155–163.
- Fergusson, D. & Horwood, L. (1999). Prospective childhood predictors of deviant peer affiliations in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0, pp.581–592.
- Fergusson, D. M., Horwood, L. J., & Ridder, E. M. (2005). Show me the child at seven: the consequences of conduct problems in childhood for psychosocial functioning in adulthood.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8), 837–849.
- Froggio, G.(2007). Strain and juvenile delinquency: A critical review of Agnew' s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Loss and Trauma*, 12, 383–418.
- Garber, J., Robinson, N. S., & Valentiner, D. (1997). The relations between parenting and adolescent depression: Self-worth as a mediato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1), 12–33.
- Gibbs, J. C. (1991). Sociomoral developmental delay and cognitive distortion: implications for the treatment of antisocial youth. In W. Kurtiness, & J. Gewirtz (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vol. 3 (pp. 95–110). Hillsdale, NJ: Erlbaum.
- Gibbs, J. C. (2003). *Moral development and reality. Beyond the theories of Kohlberg and Hoffman*.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Gini, G. (2006). Social cognition and moral cognition in bullying: What' s wrong? *Aggressive Behavior*, 32(6), 528–539.
- Gregg, V., Gibbs, J. C., & Basinger, K. S. (1994). Patterns of developmental delay in moral judgment by male and female delinquents. *Merrill-Palmer Quarterly*, 40(4), 538–553.
- Hankin, B. L., Abramson, L. Y., Moffitt, T. E., Silva, P. A., McGee, R., & Angell, K. E. (1998). Development of depression from pre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Emerging gender differences in a 10-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1), 128–140.
- Hart, C.O. & Mueller, C.E.(2013). School delinquency and social bond factors:

- Exploring gendered differences among a national sample of 10th graders. *Psychology in the Schools*, 50(2), 116–133.
- Haynie, D.L. & Osgood, D.W.(2005). Reconsidering peers and delinquency: How do peers matter?. *Social Forces*, 84(2), 1109–1130.
- Hillbrand, M., Waite, B., Miller, D., Spitz, R., & Lingswiler, V. (2000), Serum cholesterol concentrations and mood states in violent psychiatric patients: an experience sampling study.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3(6), 519–529.
- Hindelang, M.J.(2013). Causes of delinquency: A partial replication and extension, *Social Problems*, 471–487.
- Hirschi, T.(2002). *Causes of Delinquency*.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Hirschi, T.(2004). Self-control and crime. In R.F. Baumeister & K.D. Vohs(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pp. 537–552). New York, NY: Guilford.
- Hoeve, M., Stams, G.J., van der Put, C.E., Dubas, J.S., van der Laan, P.H., & Gerris, J.R.M.(2012). A meta-analysis of attachment to parents and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0, 771–785.
- Hoffman, J.P. & Miller, A.S.(1998). A latent variable analysis of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4, 83–110.
- Holsen, I., Kraft, P., & Vitterso, J. (2000). Stability in depressed mood in adolescence: Results from a 6-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1), 61–78.
- Houlston, C., Smith, P.K. & Jessel, J. (2009). Investigating the extent and use of peer support initiatives in English schools. *Educational Psychology*, 29(3), 325–344.
- Humphrey, N., Lendrum, A. & Wigelsworth, M. (2010), *Social and Emotional Aspects of Learning (SEAL) programme in secondary schools: A national evaluation*. DFE–RB049. London: DfE.
- Igra, I., & Irwin, C. E.(1996) Theories of adolescent risk-taking behavior. In

- R. J. Diclemente, W. B. Hansen, L.E. Ponton (eds.) *Handbook of adolescent health risk behavior*. (pp.35-52). Plenum: New York.
- Jacquez, F. M., & Maschman, T. L. (2002).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emergence of depressive symptoms in children and adolescence: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parent and child repor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1*(1), 156-165.
- Jang, S.J. & Thornberry, T.(1998). Self-esteem, delinquent peers, and delinquency: A test of the self-enhancement thei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586-598.
- Jessor, R. (1991). Risk behavior in adolescence: a psychosoci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act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2*, 597-605.
- Jessor, R., Van Den Bos, J., Vanderryn, J., Costa, F. M., & Turbin, M. S. (1995).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Moderator effects and developmental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31*(6), 923-933.
- Jurkovic, G. J., & Prentice, N. M. (1977). Relation of moral and cognitive development to dimensions of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6*(4), 414-420.
- Kaplan, H.B.(1975). *Self-attitudues and deviant behavior*. Pacific Palisades, CA: Goodyear Publishing Company.
- Kaplan, H.B.(1978). Deviant behavior and self-enhance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3), 253-277.
- Kaplan, H.B., Johnson, R.J., & Bailey, C.A.(1987). Deviant peers and deviant behavior: Further elaboration of a model.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3), 277-284.
- Knecht, A., Snijders, T., Baerveldt, C., Steglich, C., Raub, W.(2009). Freindship and delinquency: Selection and influence processes in early adolescence. *Social Development, 19*(3), 494-514.
- Kofler, M., McCart, M. R., Zajac, K., Ruggiero, K. J., Saunders, B. E., & Kilpatrick, D. J.(2011). Depression and delinquency covariation in an accelerated longitudinal sample of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 79(4), 458-469.
- Kohlberg, L. (1984). *Essays on moral development: Vol. 2.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 Kovacs, M. (1990). Comorbid anxiety disorders in childhood-onset depressions. In J. D. Maser, & C. R. Cloninger(eds.). *Comorbidity of mood and anxiety disorder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Kovacs, M., Paulauskas, S., Gatsonis, C, & Richards, C. (1988). Depressive disorders in childhood: III. A longitudinal study of comorbidity with and risk for conduct disord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5(3), 205-217.
- Krettenauer, T., & Eichler, D. (2006). Adolescents' self-attributed moral emotions following a moral transgression: Relations with delinquency, confidence in moral judgment and ag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4(3), 489-506.
- Lahey, & Waldman, (2007). Personality dispositions and the development of violence and conduct problems. In D. J. Flannery., A. T. Vazsonyi, & I. D. Waldman(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Violent bhavior and Aggression*, Chapter12 (pp. 260-28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hey, B. B., Miller, T. L., Gordon, R. A., & Riley, A. (1999b). Developmental epidemiology of the disruptive behavior disorders. In H. Quay & A. Hogan (Eds.), *Handbook of the disruptive behavior disorders* (pp. 23-48). San Antonio: Academic Press.
- Lee, J.M., Bell, N.J., & Watson, W.(2007). Situating alcohol use and delinquency within developmental and societal context: The case of Korean youth. *Journal of Adolescence*, 30(5), 835-851.
- Lee, K. & Lee, J.(2011). Self-esteem and delinquency in South Korean adolescents: Latent growth modeling.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3(1), 54-68.
- Li, Y., & Lerner, R. M. (2011). Trajectories of school engagement during adolescence: Implications for grades, depression, delinquency, and substance use. *Developmental Psychology*, 47(1), 233-247.
- Marmorstein, N. R., & White, H. R., & Loeber, R., & Stouthamer-Loeber, M.

- (2010). Anxiety as a predictor of age at first use of substances and progression to substance use problems among boy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8(2), 211-224
- McConaughy, S. H., & Skiba, R. J. (1993). Comorbidity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School Psychology Review*, 22(2), 421-436.
- Miller-Johnson, S., Lochman, J. E., Coie, J. D., Terry, R., & Hyman, C. (1998). Comorbidity of conduct and depressive problems at sixth grade: Substance use outcomes across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3), 221-232.
- Moore, M.(2011). Psychologic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Social Science Research*, 34(2), 357-383.
- Nagin, D., & Tremblay, R. E., (1999). Trajectories of boys' physical aggression, opposition, and hyperactivity on the path to physically violent and nonviolent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70(5), 1181-1196.
- Nelson, J. R., Smith, D. J., & Dodd, J. (1990). The moral reasoning of juvenile delinquents: A meta-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3), 231-239.
- Nucci, L. (2002). Because it is the right thing to do. *Human Development*, 45(2), 125-129.
- Obeidallah, D., Brenna, R. T., Brookes-Gunn, J., Earls, F. (2004). Links between pubertal timing and neighborhood contexts: Implications for girls' violent behavio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3(12),1460-1468.
- Paciello, M., Fida, R., Tramontano, C., Lupinetti, C., & Caprara, G. V. (2008). Stability and change of moral disengagement and its impact on aggression and violence in late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9(5), 1288-1309.
- Pardini, D., White, H. R., & Stouthamer-Loeber, M. (2007). Early adolescent psychopathology as a predictor of alcohol use disorders by young adulthood. *Drug and Alcohol Dependence*, 88S, S38-S49.

- Petronio, R. J. (1980). The moral maturity of repeater delinquents. *Youth & Society*, 12(1), 51-59.
- Rapee, R. M., & Melville, L. F. (1997). Recall of family factors in social phobia and panic disorder: Comparison of mother and offspring reports, *Depression and Anxiety* 5(1), 7-11.
- Rees, C. & Pogarsky, G. (2011). One bad apple may not spoil the whole bunch: Best friends and adolescent delinquency. *Journal of Quant Criminol*, 27, 197-223.
- Reiss, A. J., & Roth, J. A. (Eds.). (1993).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violence*.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Rodgers, B., Korten, A. E., Jorm, A. F., Jacomb, P. A., Christensen, H., & Henderson, A. S. (2000). Non-linear relationships in associations of depression and anxiety with alcohol use. *Psychological Medicine*, 30(2), 421-432.
- Roff, J. D., & Wirt, R. D. (1984). Childhood aggression and social adjustment as antecedents of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1), 111-126.
- Rohde, P., Lewinsohn, P. M., Seeley, J. R. (1991). Comorbidity of unipolar depression: II. Comorbidity with other mental disorders in adolescents and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2), 214-222
- Rosenberg, F.R. & Rosenberg, M. (1978). Self-este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3), 279-294.
- Rosenberg, M. & Schooler, C., Schoenbach, C. (1989). Self-esteem and adolescent problems: Model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1004-1018.
- Samara, M. & Smith, P. K. (2008). How schools tackle bullying, and the use of whole school policies: Changes over recent years. *Educational Psychology*, 28(6), 663-676.
- Sartor, C. E., Lynskey, M. T., Heath, A. C., Jacob, T., & True, W. (2006). The role of childhood risk factors in initiation of alcohol use and progression to

- alcohol dependence. *Addiction*, 102(2), 216-225.
- Schaeffer, C. M., Petras, H., Ialongo, N., Masyn, K. E., Hubbard, S., Poduska, J., & Kellam, S. (2006). A comparison of girls' and boys' aggressive-disruptive behavior trajectories across elementary school: Prediction to young adult outcom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3), 500-510.
- Sharon F. Lambert, S. F., Ialongo, N. S., Boyd, R. C., & Cooley, M. R. (2005). Risk factors for community violence exposure in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6(1/2), 29-48
- Shulman, E. P., Cauffman, E., Piquero, A. R., & Fagan, J. (2011). Moral disengagement among serious juvenile offenders: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lations between morally disengaged attitudes and offending, 47(6), 1619-1632.
- Silk, J. S., Steinberg, L., & Morris, S.A. (2003). Adolescents' emotion regulation in daily life: Links to depressive symptoms and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4(6), 1869-1880.
- Smetana, J. G. (1990). Morality and conduct disorders. In M. Lewis & S. Miller(eds.),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pp. 157-179). New York, NY, US: Plenum Press.
- Smith, P., O'Donnell, L., Easton, C. & Rudd, P. (2007). *Secondary social, emotional and behavioural skills (SEBS) pilot evaluation*. DCSF-RR003. Nottingham: DfES.
- Steinberg, L. (2001). What we know something: Parents-adolescents relationships in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1(1), 1-19
- Thornberry, T., Krohn, M., Lizotte, A., & Chard-Wierschem, D. (1993). The role of juvenile gangs in facilitating delinquent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55-87.
- Tiet, Q. Q., Wasserman, G. A., Loeber, R., McReynolds, L. S., & Miller, L. S., (2001). Developmental and sex differences in types of conduct problem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0(2), 181-197.
- Tremblay R. E., Nagin, D. S., Séguin, J. R., Zoccolillo, M., Zelazo, P. D., Boivin,

- M., Pérusse, D., & Japel, C (2004). Physical aggression during early childhood: Trajectories and predictors. *Pediatrics*, 114(1), 43-50.
-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u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 Tremblay, R. E., Pihl, R. O., Vitaro, F., & Dobkin, P. L. (1994). Predicting early onset of male antisocial behavior from preschool behavio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1(9), 732-738.
- Walker, J. L., Lahey, B. B., & Russo, M. F. (1991). Anxiety, inhibition, and conduct disorder in children: I. Relations to social impairmen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0(2), 187-191.
- Wells, L.E. & Rankin, J.H.(1983). Self-concept as a mediating factor in delinquenc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6, 11-22.
- Wright, J.P., Cullen, F.T., & Miller, J.T.(2001). Family social capital and delinquent involvement.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9, 1-9.
- Wright, R.A.(1995). The most-cited scholars in criminology: A comparison of textbooks and journal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3, 303-311.
- Wright, R.A.(2000). Recent changes in the most-cited scholars in criminology: A comparison of textbooks and journal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8, 117-128.
- Zembroski, D.(2011). Sociologic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21, 240-254.



부 록

1. 청소년 문제행동 조사설문지
2.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기초통계표
3. 청소년 문제행동 카이검증표

부 록 1

1. 청소년 문제행동 조사 설문지

문 1. 다음 질문은 외모(얼굴, 몸매)에 대한 사항입니다. 귀하의 생각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뛰어난 외모(얼굴, 몸매)를 가진 사람들이 부럽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외모가 뛰어난 친구를 사귀고 싶고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외모가 지금보다 나아지면 좀더 행복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취 중의 하나는 외모를 남들보다 잘 꾸미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외모는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①	②	③	④	⑤
6) TV나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나의 외모를 고치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7) 외모는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데 중요한 조건이다	①	②	③	④	⑤
8) TV나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나의 외모를 가꾸려고 노력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9)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에 있는 나의 사진을 보면 성형이나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외모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2. 다음 질문은 **돈과 경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발전하는데 친구들과의 경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좋은 학교 진학이나 좋은 직장을 갖는 방법으로 시험과 같은 경쟁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좋은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 필요하다면 시험 등 경쟁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중요한 시험 때 공부 잘하는 친구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 시험을 망쳤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경쟁을 한다는 것이 스트레스이지만 피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우리 사회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좋은 학교 진학,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은 편하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무시당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거나 부족해서 좋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구한 적이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돈이 많다면 좋은 학교 진학, 좋은 직장을 구하는데 굳이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3. 다음 질문은 귀하의 **정신적 상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요즘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성적, 친구관계, 집안 등)에 대해 걱정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최근에 자주 이유 없이 불안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자주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별 이유 없이 자주 외로움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가끔씩 특별한 이유 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사람(친구, 선생님, 부모님)들에게 기가 죽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사람이나 나에게 자주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화나면 물건을 집어던진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아슬아슬하고 스릴 넘치는 위험한 행동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4. 다음 질문은 귀하께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5. 다음 질문은 귀하와 부모님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은 나에게 사랑과 애정을 자주 보이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부모님에게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나의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부모님과 대화가 안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부모님에게 맞은 적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부모님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가족들과 자주 다툰다	①	②	③	④	⑤

문 6. 다음 질문은 귀하와 친구 친구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한 친구들의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대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보다 친구들에게 더 의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친구들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친구들의 요구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할까봐 항상 조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친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친구들과 가끔씩 다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7. 다음 질문은 귀하와 **학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매일 공부만 하는 것이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수업내용이 즐거운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성공하려면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좋은 학교로 진학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좋은 성적은 친구관계를 좀더 원활하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7) 주변에 야한사진이나 광고지 등을 보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8) 주변에 술집이 있으면 몰래 들어가 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9) 주변에서 성인만화나 도서는 언제든지 쉽게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용 사진이나 게임 등을 자주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지역 어른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별로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문 8. 다음 질문은 귀하의 **행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한 친구들이 가끔 올바르게 하지 않은 행동을 할지라도 함께 할 수밖에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학교선배들이 시키면 올바르게 않더라도 할 수 밖에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어른들이 시키면 올바르게 않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가끔씩 TV나 영화에서 하는 나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좋은 성적이나 상을 타기 위해서 컨닝이나 친구 과제물 베끼기와 같은 올바르게 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친한 친구들 중에 잘못되거나 못된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선배들 중에 잘못되거나 못된 행동을 하는 선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친한 친구가 싫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먼저 왕따 시키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무슨 일이든 앞장서서 나서는 것이 싫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친구들과 즐겁게 놀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올바른 방법이 아닐지라도 마련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9. 다음 질문은 귀하의 **경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험 유무에 ○로 표시하고, 경험이 있는 경우, 가장 기억에 남는 나이를 응답해 주세요.

	경험 유무	가장 기억에 남는 나이(시기)
1) 부모님께서 병을 오래 앓고 계신다	① 없다 ② 있다 →	()세
2) 나의 기억에는 부모님들이 때리고 욕하면서 아주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신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	()세
3) 나의 기억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아주 심하게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	()세
4) 나는 선생님께서 치욕적인 대우나 구타를 받은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	()세
5) 나는 친구 부모님이나 이웃 어른들로부터 심하게 야단맞은 기억이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	()세
6) 나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한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	()세
7) 나는 가출한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	()세
8) 나는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	()세
9) 나는 친구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	()세
10) 나는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거나 뺏아본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	()세
11) 나는 경찰로부터 훈계를 받거나 경찰서에 잡혀가본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	()세
12)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심한 협박에 시달린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	()세
13)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	()세
14)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	()세
15) 나는 무단결석을 한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	()세
16) 나는 학교에서 정학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	()세
17) 나는 술집과 같은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자주 간다	① 없다 ② 있다 →	()세
18) 나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	()세
19) 나는 스스로 폭력게임 중독자라고 생각한다	① 없다 ② 있다 →	()세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사결과 분석에 꼭 필요한 항목
이고 절대 비밀이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 1. 아래에 학생의 가족구성원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1) 함께 살고 있거나,
2)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세요.
※ 예 1: 시집 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 ○표 하지 않습니다.
예 2: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 ○표 합니다.

- | | |
|--------------------|----------|
| ① (외)할아버지 | ② (외)할머니 |
| ③ 아버지 | ④ 어머니 |
| ⑤ 새아버지 | ⑥ 새어머니 |
| ⑦ 형제 또는 자매 | ⑧ 친척 |
| ⑨ 기타() | ⑩ 없음 |

배문 2.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2번)에
표시합니다)

	학교 안다님	초 등 학 교 졸 업	중 학 교 졸 업	고 등 학 교 졸 업	2-3년 제 대 학 졸 업	4년제 대 학 졸 업	대 학 원 졸 업 (석사· 박사)	잘 모 르 겠 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문 3. 부모님께서서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현재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①	②
2) 어머니	①	②

배문 4. 학생의 학업 성적(2013년 1학기)이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 5. 학생의 가정 형편(경제 수준)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 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 록 2

2.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기초통계표

[표 1-1] 나는 뛰어난 외모(얼굴, 몸매)를 가진 사람들이 부럽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17.3	13.4	30.5	27.1	11.7
성별						
남자	(3,263)	24.1	17.7	33.7	18.5	5.9
여자	(3,096)	10.1	8.8	27.0	36.2	17.8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41.0	18.6	24.6	10.4	5.4
초등학교 5학년	(1,044)	26.3	17.2	30.8	17.2	8.2
초등학교 6학년	(1,061)	14.6	13.2	36.3	25.2	10.7
중학교 1학년	(1,061)	11.5	13.9	32.0	28.3	14.2
중학교 2학년	(1,086)	5.2	9.9	29.7	41.9	13.3
중학교 3학년	(1,048)	5.5	7.3	29.3	39.4	18.5
지역규모						
대도시	(2,532)	17.6	12.4	29.4	29.1	11.5
중소도시	(3,015)	16.5	13.6	31.1	26.3	12.3
읍/면	(812)	19.3	15.4	31.3	23.9	10.1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17.4	13.6	30.3	27.2	11.4
한부모가정	(441)	15.2	11.3	31.5	27.9	13.8
조손가정	(70)	20.0	12.9	30.0	25.7	11.4
기타	(97)	15.5	10.3	37.1	19.6	17.5
무응답	(18)	22.2	0.0	27.8	33.3	16.7
학업성적						
잘함	(2,071)	20.9	14.1	28.6	26.8	9.6
중간	(2,768)	17.9	13.8	31.8	25.9	10.6
못함	(1,505)	11.2	11.6	30.4	30.1	16.7
무응답	(15)	26.7	13.3	40.0	6.7	13.3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29.5	14.7	28.2	18.4	9.2
중	(4,749)	14.1	13.1	31.5	29.4	11.9
하	(211)	8.1	10.0	22.3	35.1	24.6
무응답	(15)	26.7	13.3	33.3	13.3	13.3

[표 1-2] 나는 외모가 뛰어난 친구를 사귀고 싶고 좋아한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17.3	23.5	41.6	14.0	3.7
성별						
남자	(3,263)	19.9	21.9	39.7	14.6	3.8
여자	(3,096)	14.4	25.1	43.5	13.3	3.6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39.2	22.4	28.0	7.0	3.3
초등학교 5학년	(1,044)	24.3	24.8	34.1	12.1	4.5
초등학교 6학년	(1,061)	14.2	23.2	42.3	16.5	3.7
중학교 1학년	(1,061)	10.9	21.5	43.2	19.3	5.1
중학교 2학년	(1,086)	6.6	24.0	49.6	16.7	3.0
중학교 3학년	(1,048)	8.5	24.9	52.0	12.2	2.4
지역규모						
대도시	(2,532)	16.7	22.2	41.9	15.2	4.1
중소도시	(3,015)	17.1	24.6	41.2	13.9	3.1
읍/면	(812)	19.5	23.4	41.9	10.7	4.4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17.3	23.6	41.4	14.0	3.6
한부모가정	(441)	15.6	22.4	43.8	14.3	3.9
조손가정	(70)	22.9	24.3	40.0	8.6	4.3
기타	(97)	15.5	19.6	44.3	16.5	4.1
무응답	(18)	22.2	11.1	38.9	11.1	16.7
학업성적						
잘함	(2,071)	19.4	23.9	38.0	14.7	4.0
중간	(2,768)	18.6	22.9	42.2	13.2	3.1
못함	(1,505)	11.8	24.0	45.4	14.6	4.2
무응답	(15)	26.7	26.7	40.0	0.0	6.7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26.7	20.4	31.7	15.5	5.4
중	(4,749)	14.8	24.5	44.0	13.5	3.1
하	(211)	9.5	20.4	49.8	15.6	4.3
무응답	(15)	13.3	26.7	53.3	0.0	6.7

[표 1-3] 나의 외모가 지금보다 나아지면 좀더 행복할 것이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13.8	14.1	33.1	29.4	9.3
성별						
남자	(3,263)	17.6	16.3	35.2	23.9	6.7
여자	(3,096)	9.8	11.7	30.9	35.3	12.0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35.3	19.5	25.1	14.6	5.0
초등학교 5학년	(1,044)	19.9	20.1	31.7	19.5	8.2
초등학교 6학년	(1,061)	10.3	16.2	37.1	26.6	9.6
중학교 1학년	(1,061)	10.0	11.4	34.1	32.1	12.3
중학교 2학년	(1,086)	2.9	9.4	36.6	41.6	9.1
중학교 3학년	(1,048)	4.5	8.1	33.9	41.7	11.7
지역규모						
대도시	(2,532)	13.7	12.9	33.5	30.3	9.4
중소도시	(3,015)	13.6	14.7	32.5	29.3	9.5
읍/면	(812)	14.4	15.8	34.0	27.1	8.6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13.8	14.4	33.2	29.3	9.0
한부모가정	(441)	11.6	11.1	34.9	32.2	10.2
조손가정	(70)	22.9	11.4	30.0	25.7	10.0
기타	(97)	13.4	14.4	25.8	24.7	21.6
무응답	(18)	27.8	0.0	27.8	33.3	11.1
학업성적						
잘함	(2,071)	17.4	17.1	29.7	27.7	7.8
중간	(2,768)	14.2	12.9	35.5	29.5	7.5
못함	(1,505)	7.9	12.0	33.4	31.7	14.8
무응답	(15)	26.7	13.3	20.0	26.7	13.3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23.2	16.3	28.0	22.7	9.3
중	(4,749)	11.3	13.7	34.8	31.1	8.9
하	(211)	7.1	8.1	29.4	34.6	19.0
무응답	(15)	20.0	13.3	20.0	33.3	13.3

[표 1-4]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취 중의 하나는 외모를 남들보다 잘 꾸미는 것이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26.7	31.1	30.1	9.7	2.2
성별						
남자	(3,263)	32.8	31.6	27.6	6.3	1.3
여자	(3,096)	20.2	30.6	32.8	13.1	3.1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52.5	26.4	15.5	3.7	1.3
초등학교 5학년	(1,044)	38.6	29.6	24.0	5.7	2.0
초등학교 6학년	(1,061)	25.7	34.6	28.7	8.3	2.4
중학교 1학년	(1,061)	21.7	33.5	32.0	10.7	2.1
중학교 2학년	(1,086)	11.5	32.9	40.4	12.4	2.6
중학교 3학년	(1,048)	10.3	29.6	39.9	17.1	3.0
지역규모						
대도시	(2,532)	26.8	30.1	30.4	10.2	2.4
중소도시	(3,015)	26.3	31.7	30.1	9.4	2.2
읍/면	(812)	27.6	32.3	29.3	9.0	1.7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26.7	31.5	29.8	9.6	2.2
한부모가정	(441)	25.6	29.0	33.3	9.5	2.3
조손가정	(70)	30.0	31.4	27.1	8.6	2.9
기타	(97)	24.7	22.7	38.1	10.3	4.1
무응답	(18)	33.3	11.1	22.2	22.2	5.6
학업성적						
잘함	(2,071)	32.3	31.6	24.8	9.2	1.9
중간	(2,768)	27.1	31.4	30.6	8.7	1.9
못함	(1,505)	18.1	29.9	36.5	12.1	3.3
무응답	(15)	33.3	26.7	33.3	6.7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38.3	27.5	23.8	7.7	2.4
중	(4,749)	23.6	32.3	31.8	10.0	2.1
하	(211)	18.0	28.0	33.6	16.1	4.3
무응답	(15)	40.0	20.0	33.3	6.7	0.0

[표 1-5] 외모는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25.5	29.9	29.8	11.9	2.7
성별						
남자	(3,263)	31.8	30.0	27.6	8.5	2.0
여자	(3,096)	18.9	29.7	32.3	15.5	3.5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48.9	26.1	16.8	6.1	1.7
초등학교 5학년	(1,044)	33.7	30.1	26.1	7.0	3.2
초등학교 6학년	(1,061)	26.3	31.5	28.4	11.0	2.7
중학교 1학년	(1,061)	22.0	32.4	31.4	11.5	2.7
중학교 2학년	(1,086)	12.6	30.6	38.0	16.2	2.6
중학교 3학년	(1,048)	10.0	28.6	38.3	19.4	3.5
지역규모						
대도시	(2,532)	25.3	30.5	29.8	11.7	2.6
중소도시	(3,015)	25.8	28.8	30.2	12.0	3.1
읍/면	(812)	25.4	31.8	28.8	12.1	1.8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25.6	30.1	29.5	12.0	2.6
한부모가정	(441)	22.9	29.3	33.1	10.4	4.1
조손가정	(70)	31.4	22.9	30.0	11.4	4.3
기타	(97)	25.8	26.8	29.9	13.4	4.1
무응답	(18)	33.3	5.6	44.4	16.7	0.0
학업성적						
잘함	(2,071)	29.8	29.3	26.5	11.8	2.5
중간	(2,768)	26.6	30.7	29.6	10.7	2.1
못함	(1,505)	17.5	29.4	34.8	14.0	4.3
무응답	(15)	33.3	6.7	40.0	20.0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36.7	26.5	23.8	9.5	3.4
중	(4,749)	22.6	31.1	31.3	12.4	2.4
하	(211)	17.1	26.1	35.5	15.6	5.2
무응답	(15)	33.3	13.3	40.0	13.3	0.0

[표 1-6] TV나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나의 외모를 고치고 싶은 생각이 든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33.3	27.9	22.7	11.8	3.9
성별						
남자	(3,263)	40.5	30.1	20.8	6.0	2.1
여자	(3,096)	25.7	25.5	24.7	18.0	5.8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60.2	21.0	11.1	4.6	2.7
초등학교 5학년	(1,044)	46.6	26.3	18.0	6.0	2.5
초등학교 6학년	(1,061)	33.0	33.6	20.7	8.7	3.6
중학교 1학년	(1,061)	28.3	30.2	23.1	15.0	3.1
중학교 2학년	(1,086)	18.0	30.8	30.1	16.8	4.3
중학교 3학년	(1,048)	14.4	25.4	33.0	19.8	7.3
지역규모						
대도시	(2,532)	32.9	27.6	23.0	12.2	3.9
중소도시	(3,015)	33.5	28.0	22.5	11.8	3.9
읍/면	(812)	34.0	28.2	22.5	11.0	4.2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33.6	28.3	22.5	11.6	3.7
한부모가정	(441)	30.2	24.3	26.3	13.6	5.2
조손가정	(70)	38.6	21.4	24.3	11.4	4.3
기타	(97)	29.9	25.8	17.5	17.5	8.2
무응답	(18)	33.3	27.8	16.7	5.6	11.1
학업성적						
잘함	(2,071)	39.9	28.0	20.0	8.9	2.7
중간	(2,768)	33.3	29.3	23.1	11.2	3.0
못함	(1,505)	24.4	25.2	25.8	17.2	7.2
무응답	(15)	33.3	26.7	20.0	0.0	13.3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47.0	24.7	16.2	8.4	3.3
중	(4,749)	29.7	29.1	24.5	12.6	3.9
하	(211)	24.2	22.3	25.6	18.5	8.5
무응답	(15)	46.7	20.0	20.0	0.0	6.7

[표 1-7] 외모는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데 중요한 조건이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26.4	27.7	30.6	12.0	3.1
성별						
남자	(3,263)	32.9	29.1	27.1	8.6	2.1
여자	(3,096)	19.6	26.3	34.3	15.6	4.0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51.0	24.5	16.8	5.9	1.5
초등학교 5학년	(1,044)	37.9	28.3	23.7	6.6	3.3
초등학교 6학년	(1,061)	26.2	31.5	29.4	10.0	2.7
중학교 1학년	(1,061)	21.5	28.4	33.3	13.2	3.7
중학교 2학년	(1,086)	12.1	28.7	40.0	15.8	3.2
중학교 3학년	(1,048)	10.2	24.9	40.3	20.6	3.9
지역규모						
대도시	(2,532)	25.3	27.0	31.7	12.6	3.2
중소도시	(3,015)	27.0	28.2	29.7	11.8	3.1
읍/면	(812)	27.7	28.2	30.7	11.0	2.3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26.5	28.1	30.3	11.9	3.0
한부모가정	(441)	23.8	24.9	34.9	12.9	3.4
조손가정	(70)	34.3	21.4	31.4	10.0	2.9
기타	(97)	28.9	21.6	27.8	16.5	5.2
무응답	(18)	27.8	22.2	22.2	5.6	11.1
학업성적						
잘함	(2,071)	31.2	28.4	27.1	10.7	2.5
중간	(2,768)	27.1	28.1	31.3	10.8	2.5
못함	(1,505)	18.7	26.0	34.3	16.0	4.9
무응답	(15)	26.7	26.7	20.0	20.0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36.9	24.7	24.5	10.0	3.6
중	(4,749)	23.7	28.8	32.3	12.3	2.8
하	(211)	19.4	22.7	32.7	20.4	4.7
무응답	(15)	26.7	26.7	20.0	20.0	0.0

[표 1-8] TV나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나의 외모를 가꾸려고 노력하게 된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29.7	26.1	26.7	13.3	3.9
성별						
남자	(3,263)	39.0	30.8	22.4	5.4	2.0
여자	(3,096)	19.8	21.2	31.2	21.6	5.9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56.0	21.0	14.5	5.3	2.6
초등학교 5학년	(1,044)	42.5	25.5	21.5	6.6	3.8
초등학교 6학년	(1,061)	30.3	31.3	25.8	8.3	3.9
중학교 1학년	(1,061)	26.1	28.5	26.0	15.6	3.6
중학교 2학년	(1,086)	12.4	26.2	37.0	19.9	4.1
중학교 3학년	(1,048)	11.0	24.3	35.0	24.1	5.3
지역규모						
대도시	(2,532)	29.4	25.7	27.1	13.7	3.9
중소도시	(3,015)	29.5	26.4	26.9	12.9	3.9
읍/면	(812)	31.3	26.5	24.6	13.4	3.8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29.8	26.3	26.3	13.3	3.9
한부모가정	(441)	26.5	25.6	31.3	13.4	3.2
조손가정	(70)	32.9	24.3	30.0	8.6	4.3
기타	(97)	29.9	23.7	25.8	15.5	5.2
무응답	(18)	44.4	11.1	22.2	11.1	5.6
학업성적						
잘함	(2,071)	35.7	26.4	21.9	11.9	3.8
중간	(2,768)	30.1	25.9	27.6	12.6	3.5
못함	(1,505)	20.6	26.1	31.6	16.5	4.9
무응답	(15)	26.7	33.3	20.0	13.3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43.0	23.2	20.0	9.0	4.4
중	(4,749)	26.1	27.1	28.4	14.4	3.7
하	(211)	21.3	21.8	31.8	18.0	6.2
무응답	(15)	33.3	33.3	13.3	13.3	0.0

[표 1-9]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에 있는 나의 사진을 보면 성형이나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38.1	24.4	20.6	12.3	4.5
성별						
남자	(3,263)	48.2	26.4	16.9	6.2	2.0
여자	(3,096)	27.3	22.2	24.4	18.8	7.0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65.6	17.2	10.3	5.1	1.3
초등학교 5학년	(1,044)	51.4	22.7	16.5	5.9	3.0
초등학교 6학년	(1,061)	38.7	27.0	21.3	9.0	4.1
중학교 1학년	(1,061)	35.0	27.3	21.1	12.5	4.1
중학교 2학년	(1,086)	20.8	27.1	27.0	18.5	6.3
중학교 3학년	(1,048)	17.2	24.9	27.0	22.9	8.0
지역규모						
대도시	(2,532)	38.2	23.5	20.6	13.0	4.5
중소도시	(3,015)	37.6	25.0	20.7	11.9	4.5
읍/면	(812)	39.4	24.5	19.8	12.1	4.1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38.4	24.6	20.2	12.3	4.3
한부모가정	(441)	32.7	23.4	24.0	14.1	5.7
조손가정	(70)	40.0	15.7	28.6	10.0	5.7
기타	(97)	38.1	24.7	16.5	13.4	7.2
무응답	(18)	44.4	11.1	27.8	0.0	5.6
학업성적						
잘함	(2,071)	46.7	23.2	17.5	9.3	3.0
중간	(2,768)	37.0	25.9	21.4	12.0	3.5
못함	(1,505)	28.0	23.3	23.1	17.2	8.1
무응답	(15)	46.7	13.3	20.0	0.0	6.7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53.2	19.2	15.5	8.5	3.2
중	(4,749)	34.1	26.0	22.1	13.2	4.5
하	(211)	27.0	22.3	19.4	19.9	11.4
무응답	(15)	53.3	13.3	13.3	6.7	0.0

[표 1-10] 나의 외모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52.1	28.4	14.8	3.2	1.4
성별						
남자	(3,263)	58.4	26.2	12.4	1.7	1.0
여자	(3,096)	45.3	30.6	17.4	4.7	1.7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76.1	15.3	6.1	1.3	1.0
초등학교 5학년	(1,044)	62.9	23.3	10.0	1.8	1.3
초등학교 6학년	(1,061)	53.7	29.9	12.1	2.7	1.5
중학교 1학년	(1,061)	48.9	28.5	17.2	3.8	1.6
중학교 2학년	(1,086)	36.9	38.1	19.2	4.6	1.1
중학교 3학년	(1,048)	34.1	34.8	24.5	4.8	1.7
지역규모						
대도시	(2,532)	51.4	28.1	16.0	3.0	1.5
중소도시	(3,015)	52.0	28.9	14.2	3.3	1.3
읍/면	(812)	54.4	27.3	13.7	3.3	1.2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52.3	28.6	14.5	3.1	1.3
한부모가정	(441)	50.6	26.1	17.9	3.6	1.8
조손가정	(70)	51.4	27.1	18.6	1.4	1.4
기타	(97)	46.4	25.8	16.5	7.2	3.1
무응답	(18)	50.0	16.7	22.2	0.0	5.6
학업성적						
잘함	(2,071)	59.8	25.9	10.7	2.1	1.3
중간	(2,768)	52.0	29.7	14.7	2.9	0.7
못함	(1,505)	41.5	29.4	20.9	5.2	2.8
무응답	(15)	66.7	13.3	6.7	6.7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67.2	20.7	8.3	1.6	1.7
중	(4,749)	48.1	30.7	16.5	3.4	1.2
하	(211)	39.8	27.0	21.8	8.1	2.8
무응답	(15)	73.3	13.3	6.7	0.0	0.0

[표 2-1] 나는 내가 발전하는데 친구들과의 경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10.2	12.5	33.3	31.3	12.5
성별						
남자	(3,263)	10.8	11.1	31.7	31.7	14.7
여자	(3,096)	9.6	14.0	35.0	31.0	10.3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29.5	16.9	26.9	15.2	11.3
초등학교 5학년	(1,044)	15.0	15.9	32.4	23.1	13.5
초등학교 6학년	(1,061)	5.2	10.7	35.7	32.4	16.0
중학교 1학년	(1,061)	5.0	10.6	36.6	34.3	13.4
중학교 2학년	(1,086)	3.2	9.7	36.0	40.9	10.0
중학교 3학년	(1,048)	3.4	11.5	32.2	41.9	11.1
지역규모						
대도시	(2,532)	9.5	11.7	31.6	32.9	14.3
중소도시	(3,015)	10.6	12.8	33.9	31.1	11.4
읍/면	(812)	10.8	14.0	36.5	27.1	11.5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10.2	12.3	32.9	31.7	12.8
한부모가정	(441)	9.1	14.3	37.2	29.9	9.3
조손가정	(70)	11.4	12.9	42.9	24.3	8.6
기타	(97)	11.3	13.4	36.1	25.8	13.4
무응답	(18)	16.7	16.7	27.8	16.7	16.7
학업성적						
잘함	(2,071)	8.1	9.6	23.8	37.4	21.1
중간	(2,768)	12.9	12.5	35.4	29.9	9.2
못함	(1,505)	8.3	16.5	42.4	25.9	6.7
무응답	(15)	0.0	13.3	46.7	13.3	2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16.9	11.6	26.4	27.1	17.8
중	(4,749)	8.4	12.8	35.2	32.6	10.9
하	(211)	7.1	10.4	34.1	32.2	15.6
무응답	(15)	0.0	20.0	46.7	13.3	13.3

[표 2-2] 나는 좋은 학교 진학이나 좋은 직장을 갖는 방법으로 시험과 같은 경쟁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11.9	19.2	37.0	21.6	10.1
성별						
남자	(3,263)	13.5	16.9	35.1	21.9	12.5
여자	(3,096)	10.3	21.6	38.9	21.2	7.7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21.6	15.9	35.0	15.1	11.9
초등학교 5학년	(1,044)	12.6	16.4	37.4	21.6	11.7
초등학교 6학년	(1,061)	6.9	14.2	38.0	26.1	14.6
중학교 1학년	(1,061)	9.8	18.6	38.8	21.5	11.2
중학교 2학년	(1,086)	8.6	22.4	39.0	22.8	6.8
중학교 3학년	(1,048)	12.0	27.8	33.4	22.1	4.6
지역규모						
대도시	(2,532)	11.5	19.5	35.7	21.9	11.1
중소도시	(3,015)	12.7	18.8	37.1	21.8	9.3
읍/면	(812)	10.2	19.5	40.3	19.8	10.0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11.9	19.3	36.6	21.8	10.2
한부모가정	(441)	10.9	20.4	41.0	19.0	8.4
조손가정	(70)	12.9	14.3	38.6	22.9	11.4
기타	(97)	10.3	15.5	38.1	20.6	15.5
무응답	(18)	27.8	5.6	33.3	22.2	5.6
학업성적						
잘함	(2,071)	10.0	16.7	32.3	25.1	15.8
중간	(2,768)	12.7	18.4	38.3	22.2	8.1
못함	(1,505)	12.9	24.2	40.8	15.6	6.2
무응답	(15)	20.0	13.3	40.0	13.3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16.0	15.5	32.7	21.2	14.5
중	(4,749)	10.7	20.0	38.4	21.7	8.9
하	(211)	11.8	25.1	32.7	20.4	9.5
무응답	(15)	26.7	13.3	33.3	20.0	0.0

[표 2-3] 나는 좋은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 필요하다면 시험 등 경쟁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6.9	11.2	41.2	29.3	10.9
성별						
남자	(3,263)	7.4	11.3	40.5	27.7	12.5
여자	(3,096)	6.5	11.0	41.9	30.9	9.3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16.7	15.2	36.2	19.8	11.5
초등학교 5학년	(1,044)	10.2	12.1	41.1	23.9	12.1
초등학교 6학년	(1,061)	4.3	10.7	45.1	28.4	11.3
중학교 1학년	(1,061)	4.9	11.4	40.1	32.1	10.7
중학교 2학년	(1,086)	2.4	9.7	43.9	33.3	9.9
중학교 3학년	(1,048)	3.1	8.0	40.6	37.9	10.0
지역규모						
대도시	(2,532)	6.3	10.1	39.7	30.1	13.2
중소도시	(3,015)	7.7	11.3	41.8	29.0	9.8
읍/면	(812)	6.2	14.0	43.7	27.6	8.1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6.8	11.0	40.9	29.8	11.1
한부모가정	(441)	8.6	13.6	44.4	26.1	7.0
조손가정	(70)	4.3	15.7	41.4	27.1	10.0
기타	(97)	7.2	9.3	44.3	20.6	16.5
무응답	(18)	11.1	11.1	50.0	5.6	16.7
학업성적						
잘함	(2,071)	6.2	8.8	35.0	34.3	15.4
중간	(2,768)	7.9	11.3	43.8	27.5	8.9
못함	(1,505)	6.1	14.0	45.0	26.0	8.5
무응답	(15)	6.7	40.0	33.3	0.0	13.3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8.8	9.5	33.9	30.6	16.3
중	(4,749)	6.3	11.6	43.1	29.0	9.6
하	(211)	8.1	11.4	46.4	27.5	6.2
무응답	(15)	6.7	33.3	33.3	13.3	6.7

[표 2-4] 나는 중요한 시험 때 공부 잘하는 친구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 시험을 망쳤으면 좋겠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37.3	27.2	19.8	10.3	5.2
성별						
남자	(3,263)	41.2	25.4	18.7	8.7	5.5
여자	(3,096)	33.1	29.0	21.0	11.9	4.7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62.0	19.8	9.3	5.4	3.0
초등학교 5학년	(1,044)	48.0	24.0	16.4	6.3	4.5
초등학교 6학년	(1,061)	36.3	29.9	19.5	9.4	4.7
중학교 1학년	(1,061)	31.2	27.9	22.1	11.7	6.8
중학교 2학년	(1,086)	22.4	30.3	27.3	14.0	5.9
중학교 3학년	(1,048)	24.0	30.9	24.1	14.7	6.0
지역규모						
대도시	(2,532)	36.1	25.8	21.2	11.3	5.2
중소도시	(3,015)	37.5	27.8	18.8	10.1	5.3
읍/면	(812)	39.9	28.8	19.0	7.8	4.3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37.1	27.2	19.7	10.4	5.3
한부모가정	(441)	38.1	27.4	20.6	9.1	4.3
조손가정	(70)	44.3	28.6	14.3	10.0	1.4
기타	(97)	36.1	26.8	24.7	7.2	5.2
무응답	(18)	50.0	11.1	16.7	5.6	11.1
학업성적						
잘함	(2,071)	39.1	25.6	18.3	11.3	5.6
중간	(2,768)	38.6	27.1	19.7	9.8	4.3
못함	(1,505)	32.1	29.4	22.2	9.8	6.2
무응답	(15)	46.7	26.7	20.0	0.0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46.6	22.3	15.6	8.8	6.1
중	(4,749)	34.8	28.7	21.0	10.6	4.6
하	(211)	29.4	24.6	21.3	12.3	10.9
무응답	(15)	53.3	20.0	20.0	0.0	0.0

[표 2-5] 나는 경쟁을 한다는 것이 스트레스이지만 피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6.2	11.1	40.9	27.9	13.6
성별						
남자	(3,263)	6.4	9.4	40.1	28.2	15.6
여자	(3,096)	6.0	12.8	41.8	27.7	11.4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13.1	10.6	29.6	23.6	22.4
초등학교 5학년	(1,044)	8.2	9.1	35.1	28.1	19.5
초등학교 6학년	(1,061)	4.4	10.1	40.3	30.5	14.5
중학교 1학년	(1,061)	4.7	11.5	41.9	30.7	10.7
중학교 2학년	(1,086)	2.3	13.2	49.3	27.3	7.6
중학교 3학년	(1,048)	4.5	11.9	49.0	27.4	7.0
지역규모						
대도시	(2,532)	5.1	9.9	40.0	29.2	15.5
중소도시	(3,015)	6.7	12.2	41.4	27.0	12.3
읍/면	(812)	7.8	10.6	41.6	27.6	12.1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6.2	10.8	40.5	28.5	13.6
한부모가정	(441)	6.8	13.2	44.2	23.8	11.8
조손가정	(70)	0.0	17.1	47.1	21.4	14.3
기타	(97)	6.2	11.3	47.4	18.6	16.5
무응답	(18)	5.6	16.7	33.3	16.7	22.2
학업성적						
잘함	(2,071)	4.6	5.4	31.9	35.6	22.1
중간	(2,768)	7.0	11.2	44.1	27.2	10.3
못함	(1,505)	6.8	18.7	47.4	19.0	7.8
무응답	(15)	0.0	13.3	46.7	13.3	2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7.8	7.1	28.4	31.6	24.7
중	(4,749)	5.6	11.9	44.6	27.0	10.5
하	(211)	9.0	18.0	38.4	24.6	9.0
무응답	(15)	0.0	6.7	53.3	26.7	6.7

[표 2-6] 나는 우리 사회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18.3	20.8	29.1	20.4	11.1
성별						
남자	(3,263)	20.5	20.5	28.4	17.8	12.4
여자	(3,096)	16.1	21.1	29.7	23.2	9.8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40.8	20.4	24.1	8.6	5.6
초등학교 5학년	(1,044)	26.2	23.0	28.2	15.1	7.0
초등학교 6학년	(1,061)	14.0	25.1	31.6	18.6	10.7
중학교 1학년	(1,061)	13.9	20.1	31.7	22.7	11.4
중학교 2학년	(1,086)	7.8	19.2	30.5	27.6	14.7
중학교 3학년	(1,048)	7.4	16.9	28.4	29.9	17.4
지역규모						
대도시	(2,532)	18.2	19.4	30.1	21.4	10.7
중소도시	(3,015)	17.9	21.5	28.4	20.3	11.7
읍/면	(812)	20.3	22.4	28.6	18.1	10.2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18.8	20.8	29.0	20.3	10.9
한부모가정	(441)	13.2	19.0	32.7	22.4	12.5
조손가정	(70)	22.9	28.6	21.4	17.1	8.6
기타	(97)	12.4	20.6	24.7	23.7	18.6
무응답	(18)	16.7	22.2	16.7	22.2	16.7
학업성적						
잘함	(2,071)	22.2	22.1	27.7	18.8	9.0
중간	(2,768)	18.9	22.3	30.4	19.2	8.9
못함	(1,505)	11.9	16.0	28.8	25.0	18.1
무응답	(15)	20.0	26.7	13.3	20.0	13.3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26.8	20.2	26.1	16.0	10.5
중	(4,749)	16.2	21.3	30.2	21.4	10.8
하	(211)	11.4	12.8	24.6	29.4	21.3
무응답	(15)	20.0	20.0	20.0	20.0	13.3

[표 2-7] 나는 좋은 학교 진학,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은 편하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13.1	16.8	30.8	26.7	12.3
성별						
남자	(3,263)	14.5	16.2	30.8	24.9	13.2
여자	(3,096)	11.6	17.3	30.9	28.5	11.4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28.6	20.5	27.1	14.4	9.0
초등학교 5학년	(1,044)	20.5	20.8	33.0	16.5	8.6
초등학교 6학년	(1,061)	10.0	19.4	34.3	23.7	12.6
중학교 1학년	(1,061)	9.5	15.6	30.3	30.3	13.9
중학교 2학년	(1,086)	4.8	13.2	30.6	37.3	13.8
중학교 3학년	(1,048)	5.2	11.3	29.9	37.6	16.0
지역규모						
대도시	(2,532)	12.8	16.1	29.3	29.0	12.4
중소도시	(3,015)	12.7	17.5	31.2	25.2	13.0
읍/면	(812)	15.1	16.1	34.1	24.9	9.5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13.3	16.8	30.6	26.7	12.3
한부모가정	(441)	10.9	16.1	32.9	27.7	11.8
조손가정	(70)	8.6	24.3	32.9	21.4	12.9
기타	(97)	12.4	14.4	32.0	24.7	14.4
무응답	(18)	16.7	16.7	27.8	22.2	11.1
학업성적						
잘함	(2,071)	15.5	17.0	26.8	26.9	13.4
중간	(2,768)	13.1	17.6	33.3	25.0	10.7
못함	(1,505)	9.4	14.9	32.0	29.6	13.8
무응답	(15)	20.0	20.0	26.7	13.3	13.3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19.3	17.5	28.8	20.5	13.3
중	(4,749)	11.4	16.6	31.6	28.4	11.8
하	(211)	9.5	14.7	27.0	28.9	19.0
무응답	(15)	13.3	26.7	33.3	13.3	6.7

[표 2-8] 나는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한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56.9	27.4	11.3	2.9	1.2
성별						
남자	(3,263)	59.6	24.5	11.4	2.8	1.3
여자	(3,096)	54.0	30.5	11.2	3.0	1.0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79.3	13.7	4.2	1.3	1.0
초등학교 5학년	(1,044)	67.0	21.2	8.9	1.7	1.0
초등학교 6학년	(1,061)	60.8	26.7	8.8	2.6	1.0
중학교 1학년	(1,061)	53.3	29.3	12.7	2.7	1.2
중학교 2학년	(1,086)	41.0	36.9	16.6	4.0	1.3
중학교 3학년	(1,048)	40.3	36.5	16.8	5.0	1.4
지역규모						
대도시	(2,532)	56.6	26.5	12.2	3.1	1.3
중소도시	(3,015)	56.0	28.4	11.3	2.7	1.3
읍/면	(812)	61.3	26.7	8.5	3.0	0.2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57.7	27.4	10.8	2.7	1.2
한부모가정	(441)	48.1	29.0	16.3	4.8	1.6
조손가정	(70)	54.3	21.4	15.7	8.6	0.0
기타	(97)	50.5	26.8	18.6	3.1	1.0
무응답	(18)	61.1	22.2	11.1	0.0	0.0
학업성적						
잘함	(2,071)	65.7	23.0	7.4	2.4	1.2
중간	(2,768)	56.7	28.8	10.8	2.6	0.8
못함	(1,505)	44.9	31.2	17.8	4.1	1.9
무응답	(15)	80.0	6.7	6.7	0.0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77.2	14.5	4.8	1.7	1.4
중	(4,749)	52.5	31.4	12.3	2.8	0.9
하	(211)	22.7	24.6	32.7	12.3	6.2
무응답	(15)	66.7	6.7	13.3	6.7	0.0

[표 2-9] 나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거나 부족해서 좋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구한 적이 자주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65.7	21.1	9.7	2.6	0.8
성별						
남자	(3,263)	62.5	21.5	11.7	3.1	1.1
여자	(3,096)	69.1	20.6	7.6	2.0	0.5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83.8	9.9	4.6	0.9	0.5
초등학교 5학년	(1,044)	73.2	18.1	6.5	1.3	0.6
초등학교 6학년	(1,061)	67.7	21.3	7.6	2.8	0.6
중학교 1학년	(1,061)	63.1	22.2	10.1	3.5	0.8
중학교 2학년	(1,086)	52.3	27.4	15.0	4.0	1.0
중학교 3학년	(1,048)	54.4	27.3	14.1	2.8	1.4
지역규모						
대도시	(2,532)	65.9	20.6	9.8	2.6	0.9
중소도시	(3,015)	65.1	21.7	9.8	2.4	0.8
읍/면	(812)	67.1	20.1	8.9	3.0	0.6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66.1	21.2	9.3	2.4	0.8
한부모가정	(441)	61.5	18.8	14.7	3.9	0.9
조손가정	(70)	65.7	21.4	4.3	4.3	2.9
기타	(97)	62.9	21.6	10.3	5.2	0.0
무응답	(18)	55.6	27.8	11.1	0.0	0.0
학업성적						
잘함	(2,071)	74.0	17.5	5.7	1.9	0.7
중간	(2,768)	66.4	21.5	9.5	2.2	0.3
못함	(1,505)	53.0	25.3	15.4	4.3	1.9
무응답	(15)	66.7	13.3	13.3	0.0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78.5	13.0	5.3	1.8	1.1
중	(4,749)	62.5	23.4	10.8	2.6	0.7
하	(211)	53.6	23.2	13.3	7.1	2.4
무응답	(15)	66.7	13.3	13.3	0.0	0.0

[표 2-10] 나는 돈이 많다면 좋은 학교 진학, 좋은 직장을 구하는데 굳이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38.0	29.7	20.1	8.2	3.9
성별						
남자	(3,263)	39.3	27.2	20.4	8.3	4.7
여자	(3,096)	36.5	32.4	19.8	8.1	3.0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61.1	22.6	11.3	2.5	2.1
초등학교 5학년	(1,044)	52.0	27.5	15.2	2.9	2.4
초등학교 6학년	(1,061)	41.8	34.3	16.0	5.3	2.6
중학교 1학년	(1,061)	32.0	30.3	23.7	9.6	4.4
중학교 2학년	(1,086)	20.6	32.4	29.0	13.0	4.7
중학교 3학년	(1,048)	20.7	31.2	25.3	15.7	7.1
지역규모						
대도시	(2,532)	38.3	28.3	20.5	9.4	3.4
중소도시	(3,015)	37.3	30.9	20.1	7.3	4.3
읍/면	(812)	39.5	29.8	19.3	7.6	3.6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38.2	29.4	20.1	8.1	4.0
한부모가정	(441)	32.9	32.7	21.8	9.5	2.9
조손가정	(70)	44.3	32.9	12.9	7.1	2.9
기타	(97)	40.2	32.0	17.5	7.2	3.1
무응답	(18)	44.4	22.2	16.7	11.1	0.0
학업성적						
잘함	(2,071)	44.9	29.6	15.5	6.8	3.1
중간	(2,768)	38.2	30.9	20.0	7.7	3.2
못함	(1,505)	28.2	27.9	26.6	11.1	6.2
무응답	(15)	26.7	20.0	33.3	6.7	6.7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53.2	23.4	14.7	5.1	3.5
중	(4,749)	34.1	31.5	21.5	9.0	3.8
하	(211)	24.6	31.3	23.7	10.4	9.0
무응답	(15)	33.3	20.0	33.3	6.7	0.0

[표 3-1] 나는 요즘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35.1	33.2	21.4	8.0	2.1
성별						
남자	(3,263)	38.0	32.3	20.5	6.8	2.2
여자	(3,096)	32.1	34.2	22.4	9.3	1.9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57.4	25.3	12.1	3.5	1.6
초등학교 5학년	(1,044)	47.7	28.0	17.7	5.1	1.4
초등학교 6학년	(1,061)	35.5	35.7	19.3	7.0	2.3
중학교 1학년	(1,061)	31.5	33.3	24.0	9.1	1.9
중학교 2학년	(1,086)	19.9	38.7	27.3	11.1	2.9
중학교 3학년	(1,048)	19.1	38.4	28.0	12.1	2.4
지역규모						
대도시	(2,532)	37.0	32.8	20.3	7.4	2.3
중소도시	(3,015)	33.7	33.7	21.8	8.7	2.1
읍/면	(812)	34.4	33.0	23.5	7.5	1.6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35.6	33.1	21.3	7.9	2.0
한부모가정	(441)	27.7	37.0	22.9	9.5	2.9
조손가정	(70)	35.7	34.3	15.7	8.6	5.7
기타	(97)	37.1	22.7	30.9	6.2	3.1
무응답	(18)	55.6	27.8	5.6	5.6	0.0
학업성적						
잘함	(2,071)	46.1	33.8	13.8	4.8	1.4
중간	(2,768)	34.0	32.9	23.1	8.0	2.0
못함	(1,505)	22.0	33.2	29.0	12.4	3.3
무응답	(15)	40.0	33.3	6.7	13.3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53.8	27.4	12.1	4.6	2.0
중	(4,749)	30.3	35.0	24.0	8.7	1.9
하	(211)	21.8	31.3	26.5	14.2	6.2
무응답	(15)	40.0	40.0	0.0	13.3	0.0

[표 3-2]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성적, 친구관계, 집안 등)에 대해 걱정이 많은 편이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25.1	21.4	24.4	20.9	8.0
성별						
남자	(3,263)	29.4	24.3	23.8	16.2	6.2
여자	(3,096)	20.7	18.4	24.9	25.8	10.0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51.7	21.5	17.4	6.1	3.2
초등학교 5학년	(1,044)	35.9	23.5	21.5	12.5	6.4
초등학교 6학년	(1,061)	25.4	24.8	25.8	16.4	7.3
중학교 1학년	(1,061)	19.9	19.5	25.9	25.2	9.5
중학교 2학년	(1,086)	10.2	22.2	28.5	28.5	10.6
중학교 3학년	(1,048)	8.1	17.1	27.1	36.5	11.2
지역규모						
대도시	(2,532)	25.9	20.3	23.9	21.3	8.6
중소도시	(3,015)	24.3	21.8	24.4	21.2	8.1
읍/면	(812)	25.9	23.6	25.7	18.5	6.2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25.9	21.8	23.9	20.6	7.8
한부모가정	(441)	16.6	16.8	29.7	25.6	11.1
조손가정	(70)	18.6	30.0	20.0	21.4	8.6
기타	(97)	28.9	16.5	29.9	17.5	7.2
무응답	(18)	16.7	22.2	33.3	16.7	5.6
학업성적						
잘함	(2,071)	33.3	22.9	20.2	16.8	6.6
중간	(2,768)	25.3	21.8	26.5	19.9	6.4
못함	(1,505)	13.6	18.6	26.1	28.5	13.2
무응답	(15)	26.7	33.3	33.3	0.0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43.2	22.0	18.0	10.8	5.7
중	(4,749)	20.5	21.8	26.5	23.0	8.1
하	(211)	10.4	9.5	17.5	39.8	22.7
무응답	(15)	26.7	33.3	26.7	6.7	0.0

[표 3-3] 나는 최근에 자주 이유 없이 불안할 때가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36.8	26.4	18.9	13.8	3.9
성별						
남자	(3,263)	42.7	27.9	17.6	8.7	2.8
여자	(3,096)	30.6	24.8	20.2	19.2	5.1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62.5	18.5	11.0	6.2	1.7
초등학교 5학년	(1,044)	51.4	21.5	13.7	9.8	3.3
초등학교 6학년	(1,061)	38.9	27.7	17.3	12.2	3.5
중학교 1학년	(1,061)	31.4	27.9	22.0	13.9	4.4
중학교 2학년	(1,086)	20.7	30.5	23.4	19.3	6.0
중학교 3학년	(1,048)	16.4	32.2	25.9	21.1	4.4
지역규모						
대도시	(2,532)	37.1	25.2	19.2	14.0	4.3
중소도시	(3,015)	36.2	27.0	18.7	14.0	3.9
읍/면	(812)	38.5	27.8	18.6	12.3	2.5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37.1	26.5	18.8	13.6	3.8
한부모가정	(441)	30.6	25.6	20.9	18.1	4.3
조손가정	(70)	40.0	27.1	15.7	10.0	7.1
기타	(97)	44.3	23.7	16.5	8.2	7.2
무응답	(18)	38.9	22.2	22.2	11.1	0.0
학업성적						
잘함	(2,071)	46.8	24.5	14.5	10.7	3.1
중간	(2,768)	35.6	28.1	20.2	12.8	3.1
못함	(1,505)	25.2	25.7	22.5	20.0	6.4
무응답	(15)	40.0	26.7	20.0	6.7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55.6	20.5	12.3	8.3	3.0
중	(4,749)	32.2	28.4	20.4	15.0	3.9
하	(211)	17.5	20.4	27.5	23.2	10.9
무응답	(15)	40.0	26.7	20.0	6.7	0.0

[표 3-4]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자주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40.7	23.2	17.3	13.6	5.0
성별						
남자	(3,263)	50.2	25.2	15.0	7.1	2.3
여자	(3,096)	30.7	21.0	19.7	20.5	7.8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68.4	13.1	10.8	4.9	2.5
초등학교 5학년	(1,044)	53.4	21.1	12.2	8.8	4.3
초등학교 6학년	(1,061)	42.5	24.2	16.9	11.6	4.6
중학교 1학년	(1,061)	36.0	25.5	17.2	16.1	5.0
중학교 2학년	(1,086)	23.7	28.4	22.8	17.9	7.2
중학교 3학년	(1,048)	20.8	26.6	23.6	22.5	6.4
지역규모						
대도시	(2,532)	40.4	22.6	17.9	13.7	5.2
중소도시	(3,015)	40.0	22.9	17.5	13.9	5.5
읍/면	(812)	44.2	26.2	14.3	12.6	2.6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41.1	23.2	17.2	13.6	4.8
한부모가정	(441)	33.8	24.0	18.6	17.0	6.6
조손가정	(70)	51.4	18.6	14.3	7.1	8.6
기타	(97)	45.4	19.6	19.6	9.3	6.2
무응답	(18)	38.9	27.8	16.7	11.1	0.0
학업성적						
잘함	(2,071)	49.1	21.9	14.2	10.1	4.4
중간	(2,768)	40.4	24.1	17.8	13.2	4.3
못함	(1,505)	29.8	23.3	20.2	19.5	7.2
무응답	(15)	40.0	13.3	33.3	6.7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58.2	17.3	11.5	8.8	4.0
중	(4,749)	36.6	24.9	18.8	14.7	4.8
하	(211)	19.4	22.3	20.9	21.8	15.2
무응답	(15)	33.3	26.7	13.3	13.3	6.7

[표 3-5] 나는 별 이유 없이 자주 외로움 느낀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41.5	25.4	17.6	11.3	4.1
성별						
남자	(3,263)	50.8	25.7	14.9	6.0	2.5
여자	(3,096)	31.7	25.0	20.4	17.0	5.8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66.7	17.2	9.2	4.4	2.3
초등학교 5학년	(1,044)	55.3	20.1	13.7	7.4	3.4
초등학교 6학년	(1,061)	43.3	26.1	15.5	10.5	4.5
중학교 1학년	(1,061)	37.9	26.0	17.9	13.3	4.8
중학교 2학년	(1,086)	25.3	31.4	23.6	14.7	4.8
중학교 3학년	(1,048)	20.9	31.4	25.5	17.7	4.6
지역규모						
대도시	(2,532)	41.7	24.5	18.1	11.2	4.4
중소도시	(3,015)	40.8	26.1	17.2	11.4	4.3
읍/면	(812)	43.5	25.7	17.1	11.5	2.2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42.1	25.2	17.6	11.0	4.0
한부모가정	(441)	34.0	26.5	19.0	15.9	4.5
조손가정	(70)	44.3	24.3	12.9	11.4	7.1
기타	(97)	39.2	27.8	14.4	11.3	6.2
무응답	(18)	22.2	55.6	16.7	0.0	0.0
학업성적						
잘함	(2,071)	50.0	23.8	13.6	9.2	3.2
중간	(2,768)	41.2	26.5	18.0	10.9	3.4
못함	(1,505)	30.4	25.5	22.3	15.1	6.5
무응답	(15)	33.3	33.3	20.0	6.7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59.3	19.4	10.8	6.4	3.8
중	(4,749)	37.2	27.3	19.2	12.3	3.8
하	(211)	20.9	21.3	23.7	23.2	10.9
무응답	(15)	26.7	26.7	33.3	0.0	6.7

[표 3-6] 나는 가끔씩 특별한 이유 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56.2	20.7	12.3	7.7	2.9
성별						
남자	(3,263)	62.5	20.9	10.2	4.2	2.0
여자	(3,096)	49.5	20.5	14.5	11.5	3.9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78.9	10.1	5.9	3.7	1.2
초등학교 5학년	(1,044)	65.8	15.5	9.9	6.0	2.7
초등학교 6학년	(1,061)	55.1	21.5	12.2	7.2	3.8
중학교 1학년	(1,061)	52.3	22.3	12.3	9.9	3.0
중학교 2학년	(1,086)	43.3	27.3	15.4	10.3	3.7
중학교 3학년	(1,048)	41.9	27.4	18.1	9.3	3.2
지역규모						
대도시	(2,532)	56.2	19.5	13.4	7.9	2.7
중소도시	(3,015)	55.0	21.6	12.1	7.9	3.3
읍/면	(812)	60.2	21.2	9.4	6.5	2.6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57.0	20.5	11.9	7.6	2.9
한부모가정	(441)	45.8	23.8	17.0	10.0	3.4
조손가정	(70)	55.7	20.0	11.4	8.6	4.3
기타	(97)	57.7	17.5	14.4	6.2	4.1
무응답	(18)	44.4	38.9	0.0	5.6	5.6
학업성적						
잘함	(2,071)	65.9	17.4	8.6	5.5	2.4
중간	(2,768)	56.7	21.5	12.6	6.9	2.2
못함	(1,505)	41.9	23.7	16.9	12.4	5.0
무응답	(15)	46.7	40.0	0.0	6.7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69.9	14.1	7.1	5.9	2.7
중	(4,749)	53.2	22.3	13.7	7.9	2.8
하	(211)	34.1	26.5	16.1	15.6	7.6
무응답	(15)	40.0	33.3	6.7	6.7	6.7

[표 3-7] 나는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사람(친구, 선생님, 부모님)들에게 기가 죽을 때가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42.6	24.7	17.2	11.5	3.8
성별						
남자	(3,263)	48.9	24.8	15.4	7.5	3.2
여자	(3,096)	35.8	24.5	19.2	15.6	4.5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64.7	15.7	12.1	5.0	2.2
초등학교 5학년	(1,044)	53.7	21.8	12.9	7.2	4.0
초등학교 6학년	(1,061)	41.4	25.6	17.5	11.2	4.0
중학교 1학년	(1,061)	39.5	25.9	17.4	12.1	5.0
중학교 2학년	(1,086)	27.6	29.5	21.5	16.2	5.0
중학교 3학년	(1,048)	28.8	29.5	21.8	17.0	2.8
지역규모						
대도시	(2,532)	42.8	25.0	16.4	11.8	3.8
중소도시	(3,015)	42.0	24.4	17.4	11.8	4.1
읍/면	(812)	44.0	24.8	19.1	9.1	2.8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43.1	24.4	17.1	11.3	3.8
한부모가정	(441)	36.7	27.4	18.8	13.8	3.2
조손가정	(70)	32.9	28.6	15.7	14.3	8.6
기타	(97)	43.3	28.9	16.5	7.2	4.1
무응답	(18)	38.9	16.7	16.7	16.7	5.6
학업성적						
잘함	(2,071)	50.6	23.3	13.6	9.9	2.5
중간	(2,768)	42.9	24.7	18.1	10.8	3.3
못함	(1,505)	31.0	26.6	20.6	15.0	6.6
무응답	(15)	40.0	26.7	26.7	0.0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57.2	19.6	13.2	6.2	3.4
중	(4,749)	39.2	26.3	18.4	12.5	3.4
하	(211)	21.8	22.3	18.0	22.7	14.7
무응답	(15)	46.7	20.0	13.3	0.0	13.3

[표 3-8] 나는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사람이나 나에게 자주 화가 난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44.5	25.9	16.0	10.0	3.4
성별						
남자	(3,263)	51.7	25.2	14.1	6.7	2.1
여자	(3,096)	36.9	26.7	18.0	13.4	4.9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69.8	17.4	7.4	3.6	1.7
초등학교 5학년	(1,044)	58.3	19.4	13.3	5.5	3.3
초등학교 6학년	(1,061)	43.2	27.0	17.4	8.2	3.8
중학교 1학년	(1,061)	39.7	26.9	16.9	12.8	3.6
중학교 2학년	(1,086)	28.6	33.3	19.1	14.3	4.6
중학교 3학년	(1,048)	27.9	31.2	22.0	15.3	3.6
지역규모						
대도시	(2,532)	43.8	26.1	16.5	9.8	3.7
중소도시	(3,015)	44.1	26.0	15.8	10.5	3.4
읍/면	(812)	48.3	25.1	15.4	8.4	2.7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44.8	25.8	15.8	10.0	3.4
한부모가정	(441)	40.6	27.2	19.3	10.7	2.3
조손가정	(70)	45.7	28.6	11.4	7.1	7.1
기타	(97)	45.4	21.6	17.5	8.2	7.2
무응답	(18)	50.0	27.8	16.7	0.0	0.0
학업성적						
잘함	(2,071)	52.3	23.9	12.3	8.4	2.8
중간	(2,768)	45.1	26.2	16.9	8.9	2.9
못함	(1,505)	32.6	28.2	19.5	14.2	5.3
무응답	(15)	53.3	20.0	13.3	6.7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60.1	19.7	10.7	6.2	3.0
중	(4,749)	40.8	27.8	17.3	10.7	3.3
하	(211)	25.1	24.2	23.2	18.5	9.0
무응답	(15)	53.3	20.0	6.7	6.7	6.7

[표 3-9] 나는 화나면 물건을 집어던진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54.9	22.2	13.5	6.6	2.7
성별						
남자	(3,263)	57.8	22.7	12.3	4.9	2.0
여자	(3,096)	51.9	21.5	14.8	8.3	3.3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72.0	14.2	8.0	3.4	2.4
초등학교 5학년	(1,044)	63.5	18.8	11.0	4.3	2.1
초등학교 6학년	(1,061)	56.7	21.3	12.7	6.6	2.3
중학교 1학년	(1,061)	50.6	24.2	14.9	7.1	3.2
중학교 2학년	(1,086)	44.4	26.1	16.9	9.2	3.3
중학교 3학년	(1,048)	42.7	28.3	17.5	8.7	2.7
지역규모						
대도시	(2,532)	55.9	21.0	13.6	6.8	2.5
중소도시	(3,015)	53.9	22.7	13.5	6.8	3.0
읍/면	(812)	55.9	24.0	13.3	4.7	2.0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55.6	22.0	13.5	6.2	2.5
한부모가정	(441)	48.8	22.9	14.7	9.8	3.6
조손가정	(70)	51.4	21.4	12.9	5.7	8.6
기타	(97)	50.5	24.7	9.3	12.4	3.1
무응답	(18)	50.0	27.8	5.6	0.0	11.1
학업성적						
잘함	(2,071)	62.7	20.4	9.6	5.3	1.9
중간	(2,768)	54.2	22.9	13.9	6.2	2.6
못함	(1,505)	45.6	23.3	18.2	9.0	3.7
무응답	(15)	60.0	13.3	6.7	6.7	6.7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66.0	18.0	9.5	4.3	2.0
중	(4,749)	52.4	23.4	14.4	7.0	2.6
하	(211)	40.3	22.3	19.4	10.9	7.1
무응답	(15)	53.3	13.3	6.7	6.7	13.3

[표 3-10] 나는 아슬아슬하고 스릴 넘치는 위험한 행동을 좋아한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40.5	23.3	21.1	9.5	5.4
성별						
남자	(3,263)	37.7	23.4	21.6	10.4	6.6
여자	(3,096)	43.5	23.3	20.5	8.4	4.2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57.5	17.5	13.8	5.8	5.4
초등학교 5학년	(1,044)	48.3	20.8	19.1	6.9	4.6
초등학교 6학년	(1,061)	35.6	23.4	21.7	11.0	7.8
중학교 1학년	(1,061)	37.2	23.1	21.9	12.1	5.7
중학교 2학년	(1,086)	32.5	27.1	24.1	11.1	5.0
중학교 3학년	(1,048)	32.3	28.1	25.9	9.7	4.0
지역규모						
대도시	(2,532)	39.5	23.7	21.0	9.9	5.6
중소도시	(3,015)	40.9	22.8	20.9	9.7	5.6
읍/면	(812)	42.2	24.3	21.9	7.0	4.3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40.9	23.5	20.8	9.3	5.3
한부모가정	(441)	37.2	21.3	23.4	10.7	7.3
조손가정	(70)	45.7	20.0	28.6	4.3	1.4
기타	(97)	36.1	19.6	23.7	14.4	6.2
무응답	(18)	11.1	50.0	16.7	16.7	0.0
학업성적						
잘함	(2,071)	46.4	21.2	18.2	8.8	5.1
중간	(2,768)	40.2	24.8	21.3	8.7	4.9
못함	(1,505)	33.2	23.6	24.5	11.7	6.8
무응답	(15)	13.3	26.7	33.3	13.3	6.7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48.8	17.2	17.1	10.2	6.5
중	(4,749)	38.3	25.2	22.2	9.1	5.0
하	(211)	35.5	21.3	22.7	11.8	8.5
무응답	(15)	40.0	26.7	13.3	13.3	0.0

[표 4-1]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4.8	9.9	44.3	26.4	14.6
성별						
남자	(3,263)	6.0	9.8	43.1	25.3	15.6
여자	(3,096)	3.5	10.0	45.5	27.5	13.4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10.1	9.6	37.0	22.3	20.9
초등학교 5학년	(1,044)	7.0	8.4	45.2	22.0	17.2
초등학교 6학년	(1,061)	4.2	9.1	47.2	26.0	13.2
중학교 1학년	(1,061)	3.8	10.6	43.6	28.2	13.9
중학교 2학년	(1,086)	1.5	10.6	47.5	29.4	11.0
중학교 3학년	(1,048)	2.2	11.1	44.9	30.4	11.4
지역규모						
대도시	(2,532)	4.4	7.6	42.3	29.3	16.3
중소도시	(3,015)	4.9	11.4	44.9	25.0	13.7
읍/면	(812)	5.5	11.6	48.2	22.3	12.4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4.8	9.5	43.9	27.0	14.9
한부모가정	(441)	5.0	13.2	47.6	22.2	12.0
조손가정	(70)	4.3	15.7	54.3	18.6	7.1
기타	(97)	4.1	14.4	48.5	20.6	12.4
무응답	(18)	5.6	27.8	27.8	11.1	22.2
학업성적						
잘함	(2,071)	3.4	6.3	35.5	34.6	20.1
중간	(2,768)	5.2	8.7	49.3	23.6	13.1
못함	(1,505)	5.8	16.9	47.0	20.5	9.6
무응답	(15)	6.7	26.7	40.0	6.7	13.3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7.0	6.9	29.8	30.7	25.4
중	(4,749)	3.9	10.3	48.8	25.3	11.5
하	(211)	9.0	19.4	36.5	23.7	11.4
무응답	(15)	6.7	13.3	46.7	13.3	13.3

[표 4-2]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4.3	11.2	40.4	27.8	16.2
성별						
남자	(3,263)	5.3	10.2	39.7	26.8	17.9
여자	(3,096)	3.3	12.3	41.1	28.8	14.4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8.7	9.6	34.3	24.9	22.4
초등학교 5학년	(1,044)	5.9	9.3	38.5	24.6	21.5
초등학교 6학년	(1,061)	2.5	8.0	42.4	29.1	17.8
중학교 1학년	(1,061)	3.6	12.9	38.5	29.3	15.7
중학교 2학년	(1,086)	1.7	12.3	45.3	30.7	9.9
중학교 3학년	(1,048)	3.5	15.2	43.2	28.0	10.1
지역규모						
대도시	(2,532)	3.7	9.0	38.5	30.3	18.4
중소도시	(3,015)	4.8	12.6	41.7	25.9	14.9
읍/면	(812)	4.6	12.9	41.4	27.0	14.2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4.2	10.8	40.0	28.3	16.6
한부모가정	(441)	5.4	15.2	42.2	24.0	13.2
조손가정	(70)	8.6	15.7	51.4	17.1	7.1
기타	(97)	5.2	13.4	44.3	22.7	14.4
무응답	(18)	5.6	16.7	38.9	22.2	11.1
학업성적						
잘함	(2,071)	2.2	4.6	30.5	37.6	25.1
중간	(2,768)	4.5	10.7	46.0	25.3	13.4
못함	(1,505)	6.9	21.2	43.7	18.9	9.3
무응답	(15)	0.0	26.7	40.0	26.7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5.7	6.4	25.7	32.4	29.6
중	(4,749)	3.5	12.2	44.9	26.8	12.5
하	(211)	12.8	19.4	34.6	20.4	12.8
무응답	(15)	0.0	20.0	46.7	26.7	0.0

[표 4-3]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3.4	7.4	34.7	31.5	22.8
성별						
남자	(3,263)	4.2	7.7	34.4	30.1	23.4
여자	(3,096)	2.5	7.2	35.1	32.9	22.1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8.2	8.4	31.4	23.7	28.0
초등학교 5학년	(1,044)	4.4	7.6	31.5	26.4	29.9
초등학교 6학년	(1,061)	1.7	5.4	37.5	31.2	24.0
중학교 1학년	(1,061)	2.4	8.6	33.7	33.5	21.6
중학교 2학년	(1,086)	1.3	6.8	38.8	36.3	16.4
중학교 3학년	(1,048)	2.4	7.8	35.2	37.7	16.9
지역규모						
대도시	(2,532)	2.7	5.9	32.8	33.1	25.3
중소도시	(3,015)	3.7	8.2	35.6	30.5	21.6
읍/면	(812)	4.3	9.1	37.4	30.0	19.1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3.3	6.9	34.3	31.9	23.3
한부모가정	(441)	3.6	10.9	40.1	28.1	17.2
조손가정	(70)	5.7	12.9	41.4	27.1	12.9
기타	(97)	3.1	11.3	33.0	28.9	23.7
무응답	(18)	0.0	33.3	22.2	22.2	16.7
학업성적						
잘함	(2,071)	1.9	2.5	22.5	37.9	34.9
중간	(2,768)	3.5	7.2	40.0	30.4	18.7
못함	(1,505)	5.2	14.4	41.9	24.8	13.5
무응답	(15)	0.0	33.3	26.7	13.3	2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4.4	4.3	24.0	29.8	37.1
중	(4,749)	2.9	7.8	37.9	32.4	18.9
하	(211)	7.6	18.0	35.5	22.7	15.6
무응답	(15)	0.0	26.7	20.0	33.3	13.3

[표 4-4] 나는 나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3.0	7.9	36.3	34.2	18.4
성별						
남자	(3,263)	3.5	7.7	35.1	33.5	20.0
여자	(3,096)	2.4	8.1	37.6	34.9	16.7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5.9	6.7	31.5	29.7	25.8
초등학교 5학년	(1,044)	3.9	6.9	33.5	30.8	24.4
초등학교 6학년	(1,061)	2.9	7.4	35.4	36.5	17.4
중학교 1학년	(1,061)	1.9	8.9	36.3	34.0	18.7
중학교 2학년	(1,086)	0.9	8.7	41.8	35.9	12.6
중학교 3학년	(1,048)	2.3	8.9	39.0	38.1	11.5
지역규모						
대도시	(2,532)	2.8	6.6	33.6	35.7	21.0
중소도시	(3,015)	3.3	8.7	38.1	33.0	16.7
읍/면	(812)	2.5	9.2	38.2	33.6	16.4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3.0	7.4	36.0	34.5	18.8
한부모가정	(441)	2.7	13.2	36.1	33.1	14.7
조손가정	(70)	2.9	7.1	54.3	22.9	12.9
기타	(97)	2.1	9.3	43.3	28.9	15.5
무응답	(18)	5.6	27.8	27.8	22.2	11.1
학업성적						
잘함	(2,071)	1.8	2.8	25.4	41.1	28.5
중간	(2,768)	2.9	7.2	41.0	33.1	15.5
못함	(1,505)	4.7	16.0	42.5	26.7	9.8
무응답	(15)	0.0	26.7	40.0	26.7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4.1	5.3	24.3	33.6	32.1
중	(4,749)	2.5	8.1	39.9	34.7	14.6
하	(211)	6.6	19.0	35.1	24.6	14.2
무응답	(15)	6.7	13.3	26.7	46.7	0.0

[표 4-5]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39.5	26.6	21.1	10.1	2.5
성별						
남자	(3,263)	45.1	25.4	19.6	7.1	2.7
여자	(3,096)	33.7	27.9	22.7	13.3	2.3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64.1	17.3	11.0	5.1	2.5
초등학교 5학년	(1,044)	52.2	20.8	17.6	7.3	1.9
초등학교 6학년	(1,061)	38.9	28.2	20.4	9.6	2.6
중학교 1학년	(1,061)	35.4	29.1	22.3	10.5	2.5
중학교 2학년	(1,086)	23.5	32.4	27.3	14.0	2.7
중학교 3학년	(1,048)	23.5	31.9	27.9	14.2	2.6
지역규모						
대도시	(2,532)	39.7	26.1	21.2	10.2	2.8
중소도시	(3,015)	38.9	26.3	21.9	10.6	2.2
읍/면	(812)	41.4	29.8	18.0	8.4	2.5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40.0	26.8	21.0	9.7	2.4
한부모가정	(441)	34.2	25.9	21.5	15.0	3.4
조손가정	(70)	37.1	24.3	21.4	11.4	5.7
기타	(97)	36.1	23.7	26.8	12.4	1.0
무응답	(18)	44.4	27.8	22.2	0.0	0.0
학업성적						
잘함	(2,071)	49.6	25.9	15.5	7.1	1.6
중간	(2,768)	39.8	27.5	20.9	9.2	2.5
못함	(1,505)	25.1	26.2	29.0	16.1	3.5
무응답	(15)	46.7	20.0	26.7	0.0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57.0	21.7	12.2	6.1	2.7
중	(4,749)	35.3	28.3	23.5	10.5	2.2
하	(211)	19.0	20.4	25.1	28.0	7.6
무응답	(15)	46.7	26.7	20.0	0.0	0.0

[표 4-6]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37.4	26.4	23.8	10.3	2.0
성별						
남자	(3,263)	40.8	25.6	23.3	8.4	1.9
여자	(3,096)	33.8	27.2	24.4	12.3	2.2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64.2	17.8	13.4	3.3	1.1
초등학교 5학년	(1,044)	48.2	24.7	18.8	6.6	1.6
초등학교 6학년	(1,061)	36.1	27.9	24.0	9.0	2.8
중학교 1학년	(1,061)	33.8	27.9	25.5	10.7	2.1
중학교 2학년	(1,086)	21.5	30.7	29.7	15.6	2.3
중학교 3학년	(1,048)	20.9	29.1	31.3	16.5	2.2
지역규모						
대도시	(2,532)	37.6	25.4	24.8	9.9	2.2
중소도시	(3,015)	36.4	26.3	23.8	11.1	2.3
읍/면	(812)	40.4	29.4	20.9	8.5	0.7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38.0	26.5	23.4	10.0	1.9
한부모가정	(441)	29.7	24.7	28.1	14.1	3.4
조손가정	(70)	41.4	27.1	21.4	7.1	2.9
기타	(97)	35.1	22.7	27.8	13.4	1.0
무응답	(18)	33.3	22.2	38.9	0.0	0.0
학업성적						
잘함	(2,071)	45.3	25.3	19.3	8.1	1.9
중간	(2,768)	37.6	27.6	24.0	8.9	1.8
못함	(1,505)	26.2	25.4	29.8	15.8	2.7
무응답	(15)	33.3	33.3	13.3	13.3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53.5	21.6	15.8	6.8	2.1
중	(4,749)	33.4	28.0	25.9	10.8	1.9
하	(211)	22.3	19.4	30.3	22.7	5.2
무응답	(15)	40.0	26.7	20.0	6.7	0.0

[표 5-1]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한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3.6	8.0	30.4	30.6	27.2
성별						
남자	(3,263)	4.4	8.1	31.7	28.7	26.8
여자	(3,096)	2.8	8.0	28.9	32.5	27.6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4.9	3.5	22.4	23.4	45.6
초등학교 5학년	(1,044)	3.8	5.7	22.3	28.1	39.8
초등학교 6학년	(1,061)	2.8	8.0	29.7	32.2	27.0
중학교 1학년	(1,061)	3.0	9.3	34.3	32.0	21.4
중학교 2학년	(1,086)	4.2	9.6	38.9	30.9	16.3
중학교 3학년	(1,048)	3.1	12.0	34.4	36.9	13.5
지역규모						
대도시	(2,532)	4.1	7.9	28.9	30.7	28.3
중소도시	(3,015)	3.6	8.3	30.9	30.7	26.3
읍/면	(812)	2.5	7.5	33.1	29.6	27.2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3.5	7.7	30.5	30.6	27.6
한부모가정	(441)	4.8	12.7	28.6	30.8	23.1
조손가정	(70)	2.9	10.0	32.9	30.0	24.3
기타	(97)	6.2	6.2	32.0	30.9	24.7
무응답	(18)	5.6	16.7	27.8	16.7	22.2
학업성적						
잘함	(2,071)	2.4	5.3	24.0	33.2	34.9
중간	(2,768)	3.6	7.3	31.3	30.6	27.1
못함	(1,505)	5.3	13.2	37.5	26.9	17.0
무응답	(15)	6.7	6.7	26.7	40.0	13.3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3.6	4.8	18.8	28.9	43.8
중	(4,749)	3.4	8.5	33.6	31.5	22.9
하	(211)	9.5	17.5	34.6	21.8	16.6
무응답	(15)	6.7	13.3	20.0	33.3	20.0

[표 5-2] 부모님은 나에게 사랑과 애정을 자주 보이신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2.7	6.0	25.7	32.6	32.9
성별						
남자	(3,263)	3.1	5.6	25.1	33.6	32.3
여자	(3,096)	2.2	6.3	26.3	31.5	33.6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3.7	4.7	17.7	24.0	49.9
초등학교 5학년	(1,044)	3.7	5.6	20.6	26.9	43.0
초등학교 6학년	(1,061)	1.6	6.0	24.5	32.4	35.0
중학교 1학년	(1,061)	2.8	6.0	28.3	35.9	27.0
중학교 2학년	(1,086)	1.9	6.6	31.4	37.0	22.9
중학교 3학년	(1,048)	2.3	6.9	31.5	39.2	20.1
지역규모						
대도시	(2,532)	2.6	5.5	25.0	32.6	34.1
중소도시	(3,015)	2.7	6.2	25.8	32.9	32.3
읍/면	(812)	2.8	6.5	27.3	31.5	31.7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2.5	5.8	25.5	32.5	33.7
한부모가정	(441)	4.3	8.4	28.1	34.2	24.7
조손가정	(70)	4.3	5.7	28.6	30.0	31.4
기타	(97)	5.2	7.2	22.7	34.0	30.9
무응답	(18)	11.1	5.6	27.8	27.8	16.7
학업성적						
잘함	(2,071)	1.5	3.9	17.5	34.5	42.5
중간	(2,768)	2.7	5.9	26.8	32.4	32.0
못함	(1,505)	4.2	9.2	34.8	30.2	21.5
무응답	(15)	0.0	0.0	26.7	46.7	2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2.9	3.9	15.2	27.3	50.4
중	(4,749)	2.4	6.1	28.5	34.6	28.3
하	(211)	8.1	16.6	29.9	22.7	22.7
무응답	(15)	0.0	6.7	26.7	33.3	26.7

[표 5-3]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3.7	9.3	29.8	29.7	27.3
성별						
남자	(3,263)	4.3	7.5	28.8	30.7	28.4
여자	(3,096)	3.0	11.1	30.9	28.7	26.1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3.8	4.1	22.4	25.1	44.5
초등학교 5학년	(1,044)	4.2	6.9	24.0	26.9	37.6
초등학교 6학년	(1,061)	2.8	9.3	29.1	30.9	27.4
중학교 1학년	(1,061)	4.3	9.9	31.4	32.3	21.9
중학교 2학년	(1,086)	3.2	13.4	36.3	29.4	17.6
중학교 3학년	(1,048)	3.7	11.9	35.7	33.7	15.0
지역규모						
대도시	(2,532)	3.6	9.2	29.5	29.0	28.5
중소도시	(3,015)	3.9	9.5	29.4	30.4	26.5
읍/면	(812)	3.1	8.7	32.5	29.3	26.2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3.5	9.1	29.6	29.9	27.7
한부모가정	(441)	5.4	11.6	34.5	27.4	20.6
조손가정	(70)	5.7	5.7	31.4	25.7	31.4
기타	(97)	5.2	10.3	20.6	33.0	30.9
무응답	(18)	5.6	16.7	27.8	27.8	11.1
학업성적						
잘함	(2,071)	2.6	6.4	23.5	31.2	36.2
중간	(2,768)	3.2	8.9	30.7	30.9	26.2
못함	(1,505)	6.0	14.0	37.1	25.5	17.1
무응답	(15)	6.7	6.7	26.7	33.3	2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3.5	4.8	18.9	27.6	45.1
중	(4,749)	3.4	10.1	32.9	30.7	22.7
하	(211)	10.4	19.4	34.1	21.8	14.2
무응답	(15)	6.7	13.3	26.7	13.3	33.3

[표 5-4] 나는 부모님에게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 한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10.0	20.2	30.9	20.9	17.6
성별						
남자	(3,263)	11.0	19.7	32.7	19.7	16.5
여자	(3,096)	9.0	20.8	29.0	22.2	18.7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17.7	14.1	26.3	16.9	24.4
초등학교 5학년	(1,044)	12.2	18.6	28.4	19.1	21.6
초등학교 6학년	(1,061)	7.9	19.6	33.3	21.2	17.6
중학교 1학년	(1,061)	8.4	21.5	31.6	22.1	16.3
중학교 2학년	(1,086)	6.6	23.7	34.5	20.3	14.8
중학교 3학년	(1,048)	7.5	23.8	31.3	26.2	11.1
지역규모						
대도시	(2,532)	9.0	19.7	31.2	20.7	19.3
중소도시	(3,015)	10.8	20.1	31.2	21.1	16.4
읍/면	(812)	10.5	22.2	29.1	21.2	17.0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10.0	20.0	30.8	21.1	17.9
한부모가정	(441)	10.2	21.3	32.9	20.6	14.7
조손가정	(70)	11.4	22.9	32.9	12.9	18.6
기타	(97)	10.3	26.8	29.9	19.6	13.4
무응답	(18)	22.2	16.7	22.2	11.1	16.7
학업성적						
잘함	(2,071)	8.2	16.4	26.8	24.1	24.3
중간	(2,768)	10.6	19.9	32.2	20.4	16.5
못함	(1,505)	11.4	26.2	34.2	17.7	10.4
무응답	(15)	26.7	6.7	40.0	6.7	6.7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13.2	14.1	24.0	19.7	28.5
중	(4,749)	8.9	21.4	33.2	21.5	14.7
하	(211)	12.8	31.8	24.6	18.0	12.8
무응답	(15)	26.7	33.3	20.0	6.7	6.7

[표 5-5] 나는 나의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 한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6.5	14.4	27.6	26.6	24.4
성별						
남자	(3,263)	8.0	15.7	30.9	24.1	20.7
여자	(3,096)	4.9	13.1	24.1	29.2	28.4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8.4	10.6	22.8	22.1	35.0
초등학교 5학년	(1,044)	6.1	10.2	27.7	21.7	33.4
초등학교 6학년	(1,061)	5.6	14.2	29.1	25.4	25.2
중학교 1학년	(1,061)	6.8	16.9	28.3	28.7	19.1
중학교 2학년	(1,086)	6.6	18.0	30.3	26.5	18.2
중학교 3학년	(1,048)	5.5	16.5	27.1	34.9	15.8
지역규모						
대도시	(2,532)	6.5	14.3	26.2	26.1	26.5
중소도시	(3,015)	6.9	14.9	28.1	26.9	22.7
읍/면	(812)	5.3	13.1	29.9	27.0	24.4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6.2	14.1	27.4	26.8	25.0
한부모가정	(441)	8.6	17.0	28.6	26.3	19.5
조손가정	(70)	14.3	8.6	32.9	17.1	25.7
기타	(97)	5.2	23.7	32.0	22.7	15.5
무응답	(18)	16.7	22.2	16.7	16.7	16.7
학업성적						
잘함	(2,071)	3.8	10.0	23.5	28.8	33.5
중간	(2,768)	6.6	14.7	28.8	26.9	22.5
못함	(1,505)	10.1	20.2	30.7	23.0	15.7
무응답	(15)	6.7	0.0	53.3	26.7	6.7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6.4	10.2	22.0	22.7	37.9
중	(4,749)	6.3	15.4	29.3	27.8	20.8
하	(211)	12.8	21.3	25.1	23.2	17.5
무응답	(15)	6.7	6.7	26.7	33.3	20.0

[표 5-6] 나는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23.1	23.0	27.5	18.8	7.3
성별						
남자	(3,263)	25.3	23.4	27.4	16.4	7.3
여자	(3,096)	20.7	22.5	27.6	21.4	7.4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49.3	21.8	18.1	6.1	4.2
초등학교 5학년	(1,044)	31.8	23.6	26.1	11.9	6.3
초등학교 6학년	(1,061)	22.7	25.0	26.5	18.3	7.3
중학교 1학년	(1,061)	16.0	24.7	27.8	22.6	8.8
중학교 2학년	(1,086)	10.2	21.5	31.8	26.8	9.7
중학교 3학년	(1,048)	8.6	21.5	34.9	27.1	7.7
지역규모						
대도시	(2,532)	22.4	21.7	28.5	19.5	7.6
중소도시	(3,015)	22.3	23.4	26.9	19.5	7.7
읍/면	(812)	28.0	25.4	27.0	14.4	5.2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23.1	23.1	46.2	18.8	7.2	26.0
한부모가정	22.2	24.0	46.3	20.0	7.9	27.9
조손가정	32.9	17.1	50.0	17.1	11.4	28.6
기타	21.6	17.5	39.2	15.5	8.2	23.7
무응답	11.1	16.7	27.8	22.2	16.7	38.9
학업성적						
잘함	(2,071)	27.2	25.3	25.8	16.1	5.4
중간	(2,768)	23.6	23.3	28.4	17.5	6.9
못함	(1,505)	16.2	19.3	28.4	25.1	10.8
무응답	(15)	26.7	20.0	26.7	13.3	6.7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39.2	21.5	21.7	12.1	5.3
중	(4,749)	19.0	23.6	29.6	20.3	7.3
하	(211)	10.4	18.0	19.0	30.8	21.8
무응답	(15)	13.3	20.0	33.3	20.0	6.7

[표 5-7] 나는 부모님과 대화가 안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30.6	25.4	24.2	13.6	5.8
성별						
남자	(3,263)	32.6	24.9	24.0	12.4	5.7
여자	(3,096)	28.6	26.0	24.4	14.8	6.0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56.8	20.6	13.3	5.7	3.3
초등학교 5학년	(1,044)	43.0	22.6	20.2	8.4	4.8
초등학교 6학년	(1,061)	29.8	27.4	24.5	12.3	5.7
중학교 1학년	(1,061)	22.3	28.7	25.0	16.9	7.0
중학교 2학년	(1,086)	16.1	27.5	29.7	18.2	8.2
중학교 3학년	(1,048)	16.2	25.6	32.3	19.8	6.1
지역규모						
대도시	(2,532)	30.3	24.5	25.2	13.8	5.9
중소도시	(3,015)	29.3	26.4	23.6	14.0	6.3
읍/면	(812)	36.7	24.8	23.0	11.2	4.1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30.8	25.7	24.2	13.5	5.6
한부모가정	(441)	28.3	24.0	24.7	15.2	7.3
조손가정	(70)	38.6	11.4	22.9	11.4	14.3
기타	(97)	29.9	24.7	26.8	10.3	7.2
무응답	(18)	22.2	27.8	11.1	16.7	11.1
학업성적						
잘함	(2,071)	35.1	27.5	22.3	10.3	4.5
중간	(2,768)	32.2	24.9	25.4	12.0	5.2
못함	(1,505)	21.5	23.7	24.9	20.8	8.8
무응답	(15)	53.3	13.3	6.7	13.3	6.7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47.2	22.2	16.3	9.6	4.1
중	(4,749)	26.4	26.6	26.5	14.3	5.8
하	(211)	16.1	20.4	24.2	21.3	18.0
무응답	(15)	40.0	20.0	6.7	20.0	6.7

[표 5-8] 나는 부모님에게 맞은 적이 많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29.1	24.5	24.3	14.9	7.1
성별						
남자	(3,263)	26.7	24.3	25.1	15.6	8.1
여자	(3,096)	31.6	24.6	23.4	14.2	6.0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35.9	20.4	23.8	11.7	8.0
초등학교 5학년	(1,044)	30.1	23.4	23.6	13.9	8.9
초등학교 6학년	(1,061)	26.7	25.3	24.7	16.0	7.1
중학교 1학년	(1,061)	28.2	23.9	23.3	17.1	7.4
중학교 2학년	(1,086)	25.9	28.3	23.7	16.2	5.8
중학교 3학년	(1,048)	27.9	25.4	26.8	14.4	5.4
지역규모						
대도시	(2,532)	29.5	23.4	23.0	16.4	7.3
중소도시	(3,015)	28.6	25.7	24.4	14.0	7.2
읍/면	(812)	29.6	23.2	27.8	13.4	6.0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29.2	24.6	24.3	14.8	6.9
한부모가정	(441)	28.3	24.3	24.0	14.5	8.6
조손가정	(70)	22.9	11.4	34.3	21.4	8.6
기타	(97)	29.9	22.7	17.5	18.6	10.3
무응답	(18)	22.2	27.8	16.7	16.7	5.6
학업성적						
잘함	(2,071)	36.6	24.9	19.1	13.4	5.8
중간	(2,768)	26.6	25.1	26.4	15.3	6.4
못함	(1,505)	23.5	22.5	27.4	16.2	10.2
무응답	(15)	13.3	40.0	33.3	6.7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36.3	21.2	21.5	12.4	8.3
중	(4,749)	27.4	25.8	24.8	15.4	6.5
하	(211)	21.3	15.2	30.8	19.4	12.3
무응답	(15)	13.3	40.0	26.7	13.3	0.0

[표 5-9] 나는 부모님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많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51.5	22.4	14.4	7.4	4.0
성별						
남자	(3,263)	49.2	22.8	15.1	7.8	4.8
여자	(3,096)	53.8	22.0	13.7	7.1	3.2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68.6	15.4	8.6	3.8	3.5
초등학교 5학년	(1,044)	62.0	17.7	11.3	5.3	3.4
초등학교 6학년	(1,061)	50.9	23.1	15.9	6.3	3.5
중학교 1학년	(1,061)	46.3	25.1	14.1	9.4	4.7
중학교 2학년	(1,086)	40.0	27.0	17.5	10.7	4.7
중학교 3학년	(1,048)	41.4	26.1	19.0	9.1	4.3
지역규모						
대도시	(2,532)	49.6	22.2	15.4	8.0	4.5
중소도시	(3,015)	52.0	23.1	13.8	7.1	3.8
읍/면	(812)	55.3	20.9	13.5	6.9	3.1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51.9	22.5	14.3	7.2	3.9
한부모가정	(441)	47.4	22.0	16.6	10.0	4.1
조손가정	(70)	47.1	20.0	14.3	8.6	8.6
기타	(97)	50.5	21.6	12.4	7.2	7.2
무응답	(18)	16.7	27.8	5.6	22.2	11.1
학업성적						
잘함	(2,071)	59.7	21.0	11.2	5.2	2.7
중간	(2,768)	51.6	22.9	14.7	7.2	3.4
못함	(1,505)	39.9	23.4	18.4	10.9	7.0
무응답	(15)	33.3	40.0	0.0	13.3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63.2	15.1	11.7	5.9	3.8
중	(4,749)	48.9	24.6	15.0	7.6	3.8
하	(211)	32.2	22.3	19.4	14.2	11.4
무응답	(15)	40.0	26.7	0.0	20.0	0.0

[표 5-10] 나는 가족들과 자주 다룬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42.3	25.1	20.7	8.3	3.4
성별						
남자	(3,263)	44.9	24.2	20.0	7.1	3.5
여자	(3,096)	39.7	25.9	21.4	9.6	3.3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64.1	17.6	12.6	3.4	2.2
초등학교 5학년	(1,044)	52.4	21.1	17.6	5.2	3.3
초등학교 6학년	(1,061)	42.8	25.4	19.4	8.8	3.4
중학교 1학년	(1,061)	36.9	26.2	23.0	10.1	3.7
중학교 2학년	(1,086)	28.5	29.6	25.1	12.6	4.0
중학교 3학년	(1,048)	29.8	30.4	26.1	9.7	3.8
지역규모						
대도시	(2,532)	41.5	25.4	20.9	8.1	3.8
중소도시	(3,015)	42.1	24.6	20.9	8.9	3.4
읍/면	(812)	46.1	25.9	19.2	7.0	1.7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43.0	25.2	20.4	8.1	3.2
한부모가정	(441)	33.8	24.3	25.6	10.7	5.2
조손가정	(70)	37.1	27.1	21.4	8.6	4.3
기타	(97)	51.5	19.6	15.5	8.2	4.1
무응답	(18)	27.8	22.2	16.7	16.7	0.0
학업성적						
잘함	(2,071)	49.5	25.2	17.0	6.1	2.1
중간	(2,768)	43.1	25.7	20.8	7.2	3.0
못함	(1,505)	31.1	23.8	25.5	13.4	5.8
무응답	(15)	33.3	20.0	20.0	13.3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58.3	19.8	13.6	5.3	2.8
중	(4,749)	38.7	26.8	22.6	8.7	3.1
하	(211)	20.9	21.3	25.1	18.5	13.7
무응답	(15)	40.0	20.0	13.3	13.3	0.0

[표 6-1] 나는 친한 친구들의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하려고 노력한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4.8	8.2	33.7	35.8	17.3
성별						
남자	(3,263)	5.7	7.8	34.7	33.9	17.7
여자	(3,096)	3.8	8.5	32.7	37.9	17.0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10.7	7.3	25.8	27.2	28.8
초등학교 5학년	(1,044)	6.6	8.3	30.2	30.1	24.7
초등학교 6학년	(1,061)	3.1	6.8	34.8	35.7	19.3
중학교 1학년	(1,061)	3.3	9.0	36.3	37.3	13.9
중학교 2학년	(1,086)	2.7	8.5	38.4	41.3	9.0
중학교 3학년	(1,048)	2.5	9.2	36.7	43.2	8.4
지역규모						
대도시	(2,532)	4.5	7.1	32.4	36.5	19.3
중소도시	(3,015)	5.0	8.7	34.0	36.4	15.8
읍/면	(812)	5.2	9.6	36.6	31.7	17.0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4.9	7.8	33.8	35.9	17.4
한부모가정	(441)	2.9	11.1	34.2	37.2	14.3
조손가정	(70)	5.7	10.0	30.0	25.7	28.6
기타	(97)	7.2	12.4	29.9	32.0	17.5
무응답	(18)	5.6	5.6	22.2	27.8	22.2
학업성적						
잘함	(2,071)	4.6	5.8	27.9	39.1	22.5
중간	(2,768)	5.3	9.0	35.0	34.2	16.4
못함	(1,505)	4.2	9.9	39.4	34.4	12.0
무응답	(15)	6.7	6.7	40.0	26.7	6.7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8.4	7.2	23.6	32.0	28.7
중	(4,749)	3.8	8.4	36.4	37.2	14.0
하	(211)	4.7	9.0	39.3	29.9	17.1
무응답	(15)	0.0	0.0	40.0	33.3	13.3

[표 6-2]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1.2	2.3	17.9	39.6	38.9
성별						
남자	(3,263)	1.8	2.2	20.3	37.5	37.9
여자	(3,096)	0.7	2.3	15.2	41.8	39.8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3.1	2.0	14.1	26.4	54.2
초등학교 5학년	(1,044)	1.6	2.9	17.2	29.9	48.3
초등학교 6학년	(1,061)	0.5	1.9	17.0	37.6	42.8
중학교 1학년	(1,061)	1.0	1.5	20.3	42.3	34.6
중학교 2학년	(1,086)	0.4	2.7	18.9	50.9	27.0
중학교 3학년	(1,048)	0.9	2.7	19.8	50.0	26.6
지역규모						
대도시	(2,532)	1.2	1.9	17.1	38.0	41.6
중소도시	(3,015)	1.2	2.6	18.6	40.7	36.7
읍/면	(812)	1.6	2.2	17.6	40.1	38.3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1.3	2.2	17.4	39.9	39.1
한부모가정	(441)	1.1	1.8	24.3	38.3	34.2
조손가정	(70)	2.9	2.9	17.1	31.4	45.7
기타	(97)	0.0	5.2	20.6	33.0	40.2
무응답	(18)	0.0	5.6	5.6	22.2	44.4
학업성적						
잘함	(2,071)	0.9	1.6	12.1	39.9	45.4
중간	(2,768)	1.4	2.4	19.9	38.8	37.3
못함	(1,505)	1.4	3.0	22.0	40.6	32.8
무응답	(15)	0.0	0.0	20.0	33.3	26.7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1.7	1.9	11.7	31.2	53.3
중	(4,749)	1.1	2.1	19.6	42.4	34.7
하	(211)	2.8	7.6	19.4	31.8	38.4
무응답	(15)	0.0	0.0	26.7	33.3	20.0

[표 6-3] 나는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대화한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5.1	10.9	31.8	30.6	21.3
성별						
남자	(3,263)	6.7	13.0	36.0	26.5	17.5
여자	(3,096)	3.4	8.8	27.3	35.0	25.4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8.9	9.4	33.3	20.4	27.4
초등학교 5학년	(1,044)	8.9	12.7	28.9	24.3	24.9
초등학교 6학년	(1,061)	4.8	11.3	32.2	30.1	21.3
중학교 1학년	(1,061)	3.2	12.4	31.4	31.9	20.6
중학교 2학년	(1,086)	2.0	10.5	34.3	36.6	16.6
중학교 3학년	(1,048)	2.8	9.2	30.3	40.5	17.3
지역규모						
대도시	(2,532)	4.0	9.6	31.4	31.6	23.2
중소도시	(3,015)	5.6	12.0	31.4	30.9	19.7
읍/면	(812)	6.3	11.3	34.1	26.6	21.3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4.9	10.9	31.9	30.6	21.5
한부모가정	(441)	6.1	13.4	29.5	32.7	17.9
조손가정	(70)	4.3	5.7	32.9	27.1	30.0
기타	(97)	11.3	7.2	35.1	25.8	19.6
무응답	(18)	0.0	11.1	22.2	16.7	27.8
학업성적						
잘함	(2,071)	4.2	9.8	29.5	31.3	25.1
중간	(2,768)	5.7	11.9	32.4	29.5	20.2
못함	(1,505)	5.2	10.8	33.7	31.8	18.3
무응답	(15)	0.0	6.7	26.7	33.3	13.3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5.7	8.5	27.5	26.6	31.2
중	(4,749)	4.8	11.4	33.2	32.0	18.4
하	(211)	7.6	16.1	27.5	25.6	23.2
무응답	(15)	6.7	6.7	13.3	33.3	20.0

[표 6-4] 나의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3.0	6.8	34.9	35.1	19.9
성별						
남자	(3,263)	4.2	7.2	35.6	33.5	19.2
여자	(3,096)	1.8	6.5	34.1	36.8	20.6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5.5	6.7	31.1	28.0	28.1
초등학교 5학년	(1,044)	5.0	8.0	33.0	28.7	24.8
초등학교 6학년	(1,061)	2.5	6.4	35.1	33.6	22.2
중학교 1학년	(1,061)	1.8	7.0	36.3	36.5	18.2
중학교 2학년	(1,086)	1.3	7.5	36.7	41.2	13.3
중학교 3학년	(1,048)	2.3	5.4	37.0	42.4	12.9
지역규모						
대도시	(2,532)	2.6	5.3	33.1	35.8	22.7
중소도시	(3,015)	3.4	8.2	35.7	34.7	17.9
읍/면	(812)	3.1	6.7	37.3	34.2	18.6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2.9	6.7	34.6	35.6	20.1
한부모가정	(441)	3.9	8.2	38.8	31.3	17.5
조손가정	(70)	7.1	4.3	42.9	21.4	22.9
기타	(97)	7.2	8.2	30.9	36.1	16.5
무응답	(18)	0.0	16.7	16.7	22.2	22.2
학업성적						
잘함	(2,071)	2.5	4.6	27.7	38.6	26.5
중간	(2,768)	3.4	7.3	37.4	33.4	18.2
못함	(1,505)	3.3	9.1	40.0	33.6	14.0
무응답	(15)	0.0	0.0	53.3	20.0	6.7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3.6	4.8	25.6	33.1	32.7
중	(4,749)	2.8	7.1	37.3	36.1	16.3
하	(211)	4.3	14.2	40.3	25.1	16.1
무응답	(15)	0.0	0.0	40.0	26.7	13.3

[표 6-5]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보다 친구들에게 더 의지한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14.0	21.9	33.9	19.5	10.3
성별						
남자	(3,263)	16.5	22.8	34.9	16.6	8.6
여자	(3,096)	11.3	20.9	32.8	22.4	12.2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27.8	25.2	28.4	8.3	9.6
초등학교 5학년	(1,044)	20.9	26.5	31.1	10.3	10.1
초등학교 6학년	(1,061)	12.5	22.7	34.6	19.0	10.7
중학교 1학년	(1,061)	10.9	20.3	35.4	22.8	10.3
중학교 2학년	(1,086)	6.2	20.5	35.5	27.3	10.3
중학교 3학년	(1,048)	5.7	16.1	38.3	28.7	11.1
지역규모						
대도시	(2,532)	13.6	21.4	35.7	18.7	10.2
중소도시	(3,015)	14.5	22.4	32.2	20.0	10.5
읍/면	(812)	13.2	21.7	34.5	20.1	10.2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13.9	22.1	34.4	19.0	10.2
한부모가정	(441)	12.9	21.3	28.8	25.2	11.1
조손가정	(70)	18.6	15.7	38.6	15.7	11.4
기타	(97)	18.6	19.6	25.8	21.6	12.4
무응답	(18)	11.1	16.7	11.1	22.2	16.7
학업성적						
잘함	(2,071)	15.0	23.9	33.5	17.6	9.8
중간	(2,768)	15.0	21.9	34.3	18.8	9.5
못함	(1,505)	10.6	19.1	33.9	23.4	12.7
무응답	(15)	20.0	20.0	13.3	13.3	13.3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20.7	20.0	30.3	15.7	12.6
중	(4,749)	11.9	22.5	35.4	20.6	9.3
하	(211)	16.1	21.3	24.6	19.4	18.5
무응답	(15)	13.3	20.0	13.3	20.0	13.3

[표 6-6] 나는 친구들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33.1	35.3	21.9	6.8	2.6
성별						
남자	(3,263)	36.1	34.4	21.4	5.5	2.1
여자	(3,096)	30.0	36.2	22.4	8.1	3.0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58.5	21.3	12.7	4.6	2.4
초등학교 5학년	(1,044)	41.4	30.1	19.8	5.6	3.1
초등학교 6학년	(1,061)	33.0	37.0	21.5	5.7	2.4
중학교 1학년	(1,061)	27.3	36.9	24.9	8.2	2.2
중학교 2학년	(1,086)	19.5	43.4	25.4	8.3	3.2
중학교 3학년	(1,048)	19.4	42.8	27.1	8.2	2.2
지역규모						
대도시	(2,532)	33.5	33.9	22.2	7.0	3.0
중소도시	(3,015)	32.5	35.8	22.2	6.9	2.2
읍/면	(812)	34.2	37.7	20.0	5.5	2.3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33.4	35.5	21.8	6.6	2.5
한부모가정	(441)	30.8	33.1	23.8	9.5	2.5
조손가정	(70)	28.6	35.7	27.1	7.1	1.4
기타	(97)	35.1	33.0	18.6	3.1	8.2
무응답	(18)	16.7	38.9	5.6	11.1	5.6
학업성적						
잘함	(2,071)	38.4	36.7	16.5	6.2	1.9
중간	(2,768)	33.7	33.7	23.7	6.2	2.4
못함	(1,505)	25.0	36.3	26.2	8.6	3.8
무응답	(15)	26.7	26.7	20.0	6.7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49.3	26.7	16.1	4.9	2.7
중	(4,749)	28.9	38.1	23.4	7.1	2.4
하	(211)	23.7	29.4	28.9	10.9	6.6
무응답	(15)	20.0	46.7	6.7	6.7	0.0

[표 6-7] 나는 친구들의 요구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41.5	35.3	16.9	4.2	1.8
성별						
남자	(3,263)	44.2	33.7	16.4	3.5	1.9
여자	(3,096)	38.7	36.9	17.5	5.0	1.8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64.3	20.2	10.5	2.7	2.1
초등학교 5학년	(1,044)	49.8	28.8	15.6	3.0	2.7
초등학교 6학년	(1,061)	42.5	35.2	16.4	4.0	1.5
중학교 1학년	(1,061)	35.5	38.2	18.7	5.6	1.7
중학교 2학년	(1,086)	27.8	44.9	19.6	5.7	1.7
중학교 3학년	(1,048)	29.6	44.0	20.7	4.4	1.3
지역규모						
대도시	(2,532)	42.5	33.8	17.1	4.5	1.9
중소도시	(3,015)	40.1	36.4	17.1	4.5	1.7
읍/면	(812)	43.8	35.8	15.8	2.5	2.1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41.8	35.3	16.8	4.2	1.9
한부모가정	(441)	38.8	36.3	17.2	6.1	1.4
조손가정	(70)	42.9	31.4	24.3	1.4	0.0
기타	(97)	42.3	36.1	16.5	1.0	3.1
무응답	(18)	27.8	22.2	16.7	5.6	5.6
학업성적						
잘함	(2,071)	47.5	35.2	11.5	3.9	1.6
중간	(2,768)	41.4	34.6	18.3	3.6	1.8
못함	(1,505)	33.6	36.7	21.7	5.8	2.2
무응답	(15)	40.0	6.7	26.7	6.7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56.4	26.4	11.3	3.5	2.1
중	(4,749)	37.5	38.1	18.4	4.2	1.7
하	(211)	34.1	30.3	20.9	10.4	4.3
무응답	(15)	40.0	13.3	20.0	6.7	0.0

[표 6-8] 나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할까봐 항상 조심하는 편이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34.0	25.3	23.6	11.3	5.5
성별						
남자	(3,263)	41.0	26.8	20.8	7.5	3.6
여자	(3,096)	26.7	23.7	26.6	15.2	7.6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56.1	16.4	14.2	6.8	6.3
초등학교 5학년	(1,044)	40.7	21.3	19.9	11.9	6.1
초등학교 6학년	(1,061)	30.7	25.4	23.2	14.3	6.0
중학교 1학년	(1,061)	28.0	26.6	25.2	12.8	7.1
중학교 2학년	(1,086)	23.0	30.1	31.0	12.0	3.8
중학교 3학년	(1,048)	26.0	32.1	28.1	9.7	3.9
지역규모						
대도시	(2,532)	34.8	24.6	23.6	11.2	5.6
중소도시	(3,015)	33.2	25.8	23.9	11.3	5.6
읍/면	(812)	35.0	25.9	22.8	11.2	5.0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34.0	25.6	23.7	11.0	5.5
한부모가정	(441)	32.7	25.2	24.3	13.4	4.3
조손가정	(70)	40.0	21.4	18.6	11.4	8.6
기타	(97)	39.2	17.5	21.6	12.4	8.2
무응답	(18)	27.8	11.1	11.1	22.2	5.6
학업성적						
잘함	(2,071)	39.6	24.9	20.2	10.7	4.4
중간	(2,768)	34.1	25.6	23.8	10.8	5.7
못함	(1,505)	26.4	25.5	28.2	12.9	6.8
무응답	(15)	33.3	20.0	6.7	20.0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49.2	20.7	15.0	9.2	5.5
중	(4,749)	30.3	26.9	26.0	11.5	5.2
하	(211)	20.4	21.3	27.5	18.0	12.3
무응답	(15)	26.7	20.0	0.0	26.7	6.7

[표 6-9] 나는 친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37.1	27.7	19.0	11.1	4.8
성별						
남자	(3,263)	34.5	26.7	21.8	11.8	5.0
여자	(3,096)	39.9	28.7	16.1	10.5	4.6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61.8	16.8	11.8	5.3	4.1
초등학교 5학년	(1,044)	44.7	23.2	16.8	9.1	6.0
초등학교 6학년	(1,061)	32.7	26.5	20.6	13.0	6.9
중학교 1학년	(1,061)	31.6	29.1	20.4	13.8	4.9
중학교 2학년	(1,086)	25.1	35.6	22.2	13.3	3.7
중학교 3학년	(1,048)	27.3	34.6	22.1	12.4	3.4
지역규모						
대도시	(2,532)	36.8	28.2	18.5	11.3	5.0
중소도시	(3,015)	36.4	27.5	19.1	11.7	5.1
읍/면	(812)	40.8	26.8	20.1	8.9	3.4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37.6	27.9	19.1	10.6	4.7
한부모가정	(441)	31.1	28.6	19.7	15.2	5.2
조손가정	(70)	44.3	14.3	12.9	17.1	11.4
기타	(97)	37.1	21.6	18.6	15.5	6.2
무응답	(18)	16.7	27.8	5.6	27.8	0.0
학업성적						
잘함	(2,071)	44.5	25.9	16.3	9.3	3.9
중간	(2,768)	37.3	27.9	18.9	11.0	4.8
못함	(1,505)	26.8	29.6	23.0	14.0	6.3
무응답	(15)	26.7	40.0	0.0	13.3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50.4	21.5	15.5	8.1	4.3
중	(4,749)	33.9	29.6	20.0	11.5	4.8
하	(211)	23.7	25.6	18.5	21.8	10.0
무응답	(15)	20.0	26.7	13.3	20.0	0.0

[표 6-10] 나는 친구들과 가끔씩 다투는 편이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23.2	27.0	32.9	14.1	2.7
성별						
남자	(3,263)	23.7	25.8	34.2	13.1	3.0
여자	(3,096)	22.6	28.3	31.5	15.1	2.4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35.8	25.0	26.0	10.0	2.9
초등학교 5학년	(1,044)	24.9	24.9	32.5	14.0	3.6
초등학교 6학년	(1,061)	23.2	24.8	33.8	15.3	2.6
중학교 1학년	(1,061)	22.1	26.6	33.0	15.3	2.7
중학교 2학년	(1,086)	14.6	31.3	36.6	15.4	2.0
중학교 3학년	(1,048)	18.7	29.2	35.4	14.4	2.3
지역규모						
대도시	(2,532)	23.9	26.9	31.5	14.4	3.1
중소도시	(3,015)	23.4	26.4	33.5	14.2	2.2
읍/면	(812)	20.3	29.2	35.0	12.3	3.2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23.4	27.3	32.8	13.7	2.7
한부모가정	(441)	20.0	25.9	33.1	18.4	2.5
조손가정	(70)	21.4	30.0	35.7	11.4	1.4
기타	(97)	25.8	16.5	32.0	19.6	5.2
무응답	(18)	16.7	11.1	33.3	11.1	5.6
학업성적						
잘함	(2,071)	28.6	27.2	29.1	12.6	2.3
중간	(2,768)	22.2	28.2	33.5	13.5	2.5
못함	(1,505)	17.7	24.4	36.9	17.3	3.7
무응답	(15)	6.7	33.3	33.3	6.7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33.7	25.8	26.5	10.9	2.9
중	(4,749)	20.6	27.5	34.6	14.8	2.4
하	(211)	15.6	22.3	35.1	18.5	8.5
무응답	(15)	0.0	26.7	46.7	6.7	0.0

[표 7-1]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24.4	21.1	24.5	20.5	9.3
성별						
남자	(3,263)	29.4	20.7	24.5	17.0	8.2
여자	(3,096)	19.2	21.5	24.5	24.2	10.5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49.0	21.2	16.9	8.2	4.4
초등학교 5학년	(1,044)	37.5	23.9	21.7	11.4	5.2
초등학교 6학년	(1,061)	27.8	25.4	24.3	15.9	6.5
중학교 1학년	(1,061)	16.4	19.0	28.2	25.2	11.1
중학교 2학년	(1,086)	9.3	20.3	27.7	29.5	13.1
중학교 3학년	(1,048)	7.0	16.7	28.2	32.5	15.5
지역규모						
대도시	(2,532)	25.6	19.8	25.0	20.3	9.1
중소도시	(3,015)	23.5	21.9	23.7	20.7	10.0
읍/면	(812)	24.0	22.3	26.0	20.4	7.3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24.7	21.2	24.6	20.3	9.2
한부모가정	(441)	20.4	20.4	25.2	24.0	9.8
조손가정	(70)	24.3	18.6	27.1	18.6	11.4
기타	(97)	27.8	19.6	20.6	19.6	12.4
무응답	(18)	22.2	22.2	11.1	11.1	16.7
학업성적						
잘함	(2,071)	41.4	27.9	17.6	9.4	3.6
중간	(2,768)	19.9	20.4	30.7	21.8	7.1
못함	(1,505)	9.3	13.0	22.9	33.4	21.3
무응답	(15)	33.3	26.7	6.7	6.7	6.7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40.5	21.0	18.9	12.4	7.2
중	(4,749)	20.2	21.4	26.4	22.7	9.2
하	(211)	14.7	15.6	19.9	23.2	26.1
무응답	(15)	20.0	26.7	13.3	13.3	6.7

[표 7-2] 매일 공부만 하는 것이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20.2	20.5	26.8	21.1	11.2
성별						
남자	(3,263)	22.0	20.0	27.0	19.7	11.1
여자	(3,096)	18.3	21.1	26.5	22.6	11.4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39.8	21.3	22.9	8.5	7.2
초등학교 5학년	(1,044)	29.1	23.6	22.5	15.4	9.0
초등학교 6학년	(1,061)	21.9	21.5	28.8	18.3	9.4
중학교 1학년	(1,061)	14.8	19.8	27.8	24.4	13.0
중학교 2학년	(1,086)	8.8	18.7	28.5	30.5	13.4
중학교 3학년	(1,048)	7.1	18.3	30.0	29.5	15.2
지역규모						
대도시	(2,532)	21.3	18.8	26.1	22.5	11.1
중소도시	(3,015)	19.3	21.6	27.2	20.2	11.6
읍/면	(812)	20.3	22.0	27.1	20.4	10.1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20.3	20.4	26.7	21.2	11.3
한부모가정	(441)	17.9	22.9	26.1	22.7	10.0
조손가정	(70)	17.1	17.1	34.3	17.1	14.3
기타	(97)	24.7	20.6	30.9	12.4	11.3
무응답	(18)	22.2	16.7	16.7	22.2	5.6
학업성적						
잘함	(2,071)	30.3	22.9	22.3	16.3	8.1
중간	(2,768)	17.6	21.1	29.8	21.9	9.5
못함	(1,505)	11.0	16.1	27.4	26.6	18.7
무응답	(15)	20.0	26.7	26.7	6.7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34.6	20.6	22.5	14.8	7.5
중	(4,749)	16.4	20.7	28.2	22.7	11.8
하	(211)	11.4	17.1	22.3	27.0	22.3
무응답	(15)	20.0	0.0	33.3	26.7	0.0

[표 7-3] 나는 수업내용이 즐거운 편이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11.0	20.2	38.1	18.9	11.7
성별						
남자	(3,263)	11.8	18.6	37.5	18.8	13.1
여자	(3,096)	10.2	21.8	38.7	19.0	10.3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9.1	9.9	32.7	23.4	24.6
초등학교 5학년	(1,044)	8.0	13.8	37.4	21.8	18.6
초등학교 6학년	(1,061)	9.5	17.2	38.1	23.6	11.7
중학교 1학년	(1,061)	12.3	22.4	38.5	18.0	8.6
중학교 2학년	(1,086)	13.0	29.1	39.7	14.0	4.1
중학교 3학년	(1,048)	14.0	28.3	42.1	12.5	3.1
지역규모						
대도시	(2,532)	10.2	19.9	37.7	18.8	13.3
중소도시	(3,015)	11.8	19.8	38.3	19.0	10.7
읍/면	(812)	10.3	22.3	38.3	18.3	10.7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10.8	20.0	38.1	19.0	12.0
한부모가정	(441)	12.7	22.9	37.2	18.8	8.2
조손가정	(70)	10.0	21.4	34.3	20.0	14.3
기타	(97)	15.5	17.5	42.3	14.4	10.3
무응답	(18)	5.6	27.8	27.8	5.6	16.7
학업성적						
잘함	(2,071)	7.0	12.6	33.6	26.6	20.2
중간	(2,768)	8.8	20.5	42.6	18.2	9.7
못함	(1,505)	20.5	30.0	35.9	9.5	4.0
무응답	(15)	6.7	20.0	33.3	20.0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9.0	11.7	31.1	25.7	22.4
중	(4,749)	11.1	22.4	40.3	17.1	8.9
하	(211)	21.3	25.1	33.6	13.7	6.2
무응답	(15)	6.7	20.0	33.3	20.0	0.0

[표 7-4] 성공하려면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9.9	13.0	31.9	26.8	18.1
성별						
남자	(3,263)	11.5	14.2	31.5	24.6	18.0
여자	(3,096)	8.2	11.7	32.4	29.2	18.2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18.5	14.0	33.0	17.5	16.8
초등학교 5학년	(1,044)	14.9	14.4	36.7	17.6	15.8
초등학교 6학년	(1,061)	8.4	14.2	32.2	26.7	18.4
중학교 1학년	(1,061)	6.7	11.8	30.2	30.3	20.7
중학교 2학년	(1,086)	4.9	10.9	31.1	33.5	19.4
중학교 3학년	(1,048)	6.2	12.6	28.5	35.2	17.3
지역규모						
대도시	(2,532)	9.5	13.1	30.2	28.1	18.9
중소도시	(3,015)	10.3	13.0	32.1	26.2	18.0
읍/면	(812)	9.5	12.4	36.9	25.1	16.0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10.0	12.8	31.9	27.0	18.1
한부모가정	(441)	9.3	15.2	31.5	25.9	17.2
조손가정	(70)	7.1	11.4	45.7	22.9	12.9
기타	(97)	8.2	16.5	29.9	22.7	22.7
무응답	(18)	11.1	11.1	11.1	27.8	22.2
학업성적						
잘함	(2,071)	9.6	11.5	26.3	30.0	22.4
중간	(2,768)	9.7	13.6	36.4	24.9	15.2
못함	(1,505)	10.7	13.6	31.6	26.2	17.6
무응답	(15)	13.3	20.0	20.0	13.3	13.3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14.6	10.4	28.2	22.9	23.6
중	(4,749)	8.5	13.5	33.5	28.1	16.2
하	(211)	10.4	15.2	22.7	25.6	26.1
무응답	(15)	6.7	33.3	20.0	13.3	6.7

[표 7-5]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좋은 학교로 진학해야 한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10.4	14.0	29.4	28.1	18.0
성별						
남자	(3,263)	12.2	14.9	28.6	25.8	18.3
여자	(3,096)	8.5	13.0	30.2	30.6	17.6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20.6	16.0	30.3	17.6	15.3
초등학교 5학년	(1,044)	15.4	17.8	31.0	20.0	15.4
초등학교 6학년	(1,061)	8.5	16.0	29.6	28.1	17.8
중학교 1학년	(1,061)	8.2	11.7	29.6	29.2	20.9
중학교 2학년	(1,086)	4.7	10.3	28.6	35.8	20.3
중학교 3학년	(1,048)	5.2	12.1	27.1	37.8	17.8
지역규모						
대도시	(2,532)	10.2	13.5	27.9	29.7	18.6
중소도시	(3,015)	10.7	14.2	30.2	26.5	18.1
읍/면	(812)	9.7	14.3	30.9	29.3	15.5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10.3	14.0	29.3	28.4	18.0
한부모가정	(441)	11.3	14.7	30.2	25.9	17.7
조손가정	(70)	8.6	17.1	40.0	22.9	11.4
기타	(97)	12.4	10.3	25.8	30.9	20.6
무응답	(18)	16.7	5.6	22.2	11.1	27.8
학업성적						
잘함	(2,071)	10.1	11.8	25.4	29.9	22.6
중간	(2,768)	10.5	15.0	33.0	26.5	14.9
못함	(1,505)	10.4	15.0	28.4	28.8	17.1
무응답	(15)	20.0	13.3	13.3	13.3	2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14.8	13.7	26.2	22.4	22.6
중	(4,749)	9.1	13.9	30.6	30.0	16.3
하	(211)	10.0	17.1	23.7	25.1	24.2
무응답	(15)	13.3	26.7	13.3	6.7	20.0

[표 7-6] 좋은 성적은 친구관계를 좀더 원활하게 해준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17.5	24.9	34.3	15.3	7.7
성별						
남자	(3,263)	18.5	23.2	34.5	14.4	9.0
여자	(3,096)	16.5	26.8	34.0	16.2	6.2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25.2	18.9	31.5	13.7	10.5
초등학교 5학년	(1,044)	19.1	20.4	37.7	13.0	9.2
초등학교 6학년	(1,061)	15.1	23.5	34.4	18.6	8.0
중학교 1학년	(1,061)	14.9	25.1	36.1	15.7	7.8
중학교 2학년	(1,086)	14.8	29.9	33.8	15.6	5.7
중학교 3학년	(1,048)	16.2	31.8	32.0	15.2	4.8
지역규모						
대도시	(2,532)	17.7	24.4	32.9	16.2	8.4
중소도시	(3,015)	17.5	25.2	34.5	15.2	7.2
읍/면	(812)	17.0	25.7	37.7	12.7	6.9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17.5	25.0	34.2	15.5	7.6
한부모가정	(441)	17.2	27.0	34.7	13.4	7.3
조손가정	(70)	20.0	15.7	44.3	12.9	5.7
기타	(97)	19.6	21.6	30.9	14.4	12.4
무응답	(18)	11.1	16.7	22.2	16.7	16.7
학업성적						
잘함	(2,071)	16.8	22.3	31.3	18.2	11.2
중간	(2,768)	17.1	26.1	37.1	13.6	5.7
못함	(1,505)	19.4	26.4	33.0	14.6	6.4
무응답	(15)	13.3	26.7	26.7	6.7	6.7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21.5	18.8	30.5	16.1	12.7
중	(4,749)	16.3	26.8	35.5	14.9	6.2
하	(211)	19.4	22.3	31.8	19.0	7.6
무응답	(15)	13.3	33.3	20.0	13.3	0.0

[표 7-7] 주변에 야한사진이나 광고지 등을 보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71.7	17.8	7.4	1.8	1.1
성별						
남자	(3,263)	64.9	20.5	9.9	2.8	1.7
여자	(3,096)	78.9	14.9	4.8	0.8	0.5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90.7	4.7	2.6	0.8	0.8
초등학교 5학년	(1,044)	88.3	7.3	2.8	0.6	0.6
초등학교 6학년	(1,061)	82.3	13.0	3.4	0.8	0.3
중학교 1학년	(1,061)	64.0	22.2	8.9	3.4	1.3
중학교 2학년	(1,086)	51.5	30.4	13.4	2.2	2.4
중학교 3학년	(1,048)	53.9	28.6	13.5	2.9	1.0
지역규모						
대도시	(2,532)	69.8	18.7	8.3	1.9	1.1
중소도시	(3,015)	72.5	17.2	7.0	1.8	1.2
읍/면	(812)	74.4	16.7	6.4	1.6	0.6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72.0	17.7	7.4	1.8	1.0
한부모가정	(441)	69.8	18.8	8.2	1.8	0.9
조손가정	(70)	72.9	12.9	8.6	1.4	2.9
기타	(97)	69.1	19.6	9.3	1.0	1.0
무응답	(18)	44.4	22.2	0.0	0.0	16.7
학업성적						
잘함	(2,071)	75.9	15.3	5.6	1.5	1.6
중간	(2,768)	72.8	17.8	7.1	1.4	0.7
못함	(1,505)	64.1	21.1	10.6	2.9	1.1
무응답	(15)	53.3	20.0	6.7	0.0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81.1	10.8	4.9	1.5	1.6
중	(4,749)	69.6	19.4	8.1	1.8	0.9
하	(211)	58.3	26.5	9.0	4.3	1.9
무응답	(15)	53.3	20.0	6.7	0.0	0.0

[표 7-8] 주변에 술집이 있으면 몰래 들어가 보고 싶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77.1	15.2	5.2	1.5	0.8
성별						
남자	(3,263)	73.0	17.7	6.2	1.8	1.1
여자	(3,096)	81.5	12.5	4.1	1.2	0.5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93.6	3.9	1.7	0.3	0.4
초등학교 5학년	(1,044)	91.1	5.7	2.1	0.4	0.5
초등학교 6학년	(1,061)	83.8	11.3	3.3	1.0	0.4
중학교 1학년	(1,061)	73.3	18.7	4.5	2.5	0.7
중학교 2학년	(1,086)	60.6	26.2	8.9	2.5	1.7
중학교 3학년	(1,048)	60.8	25.1	10.4	2.3	1.3
지역규모						
대도시	(2,532)	76.1	15.2	6.0	1.7	0.7
중소도시	(3,015)	76.9	15.8	4.7	1.5	0.9
읍/면	(812)	80.9	13.3	4.3	0.6	0.9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77.5	15.0	5.0	1.4	0.9
한부모가정	(441)	74.1	17.0	6.1	2.0	0.0
조손가정	(70)	78.6	14.3	5.7	1.4	0.0
기타	(97)	70.1	18.6	9.3	2.1	0.0
무응답	(18)	55.6	22.2	0.0	0.0	5.6
학업성적						
잘함	(2,071)	82.4	12.2	3.7	0.8	0.8
중간	(2,768)	78.2	14.8	4.7	1.5	0.6
못함	(1,505)	68.0	20.2	8.2	2.4	1.2
무응답	(15)	66.7	6.7	6.7	0.0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85.8	8.5	3.5	0.9	1.1
중	(4,749)	75.1	17.0	5.5	1.5	0.7
하	(211)	65.9	19.0	8.5	5.2	1.4
무응답	(15)	66.7	13.3	0.0	0.0	0.0

[표 7-9] 주변에서 성인만화나 도서는 언제든지 쉽게 볼 수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69.3	17.1	9.0	2.9	1.6
성별						
남자	(3,263)	64.8	18.6	10.9	3.6	2.0
여자	(3,096)	74.0	15.4	7.1	2.2	1.1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78.5	11.0	7.0	1.8	1.3
초등학교 5학년	(1,044)	84.1	9.9	4.2	0.6	1.1
초등학교 6학년	(1,061)	82.6	12.3	3.2	1.1	0.6
중학교 1학년	(1,061)	65.3	19.1	10.3	3.5	1.6
중학교 2학년	(1,086)	53.8	25.2	13.4	5.2	2.4
중학교 3학년	(1,048)	51.8	24.6	16.0	5.1	2.4
지역규모						
대도시	(2,532)	68.1	16.9	10.1	3.0	1.8
중소도시	(3,015)	70.3	17.1	8.1	2.9	1.3
읍/면	(812)	69.1	17.5	9.2	2.5	1.7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69.5	17.1	9.0	2.8	1.5
한부모가정	(441)	66.4	18.6	9.3	3.9	1.1
조손가정	(70)	72.9	14.3	5.7	4.3	1.4
기타	(97)	67.0	13.4	12.4	4.1	3.1
무응답	(18)	55.6	11.1	0.0	5.6	11.1
학업성적						
잘함	(2,071)	74.3	13.6	6.9	2.9	2.1
중간	(2,768)	69.9	17.5	9.3	2.1	1.0
못함	(1,505)	61.3	21.0	11.5	4.3	1.9
무응답	(15)	60.0	13.3	6.7	0.0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76.5	11.1	7.1	2.9	2.2
중	(4,749)	67.6	18.8	9.2	2.8	1.4
하	(211)	59.7	15.6	17.5	5.2	1.9
무응답	(15)	60.0	20.0	0.0	0.0	0.0

[표 7-10]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용 사진이나 게임 등을 자주 이용한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73.1	16.4	7.2	2.0	1.1
성별						
남자	(3,263)	66.7	18.3	10.0	3.1	1.7
여자	(3,096)	79.8	14.4	4.2	0.9	0.5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78.6	9.7	7.4	2.6	1.4
초등학교 5학년	(1,044)	84.2	9.4	4.4	1.0	0.9
초등학교 6학년	(1,061)	84.7	10.5	3.5	0.4	0.8
중학교 1학년	(1,061)	70.1	17.2	8.2	3.0	1.2
중학교 2학년	(1,086)	60.6	25.5	9.9	2.7	1.2
중학교 3학년	(1,048)	60.6	25.9	9.6	2.5	1.3
지역규모						
대도시	(2,532)	72.3	16.6	7.7	1.9	1.3
중소도시	(3,015)	74.0	16.3	6.5	2.1	0.8
읍/면	(812)	72.0	16.1	8.1	2.1	1.6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73.3	16.3	7.2	2.0	1.1
한부모가정	(441)	71.9	17.9	6.1	2.7	0.9
조손가정	(70)	72.9	17.1	5.7	0.0	4.3
기타	(97)	71.1	17.5	9.3	0.0	2.1
무응답	(18)	55.6	11.1	11.1	5.6	0.0
학업성적						
잘함	(2,071)	78.6	13.2	5.5	1.4	1.3
중간	(2,768)	72.6	16.6	7.6	2.1	0.9
못함	(1,505)	66.5	20.5	8.8	2.7	1.5
무응답	(15)	60.0	13.3	6.7	0.0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78.5	10.8	7.2	1.4	1.9
중	(4,749)	71.7	18.0	7.1	2.1	0.9
하	(211)	67.8	17.5	10.0	3.3	1.4
무응답	(15)	66.7	13.3	0.0	0.0	0.0

[표 7-11] 지역 어른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별로 관심이 없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33.7	23.9	29.6	8.7	3.9
성별						
남자	(3,263)	33.0	22.9	29.3	9.7	5.0
여자	(3,096)	34.5	25.0	30.0	7.6	2.7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49.2	18.9	21.6	5.6	4.4
초등학교 5학년	(1,044)	43.4	20.9	24.5	6.5	4.4
초등학교 6학년	(1,061)	34.2	26.3	27.1	8.8	3.5
중학교 1학년	(1,061)	31.8	23.9	32.0	9.3	2.8
중학교 2학년	(1,086)	22.8	26.6	34.8	11.3	4.3
중학교 3학년	(1,048)	21.3	26.9	37.6	10.4	3.7
지역규모						
대도시	(2,532)	35.1	22.9	29.5	8.1	4.3
중소도시	(3,015)	33.1	25.9	28.3	9.0	3.4
읍/면	(812)	32.0	19.6	34.9	9.4	4.2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33.9	24.1	29.4	8.7	3.8
한부모가정	(441)	30.2	23.1	32.7	9.5	4.1
조손가정	(70)	40.0	17.1	32.9	5.7	4.3
기타	(97)	33.0	24.7	27.8	8.2	6.2
무응답	(18)	44.4	16.7	16.7	5.6	0.0
학업성적						
잘함	(2,071)	41.1	24.5	23.9	7.4	2.9
중간	(2,768)	32.8	24.3	29.6	8.9	4.1
못함	(1,505)	25.2	22.5	37.6	10.0	4.7
무응답	(15)	33.3	20.0	26.7	0.0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48.2	19.9	20.3	6.5	5.0
중	(4,749)	29.8	25.2	32.4	9.0	3.4
하	(211)	27.0	21.3	28.4	15.6	7.6
무응답	(15)	33.3	20.0	26.7	0.0	0.0

[표 8-1] 나는 친한 친구들이 가끔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할지라도 함께 할 수밖에

에 없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32.6	36.1	22.8	6.9	1.6
성별						
남자	(3,263)	34.2	34.0	23.7	6.4	1.6
여자	(3,096)	30.9	38.2	21.8	7.5	1.6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53.2	25.0	14.8	4.4	2.5
초등학교 5학년	(1,044)	42.2	29.9	20.7	5.0	1.9
초등학교 6학년	(1,061)	30.8	35.6	24.9	7.4	1.2
중학교 1학년	(1,061)	28.4	39.8	22.7	7.4	1.6
중학교 2학년	(1,086)	20.9	40.6	27.3	9.7	1.4
중학교 3학년	(1,048)	20.2	45.4	26.0	7.4	0.9
지역규모						
대도시	(2,532)	33.8	35.3	22.6	6.7	1.6
중소도시	(3,015)	31.4	37.1	22.7	7.1	1.6
읍/면	(812)	32.9	34.9	23.8	7.0	1.5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32.8	36.2	22.5	6.8	1.6
한부모가정	(441)	27.9	37.6	24.7	8.6	0.9
조손가정	(70)	45.7	21.4	25.7	7.1	0.0
기타	(97)	32.0	30.9	28.9	4.1	4.1
무응답	(18)	22.2	33.3	11.1	5.6	11.1
학업성적						
잘함	(2,071)	38.2	35.8	17.9	6.4	1.5
중간	(2,768)	33.0	35.5	23.9	6.3	1.2
못함	(1,505)	23.9	37.5	27.6	8.8	2.2
무응답	(15)	40.0	20.0	13.3	0.0	6.7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45.6	29.0	17.8	5.1	2.5
중	(4,749)	29.2	38.1	24.2	7.2	1.3
하	(211)	23.2	37.4	24.2	12.8	2.4
무응답	(15)	33.3	26.7	13.3	0.0	6.7

[표 8-2] 나는 학교선배들이 시키면 올바르게 할 수 밖에 없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45.7	29.4	17.3	6.2	1.3
성별						
남자	(3,263)	48.1	28.1	16.9	5.5	1.3
여자	(3,096)	43.2	30.8	17.8	6.9	1.3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72.1	16.3	7.5	2.5	1.5
초등학교 5학년	(1,044)	60.3	22.6	11.2	3.9	1.7
초등학교 6학년	(1,061)	44.3	30.5	17.1	6.6	1.5
중학교 1학년	(1,061)	36.9	32.0	22.2	7.6	1.0
중학교 2학년	(1,086)	29.3	35.2	25.0	9.3	1.2
중학교 3학년	(1,048)	31.8	39.6	20.8	7.1	0.8
지역규모						
대도시	(2,532)	46.9	28.5	17.3	6.0	1.2
중소도시	(3,015)	44.9	30.1	17.4	6.3	1.2
읍/면	(812)	45.1	29.8	17.1	6.2	1.8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45.8	29.4	17.4	6.1	1.3
한부모가정	(441)	43.5	32.0	16.1	7.3	0.9
조손가정	(70)	54.3	21.4	15.7	7.1	1.4
기타	(97)	46.4	21.6	20.6	9.3	2.1
무응답	(18)	33.3	27.8	11.1	0.0	11.1
학업성적						
잘함	(2,071)	52.7	26.8	14.4	5.1	1.0
중간	(2,768)	46.4	29.9	17.2	5.4	1.1
못함	(1,505)	34.9	32.1	21.7	9.2	2.1
무응답	(15)	46.7	20.0	6.7	0.0	6.7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61.6	20.8	11.5	4.2	1.9
중	(4,749)	41.5	31.9	19.0	6.5	1.0
하	(211)	36.0	29.9	19.9	10.9	3.3
무응답	(15)	33.3	20.0	6.7	6.7	13.3

[표 8-3] 나는 어른들이 시키면 올바르게 않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41.5	30.8	18.6	6.9	2.1
성별						
남자	(3,263)	42.5	29.0	18.7	6.8	2.7
여자	(3,096)	40.3	32.7	18.5	6.9	1.5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59.5	19.5	13.2	4.0	3.7
초등학교 5학년	(1,044)	52.9	23.4	14.8	6.7	2.1
초등학교 6학년	(1,061)	41.3	31.1	18.0	7.3	2.3
중학교 1학년	(1,061)	38.3	32.1	19.3	8.4	1.8
중학교 2학년	(1,086)	28.3	38.8	22.8	8.1	1.9
중학교 3학년	(1,048)	29.0	39.7	23.4	6.8	1.0
지역규모						
대도시	(2,532)	43.0	29.1	19.3	6.4	2.1
중소도시	(3,015)	40.8	32.3	17.6	6.9	2.2
읍/면	(812)	39.3	30.5	20.0	8.0	2.2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41.5	30.9	18.4	6.9	2.1
한부모가정	(441)	41.5	30.6	19.7	6.8	1.1
조손가정	(70)	35.7	25.7	18.6	14.3	5.7
기타	(97)	41.2	28.9	25.8	2.1	2.1
무응답	(18)	38.9	27.8	5.6	0.0	11.1
학업성적						
잘함	(2,071)	47.6	29.2	15.0	6.3	1.9
중간	(2,768)	41.5	30.2	19.7	6.3	2.1
못함	(1,505)	33.0	34.0	21.7	8.8	2.6
무응답	(15)	40.0	33.3	0.0	0.0	6.7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55.1	23.6	13.2	5.0	3.0
중	(4,749)	38.0	33.0	20.0	7.2	1.7
하	(211)	31.3	29.9	22.3	11.4	5.2
무응답	(15)	40.0	13.3	13.3	6.7	6.7

[표 8-4] 나는 가끔씩 TV나 영화에서 하는 나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 적이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59.5	27.3	10.1	2.5	0.5
성별						
남자	(3,263)	56.5	27.7	12.3	2.7	0.7
여자	(3,096)	62.7	26.8	7.8	2.4	0.2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84.1	10.8	4.1	0.4	0.5
초등학교 5학년	(1,044)	75.9	17.0	5.7	0.9	0.4
초등학교 6학년	(1,061)	60.1	26.9	10.0	2.8	0.2
중학교 1학년	(1,061)	53.3	32.0	10.8	2.9	0.8
중학교 2학년	(1,086)	41.4	37.8	15.6	4.5	0.6
중학교 3학년	(1,048)	42.5	38.8	14.6	3.7	0.3
지역규모						
대도시	(2,532)	60.0	25.3	11.1	3.1	0.6
중소도시	(3,015)	59.0	28.6	9.4	2.3	0.5
읍/면	(812)	59.6	28.3	10.0	1.8	0.1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59.9	27.1	10.0	2.6	0.5
한부모가정	(441)	57.4	27.4	12.0	2.9	0.0
조손가정	(70)	57.1	31.4	8.6	1.4	1.4
기타	(97)	51.5	33.0	13.4	1.0	1.0
무응답	(18)	33.3	38.9	0.0	0.0	11.1
학업성적						
잘함	(2,071)	66.2	23.2	7.7	2.2	0.5
중간	(2,768)	60.5	27.1	10.1	2.0	0.2
못함	(1,505)	48.4	33.0	13.7	4.1	0.9
무응답	(15)	40.0	33.3	0.0	0.0	6.7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72.8	18.5	6.4	1.4	0.8
중	(4,749)	56.2	29.7	11.0	2.7	0.3
하	(211)	46.4	28.9	16.6	5.7	2.4
무응답	(15)	46.7	26.7	0.0	0.0	6.7

[표 8-5] 나는 좋은 성적이나 상을 타기 위해서 컨닝이나 친구 과제물 베끼기와 같은 올바른지 않은 방법을 선택한 적이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58.1	24.2	11.3	5.6	0.7
성별						
남자	(3,263)	59.2	24.0	11.4	4.5	0.7
여자	(3,096)	56.8	24.5	11.2	6.7	0.7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80.4	13.4	4.5	1.3	0.3
초등학교 5학년	(1,044)	73.0	18.6	5.7	2.0	0.4
초등학교 6학년	(1,061)	60.4	23.1	11.1	4.3	1.0
중학교 1학년	(1,061)	50.4	27.9	12.6	7.9	1.0
중학교 2학년	(1,086)	40.7	31.1	17.8	9.4	0.8
중학교 3학년	(1,048)	44.0	31.2	15.8	8.3	0.7
지역규모						
대도시	(2,532)	58.8	24.1	10.8	5.6	0.6
중소도시	(3,015)	56.9	24.7	11.6	5.8	0.9
읍/면	(812)	60.1	22.9	11.8	4.7	0.4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58.0	24.5	11.2	5.5	0.7
한부모가정	(441)	57.1	23.1	12.0	7.3	0.2
조손가정	(70)	70.0	12.9	8.6	7.1	1.4
기타	(97)	56.7	22.7	16.5	3.1	1.0
무응답	(18)	44.4	16.7	11.1	5.6	5.6
학업성적						
잘함	(2,071)	66.9	20.6	7.5	4.3	0.6
중간	(2,768)	57.5	25.5	11.6	5.1	0.3
못함	(1,505)	47.0	26.9	16.1	8.2	1.7
무응답	(15)	53.3	20.0	0.0	0.0	6.7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70.7	18.6	7.4	2.5	0.9
중	(4,749)	54.9	26.1	12.1	6.3	0.6
하	(211)	46.4	21.3	19.9	10.0	2.4
무응답	(15)	66.7	6.7	0.0	0.0	6.7

[표 8-6] 내 친한 친구들 중에 잘못되거나 못된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31.9	23.9	22.7	15.3	6.0
성별						
남자	(3,263)	29.7	22.5	24.2	16.4	7.0
여자	(3,096)	34.2	25.3	21.2	14.2	5.0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47.9	17.3	17.1	10.9	6.7
초등학교 5학년	(1,044)	35.6	23.7	21.4	13.5	5.6
초등학교 6학년	(1,061)	31.2	23.4	23.1	15.1	7.2
중학교 1학년	(1,061)	28.7	22.4	24.4	18.3	5.9
중학교 2학년	(1,086)	22.7	27.5	26.1	17.4	6.3
중학교 3학년	(1,048)	25.4	29.0	24.2	16.8	4.5
지역규모						
대도시	(2,532)	32.0	23.0	23.0	15.3	6.6
중소도시	(3,015)	31.8	24.6	22.5	15.0	5.9
읍/면	(812)	31.7	23.9	22.8	16.6	4.8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31.6	23.9	22.6	15.6	6.1
한부모가정	(441)	32.9	25.6	23.1	12.9	5.2
조손가정	(70)	41.4	20.0	20.0	12.9	5.7
기타	(97)	39.2	17.5	26.8	13.4	3.1
무응답	(18)	16.7	22.2	27.8	5.6	11.1
학업성적						
잘함	(2,071)	34.0	22.8	21.5	15.3	6.1
중간	(2,768)	32.0	24.8	22.4	15.8	4.9
못함	(1,505)	28.6	23.7	25.0	14.8	7.9
무응답	(15)	33.3	13.3	26.7	0.0	6.7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40.0	19.7	18.7	15.1	6.3
중	(4,749)	29.8	25.3	24.0	15.2	5.6
하	(211)	27.5	20.4	18.5	19.4	14.2
무응답	(15)	13.3	6.7	40.0	6.7	13.3

[표 8-7] 내 선배들 중에 잘못되거나 못된 행동을 하는 선배가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42.3	21.5	18.7	11.3	6.0
성별						
남자	(3,263)	40.2	20.1	20.5	12.1	6.9
여자	(3,096)	44.6	23.0	16.9	10.4	5.0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58.5	14.0	12.4	7.5	7.5
초등학교 5학년	(1,044)	47.9	18.8	16.0	9.8	7.3
초등학교 6학년	(1,061)	41.6	20.9	19.3	11.2	7.0
중학교 1학년	(1,061)	36.8	22.0	19.0	14.9	7.0
중학교 2학년	(1,086)	30.8	26.7	23.7	14.1	4.6
중학교 3학년	(1,048)	38.7	26.6	21.9	10.0	2.8
지역규모						
대도시	(2,532)	44.0	21.2	17.7	10.9	6.1
중소도시	(3,015)	41.3	21.9	18.8	11.6	6.0
읍/면	(812)	41.0	20.8	21.7	10.8	5.7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42.4	21.2	19.0	11.3	6.0
한부모가정	(441)	41.5	25.4	16.3	12.2	4.3
조손가정	(70)	48.6	17.1	11.4	11.4	11.4
기타	(97)	43.3	21.6	21.6	7.2	6.2
무응답	(18)	22.2	27.8	11.1	5.6	16.7
학업성적						
잘함	(2,071)	44.3	19.7	17.3	12.0	6.5
중간	(2,768)	43.8	22.1	18.6	10.2	5.1
못함	(1,505)	36.9	22.9	20.8	12.2	7.0
무응답	(15)	40.0	6.7	20.0	6.7	6.7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50.3	15.8	15.5	10.5	7.8
중	(4,749)	40.3	23.2	19.7	11.2	5.4
하	(211)	36.0	22.7	17.1	16.6	7.6
무응답	(15)	26.7	0.0	26.7	13.3	13.3

[표 8-8] 나는 친한 친구가 싫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먼저 왕따 시키는 편이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59.2	28.8	9.5	1.7	0.6
성별						
남자	(3,263)	59.9	27.8	9.9	1.5	0.7
여자	(3,096)	58.5	29.9	9.0	1.8	0.5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80.5	13.3	4.7	0.5	0.7
초등학교 5학년	(1,044)	69.6	21.6	6.5	1.1	0.8
초등학교 6학년	(1,061)	57.3	29.5	10.4	2.4	0.3
중학교 1학년	(1,061)	52.9	32.5	11.5	2.4	0.7
중학교 2학년	(1,086)	46.0	38.4	12.6	2.2	0.6
중학교 3학년	(1,048)	49.2	37.3	11.2	1.5	0.7
지역규모						
대도시	(2,532)	59.4	28.5	9.9	1.6	0.6
중소도시	(3,015)	58.4	29.6	9.4	1.8	0.7
읍/면	(812)	61.7	27.1	8.6	1.6	0.4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58.9	28.9	9.8	1.7	0.6
한부모가정	(441)	61.2	30.2	6.3	2.0	0.0
조손가정	(70)	67.1	22.9	5.7	2.9	1.4
기타	(97)	66.0	20.6	12.4	0.0	1.0
무응답	(18)	27.8	38.9	5.6	0.0	11.1
학업성적						
잘함	(2,071)	65.5	24.2	8.0	1.4	0.7
중간	(2,768)	59.3	29.4	9.2	1.4	0.5
못함	(1,505)	50.4	34.2	12.0	2.7	0.6
무응답	(15)	46.7	13.3	13.3	0.0	6.7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69.6	19.3	8.5	1.5	1.1
중	(4,749)	56.7	31.4	9.7	1.6	0.4
하	(211)	48.8	33.6	11.8	3.8	1.9
무응답	(15)	53.3	20.0	0.0	0.0	6.7

[표 8-9] 나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무슨 일이든 앞장서서 나서는 것이 싫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29.4	23.0	24.1	14.0	9.4
성별						
남자	(3,263)	32.8	24.0	23.2	11.2	8.7
여자	(3,096)	25.8	22.0	25.0	17.0	10.1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42.8	18.8	20.5	8.8	9.0
초등학교 5학년	(1,044)	33.2	19.4	23.2	12.6	11.3
초등학교 6학년	(1,061)	26.6	21.9	25.1	15.9	10.6
중학교 1학년	(1,061)	26.5	22.2	25.6	14.6	10.9
중학교 2학년	(1,086)	22.1	25.8	26.3	16.9	8.7
중학교 3학년	(1,048)	25.4	30.0	23.7	15.2	5.8
지역규모						
대도시	(2,532)	29.9	21.8	23.8	15.0	9.4
중소도시	(3,015)	28.9	23.8	23.9	13.5	9.8
읍/면	(812)	29.9	23.8	25.4	12.9	7.9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29.0	23.1	24.2	14.1	9.6
한부모가정	(441)	32.4	21.8	22.7	15.4	7.5
조손가정	(70)	32.9	22.9	28.6	8.6	7.1
기타	(97)	36.1	22.7	20.6	11.3	9.3
무응답	(18)	22.2	33.3	11.1	5.6	11.1
학업성적						
잘함	(2,071)	31.4	23.7	22.5	12.9	9.5
중간	(2,768)	30.5	22.1	24.6	14.6	8.1
못함	(1,505)	24.6	23.8	25.4	14.6	11.6
무응답	(15)	20.0	20.0	26.7	0.0	13.3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37.5	20.7	19.9	11.4	10.5
중	(4,749)	27.3	23.9	25.1	14.7	8.9
하	(211)	23.2	20.9	26.5	15.2	14.2
무응답	(15)	26.7	0.0	33.3	13.3	6.7

[표 8-10] 나는 친구들과 즐겁게 놀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올바른 방법이 아닐지라도 마련한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 체	(6,359)	49.8	29.2	16.5	3.1	1.3
성별						
남자	(3,263)	48.5	28.7	18.2	3.0	1.4
여자	(3,096)	51.2	29.7	14.8	3.1	1.2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61.7	19.3	16.7	1.1	1.1
초등학교 5학년	(1,044)	55.7	22.2	16.9	3.3	1.8
초등학교 6학년	(1,061)	47.9	31.7	15.3	3.4	1.7
중학교 1학년	(1,061)	46.9	30.8	17.4	3.3	1.4
중학교 2학년	(1,086)	41.1	35.5	18.0	4.3	1.0
중학교 3학년	(1,048)	45.9	35.6	15.0	3.0	0.6
지역규모						
대도시	(2,532)	51.0	28.2	16.8	2.8	1.1
중소도시	(3,015)	49.4	29.3	16.0	3.4	1.7
읍/면	(812)	47.5	32.0	17.6	2.6	0.2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49.9	29.4	16.3	3.2	1.2
한부모가정	(441)	48.8	28.3	19.0	2.3	1.4
조손가정	(70)	54.3	21.4	21.4	0.0	2.9
기타	(97)	45.4	29.9	18.6	3.1	3.1
무응답	(18)	44.4	22.2	5.6	0.0	11.1
학업성적						
잘함	(2,071)	58.5	26.5	11.8	2.1	1.1
중간	(2,768)	48.3	29.9	18.1	2.7	0.9
못함	(1,505)	40.6	31.8	20.3	5.1	2.2
무응답	(15)	46.7	26.7	0.0	0.0	6.7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59.0	23.0	13.5	2.5	2.0
중	(4,749)	47.4	31.1	17.3	3.1	0.9
하	(211)	43.1	28.0	19.4	5.7	3.8
무응답	(15)	46.7	13.3	13.3	0.0	6.7

[표 9-1-1] 부모님께서 병을 오래 앓고 계신다.

(단위 : %)

		사례수 (명)	없다	있다
전 체		(6,359)	94.2	5.8
성별	남자	(3,263)	94.2	5.8
	여자	(3,096)	94.3	5.7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94.6	5.4
	초등학교 5학년	(1,044)	94.9	5.1
	초등학교 6학년	(1,061)	93.8	6.2
	중학교 1학년	(1,061)	94.6	5.4
	중학교 2학년	(1,086)	94.4	5.6
	중학교 3학년	(1,048)	93.1	6.9
지역규모	대도시	(2,532)	93.8	6.2
	중소도시	(3,015)	94.4	5.6
	읍/면	(812)	95.3	4.7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94.8	5.2
	한부모가정	(441)	87.5	12.5
	조손가정	(70)	90.0	10.0
	기타	(97)	92.8	7.2
	무응답	(18)	100.0	0.0
학업성적	잘함	(2,071)	95.1	4.9
	중간	(2,768)	94.1	5.9
	못함	(1,505)	93.3	6.7
	무응답	(15)	100.0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95.9	4.1
	중	(4,749)	94.2	5.8
	하	(211)	83.9	16.1
	무응답	(15)	100.0	0.0

[표 9-1-2] 부모님께서 병을 오래 앓고 계신다.

(단위 : %)

Base=문9-1-1 경험자	사례수 (명)	취학전 (~7세 이하)	초등학교 저학년 (8세~10세)	초등학교 고학년 (11~13세)	중학교 (14세 이상)
전 체	(366)	16.7	20.2	34.4	16.4
성별					
남자	(190)	20.5	21.1	33.7	12.1
여자	(176)	12.5	19.3	35.2	21.0
학년					
초등학교 4학년	(57)	31.6	43.9	10.5	0.0
초등학교 5학년	(53)	22.6	17.0	47.2	0.0
초등학교 6학년	(66)	21.2	18.2	50.0	0.0
중학교 1학년	(57)	7.0	21.1	45.6	15.8
중학교 2학년	(61)	9.8	11.5	29.5	34.4
중학교 3학년	(72)	9.7	12.5	25.0	41.7
지역규모					
대도시	(158)	17.1	20.3	31.0	20.3
중소도시	(170)	16.5	19.4	35.9	14.1
읍/면	(38)	15.8	23.7	42.1	10.5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297)	16.5	20.2	34.3	16.2
한부모가정	(55)	16.4	16.4	36.4	20.0
조손가정	(7)	28.6	42.9	0.0	14.3
기타	(7)	14.3	28.6	57.1	0.0
학업성적					
잘함	(102)	15.7	23.5	42.2	6.9
중간	(163)	18.4	22.1	30.1	15.3
못함	(101)	14.9	13.9	33.7	27.7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57)	28.1	22.8	24.6	7.0
중	(275)	14.5	20.4	36.7	16.7
하	(34)	14.7	14.7	32.4	29.4

[표 9-2-1] 나의 기억에는 부모님들이 때리고 욕하면서 아주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신 적이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없다	있다
전 체	(6,359)	84.3	15.7
성별			
남자	(3,263)	85.7	14.3
여자	(3,096)	82.8	17.2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89.6	10.4
초등학교 5학년	(1,044)	87.2	12.8
초등학교 6학년	(1,061)	84.5	15.5
중학교 1학년	(1,061)	83.2	16.8
중학교 2학년	(1,086)	82.0	18.0
중학교 3학년	(1,048)	79.5	20.5
지역규모			
대도시	(2,532)	82.4	17.6
중소도시	(3,015)	85.5	14.5
읍/면	(812)	86.0	14.0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85.1	14.9
한부모가정	(441)	74.4	25.6
조손가정	(70)	81.4	18.6
기타	(97)	88.7	11.3
무응답	(18)	61.1	38.9
학업성적			
잘함	(2,071)	88.3	11.7
중간	(2,768)	84.6	15.4
못함	(1,505)	78.3	21.7
무응답	(15)	86.7	13.3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89.4	10.6
중	(4,749)	83.8	16.2
하	(211)	63.5	36.5
무응답	(15)	80.0	20.0

[표 9-2-2] 나의 기억에는 부모님들이 때리고 욕하면서 아주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신 적이 있다.

(단위 : %)

Base=문9-2-1 경험자	사례수 (명)	취학전 (~7세 이하)	초등학교 저학년 (8세~10세)	초등학교 고학년 (11~13세)	중학교 (14세 이상)
전 체	(997)	21.4	25.5	34.6	9.8
성별					
남자	(465)	22.8	23.9	36.8	8.6
여자	(532)	20.1	26.9	32.7	10.9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10)	26.4	40.9	20.9	0.9
초등학교 5학년	(134)	26.9	34.3	32.1	0.0
초등학교 6학년	(164)	22.0	26.2	45.1	0.0
중학교 1학년	(178)	19.7	21.3	42.7	7.3
중학교 2학년	(196)	19.9	19.4	35.7	15.3
중학교 3학년	(215)	17.7	20.5	27.4	25.1
지역규모					
대도시	(445)	19.6	24.9	36.0	10.8
중소도시	(438)	24.0	26.0	33.3	8.9
읍/면	(114)	18.4	25.4	34.2	9.6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853)	19.0	25.2	36.1	11.0
한부모가정	(113)	40.7	25.7	22.1	0.9
조손가정	(13)	23.1	38.5	38.5	0.0
기타	(11)	9.1	27.3	36.4	18.2
무응답	(7)	14.3	28.6	42.9	14.3
학업성적					
잘함	(243)	18.1	31.3	35.8	7.8
중간	(425)	24.0	24.2	35.1	9.2
못함	(327)	20.2	22.9	33.3	11.9
무응답	(2)	50.0	0.0	0.0	5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47)	21.8	25.9	34.7	8.8
중	(770)	20.8	25.5	35.1	10.1
하	(77)	27.3	24.7	31.2	7.8
무응답	(3)	0.0	33.3	0.0	33.3

[표 9-3-1] 나의 기억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아주 심하게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없다	있다
전 체	(6,359)	95.6	4.4
성별			
남자	(3,263)	95.2	4.8
여자	(3,096)	96.1	3.9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97.7	2.3
초등학교 5학년	(1,044)	97.6	2.4
초등학교 6학년	(1,061)	95.8	4.2
중학교 1학년	(1,061)	94.5	5.5
중학교 2학년	(1,086)	94.0	6.0
중학교 3학년	(1,048)	94.3	5.7
지역규모			
대도시	(2,532)	95.3	4.7
중소도시	(3,015)	95.6	4.4
읍/면	(812)	97.0	3.0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96.0	4.0
한부모가정	(441)	92.5	7.5
조손가정	(70)	90.0	10.0
기타	(97)	95.9	4.1
무응답	(18)	94.4	5.6
학업성적			
잘함	(2,071)	96.6	3.4
중간	(2,768)	96.1	3.9
못함	(1,505)	93.4	6.6
무응답	(15)	100.0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97.1	2.9
중	(4,749)	95.6	4.4
하	(211)	87.7	12.3
무응답	(15)	93.3	6.7

[표 9-3-2] 나의 기억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아주 심하게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단위 : %)

Base=문9-3-1 경험자	사례수 (명)	취학전 (~7세 이하)	초등학교 저학년 (8세~10세)	초등학교 고학년 (11~13세)	중학교 (14세 이상)
전 체	(277)	10.1	20.9	41.9	17.7
성별					
남자	(155)	11.0	22.6	43.9	13.5
여자	(122)	9.0	18.9	39.3	23.0
학년					
초등학교 4학년	(24)	16.7	45.8	20.8	0.0
초등학교 5학년	(25)	4.0	32.0	56.0	0.0
초등학교 6학년	(45)	15.6	24.4	55.6	0.0
중학교 1학년	(58)	6.9	15.5	58.6	8.6
중학교 2학년	(65)	6.2	21.5	38.5	27.7
중학교 3학년	(60)	13.3	8.3	21.7	43.3
지역규모					
대도시	(119)	9.2	26.1	37.0	20.2
중소도시	(134)	9.0	16.4	48.5	17.2
읍/면	(24)	20.8	20.8	29.2	8.3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232)	9.9	19.0	41.8	19.0
한부모가정	(33)	15.2	24.2	45.5	9.1
조손가정	(7)	0.0	28.6	57.1	14.3
기타	(4)	0.0	75.0	0.0	25.0
무응답	(1)	0.0	100.0	0.0	0.0
학업성적					
잘함	(70)	5.7	25.7	44.3	15.7
중간	(108)	8.3	25.0	44.4	13.0
못함	(99)	15.2	13.1	37.4	24.2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40)	12.5	20.0	47.5	7.5
중	(210)	9.0	21.0	41.4	19.5
하	(26)	15.4	23.1	38.5	19.2
무응답	(1)	0.0	0.0	0.0	0.0

[표 9-4-1] 나는 선생님께서로부터 치욕적인 대우나 구타를 받은 적이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없다	있다
전 체		(6,359)	93.6	6.4
성별	남자	(3,263)	92.6	7.4
	여자	(3,096)	94.7	5.3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97.4	2.6
	초등학교 5학년	(1,044)	96.3	3.7
	초등학교 6학년	(1,061)	91.7	8.3
	중학교 1학년	(1,061)	91.7	8.3
	중학교 2학년	(1,086)	92.0	8.0
	중학교 3학년	(1,048)	92.9	7.1
지역규모	대도시	(2,532)	92.8	7.2
	중소도시	(3,015)	93.7	6.3
	읍/면	(812)	96.2	3.8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93.9	6.1
	한부모가정	(441)	91.4	8.6
	조손가정	(70)	92.9	7.1
	기타	(97)	90.7	9.3
	무응답	(18)	94.4	5.6
학업성적	잘함	(2,071)	94.3	5.7
	중간	(2,768)	94.5	5.5
	못함	(1,505)	91.1	8.9
	무응답	(15)	100.0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94.0	6.0
	중	(4,749)	93.8	6.2
	하	(211)	87.7	12.3
	무응답	(15)	93.3	6.7

[표 9-4-2] 나는 선생님께서 치욕적인 대우나 구타를 받은 적이 있다.

(단위 : %)

Base=문9-4-1 경험자	사례수 (명)	취학전 (~7세 이하)	초등학교 저학년 (8세~10세)	초등학교 고학년 (11~13세)	중학교 (14세 이상)
전 체	(404)	1.7	29.0	41.8	21.5
성별					
남자	(240)	1.7	30.0	41.3	20.8
여자	(164)	1.8	27.4	42.7	22.6
학년					
초등학교 4학년	(28)	0.0	67.9	17.9	0.0
초등학교 5학년	(39)	0.0	59.0	41.0	0.0
초등학교 6학년	(88)	2.3	28.4	65.9	0.0
중학교 1학년	(88)	3.4	27.3	44.3	18.2
중학교 2학년	(87)	0.0	18.4	33.3	43.7
중학교 3학년	(74)	2.7	13.5	29.7	44.6
지역규모					
대도시	(182)	1.1	30.2	46.7	15.9
중소도시	(191)	2.1	28.3	36.6	27.2
읍/면	(31)	3.2	25.8	45.2	19.4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351)	2.0	29.3	40.2	21.9
한부모가정	(38)	0.0	23.7	52.6	23.7
조손가정	(5)	0.0	40.0	40.0	0.0
기타	(9)	0.0	22.2	66.7	11.1
무응답	(1)	0.0	100.0	0.0	0.0
학업성적					
잘함	(119)	0.0	37.0	42.0	19.3
중간	(151)	2.6	30.5	43.0	18.5
못함	(134)	2.2	20.1	40.3	26.9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83)	1.2	38.6	37.3	13.3
중	(294)	1.7	27.2	43.2	22.4
하	(26)	3.8	19.2	42.3	34.6
무응답	(1)	0.0	0.0	0.0	100.0

[표 9-5-1] 나는 친구 부모님이나 이웃 어른들로부터 심하게 야단맞은 기억이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없다	있다
전 체	(6,359)	94.4	5.6
성별			
남자	(3,263)	94.5	5.5
여자	(3,096)	94.3	5.7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94.8	5.2
초등학교 5학년	(1,044)	94.8	5.2
초등학교 6학년	(1,061)	95.1	4.9
중학교 1학년	(1,061)	93.4	6.6
중학교 2학년	(1,086)	94.7	5.3
중학교 3학년	(1,048)	93.7	6.3
지역규모			
대도시	(2,532)	93.7	6.3
중소도시	(3,015)	95.1	4.9
읍/면	(812)	94.3	5.7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94.8	5.2
한부모가정	(441)	89.6	10.4
조손가정	(70)	91.4	8.6
기타	(97)	94.8	5.2
무응답	(18)	94.4	5.6
학업성적			
잘함	(2,071)	96.3	3.7
중간	(2,768)	94.4	5.6
못함	(1,505)	91.8	8.2
무응답	(15)	100.0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95.5	4.5
중	(4,749)	94.4	5.6
하	(211)	86.3	13.7
무응답	(15)	100.0	0.0

[표 9-5-2] 나는 친구 부모님이나 이웃 어른들로부터 심하게 야단맞은 기억이 있다.

(단위 : %)

Base=문9-5-1 경험자	사례수 (명)	취학전 (~7세 이하)	초등학교 저학년 (8세~10세)	초등학교 고학년 (11~13세)	중학교 (14세 이상)
전 체	(355)	9.3	28.5	38.9	14.4
성별					
남자	(180)	8.9	30.6	38.3	10.6
여자	(175)	9.7	26.3	39.4	18.3
학년					
초등학교 4학년	(55)	10.9	61.8	10.9	0.0
초등학교 5학년	(54)	11.1	37.0	50.0	0.0
초등학교 6학년	(52)	17.3	21.2	55.8	0.0
중학교 1학년	(70)	11.4	17.1	47.1	15.7
중학교 2학년	(58)	3.4	20.7	41.4	24.1
중학교 3학년	(66)	3.0	18.2	28.8	39.4
지역규모					
대도시	(160)	8.1	30.0	36.3	15.6
중소도시	(149)	10.7	26.8	39.6	15.4
읍/면	(46)	8.7	28.3	45.7	6.5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297)	8.8	28.6	39.1	13.5
한부모가정	(46)	10.9	23.9	41.3	19.6
조손가정	(6)	16.7	66.7	0.0	16.7
기타	(5)	20.0	0.0	60.0	20.0
무응답	(1)	0.0	100.0	0.0	0.0
학업성적					
잘함	(76)	14.5	32.9	39.5	9.2
중간	(156)	9.6	33.3	35.3	12.8
못함	(123)	5.7	19.5	43.1	19.5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62)	11.3	41.9	30.6	4.8
중	(264)	9.1	25.8	40.2	15.9
하	(29)	6.9	24.1	44.8	20.7

[표 9-6-1] 나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한 적이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없다	있다
전 체		(6,359)	82.9	17.1
성별				
	남자	(3,263)	79.7	20.3
	여자	(3,096)	86.3	13.7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79.7	20.3
	초등학교 5학년	(1,044)	81.4	18.6
	초등학교 6학년	(1,061)	82.3	17.7
	중학교 1학년	(1,061)	82.6	17.4
	중학교 2학년	(1,086)	86.2	13.8
	중학교 3학년	(1,048)	85.2	14.8
지역규모				
	대도시	(2,532)	81.7	18.3
	중소도시	(3,015)	83.5	16.5
	읍/면	(812)	84.4	15.6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83.3	16.7
	한부모가정	(441)	79.4	20.6
	조손가정	(70)	71.4	28.6
	기타	(97)	83.5	16.5
	무응답	(18)	72.2	27.8
학업성적				
	잘함	(2,071)	83.6	16.4
	중간	(2,768)	82.7	17.3
	못함	(1,505)	82.3	17.7
	무응답	(15)	80.0	2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82.2	17.8
	중	(4,749)	83.3	16.7
	하	(211)	79.1	20.9
	무응답	(15)	80.0	20.0

[표 9-6-2] 나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한 적이 있다.

(단위 : %)

Base=문9-6-1 경험자	사례수 (명)	취학전 (~7세 이하)	초등학교 저학년 (8세~10세)	초등학교 고학년 (11~13세)	중학교 (14세 이상)
전 체	(1,087)	44.0	27.8	17.1	3.2
성별					
남자	(662)	40.2	32.0	17.7	2.6
여자	(425)	49.9	21.2	16.2	4.2
학년					
초등학교 4학년	(215)	55.8	33.5	0.9	0.0
초등학교 5학년	(194)	51.5	27.3	12.4	0.0
초등학교 6학년	(188)	43.6	26.1	22.3	0.0
중학교 1학년	(185)	33.5	28.1	28.6	1.6
중학교 2학년	(150)	34.7	21.3	28.0	8.7
중학교 3학년	(155)	40.0	28.4	14.8	12.3
지역규모					
대도시	(463)	44.9	28.7	14.9	3.2
중소도시	(497)	41.9	26.0	20.7	3.8
읍/면	(127)	48.8	31.5	11.0	0.8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955)	44.5	27.5	16.8	3.4
한부모가정	(91)	40.7	26.4	22.0	3.3
조손가정	(20)	35.0	40.0	10.0	0.0
기타	(16)	43.8	37.5	12.5	0.0
무응답	(5)	40.0	20.0	40.0	0.0
학업성적					
잘함	(339)	50.4	25.4	14.5	2.1
중간	(478)	45.4	27.6	15.7	3.8
못함	(267)	33.7	31.1	22.5	3.7
무응답	(3)	0.0	33.3	66.7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246)	49.2	27.6	12.6	1.6
중	(794)	42.7	28.1	18.0	3.5
하	(44)	38.6	22.7	25.0	6.8
무응답	(3)	33.3	33.3	33.3	0.0

[표 9-7-1] 나는 가출한 적이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없다	있다
전 체	(6,359)	94.0	6.0
성별			
남자	(3,263)	92.6	7.4
여자	(3,096)	95.5	4.5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97.5	2.5
초등학교 5학년	(1,044)	97.3	2.7
초등학교 6학년	(1,061)	93.2	6.8
중학교 1학년	(1,061)	91.7	8.3
중학교 2학년	(1,086)	92.5	7.5
중학교 3학년	(1,048)	91.9	8.1
지역규모			
대도시	(2,532)	94.0	6.0
중소도시	(3,015)	93.9	6.1
읍/면	(812)	94.5	5.5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94.5	5.5
한부모가정	(441)	88.9	11.1
조손가정	(70)	92.9	7.1
기타	(97)	91.8	8.2
무응답	(18)	88.9	11.1
학업성적			
잘함	(2,071)	96.4	3.6
중간	(2,768)	94.8	5.2
못함	(1,505)	89.2	10.8
무응답	(15)	93.3	6.7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95.4	4.6
중	(4,749)	94.0	6.0
하	(211)	85.8	14.2
무응답	(15)	93.3	6.7

[표 9-7-2] 나는 가출한 적이 있다.

(단위 : %)

Base=문9-7-1 경험자	사례수 (명)	취학전 (~7세 이하)	초등학교 저학년 (8세~10세)	초등학교 고학년 (11~13세)	중학교 (14세 이상)
전 체	(380)	6.3	16.8	41.1	29.5
성별					
남자	(240)	5.8	20.4	39.2	27.9
여자	(140)	7.1	10.7	44.3	32.1
학년					
초등학교 4학년	(26)	23.1	57.7	7.7	0.0
초등학교 5학년	(28)	17.9	46.4	32.1	0.0
초등학교 6학년	(72)	11.1	9.7	75.0	0.0
중학교 1학년	(88)	3.4	13.6	61.4	15.9
중학교 2학년	(81)	1.2	14.8	27.2	51.9
중학교 3학년	(85)	1.2	5.9	17.6	65.9
지역규모					
대도시	(151)	6.0	15.2	35.8	36.4
중소도시	(184)	6.5	17.9	44.6	25.5
읍/면	(45)	6.7	17.8	44.4	22.2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316)	6.3	16.8	40.5	29.1
한부모가정	(49)	6.1	14.3	44.9	32.7
조손가정	(5)	20.0	20.0	0.0	60.0
기타	(8)	0.0	25.0	62.5	12.5
무응답	(2)	0.0	50.0	50.0	0.0
학업성적					
잘함	(74)	10.8	28.4	41.9	14.9
중간	(143)	8.4	18.9	42.0	26.6
못함	(162)	2.5	9.9	39.5	38.9
무응답	(1)	0.0	0.0	100.0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64)	4.7	29.7	40.6	17.2
중	(285)	6.7	14.0	41.1	31.6
하	(30)	6.7	16.7	40.0	36.7
무응답	(1)	0.0	0.0	100.0	0.0

[표 9-8-1] 나는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없다	있다
전 체		(6,359)	93.2	6.8
성별	남자	(3,263)	89.9	10.1
	여자	(3,096)	96.6	3.4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95.2	4.8
	초등학교 5학년	(1,044)	95.6	4.4
	초등학교 6학년	(1,061)	92.8	7.2
	중학교 1학년	(1,061)	91.3	8.7
	중학교 2학년	(1,086)	92.0	8.0
	중학교 3학년	(1,048)	92.2	7.8
지역규모	대도시	(2,532)	92.8	7.2
	중소도시	(3,015)	93.4	6.6
	읍/면	(812)	93.7	6.3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93.3	6.7
	한부모가정	(441)	90.2	9.8
	조손가정	(70)	92.9	7.1
	기타	(97)	96.9	3.1
	무응답	(18)	100.0	0.0
학업성적	잘함	(2,071)	94.6	5.4
	중간	(2,768)	93.6	6.4
	못함	(1,505)	90.3	9.7
	무응답	(15)	100.0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93.8	6.2
	중	(4,749)	93.2	6.8
	하	(211)	88.6	11.4
	무응답	(15)	100.0	0.0

[표 9-8-2] 나는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단위 : %)

Base=문9-8-1 경험자	사례수 (명)	취학전 (~7세 이하)	초등학교 저학년 (8세~10세)	초등학교 고학년 (11~13세)	중학교 (14세 이상)
전 체	(434)	2.5	18.7	49.1	21.9
성별					
남자	(329)	2.7	21.0	46.8	21.0
여자	(105)	1.9	11.4	56.2	24.8
학년					
초등학교 4학년	(51)	9.8	47.1	31.4	0.0
초등학교 5학년	(46)	6.5	32.6	56.5	0.0
초등학교 6학년	(76)	1.3	21.1	71.1	0.0
중학교 1학년	(92)	0.0	13.0	54.3	20.7
중학교 2학년	(87)	2.3	4.6	46.0	41.4
중학교 3학년	(82)	0.0	12.2	32.9	48.8
지역규모					
대도시	(183)	3.3	17.5	44.3	25.7
중소도시	(200)	1.5	18.0	53.5	21.0
읍/면	(51)	3.9	25.5	49.0	11.8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383)	2.6	18.3	49.1	21.7
한부모가정	(43)	2.3	23.3	48.8	23.3
조손가정	(5)	0.0	20.0	40.0	40.0
기타	(3)	0.0	0.0	66.7	0.0
학업성적					
잘함	(111)	4.5	24.3	51.4	16.2
중간	(177)	2.3	21.5	46.9	20.3
못함	(146)	1.4	11.0	50.0	28.1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86)	5.8	20.9	51.2	16.3
중	(324)	1.9	18.2	47.8	23.5
하	(24)	0.0	16.7	58.3	20.8

[표 9-9-1] 나는 친구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없다	있다
전 체		(6,359)	90.1	9.9
성별	남자	(3,263)	93.9	6.1
	여자	(3,096)	86.1	13.9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95.1	4.9
	초등학교 5학년	(1,044)	92.0	8.0
	초등학교 6학년	(1,061)	89.8	10.2
	중학교 1학년	(1,061)	88.0	12.0
	중학교 2학년	(1,086)	88.6	11.4
	중학교 3학년	(1,048)	87.0	13.0
지역규모	대도시	(2,532)	88.8	11.2
	중소도시	(3,015)	91.3	8.7
	읍/면	(812)	89.5	10.5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90.6	9.4
	한부모가정	(441)	86.2	13.8
	조손가정	(70)	80.0	20.0
	기타	(97)	86.6	13.4
	무응답	(18)	88.9	11.1
학업성적	잘함	(2,071)	92.0	8.0
	중간	(2,768)	90.8	9.2
	못함	(1,505)	86.0	14.0
	무응답	(15)	100.0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92.0	8.0
	중	(4,749)	90.1	9.9
	하	(211)	77.7	22.3
	무응답	(15)	100.0	0.0

[표 9-9-2] 나는 친구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단위 : %)

Base=문9-9-1 경험자	사례수 (명)	취학전 (~7세 이하)	초등학교 저학년 (8세~10세)	초등학교 고학년 (11~13세)	중학교 (14세 이상)
전 체	(630)	1.9	23.5	52.5	14.3
성별					
남자	(199)	2.0	24.6	57.8	8.5
여자	(431)	1.9	23.0	50.1	16.9
학년					
초등학교 4학년	(52)	5.8	69.2	17.3	0.0
초등학교 5학년	(83)	3.6	37.3	54.2	0.0
초등학교 6학년	(108)	0.9	26.9	68.5	0.0
중학교 1학년	(127)	0.8	18.9	63.8	8.7
중학교 2학년	(124)	0.0	8.9	55.6	27.4
중학교 3학년	(136)	2.9	12.5	39.0	33.1
지역규모					
대도시	(283)	2.1	23.3	50.5	16.6
중소도시	(262)	1.9	22.1	56.1	12.2
읍/면	(85)	1.2	28.2	48.2	12.9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40)	1.1	23.1	53.1	14.4
한부모가정	(61)	6.6	23.0	47.5	19.7
조손가정	(14)	14.3	35.7	28.6	0.0
기타	(13)	0.0	23.1	76.9	0.0
무응답	(2)	0.0	50.0	50.0	0.0
학업성적					
잘함	(165)	1.8	30.3	53.9	9.1
중간	(254)	3.1	23.6	52.8	13.0
못함	(211)	0.5	18.0	51.2	19.9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11)	1.8	28.8	61.3	6.3
중	(472)	1.9	23.1	50.4	16.1
하	(47)	2.1	14.9	53.2	14.9

[표 9-10-1] 나는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거나 뺏어본 적이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없다	있다
전 체		(6,359)	92.8	7.2
성별	남자	(3,263)	91.8	8.2
	여자	(3,096)	93.9	6.1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96.8	3.2
	초등학교 5학년	(1,044)	96.3	3.7
	초등학교 6학년	(1,061)	93.5	6.5
	중학교 1학년	(1,061)	91.9	8.1
	중학교 2학년	(1,086)	90.0	10.0
	중학교 3학년	(1,048)	88.5	11.5
지역규모	대도시	(2,532)	92.9	7.1
	중소도시	(3,015)	92.8	7.2
	읍/면	(812)	92.5	7.5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93.0	7.0
	한부모가정	(441)	89.1	10.9
	조손가정	(70)	91.4	8.6
	기타	(97)	95.9	4.1
	무응답	(18)	94.4	5.6
학업성적	잘함	(2,071)	94.8	5.2
	중간	(2,768)	94.1	5.9
	못함	(1,505)	87.6	12.4
	무응답	(15)	100.0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94.9	5.1
	중	(4,749)	92.7	7.3
	하	(211)	81.5	18.5
	무응답	(15)	100.0	0.0

[표 9-10-2] 나는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거나 뺏어본 적이 있다.

(단위 : %)

Base=문9-10-1 경험자	사례수 (명)	취학전 (~7세 이하)	초등학교 저학년 (8세~10세)	초등학교 고학년 (11~13세)	중학교 (14세 이상)
전 체	(458)	10.0	31.0	34.5	17.9
성별					
남자	(268)	9.3	31.0	34.0	19.8
여자	(190)	11.1	31.1	35.3	15.3
학년					
초등학교 4학년	(34)	23.5	61.8	5.9	0.0
초등학교 5학년	(39)	12.8	35.9	46.2	0.0
초등학교 6학년	(69)	17.4	40.6	37.7	0.0
중학교 1학년	(86)	8.1	25.6	47.7	14.0
중학교 2학년	(109)	6.4	24.8	38.5	25.7
중학교 3학년	(121)	5.8	24.8	24.0	34.7
지역규모					
대도시	(179)	8.9	26.8	34.1	23.5
중소도시	(218)	10.6	35.3	33.0	15.6
읍/면	(61)	11.5	27.9	41.0	9.8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399)	10.0	31.8	33.1	17.8
한부모가정	(48)	4.2	29.2	43.8	20.8
조손가정	(6)	50.0	16.7	33.3	0.0
기타	(4)	0.0	0.0	75.0	25.0
무응답	(1)	100.0	0.0	0.0	0.0
학업성적					
잘함	(108)	9.3	41.7	31.5	17.6
중간	(164)	13.4	32.3	31.1	15.2
못함	(186)	7.5	23.7	39.2	20.4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71)	9.9	38.0	35.2	12.7
중	(348)	9.8	27.6	35.3	19.8
하	(39)	12.8	48.7	25.6	10.3

[표 9-11-1] 나는 경찰로부터 훈계를 받거나 경찰서에 잡혀가본 적이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없다	있다
전 체		(6,359)	97.9	2.1
성별	남자	(3,263)	97.3	2.7
	여자	(3,096)	98.6	1.4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99.2	0.8
	초등학교 5학년	(1,044)	99.5	0.5
	초등학교 6학년	(1,061)	99.3	0.7
	중학교 1학년	(1,061)	98.4	1.6
	중학교 2학년	(1,086)	95.7	4.3
	중학교 3학년	(1,048)	95.6	4.4
지역규모	대도시	(2,532)	97.5	2.5
	중소도시	(3,015)	98.2	1.8
	읍/면	(812)	98.3	1.7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98.1	1.9
	한부모가정	(441)	95.7	4.3
	조손가정	(70)	100.0	0.0
	기타	(97)	97.9	2.1
	무응답	(18)	94.4	5.6
학업성적	잘함	(2,071)	99.0	1.0
	중간	(2,768)	98.4	1.6
	못함	(1,505)	95.5	4.5
	무응답	(15)	100.0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98.6	1.4
	중	(4,749)	97.9	2.1
	하	(211)	93.8	6.2
	무응답	(15)	100.0	0.0

[표 9-11-2] 나는 경찰로부터 훈계를 받거나 경찰서에 잡혀가본 적이 있다.

(단위 : %)

Base=문9-11-1 경험자	사례수 (명)	취학전 (~7세 이하)	초등학교 저학년 (8세~10세)	초등학교 고학년 (11~13세)	중학교 (14세 이상)
전 체	(131)	1.5	6.1	35.1	51.9
성별					
남자	(87)	1.1	9.2	34.5	49.4
여자	(44)	2.3	0.0	36.4	56.8
학년					
초등학교 4학년	(9)	11.1	66.7	11.1	0.0
초등학교 5학년	(5)	0.0	20.0	80.0	0.0
초등학교 6학년	(7)	0.0	14.3	85.7	0.0
중학교 1학년	(17)	5.9	0.0	47.1	29.4
중학교 2학년	(47)	0.0	0.0	44.7	51.1
중학교 3학년	(46)	0.0	0.0	13.0	84.8
지역규모					
대도시	(63)	1.6	6.3	31.7	57.1
중소도시	(54)	1.9	5.6	38.9	48.1
읍/면	(14)	0.0	7.1	35.7	42.9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109)	1.8	6.4	33.9	52.3
한부모가정	(19)	0.0	5.3	42.1	47.4
기타	(2)	0.0	0.0	0.0	100.0
무응답	(1)	0.0	0.0	100.0	0.0
학업성적					
잘함	(20)	0.0	15.0	40.0	40.0
중간	(43)	2.3	7.0	27.9	55.8
못함	(68)	1.5	2.9	38.2	52.9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20)	0.0	5.0	45.0	40.0
중	(98)	2.0	6.1	31.6	55.1
하	(13)	0.0	7.7	46.2	46.2

[표 9-12-1]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심한 협박에 시달린 적이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없다	있다
전 체	(6,359)	97.6	2.4
성별			
남자	(3,263)	97.7	2.3
여자	(3,096)	97.5	2.5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98.0	2.0
초등학교 5학년	(1,044)	98.6	1.4
초등학교 6학년	(1,061)	97.3	2.7
중학교 1학년	(1,061)	97.3	2.7
중학교 2학년	(1,086)	97.4	2.6
중학교 3학년	(1,048)	97.1	2.9
지역규모			
대도시	(2,532)	97.1	2.9
중소도시	(3,015)	97.9	2.1
읍/면	(812)	97.9	2.1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97.7	2.3
한부모가정	(441)	96.8	3.2
조손가정	(70)	95.7	4.3
기타	(97)	97.9	2.1
무응답	(18)	100.0	0.0
학업성적			
잘함	(2,071)	98.4	1.6
중간	(2,768)	97.8	2.2
못함	(1,505)	96.1	3.9
무응답	(15)	100.0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98.3	1.7
중	(4,749)	97.6	2.4
하	(211)	93.4	6.6
무응답	(15)	100.0	0.0

[표 9-12-2]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심한 협박에 시달린 적이 있다.

(단위 : %)

Base=문9-12-1 경험자	사례수 (명)	취학전 (~7세 이하)	초등학교 저학년 (8세~10세)	초등학교 고학년 (11~13세)	중학교 (14세 이상)
전 체	(152)	0.7	21.1	50.7	19.1
성별					
남자	(76)	1.3	25.0	48.7	18.4
여자	(76)	0.0	17.1	52.6	19.7
학년					
초등학교 4학년	(21)	0.0	52.4	38.1	0.0
초등학교 5학년	(15)	0.0	40.0	53.3	0.0
초등학교 6학년	(29)	0.0	17.2	79.3	0.0
중학교 1학년	(29)	0.0	17.2	62.1	10.3
중학교 2학년	(28)	3.6	7.1	46.4	32.1
중학교 3학년	(30)	0.0	10.0	23.3	56.7
지역규모					
대도시	(73)	0.0	20.5	47.9	26.0
중소도시	(62)	0.0	19.4	56.5	12.9
읍/면	(17)	5.9	29.4	41.2	11.8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133)	0.8	18.8	52.6	18.0
한부모가정	(14)	0.0	28.6	35.7	35.7
조손가정	(3)	0.0	66.7	33.3	0.0
기타	(2)	0.0	50.0	50.0	0.0
학업성적					
잘함	(34)	0.0	32.4	55.9	11.8
중간	(60)	0.0	18.3	48.3	21.7
못함	(58)	1.7	17.2	50.0	20.7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23)	0.0	21.7	56.5	4.3
중	(115)	0.9	21.7	49.6	21.7
하	(14)	0.0	14.3	50.0	21.4

[표 9-13-1]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없다	있다
전 체	(6,359)	97.1	2.9
성별			
남자	(3,263)	95.8	4.2
여자	(3,096)	98.5	1.5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96.9	3.1
초등학교 5학년	(1,044)	97.4	2.6
초등학교 6학년	(1,061)	97.1	2.9
중학교 1학년	(1,061)	97.4	2.6
중학교 2학년	(1,086)	97.3	2.7
중학교 3학년	(1,048)	96.6	3.4
지역규모			
대도시	(2,532)	97.2	2.8
중소도시	(3,015)	97.0	3.0
읍/면	(812)	96.9	3.1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97.3	2.7
한부모가정	(441)	95.7	4.3
조손가정	(70)	91.4	8.6
기타	(97)	95.9	4.1
무응답	(18)	100.0	0.0
학업성적			
잘함	(2,071)	97.8	2.2
중간	(2,768)	97.1	2.9
못함	(1,505)	96.1	3.9
무응답	(15)	100.0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97.0	3.0
중	(4,749)	97.3	2.7
하	(211)	91.9	8.1
무응답	(15)	100.0	0.0

[표 9-13-2]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있다.

(단위 : %)

Base=문9-13-1 경험자	사례수 (명)	취학전 (~7세 이하)	초등학교 저학년 (8세~10세)	초등학교 고학년 (11~13세)	중학교 (14세 이상)
전 체	(184)	2.2	22.8	45.7	15.8
성별					
남자	(138)	1.4	24.6	44.9	15.9
여자	(46)	4.3	17.4	47.8	15.2
학년					
초등학교 4학년	(33)	6.1	57.6	18.2	0.0
초등학교 5학년	(27)	0.0	37.0	59.3	0.0
초등학교 6학년	(31)	3.2	12.9	74.2	0.0
중학교 1학년	(28)	0.0	10.7	53.6	17.9
중학교 2학년	(29)	0.0	6.9	51.7	27.6
중학교 3학년	(36)	2.8	11.1	25.0	44.4
지역규모					
대도시	(70)	4.3	25.7	40.0	15.7
중소도시	(89)	1.1	19.1	48.3	18.0
읍/면	(25)	0.0	28.0	52.0	8.0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155)	2.6	24.5	41.9	15.5
한부모가정	(19)	0.0	10.5	63.2	26.3
조손가정	(6)	0.0	33.3	50.0	0.0
기타	(4)	0.0	0.0	100.0	0.0
학업성적					
잘함	(45)	2.2	28.9	44.4	17.8
중간	(80)	2.5	22.5	48.8	11.3
못함	(59)	1.7	18.6	42.4	20.3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41)	4.9	36.6	39.0	4.9
중	(126)	1.6	19.0	46.8	18.3
하	(17)	0.0	17.6	52.9	23.5

[표 9-14-1]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없다	있다
전 체		(6,359)	97.6	2.4
성별	남자	(3,263)	98.8	1.2
	여자	(3,096)	96.3	3.7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99.2	0.8
	초등학교 5학년	(1,044)	98.6	1.4
	초등학교 6학년	(1,061)	98.1	1.9
	중학교 1학년	(1,061)	97.9	2.1
	중학교 2학년	(1,086)	96.1	3.9
	중학교 3학년	(1,048)	95.7	4.3
지역규모	대도시	(2,532)	97.2	2.8
	중소도시	(3,015)	98.0	2.0
	읍/면	(812)	97.3	2.7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97.6	2.4
	한부모가정	(441)	97.3	2.7
	조손가정	(70)	97.1	2.9
	기타	(97)	96.9	3.1
	무응답	(18)	100.0	0.0
학업성적	잘함	(2,071)	97.6	2.4
	중간	(2,768)	98.2	1.8
	못함	(1,505)	96.5	3.5
	무응답	(15)	100.0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98.8	1.2
	중	(4,749)	97.4	2.6
	하	(211)	93.8	6.2
	무응답	(15)	100.0	0.0

[표 9-14-2]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단위 : %)

Base=문9-14-1 경험자	사례수 (명)	취학전 (~7세 이하)	초등학교 저학년 (8세~10세)	초등학교 고학년 (11~13세)	중학교 (14세 이상)
전 체	(153)	9.8	20.3	37.9	23.5
성별					
남자	(38)	7.9	10.5	44.7	21.1
여자	(115)	10.4	23.5	35.7	24.3
학년					
초등학교 4학년	(9)	11.1	22.2	44.4	0.0
초등학교 5학년	(15)	20.0	13.3	60.0	0.0
초등학교 6학년	(20)	15.0	15.0	70.0	0.0
중학교 1학년	(22)	0.0	27.3	36.4	27.3
중학교 2학년	(42)	4.8	14.3	35.7	35.7
중학교 3학년	(45)	13.3	26.7	17.8	33.3
지역규모					
대도시	(72)	13.9	18.1	40.3	22.2
중소도시	(59)	6.8	25.4	30.5	28.8
읍/면	(22)	4.5	13.6	50.0	13.6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136)	9.6	19.9	37.5	25.0
한부모가정	(12)	16.7	33.3	33.3	16.7
조손가정	(2)	0.0	0.0	0.0	0.0
기타	(3)	0.0	0.0	100.0	0.0
학업성적					
잘함	(49)	12.2	20.4	44.9	18.4
중간	(51)	13.7	19.6	35.3	21.6
못함	(53)	3.8	20.8	34.0	30.2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7)	23.5	11.8	29.4	29.4
중	(123)	7.3	21.1	40.7	22.0
하	(13)	15.4	23.1	23.1	30.8

[표 9-15-1] 나는 무단결석을 한 적이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없다	있다
전 체	(6,359)	95.1	4.9
성별			
남자	(3,263)	94.9	5.1
여자	(3,096)	95.3	4.7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97.8	2.2
초등학교 5학년	(1,044)	97.8	2.2
초등학교 6학년	(1,061)	96.4	3.6
중학교 1학년	(1,061)	94.8	5.2
중학교 2학년	(1,086)	92.8	7.2
중학교 3학년	(1,048)	90.9	9.1
지역규모			
대도시	(2,532)	94.3	5.7
중소도시	(3,015)	95.5	4.5
읍/면	(812)	96.2	3.8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95.6	4.4
한부모가정	(441)	89.1	10.9
조손가정	(70)	92.9	7.1
기타	(97)	95.9	4.1
무응답	(18)	94.4	5.6
학업성적			
잘함	(2,071)	97.8	2.2
중간	(2,768)	96.1	3.9
못함	(1,505)	89.7	10.3
무응답	(15)	86.7	13.3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97.3	2.7
중	(4,749)	94.9	5.1
하	(211)	85.8	14.2
무응답	(15)	93.3	6.7

[표 9-15-2] 나는 무단결석을 한 적이 있다.

(단위 : %)

Base=문9-15-1 경험자	사례수 (명)	취학전 (~7세 이하)	초등학교 저학년 (8세~10세)	초등학교 고학년 (11~13세)	중학교 (14세 이상)
전 체	(312)	1.3	16.3	32.1	39.1
성별					
남자	(165)	1.2	19.4	27.3	38.2
여자	(147)	1.4	12.9	37.4	40.1
학년					
초등학교 4학년	(23)	4.3	65.2	17.4	0.0
초등학교 5학년	(23)	0.0	47.8	39.1	0.0
초등학교 6학년	(38)	5.3	31.6	57.9	0.0
중학교 1학년	(55)	0.0	12.7	52.7	29.1
중학교 2학년	(78)	1.3	2.6	25.6	56.4
중학교 3학년	(95)	0.0	4.2	16.8	65.3
지역규모					
대도시	(145)	0.7	13.8	31.0	43.4
중소도시	(136)	1.5	17.6	34.6	37.5
읍/면	(31)	3.2	22.6	25.8	25.8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254)	1.2	17.7	30.7	39.4
한부모가정	(48)	2.1	12.5	39.6	37.5
조손가정	(5)	0.0	0.0	60.0	20.0
기타	(4)	0.0	0.0	0.0	75.0
무응답	(1)	0.0	0.0	0.0	0.0
학업성적					
잘함	(46)	2.2	41.3	28.3	19.6
중간	(109)	1.8	19.3	32.1	34.9
못함	(155)	0.6	7.1	33.5	47.7
무응답	(2)	0.0	0.0	0.0	5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38)	5.3	18.4	31.6	28.9
중	(243)	0.8	16.5	31.7	40.3
하	(30)	0.0	13.3	36.7	43.3
무응답	(1)	0.0	0.0	0.0	0.0

[표 9-16-1] 나는 학교에서 정학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없다	있다
전 체	(6,359)	99.5	0.5
성별			
남자	(3,263)	99.3	0.7
여자	(3,096)	99.7	0.3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99.5	0.5
초등학교 5학년	(1,044)	99.8	0.2
초등학교 6학년	(1,061)	99.9	0.1
중학교 1학년	(1,061)	99.6	0.4
중학교 2학년	(1,086)	99.4	0.6
중학교 3학년	(1,048)	98.6	1.4
지역규모			
대도시	(2,532)	99.4	0.6
중소도시	(3,015)	99.5	0.5
읍/면	(812)	99.6	0.4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99.5	0.5
한부모가정	(441)	99.3	0.7
조손가정	(70)	100.0	0.0
기타	(97)	99.0	1.0
무응답	(18)	100.0	0.0
학업성적			
잘함	(2,071)	99.9	0.1
중간	(2,768)	99.4	0.6
못함	(1,505)	99.1	0.9
무응답	(15)	100.0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99.5	0.5
중	(4,749)	99.5	0.5
하	(211)	99.1	0.9
무응답	(15)	93.3	6.7

[표 9-16-2] 나는 학교에서 정학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단위 : %)

Base=문9-16-1 경험자	사례수 (명)	초등학교 저학년 (8세~10세)	초등학교 고학년 (11~13세)	중학교 (14세 이상)
전 체	(33)	3.0	24.2	45.5
성별				
남자	(24)	0.0	33.3	37.5
여자	(9)	11.1	0.0	66.7
학년				
초등학교 4학년	(5)	0.0	40.0	0.0
초등학교 5학년	(2)	0.0	50.0	0.0
초등학교 6학년	(1)	0.0	100.0	0.0
중학교 1학년	(4)	0.0	50.0	25.0
중학교 2학년	(6)	16.7	0.0	33.3
중학교 3학년	(15)	0.0	13.3	80.0
지역규모				
대도시	(14)	0.0	28.6	50.0
중소도시	(16)	6.3	25.0	50.0
읍/면	(3)	0.0	0.0	0.0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29)	3.4	20.7	44.8
한부모가정	(3)	0.0	66.7	33.3
기타	(1)	0.0	0.0	100.0
학업성적				
잘함	(3)	0.0	33.3	33.3
중간	(16)	6.3	25.0	43.8
못함	(14)	0.0	21.4	5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7)	0.0	0.0	57.1
중	(23)	4.3	26.1	43.5
하	(2)	0.0	50.0	50.0
무응답	(1)	0.0	100.0	0.0

[표 9-17-1] 나는 술집과 같은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자주 간다.

(단위 : %)

	사례수 (명)	없다	있다
전 체	(6,359)	99.5	0.5
성별			
남자	(3,263)	99.4	0.6
여자	(3,096)	99.7	0.3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99.4	0.6
초등학교 5학년	(1,044)	99.9	0.1
초등학교 6학년	(1,061)	99.8	0.2
중학교 1학년	(1,061)	99.6	0.4
중학교 2학년	(1,086)	99.2	0.8
중학교 3학년	(1,048)	99.1	0.9
지역규모			
대도시	(2,532)	99.6	0.4
중소도시	(3,015)	99.5	0.5
읍/면	(812)	99.5	0.5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99.5	0.5
한부모가정	(441)	98.9	1.1
조손가정	(70)	100.0	0.0
기타	(97)	100.0	0.0
무응답	(18)	100.0	0.0
학업성적			
잘함	(2,071)	99.7	0.3
중간	(2,768)	99.6	0.4
못함	(1,505)	99.2	0.8
무응답	(15)	100.0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99.3	0.7
중	(4,749)	99.6	0.4
하	(211)	99.5	0.5
무응답	(15)	100.0	0.0

[표 9-17-2] 나는 술집과 같은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자주 간다.

(단위 : %)

Base=문9-17-1 경험자	사례수 (명)	취학전 (~7세 이하)	초등학교 고학년 (11~13세)	중학교 (14세 이상)
전 체	(31)	3.2	12.9	48.4
성별				
남자	(21)	4.8	14.3	42.9
여자	(10)	0.0	10.0	60.0
학년				
초등학교 4학년	(6)	16.7	0.0	0.0
초등학교 5학년	(1)	0.0	0.0	0.0
초등학교 6학년	(2)	0.0	100.0	0.0
중학교 1학년	(4)	0.0	50.0	25.0
중학교 2학년	(9)	0.0	0.0	66.7
중학교 3학년	(9)	0.0	0.0	88.9
지역규모				
대도시	(11)	0.0	9.1	72.7
중소도시	(16)	6.3	18.8	43.8
읍/면	(4)	0.0	0.0	0.0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26)	3.8	11.5	42.3
한부모가정	(5)	0.0	20.0	80.0
학업성적				
잘함	(7)	0.0	0.0	57.1
중간	(12)	0.0	16.7	41.7
못함	(12)	8.3	16.7	5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0)	10.0	10.0	50.0
중	(20)	0.0	15.0	45.0
하	(1)	0.0	0.0	100.0

[표 9-18-1] 나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없다	있다
전 체	(6,359)	94.2	5.8
성별			
남자	(3,263)	96.8	3.2
여자	(3,096)	91.3	8.7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98.0	2.0
초등학교 5학년	(1,044)	95.7	4.3
초등학교 6학년	(1,061)	93.9	6.1
중학교 1학년	(1,061)	92.3	7.7
중학교 2학년	(1,086)	93.1	6.9
중학교 3학년	(1,048)	92.0	8.0
지역규모			
대도시	(2,532)	93.9	6.1
중소도시	(3,015)	94.3	5.7
읍/면	(812)	94.5	5.5
가족유형1			
양부모가정	(5,733)	94.4	5.6
한부모가정	(441)	91.6	8.4
조손가정	(70)	94.3	5.7
기타	(97)	89.7	10.3
무응답	(18)	100.0	0.0
학업성적			
잘함	(2,071)	96.2	3.8
중간	(2,768)	94.3	5.7
못함	(1,505)	91.0	9.0
무응답	(15)	100.0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96.1	3.9
중	(4,749)	94.0	6.0
하	(211)	83.9	16.1
무응답	(15)	100.0	0.0

[표 9-18-2] 나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단위 : %)

Base=문9-18-1 경험자	사례수 (명)	취학전 (~7세 이하)	초등학교 저학년 (8세~10세)	초등학교 고학년 (11~13세)	중학교 (14세 이상)
전 체	(372)	0.3	6.5	47.6	33.3
성별					
남자	(104)	1.0	8.7	50.0	28.8
여자	(268)	0.0	5.6	46.6	35.1
학년					
초등학교 4학년	(21)	0.0	23.8	42.9	0.0
초등학교 5학년	(45)	0.0	17.8	73.3	0.0
초등학교 6학년	(65)	1.5	3.1	87.7	0.0
중학교 1학년	(82)	0.0	7.3	52.4	31.7
중학교 2학년	(75)	0.0	2.7	24.0	58.7
중학교 3학년	(84)	0.0	1.2	20.2	64.3
지역규모					
대도시	(154)	0.0	5.8	48.1	37.7
중소도시	(173)	0.0	6.9	48.6	32.9
읍/면	(45)	2.2	6.7	42.2	20.0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321)	0.3	6.5	49.8	31.5
한부모가정	(37)	0.0	8.1	35.1	43.2
조손가정	(4)	0.0	0.0	25.0	50.0
기타	(10)	0.0	0.0	30.0	50.0
학업성적					
잘함	(79)	0.0	10.1	54.4	26.6
중간	(158)	0.6	6.3	52.5	27.2
못함	(135)	0.0	4.4	37.8	44.4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54)	0.0	3.7	64.8	22.2
중	(284)	0.4	6.3	45.8	34.5
하	(34)	0.0	11.8	35.3	41.2

[표 9-19-1] 나는 스스로 폭력게임 중독자라고 생각한다.

(단위 : %)

	사례수 (명)	없다	있다
전 체	(6,359)	97.1	2.9
성별			
남자	(3,263)	94.8	5.2
여자	(3,096)	99.5	0.5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59)	97.6	2.4
초등학교 5학년	(1,044)	98.6	1.4
초등학교 6학년	(1,061)	96.5	3.5
중학교 1학년	(1,061)	95.6	4.4
중학교 2학년	(1,086)	96.5	3.5
중학교 3학년	(1,048)	97.8	2.2
지역규모			
대도시	(2,532)	97.2	2.8
중소도시	(3,015)	97.0	3.0
읍/면	(812)	97.3	2.7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5,733)	97.2	2.8
한부모가정	(441)	95.9	4.1
조손가정	(70)	94.3	5.7
기타	(97)	97.9	2.1
무응답	(18)	94.4	5.6
학업성적			
잘함	(2,071)	97.9	2.1
중간	(2,768)	97.5	2.5
못함	(1,505)	95.2	4.8
무응답	(15)	100.0	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1,384)	97.9	2.1
중	(4,749)	97.1	2.9
하	(211)	92.4	7.6
무응답	(15)	100.0	0.0

[표 9-19-2] 나는 스스로 폭력게임 중독자라고 생각한다.

(단위 : %)

Base=문9-19-1 경험자	사례수 (명)	취학전 (~7세 이하)	초등학교 저학년 (8세~10세)	초등학교 고학년 (11~13세)	중학교 (14세 이상)
전 체	(185)	1.1	9.7	44.9	35.7
성별					
남자	(169)	0.6	9.5	45.6	35.5
여자	(16)	6.3	12.5	37.5	37.5
학년					
초등학교 4학년	(25)	8.0	28.0	44.0	0.0
초등학교 5학년	(15)	0.0	13.3	86.7	0.0
초등학교 6학년	(37)	0.0	8.1	86.5	0.0
중학교 1학년	(47)	0.0	8.5	44.7	40.4
중학교 2학년	(38)	0.0	5.3	5.3	73.7
중학교 3학년	(23)	0.0	0.0	17.4	82.6
지역규모					
대도시	(72)	1.4	6.9	50.0	37.5
중소도시	(91)	1.1	8.8	44.0	36.3
읍/면	(22)	0.0	22.7	31.8	27.3
가족유형 ¹					
양부모가정	(160)	1.3	8.8	46.9	34.4
한부모가정	(18)	0.0	5.6	33.3	55.6
조손가정	(4)	0.0	50.0	0.0	25.0
기타	(2)	0.0	50.0	50.0	0.0
무응답	(1)	0.0	0.0	100.0	0.0
학업성적					
잘함	(44)	0.0	11.4	47.7	34.1
중간	(69)	2.9	8.7	42.0	36.2
못함	(72)	0.0	9.7	45.8	36.1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29)	0.0	10.3	44.8	34.5
중	(140)	1.4	8.6	45.7	35.7
하	(16)	0.0	18.8	37.5	37.5

부 록 3

3. 청소년 문제행동 카이검증표

[표 1-1] 부모 폭력경험에 대한 카이검증표

구분		교사폭력			가출경험			가해경험			왕따경험		
		없다	있다	ρ	없다	있다	ρ	없다	있다	ρ	없다	있다	ρ
초등학교	없다	95.7	4.3	.000	96.4	3.6	.000	95.0	5.0	.000	92.9	7.1	.000
	있다	74.5	25.5		81.9	18.1		80.9	19.1		73.4	26.6	
중학교	없다	93.0	7.0	.000	93.2	6.8	.000	92.8	7.2	.000	89.1	10.9	.000
	있다	79.8	20.2		73.2	26.8		75.4	24.6		68.3	31.7	
전체	없다	94.4	5.6	.000	94.8	5.2	.000	93.9	6.1	.000	91.0	9.0	.000
	있다	78.0	22.0		76.2	23.8		77.3	22.7		70.0	30.0	

[표 1-2] 부모 폭력경험에 대한 카이검증표

구분		금품갈취			협박경험			구타경험			성추행경험		
		없다	있다	ρ	없다	있다	ρ	없다	있다	ρ	없다	있다	ρ
초등학교	없다	95.9	4.1	.000	98.1	1.9	.001	97.6	2.4	.000	98.7	1.3	.040
	있다	81.9	18.1		91.5	8.5		81.9	18.1		95.7	4.3	
중학교	없다	91.3	8.7	.000	97.7	2.3	.000	97.6	2.4	.000	97.0	3.0	.000
	있다	71.0	29.0		89.6	10.4		88.0	12.0		89.6	10.4	
전체	없다	93.6	6.4	.000	97.9	2.1	.000	97.6	2.4	.000	97.9	2.1	.000
	있다	74.7	25.3		90.3	9.7		85.9	14.1		91.7	8.3	

[표 1-3] 부모 폭력경험에 대한 카이검증표

구분		무단결석경험			유해장소출입경험			자살시도경험			게임중독경험		
		없다	있다	ρ	없다	있다	ρ	없다	있다	ρ	없다	있다	ρ
초등학교	없다	97.6	2.4	.000	99.8	.2%	.002	96.3	3.7	.000	97.8	2.2	.000
	있다	88.3	11.7		96.8	3.2		80.9	19.1		89.4	10.6	
중학교	없다	93.7	6.3	.000	99.5	.5%	.000	93.7	6.3	.000	96.9	3.1	.000
	있다	78.7	21.3		96.2	3.8		72.1	27.9		91.3	8.7	
전체	없다	95.7	4.3	.000	99.7	.3%	.000	95.0	5.0	.000	97.4	2.6	.000
	있다	81.9	18.1		96.4	3.6		75.1	24.9		90.6	9.4	

[표 2-1] 교사 폭력경험에 대한 카이검증표

구분		가출경험			가해경험			왕따경험		
		없다	있다	p	없다	있다	p	없다	있다	p
초등학교	없다	96.7	3.3	.000	95.4	4.6	.000	93.0	7.0	.000
	있다	83.2	16.8		78.1	21.9		78.7	21.3	
중학교	없다	93.1	6.9	.000	93.2	6.8	.000	88.9	11.1	.000
	있다	79.1	20.9		75.9	24.1		75.5	24.5	
전체	없다	94.9	5.1	.000	94.3	5.7	.000	91.0	9.0	.000
	있다	80.7	19.3		76.7	23.3		76.7	23.3	

[표 2-2] 교사 폭력경험에 대한 카이검증표

구분		금품갈취			협박경험			피해경험			성추행경험		
		없다	있다	p	없다	있다	p	없다	있다	p	없다	있다	p
초등학교	없다	96.0	4.0	.000	98.3	1.7	.000	97.6	2.4	.000	98.8	1.2	.000
	있다	85.2	14.8		91.6	8.4		87.7	12.3		94.2	5.8	
중학교	없다	91.0	9.0	.000	97.8	2.2	.000	97.7	2.3	.000	97.1	2.9	.000
	있다	79.1	20.9		90.8	9.2		90.0	10.0		90.0	10.0	
전체	없다	93.6	6.4	.000	98.1	1.9	.000	97.6	2.4	.000	98.0	2.0	.000
	있다	81.4	18.6		91.1	8.9		89.1	10.9		91.6	8.4	

[표 2-3] 교사 폭력경험에 대한 카이검증표

구분		무단결석경험			유해장소출입경험			자살시도경험			게임중독경험		
		없다	있다	p	없다	있다	p	없다	있다	p	없다	있다	p
초등학교	없다	97.6	2.4	.001	99.8	.2	.001	96.3	3.7	.000	97.7	2.3	.012
	있다	92.3	7.7		97.4	2.6		87.1	12.9		94.2	5.8	
중학교	없다	93.8	6.2	.000	99.6	.4	.000	93.7	6.3	.000	97.0	3.0	.000
	있다	81.5	18.5		95.6	4.4		78.3	21.7		92.0	8.0	
전체	없다	95.7	4.3	.000	99.7	.3	.000	95.0	5.0	.000	97.4	2.6	.000
	있다	85.6	14.4		96.3	3.7		81.7	18.3		92.8	7.2	

[표 3-1] 가해 경험에 대한 카이검증표

구분		가출경험			왕따경험			금품갈취경험		
		없다	있다	p	없다	있다	p	없다	있다	p
초등학교	없다	97.2	2.8	.000	93.0	7.0	.000	96.5	3.5	.000
	있다	76.3	23.7		80.9	19.1		79.2	20.8	
중학교	없다	93.9	6.1	.000	88.8	11.2	.000	92.2	7.8	.000
	있다	71.3	28.7		77.8	22.2		66.7	33.3	
전체	없다	95.5	4.5	.000	90.9	9.1	.000	94.3	5.7	.000
	있다	73.3	26.7		79.0	21.0		71.7	28.3	

[표 3-2] 가해 경험에 대한 카이검증표

구분		협박경험			피해경험			성추행경험		
		없다	있다	p	없다	있다	p	없다	있다	p
초등학교	없다	98.3	1.7	.000	98.0	2.0	.000	98.9	1.1	.000
	있다	92.5	7.5		82.7	17.3		93.6	6.4	
중학교	없다	97.9	2.1	.000	98.1	1.9	.000	97.0	3.0	.000
	있다	90.0	10.0		85.4	14.6		91.6	8.4	
전체	없다	98.1	1.9	.000	98.0	2.0	.000	98.0	2.0	.000
	있다	91.0	9.0		84.3	15.7		92.4	7.6	

[표 3-3] 가해 경험에 대한 카이검증표

구분		무단결석경험			유해장소출입경험			자살시도경험			게임중독경험		
		없다	있다	p	없다	있다	p	없다	있다	p	없다	있다	p
초등학교	없다	97.7	2.3	.000	99.9	.1%	.000	96.4	3.6	.000	98.3	1.7	.000
	있다	90.8	9.2		96.0	4.0		87.3	12.7		85.5	14.5	
중학교	없다	94.4	5.6	.000	99.7	.3%	.000	93.6	6.4	.000	97.1	2.9	.000
	있다	75.9	24.1		94.6	5.4		79.7	20.3		90.8	9.2	
전체	없다	96.1	3.9	.000	99.8	.2%	.000	95.0	5.0	.000	97.7	2.3	.000
	있다	81.8	18.2		95.2	4.8		82.7	17.3		88.7	11.3	

[표 4-1] 피해 경험에 대한 카이검증표

구분		가해경험			가출경험			왕따경험		
		없다	있다	<i>p</i>	없다	있다	<i>p</i>	없다	있다	<i>p</i>
초등학교	없다	95.3	4.7	.000	96.5	3.5	.000	93.0	7.0	.000
	있다	67.0	33.0		80.2	19.8		68.1	31.9	
중학교	없다	92.8	7.2	.000	92.7	7.3	.000	89.0	11.0	.000
	있다	59.1	40.9		71.0	29.0		51.6	48.4	
전체	없다	94.1	5.9	.000	94.6	5.4	.000	91.0	9.0	.000
	있다	63.0	37.0		75.5	24.5		59.8	40.2	

[표 4-2] 피해 경험에 대한 카이검증표

구분		금품갈취경험			협박경험			성추행경험		
		없다	있다	<i>p</i>	없다	있다	<i>p</i>	없다	있다	<i>p</i>
초등학교	없다	95.8	4.2	.001	98.5	1.5	.000	98.8	1.2	.000
	있다	86.8	13.2		80.2	19.8		92.3	7.7	
중학교	없다	91.0	9.0	.000	98.0	2.0	.000	96.9	3.1	.000
	있다	59.1	40.9		72.0	28.0		86.0	14.0	
전체	없다	93.4	6.6	.000	98.3	1.7	.000	97.8	2.2	.000
	있다	72.8	27.2		76.1	23.9		89.1	10.9	

[표 4-3] 피해 경험에 대한 카이검증표

구분		무단결석경험			유해장소출입경험			자살시도경험			게임중독경험		
		없다	있다	<i>p</i>	없다	있다	<i>p</i>	없다	있다	<i>p</i>	없다	있다	<i>p</i>
초등학교	없다	97.4	2.6	.092	99.8	.2%	.026	96.1	3.9	.004	97.9	2.1	.000
	있다	94.5	5.5		97.8	2.2		89.0	11.0		86.8	13.2	
중학교	없다	93.4	6.6	.000	99.6	.4%	.000	92.9	7.1	.000	96.7	3.3	.036
	있다	76.3	23.7		90.3	9.7		76.3	23.7		92.5	7.5	
전체	없다	95.4	4.6	.000	99.7	.3%	.000	94.5	5.5	.000	97.3	2.7	.000
	있다	85.3	14.7		94.0	6.0		82.6	17.4		89.7	10.3	

[표 5-1] 왕따 경험에 대한 카이검증표

구분		가해경험			피해경험			가출경험		
		없다	있다	p	없다	있다	p	없다	있다	p
초등학교	없다	95.2	4.8	.000	97.9	2.1	.000	96.6	3.4	.000
	있다	86.4	13.6		88.1	11.9		88.9	11.1	
중학교	없다	92.8	7.2	.000	98.3	1.7	.000	92.9	7.1	.000
	있다	85.0	15.0		88.4	11.6		85.8	14.2	
전체	없다	94.0	6.0	.000	98.1	1.9	.000	94.8	5.2	.000
	있다	85.6	14.4		88.3	11.7		87.0	13.0	

[표 5-2] 왕따 경험에 대한 카이검증표

구분		금품갈취경험			협박경험			성추행경험		
		없다	있다	p	없다	있다	p	없다	있다	p
초등학교	없다	96.2	3.8	.000	98.7	1.3	.000	98.9	1.1	.000
	있다	87.7	12.3		88.5	11.5		94.7	5.3	
중학교	없다	91.6	8.4	.000	98.7	1.3	.000	97.6	2.4	.000
	있다	79.6	20.4		86.8	13.2		89.1	10.9	
전체	없다	93.9	6.1	.000	98.7	1.3	.000	98.3	1.7	.000
	있다	82.7	17.3		87.5	12.5		91.3	8.7	

[표 5-3] 왕따 경험에 대한 카이검증표

구분		무단결석경험			유해장소출입경험			자살시도경험			게임중독경험		
		없다	있다	p	없다	있다	p	없다	있다	p	없다	있다	p
초등학교	없다	97.5	2.5	.091	99.8	.2%	.148	96.8	3.2	.000	97.6	2.4	.381
	있다	95.5	4.5		99.2	.8%		84.4	15.6		96.7	3.3	
중학교	없다	93.7	6.3	.000	99.7	.3%	.000	94.8	5.2	.000	96.8	3.2	.231
	있다	87.1	12.9		96.6	3.4		75.7	24.3		95.6	4.4	
전체	없다	95.6	4.4	.000	99.7	.3%	.000	95.8	4.2	.000	97.2	2.8	.104
	있다	90.3	9.7		97.6	2.4		79.0	21.0		96.0	4.0	

Abstract

Adolescents' deviant behavior has been widely spread and an age at which deviant behavior occurred has been decreased. Although political interventions for age decrease of youth deviant behavior are strongly required, political prevention or intervention programs have been focused only on mid-adolescents. Furthermore, adolescents who engaged in deviant behavior are managed by teachers' personal instructions rather than systematically supported.

According to data of juvenile delinquency of Supreme Prosecutors' Office during 2001~2011, property crime was increased 66% among 14-16 year olds. Also, violent crime was increased 76% under 13 year olds, and amplified even 5 times among 14-16 year olds for the period.

Motivation of the crimes were mostly accidental reasons, curiosity, and carelessness. It has become more intentional to obtain economic benefits (i.e. obtaining money). Since 2005, It has been increased 64 times for personal benefits, 1.9 times for allurements, 2.3 times for living expenses, 1.46 times for entertainment expenses.

This study investigated deviant behavior of early-, and mid-adolescents (upper grade in elementary school pupils, middle school pupils). Deviant behavior was examined in terms of bullying, victimization, run away from home, truancy, harmful facilities, suicide, game addiction. Results showed that anxiety,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ships, harmful environment, immoral behavior, violent experience were influential factors for deviant behaviors. Particularly, adolescents' victimization by adults, parents and neighbors

affected their deviant behavior 3 times more than other variables.

	early adolescence (upper grade in elementary school pupils)							middle adolescence (middle school pupils)						
	bullying	victimization	run away	truancy	harmful facilities	attempting suicide	game addiction	bullying	victimization	run away	truancy	harmful facilities	attempting suicide	game addiction
materialism											+		-	
anxiety	+	+	+			+		+	+		+		+	
self-esteem		+					-							-
positive parent-child relationships			-			-				-	-		-	
negative parent-child relationships			+	+			+			+				
positive peer relationships										+		-	+	
negative peer relationships	+	+						+	+					
academic stress														
academic achievement											-			-
contact to harmful environment					+		+				+	+		+
immoral behavior	+			+				+		+				+
victimization from adults, parents, neighbors	+	+	+		+			+	+	+	+	+	+	+
계	+4	+4	+3 -1	+2	+2	+1 -1	+2 -1	+4	+3	+4 -1	+4 -2	+2 -1	+3 -3	+3 -1

*: variables most influential, +: reinforcing deviant behavior, -: alleviating deviant behavior

The results indicated that factors related to deviant behavior influenced by type of behavior or age; The same event may influence differently youth depending on their age which suggest that political interventions should consider youth developmental stage.

The policy for youth deviant behavior need to primarily focus on prevention of victimization from adults, and protection and treatment of the violence. Intervention about immoral behavior, anxiety,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peer relationships, competence improvement, and harmful environment are also required.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3-R01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 이경상 · 최항섭 · 그레이스정
- 13-R02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 ·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지경 · 이광호
- 13-R0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 김현철 · 임희진 · 정효진 · 민경석
- 13-R04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 김기헌
- 13-R05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맹영임 · 길은배
- 13-R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 안선영 · 김희진 · 강영배 · 배경내
- 13-R07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영한 · 조아미 · 이승하
- 13-R08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 이창호 · 김경희
- 13-R09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전명기
- 13-R10 아동 · 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 ·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 · 윤옥경 · 조윤오
- 13-R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 · 배상률 · 성은모 · 이혜연 · 김균희 · 이용교 · 홍승혜
- 13-R1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 · 이혜연 · 배상률 · 성은모 · 김균희
- 13-R11-2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행복에 대한 부모와 자녀(청소년)의 상호기대 차이 연구 / 성은모 · 오현석 · 최윤미
- 13-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박주희
- 13-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 김승경
- 13-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질적연구보고서 / 이창호
- 13-R12-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김승경 · 박주희
- 13-R13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김영지 · 김경준 · 김지혜 · 이민희
- 13-R13-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유성렬 · 김신영
- 13-R13-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김경준
- 13-R1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IV : 사업보고서 / 이종원 · 서정아 · 황진구
- 13-R14-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1 :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 이종원

- 13-R14-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와 영향 요인: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 서정아
- 13-R14-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3 :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가지 종단분석 - / 황진구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 오해섭·박정배 (자체번호 13-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2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2013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오해섭·박정배 (자체번호 13-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3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교육분야 지원체계 구축 / 홍영란·현영섭 (자체번호 13-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 모상현·김형주·이선영 (자체번호 13-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표개발을 통한 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연구 / 최은진·김미숙·전진아 (자체번호 13-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창호·강석영·이동훈 (자체번호 13-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 김지연·황여정·이준일·방은령·강현철 (자체번호 13-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개발 / 김은지·김동식·최인희·선보영·김나연·정다운 (자체번호 13-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 / 신윤정·이상림·김윤희 (자체번호 13-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 윤철경·유성렬·김신영·임지연(자체번호 13-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자체번호 13-R18-1)

수시과제

- 13-R19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연계 방안 / 성은모
- 13-R20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13-R2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 황진구·김희진
- 13-R22 전국 청소년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영한
- 13-R23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방안 기초연구 / 윤철경·김유나

- 13-R24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임희진
- 13-R25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장근영
- 13-R26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이슈페이퍼 발간) / 이창호

수탁 과제

- 13-R27 영천시 청소년수련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김상연
- 13-R28 2013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 배상률 · 김형주 · 성은모
- 13-R29 2013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13-R30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 · 유성렬
- 13-R31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 청년문화 조성방안 연구 / 김승경
- 13-R32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최창욱
- 13-R3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 · 유성렬
- 13-R34 국립대구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세부사업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이유진 · 한상철 · 추승연 · 김상연
- 13-R35 2013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 양계민
- 13-R36 201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평가 / 김지연 · 이경상
- 13-R37 한중청소년 특별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윤철경 · 이창호 · 최금해 · 오해섭
- 13-R38 청소년국제활동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사업 / 양계민
- 13-R39 청소년가족연계서비스 구축모형 개발연구 / 서정아 · 황진구 · 조성은
- 13-R40 청소년 희망카드(가칭) 도입방안 연구 / 김경준 · 모상현
- 13-R41 2013년 성남시 청소년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 · 황진구 · 이종원
- 13-R4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BSG매니저 전문가 과정 연구용역 / 김승경 · 맹영임
- 13-R43 자유학기제 학생자율선택프로그램(농림수산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창욱 · 송병국
- 13-R44 RCY 미래전략 개발 및 참여청소년 효과성 연구 / 장근영 · 맹영임
- 13-R45 2013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배상률 · 황여정
- 13-R46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모델 개발 / 안선영
- 13-R47 유소년스포츠포츠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 / 임지연 · 장덕선
- 13-R48 휴먼네트워크 멘토링의 효과성 및 사회경제적 가치분석 연구 / 성은모 · 이주석
- 13-R49 2013년 또래조정사업 (2014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 · 김지경 · 김지연 · 이종원
- 13-R50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성은모 · 최창욱
- 13-R51 대구광역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김형주 · 배상률 · 강영배 · 김정주 · 김혁진 · 이은미
- 13-R52 학생모니터단 운영 (2014년 2월 발간예정) / 오해섭 · 김경준 · 김영지
- 13-R53 학교문화개선연구선도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 · 오해섭 · 김영지

- 13-R54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해연
- 13-R54-1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해연
- 13-R54-2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3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4 외국의 학생인권 법령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4-5 교사용 인권교육자료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5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초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현철 · 김희진 · 김인아 · 김재근 · 김정희
- 13-R55-1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중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현철 · 김영지 · 김희진 · 송인숙 · 표혜영
- 13-R55-2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고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희진 · 김영지 · 김현철 · 박정수 · 박지만 · 오수정
- 13-R56 디지털교과서 ·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시계열효과 분석연구 (2014년 2월 발간예정) / 장근영 · 김형주
- 13-R57 학업중단 학생 교육 지원 (2014년 6월 발간예정) / 김영지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3-S01 인성교육실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학교규칙 및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1/28~29)
- 13-S02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 (1/7~8)
- 13-S03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I (1/7~8)
- 13-S04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설문지 제작 워크숍 (2/5)
- 13-S05 NYPI 기획세미나 -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 외국 사례와 방향성 모색 (2/21)
- 13-S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 전문가 워크숍 (2/21)
- 13-S07 NYPI 기획세미나 방송과 청소년보호 (2/28)
- 13-S08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2/13)
- 13-S09 2012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청소년의 행복을 묻는다 : 성장 환경과 발달 모습 (3/20)
- 13-S10 후기청소년세대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 (4/10)
- 13-S11 제2차 2012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 청소년 역량 개발 방향성 모색 : 체험활동과 인프라 조성 - (4/18)
- 13-S12 탈북청소년 연구동향 및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 (4/9)
- 13-S13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 · 선도학교 워크숍 (4/29, 30)
- 13-S14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 · 선도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9)
- 13-S15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5/21)
- 13-S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6/1)
- 13-S17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세미나 (5/22)
- 13-S18 대안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5/24)
- 13-S19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6/1)
- 13-S20 해외 이슈배경 청소년정책과 한국사회에의 함의 (6/3)

- 13-S21 2013년 미래환경변화전망에 따른 청소년 정책의과제 I 콜로키움 자료집 : 미래에 대한 접근 (6/4)
- 13-S2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 워크숍 (6/11)
- 13-S23 201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사건가 분석 (6/21)
- 13-S24 NYPI 개원 24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7/3)
- 13-S25 2013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잠재성장모형 분석 (7/14)
- 13-S26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한 청소년체험활동의 연계방안 (7/5)
- 13-S27 청소년상담의 이해와 상담기법 (8/5~7)
- 13-S28 입양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6/18)
- 13-S29 독일·프랑스·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7/5)
- 13-S30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센터 관계자 간담회 (7/17, 19)
- 13-S31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모니터링 위원 간담회 (7/22)
- 13-S32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1 : 교육단계 (7/23)
- 13-S33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2 : 직훈단계 (7/24)
- 13-S34 2013년도 진로교사 심화연수 - 청소년상담 기법(C-4) (7/29~31)
- 13-S35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하계연수 (7/22~25)
- 13-S36 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8/29)
- 13-S37 제2차 학교문화개선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9/9~10)
- 13-S38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지원체계 구축 전문가 워크숍 (9.13~14)
- 13-S39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 워트숍 (9/27)
- 13-S40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 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 13-S41 유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10/15)
- 13-S42 STATA를 이용한 패널데이터 분석방법 (10/16)
- 13-S43 스티그마의 이해와 대응전략 (10/24)
- 13-S44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11/18)
- 13-S45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초안) 시범운영 결과 검토 워크숍 (10/25)
- 13-S46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11/14)
- 13-S47 한-중 국제세미나 (11/19)
- 13-S48 2013 아동·청소년 권리 학술대회 (11/27)
- 13-S49 청소년 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11/26)
- 13-S50 RCY 미래전략 및 발전방향 탐색 (11/29)
- 13-S51 자유학기제, 지역사회에서 길을 찾다 (11/28)
- 13-S52 210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패널 데이터의 가중치 산출 및 활용 (12/17)
- 13-S5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II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정책협의회 및 전문가 워크숍 (12/16)
- 13-S5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12/13)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1호(통권 제6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69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70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제71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2호 : 부모 비동거 대학재학생의 주거유형 및 주거비부담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3호 :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4호 : 청소년참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5호 :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6호 :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7호 :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8호 :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9호 :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0호 :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7호 : 201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8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9호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0호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년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1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2호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실태와 체험활동의 효과

연구보고 13-R07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인 쇄 2013년 12월 24일

발 행 2013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정보자료·전산보안팀)

ISBN 978-89-7816-677-5 93330